# 제6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6

"한국인의 기부지수 발표 및 미래세대를 나눔의 세대로 키우기 위한 전략"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 Giving Culture "Giving Korea 2006"

National Survey on Giving in Korea and
Key Strategies to Create Tomorrow's Philanthropists

아름다운북

# 제6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 기빙코리아 2006
# "한국인의 기부지수 발표 및 미래세대를 나눔의 세대로 키우기 위한 전략"

- 일　　시 : 2006년 11월 8일 수요일
- 장　　소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 주　　관 : 아름다운재단, 유한킴벌리
- 주　　최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협　　찬 : 한양대학교, (주)리서치 앤 리서치, 오크우드프리미어 코엑스센터

#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ving Culture - Giving Korea 2006

National Survey on Giving in Korea
and
Key Strategies to Create Tomorrow's Philanthropists

November 8, 2006
Paiknam Academic Information Ceter & Library,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Hanyang University

- Co-Host : The Beautiful Foundation & Yuhan-Kimberly, Co. LTD.
- Organizer: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 Sponsors: Hanyang University, Research&Research, Inc., Oakwood Hotel

# 행사순서

| 시 간 | 프로그램 | 진행 및 강연자 |
|---|---|---|
| 9:30- 10:00 | 등록 | 사회 : 이정이 (아름다운재단 모금팀장) |
| 10:00-10:30 | 개회사 | 예종석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장,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 | 환영사 I | 최찬순 (유한킴벌리 대외협력실 부장) |
| | 환영사 II | 박상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
| **1 부 : 유한킴벌리 GIVING INDEX - 2005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결과 발표 & 유럽의 기부문화 전통 및 현황 발표** | | |
| 10:30-11:40 | 2005년도 한국인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 조사결과 발표<br>& 한국인의 나눔노력에 관한 연구 |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
| 11:40-11:50 | 네트워킹 & 휴식 | |
| 11:50-12:30 |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부와 자선행위<br>- 전통과 경향에 관한 발표 | Theo N.M. Schuyt (Professor,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네덜란드) |
| 12:30-12:50 | 패널발표 | 박성연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br>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 12:50-13:00 | Q&A | |
| 13:00-14:15 | 점심 식사 및 Networking Break | |
| **2 부 :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 미래세대를 나눔의 세대로 키우기 위한 전략** | | |
| 14:15-15:00 | 나눔의 세대를 키우는 나눔교육의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15:00-16:00 | 기부 선진국, 미국의 나눔교육<br>- AFP의 청소년 나눔교육(YIP)사례 중심으로 | Katherine Falk<br>(Chair, AFP's Youth in Philanthropy Task Force, 미국) |
| 16:00-16:20 | 패널 발표 | 홍순혜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교수),<br>최병훈 (두레학교 교사, 아름다운재단 나눔교육연구회) |
| 16:20-16:30 | Q&A | |
| 16:30 | 폐회 | |

# 자료목차

개회사 _ 예종석 ····· 5

환영사 _ 박상증 ····· 6

**SESSION 1 _ 유한킴벌리 GIVING INDEX 2005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결과 발표 & 유럽의 기부문화 전통 및 현황 발표** ····· 7

유한킴벌리 GIVING INDEX 조사결과 보고서 ····· 9

한국인의 나눔 노력에 관한 연구, 강철희 ····· 59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부와 자선행위 – 전통과 경향, Theo Schuyt ····· 85

**SESSION 2 _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 미래세대를 나눔의 세대로 키우기 위한 전략** ····· 101

나눔의 세대를 키우는 나눔교육의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미옥 ····· 103

기부 선진국, 미국의 나눔교육 – AFP의 청소년 나눔교육(YIP)사례를 중심으로, Katherine Falk ····· 129

**부록** ····· 141

부록 1. GIVING INDEX 설문지
부록 2. Philanthropy in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Tradition and Trends _Theo Schuyt
부록 3. Youth in Philanthropy, A Growing Movement _Katherine Falk
부록 4. Members of the AFP YIP Task Force
부록 5. Youth In Philanthropy Program of AFP New Jersey Chapter

**제6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11월 8일 수요일

# 개회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장 예 종 석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장 예종석입니다.
오늘, 아름다운재단이 제 6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 기빙코리아 2006을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창립 6주년을 맞은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의 나눔의 문화를 확산할 뿐 아니라 기부의 선진화, 과학화를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 다양한 시도와 지속적인 연구를 펼쳐 왔습니다. 특히 2001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 기빙코리아 2006은 우리사회의 기부문화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선진화된 기부문화를 소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들을 펼쳐 왔습니다.

이번 기빙코리아 2006은 "**한국인의 기부 지수 발표 및 미래세대를 나눔의 세대로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조사와 연구를 소개하게 됩니다.
1부에서는 2005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기부현황과 인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더불어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의 기부문화 전통 및 기부 현황에 관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Vrije Universteit Amsterdam, Netherlands)의 테오 슈이츠(Theo Schuyts) 교수님을 모시고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부에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 청소년들을 나눔의 세대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국내에서 이루어진 나눔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에 관한 실험연구의 결과들이 소개되며, 또한 기부선진국인 미국 사회에서 청소년 나눔교육의 모범적 사례로 꼽히는 에이에프피(AFP) 청소년 나눔교육의 활동 사례가 케서린 포크(Katherine Falk) 의장에 의해 소개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와 주신 해외 연사분들과 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의미 있는 연구를 해 주신 모든 연구자님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패널 발표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2002, 2004년에 이어 기빙코리아를 공동 주최하며 한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주)유한킴벌리와 장소를 제공해주신 한양대학교, 한국인의 기부지수 설문조사를 위해 지원해 주신 (주)리서치 앤 리서치 그리고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을 후원해주신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호텔과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부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사회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번 국제기부문화심포지움-기빙코리아 2006이 작지만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11월8일 수요일

# 환영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 상 증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상증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코리아(GIVING KOREA) 2006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비영리 재단으로 2000년 8월 창립되어 그동안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지난 6년을 뒤돌아보면 우리사회의 기부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자선기부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기업들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놀랄 만큼 확대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부와 봉사의 양적인 증대에 걸맞는 성숙한 기부문화와 철학은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기빙코리아 2006은 참으로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 사회의 기부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성숙한 기부문화가 자리 잡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나눔 문화 확산 전략뿐 아니라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나눔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눔교육의 의미와 가치는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고 아름다운재단에서도 2004년 이후 나눔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미래세대를 나눔의 세대로 키우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행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재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한국을 직접 방문해 주신 해외연사들과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국내의 여러 연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한킴벌리, 후원해주신 한양대학교와 리서치 앤 리서치, 호텔 Oakwood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사의 뒤편에서 수고해 주신 자원 활동가 여러분들 역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우리나라에 보다 성숙한 기부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는 아름다운재단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며,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참여와 실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 믿기에 오늘 이 행사가 우리 사회의 성숙한 기부문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기빙코리아 2006

# SESSION 1

# 유한킴벌리 Giving Index : 2005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결과 발표 & 유럽의 기부문화 전통 및 현황 발표

유한킴벌리 GIVING INDEX : 2005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 조사기관 (주) 리서치 앤 리서치
- 조사설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연구자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유한킴벌리 Giving Index 2005년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설계 및 진행
3. 표본추출방법
4. 응답자 특성표
5. 통계표 보는 법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제 3 장. 조사결과 분석**

1. 200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2. 2005년 기부 참여 여부
3. 기부의 이유
4. 기부동기 외에 기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5. 기부하지 않은 이유(비기부자 한정)
6. 향후 1년 내 기부 의향
7.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
8. 단체/시설/기관 기부시 고려사항
9. 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
10. 기부시 문제해결 희망 단위(범위)
11. 유산 일부 기부 의향
12. 유/초/중/고등학교 시절 경험
13. 나눔 교육 동의 정도
14.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기여 및 역할에 대한 인식
15.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
16. 민간이 참여(나눔실천)하여 해결이 필요한 문제
17. 시설/기관/단체별 신뢰도
18. 2005년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
19. 2005년 배우자 기부 금액

# 1. 조사의 목적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및 자원봉사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향후 기부활동 관련 정책방안 모색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2. 조사의 설계 및 진행

| | |
|---|---|
| 조 사 대 상 | ■ 전국(제주 제외)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
| 표 본 수 | ■ 1,005명 |
| 표 본 오 차 | ■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 |
| 조 사 방 법 | ■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 표 본 추 출 | ■ 1단계 : 다단계 지역추출법 – 조사지점 선정<br>■ 2단계 : 할당표본추출법 – 응답자 선정<br>☞ '3절. 표본추출방법' 에서 별도 설명 |
| 조 사 기 간 | ■ 2006년 7월 10일 ~ 8월 11일 |
| 조 사 기 관 | ■ (주)리서치 앤 리서치(R&R; 대표 노규형) |

# 3. 표본추출방법

## 1단계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

■ 지역별 층화

– 전국을 7개 광역시와 8개 도(제주도 제외)로 나누고, 도는 다시 시, 읍, 면으로 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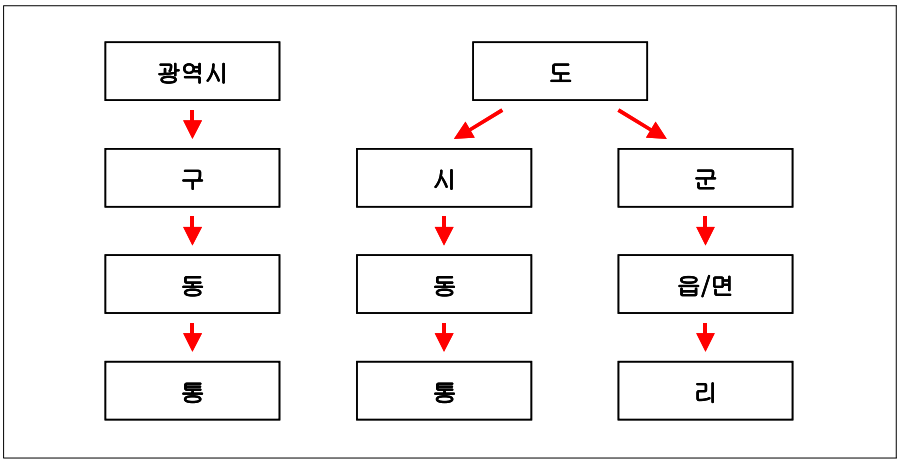
■ 인구수 비례 할당

– 층화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 지역 당 조사지점(sampling point)의 수 계산(조사지점당 10명 조사 원칙).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

–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조사지점인 통/리를 무작위로 선정

☞ 이러한 과정은 R&R Sampler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짐



## 2단계 :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

■ 최종 응답자는 조사지점에서 성별·연령대별 인구비례 층화할당을 통해 선정.

# 4. 응답자 특성표

| | | 사례수 | % |
|---|---|---|---|
| 전 체 | | 1,005 | 100.0% |
| 성 별 | 남 자 | 496 | 49.4% |
| | 여 자 | 509 | 50.6% |
| 연 령 | 19 ~ 29 세 | 223 | 22.2% |
| | 30 대 | 240 | 23.9% |
| | 40 대 | 227 | 22.6% |
| | 50 대 이 상 | 315 | 31.3% |
| 학 력 | 중 졸 이 하 | 148 | 14.8% |
| | 고 졸 | 416 | 41.4% |
| | 대 재 이 상 | 436 | 43.4% |
| 직 업 | 농 / 임 / 어 업 | 21 | 2.1% |
| | 자 영 업 | 255 | 25.4% |
| | 블 루 칼 라 | 191 | 19.0% |
| | 화 이 트 칼 라 | 279 | 27.8% |
| | 주 부 | 147 | 14.6% |
| | 학 생 | 84 | 8.4% |
| | 무 직 / 기 타 | 27 | 2.7% |
| 거 주 지 | 서 울 | 218 | 21.7% |
| | 인 천 / 경 기 | 271 | 27.0% |
| | 부산 / 울산 / 경남 | 166 | 16.5% |
| | 대 구 / 경 북 | 109 | 10.8% |
| | 광 주 / 전 라 | 108 | 10.7% |
| | 대 전 / 충 청 | 103 | 10.2% |
| | 강 원 | 30 | 3.0% |
| 거주지규모 | 대 도 시 | 483 | 48.1% |
| | 중 소 도 시 | 336 | 33.4% |
| | 읍 / 면 지 역 | 186 | 18.5% |
| 결 혼 상 태 | 미 혼 | 259 | 25.8% |
| | 기 혼 | 692 | 68.9% |
| | 이 혼 / 사 별 | 52 | 5.2% |

| | | 사례수 | % |
|---|---|---|---|
| 전 체 | | 1,005 | 100.0% |
| 종 교 | 불 교 | 223 | 22.2% |
| | 기 독 교 | 219 | 21.8% |
| | 천 주 교 | 90 | 9.0% |
| | 기 타 | 3 | 0.3% |
| | 없 음 | 460 | 45.5% |
| 개 인 소 득 | 49만원 이하 | 249 | 24.8% |
| | 50~99만원 | 85 | 8.4% |
| | 100~199만원 | 301 | 30.0% |
| | 200만원 이상 | 367 | 36.6% |
| | 모 름 | 2 | 0.2% |
| 가 구 소 득 | 99만원 이하 | 32 | 3.2% |
| | 100~199만원 | 141 | 14.0% |
| | 200~299만원 | 270 | 26.9% |
| | 300만원 이상 | 558 | 55.6% |
| | 모름/무응답 | 4 | 0.4% |
| 거 주 형 태 | 자 가 | 780 | 77.6% |
| | 전 세 | 194 | 19.3% |
| | 월세/기타 | 32 | 3.2% |
| 가 구 원 수 | 1 명 | 61 | 6.1% |
| | 2 명 | 124 | 12.3% |
| | 3 명 | 195 | 19.4% |
| | 4 명 | 461 | 45.8% |
| | 5 명 이 상 | 165 | 16.4% |

# 조사결과 요약

### ▣ 2005년 기부

▶ 기부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8.6%로 전체의 3분의 2 가까이 나타남. 이는 2001년(48.0%), 2003년(64.3%)보다 상승한 수치임.

▶ 2005년 국민 1인당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 기부 금액(물품포함)은 평균 70,305원으로 2003년(57,859원)보다 약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부 경험자에 한정할 경우, 2005년도 '건수별' 기부 금액은 58,490원, '개인별' 기부 금액은 102,550원으로 나타나, 2003년(각각 61,860원, 90,401원)과 비교할 때 건수별 금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개인별 기부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새롭게 추가된 조사 항목인 경조사비 지출에 관한 응답은, 2005년 경조사비 지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4.2%였으며, 경조사비 비용은 20~49만원(39.2%)이 가장 많이 나타나, 경조사비 지출 규모가 자선적 기부액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 2005년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05년 24.7%로 2003년(16.8%)보다 증가하였음.

▶ 2005년 국민 1인당 종교적 봉사활동을 제외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9.58시간으로 2003년의 7.38시간보다 29.8% 증가한 수치를 보임.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한정하면, 2005년 '건수별' 자원봉사활동 평균 시간은 26시간으로,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평균 시간은 38.8시간이었음. 이는 2003년(건수별: 34.3시간, 개인별: 44.7시간)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임.

### ▣ 나눔교육 및 유산 기부

▶ 나눔교육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96.4%가 '나눔교육이 중요하다' 고 응답하였음.

▶ 나눔교육이 이루어지는 경로에 대한 동의 정도에 있어서는 '언론/방송에서 나눔실천 프로그램 / 캠페인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96.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나눔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93.7%), '나눔교육 부모 /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91.9%), '나눔실천 강조 직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87.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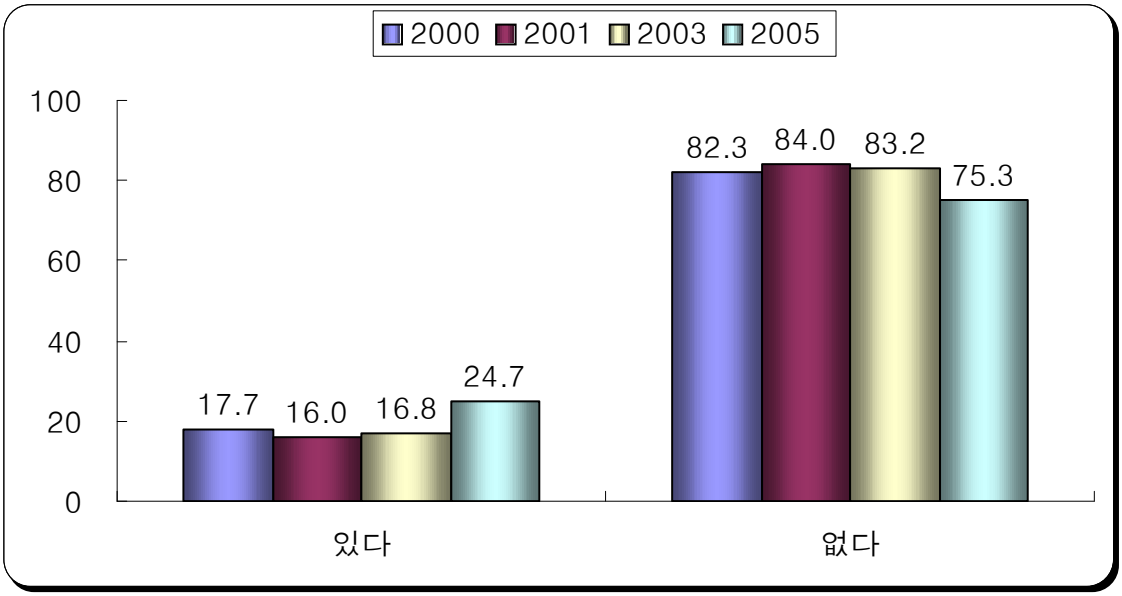
▶ 한편, 유산의 일부를 기부할 의향에 대한 응답은 '있다' 가 25.7%, '없다' 는 응답이 68.8%로 나왔고 전체 유산의 어느 정도를 기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10%이상~30%미만' 이라는 응답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조사결과 분석

## 1. 200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문)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5년 1월부터 12월 사이 [보기카드 1과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2005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참여한 적이) 있다'가 24.7%로 나타남.
- 2001년 16.0%, 2003년 16.8%에 비해 2005년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0대(30.6%), 학생(35.7%), 부산/울산/경남 거주자(31.3%), 기독교(31.0%) 및 천주교(36.8%) 신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없다'는 응답은 중졸 이하(82.1%), 무신론자(82.2%), 가구소득 100만원~199만원 이하(82.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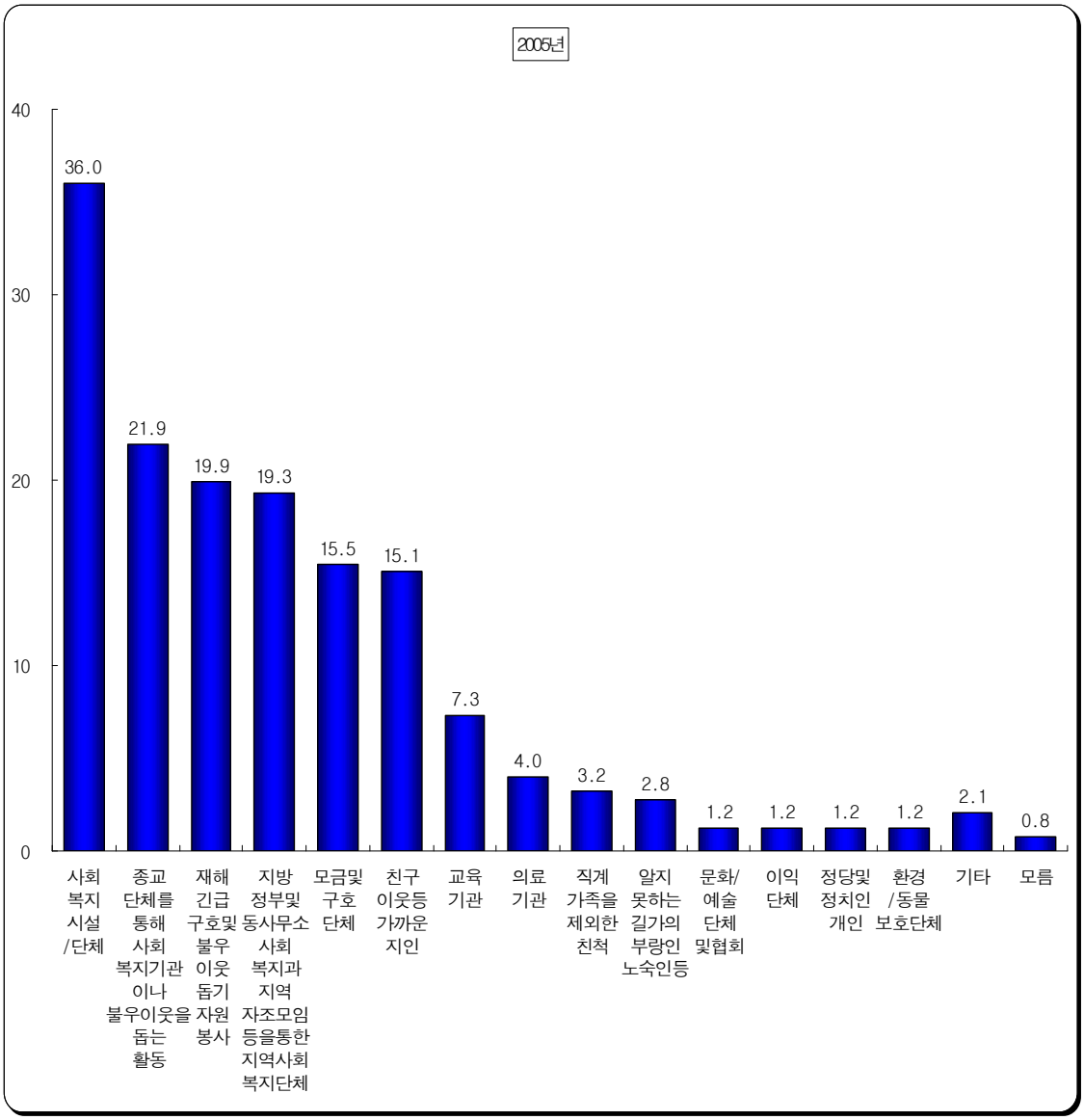
# 1-1. 2005년 자원봉사활동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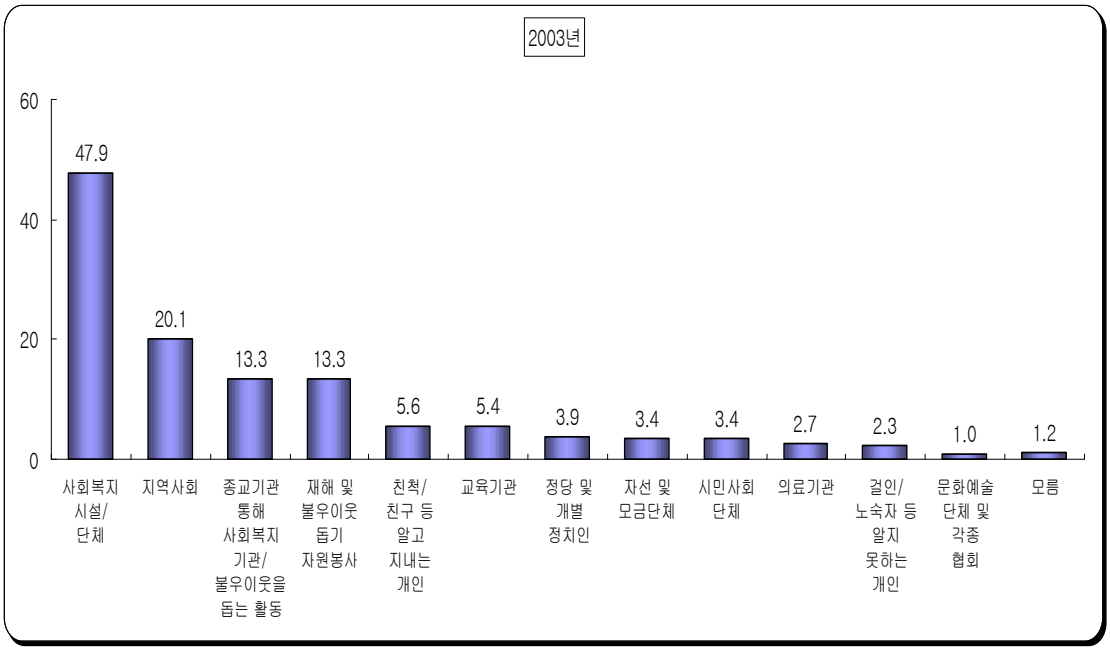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05년 1월~12월)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 247명의 자원봉사활동 장소로는 '사회복지시설/단체'(36.0%)가 가장 높았고,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21.9%)이 두 번째로 높았음(중복응답; n=247).

– 한편, '사회복지 시설/단체'는 2003년(47.9%)에도 가장 높은 자원봉사 장소로 나타난 바 있음.

☞ [참고] 본 조사의 설문은 회의를 통해 2004년 조사의 설문에서 다소 수정되었음. 이와 같이 수정된 설문항은 기존조사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그래프를 제시할 때 본 조사 결과와 기존조사 결과를 각각 분리하여 제시함. 이는 본 문항을 포함하여, 모든 문항에 적용됨.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사회복지 시설/단체' 는 20대(55.3%), 대재이상(44.3%), 학생(56.9%), 인천/경기(49.2%) 거주자, 미혼자(50.9%), 개인소득 49만원 이하(4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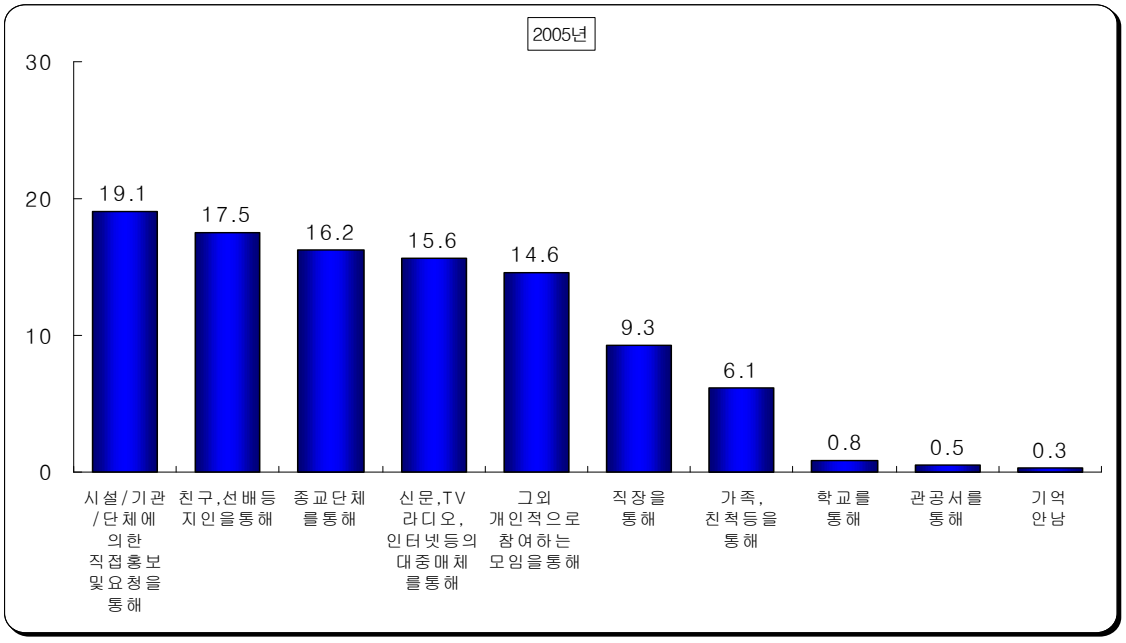
▷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 은 인천/경기지역 거주자(35.1%), 기독교(40.7%) 및 천주교(47.9%) 신자, 가구소득 99만원 이하(59.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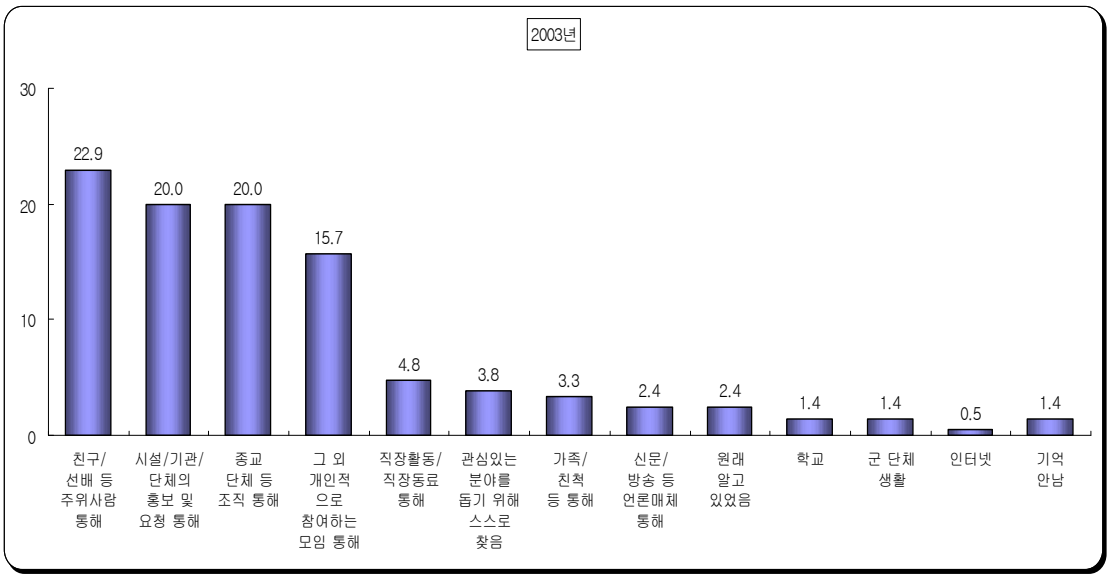
## 1-2. 2005년 자원봉사활동 장소 인지 경로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 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하나씩만 말씀해주십시오.**

◉ 자원봉사활동 장소를 알게 된 경로로는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서' 가 1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 선배 등 지인을 통해서' (17.5%), '종교단체를 통해서' (16.2%) 등이 뒤를 이음(response base; n=377).

☞ [참고] response base란 모르겠다, 무응답 등을 제외하고, 응답이 나온 총 항목 수를 기준(분모)으로 하여 각각의 응답(분자)들을 나누어 계산함. 본 문항에서 응답 나온 총 항목 수는 377개임.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홍보 및 요청을 통해서' 라는 응답은 50대 이상(32.1%), 주부(27.6%), 서울(28.2%), 광주/전라(33.3%) 및 대전/충청(35.7%) 거주자, 대도시(24.8%) 거주자, 불교(29.3%), 가구소득 200만원~299만원(26.8%), 거주형태는 자가(2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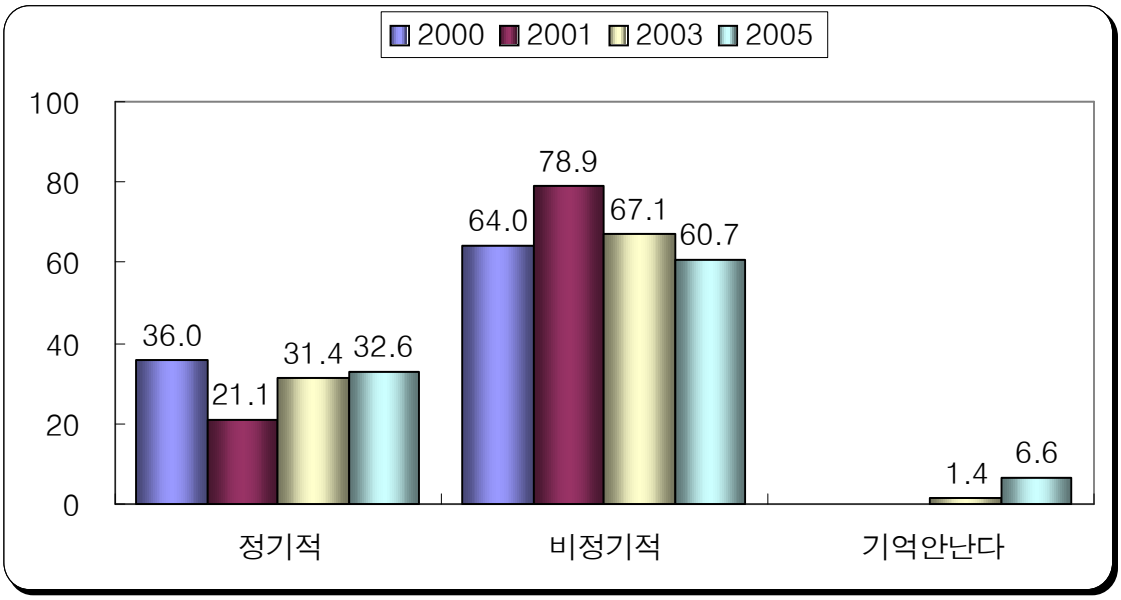
▷ '친구나 선배 등 지인을 통해서' 라는 응답은 대재이상(21.8%), 대도시(22.4%) 거주자, 미혼자(25.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신문,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라는 응답은 인천/경기 거주자(36.8%), 거주형태 자가(18.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1-3. 2005년 자원봉사활동 정기성 여부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은 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 자원봉사활동의 정기성 여부를 물은 결과, '정기적' 이 32.6%로 나타남(response base; n=377).
- 본 조사의 정기적 봉사 비율(32.6%)이 2001년 조사(31.4%)보다 높게 나타남.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정기적' 이라는 응답은 기혼자(35.7%), 개인소득 200만원 이상(40.4%),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3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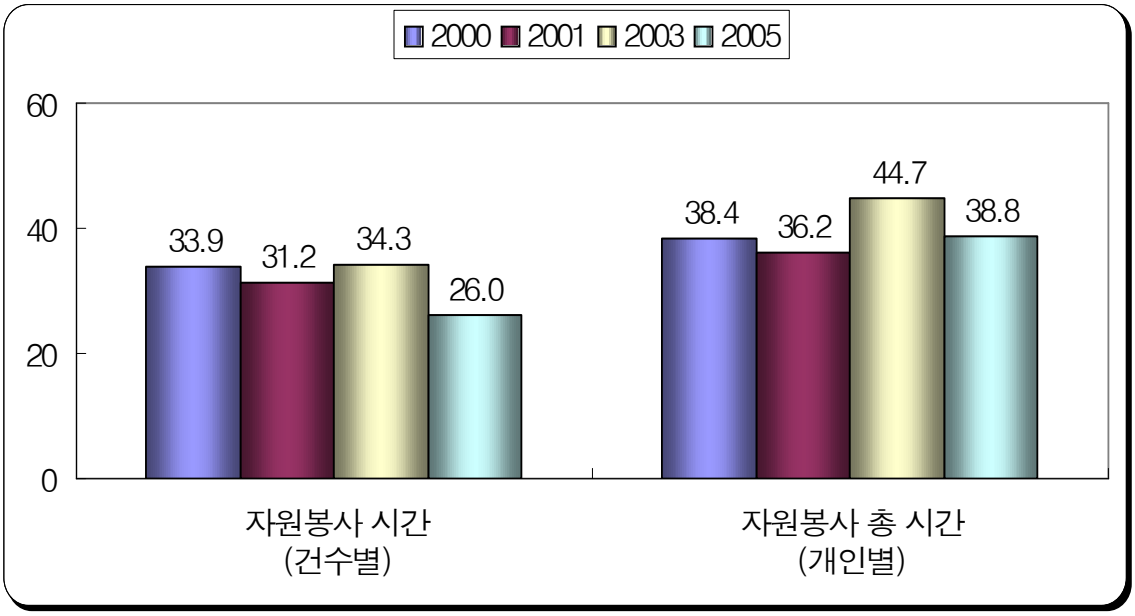
▷ '비정기적' 이라는 응답은 학생(81.6%), 대전/충청(82.1%) 거주자, 읍/면 거주자(73.2%), 미혼자(73.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4. 2005년 자원봉사활동 시간

**문) 작년 한 해 동안(2005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 참여자에 한정할 경우, '자원봉사활동 건수별' 평균시간은 "26.0시간"으로 2003년(34.3시간)보다 8.3시간 감소하였고,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평균시간은 "38.8시간"으로 2003년(44.7시간)보다 5.9시간 감소하였음.

- 국민 1인당 자원봉사활동 평균시간은 "9.58시간"으로 2003년 "7.38시간"보다 27.6%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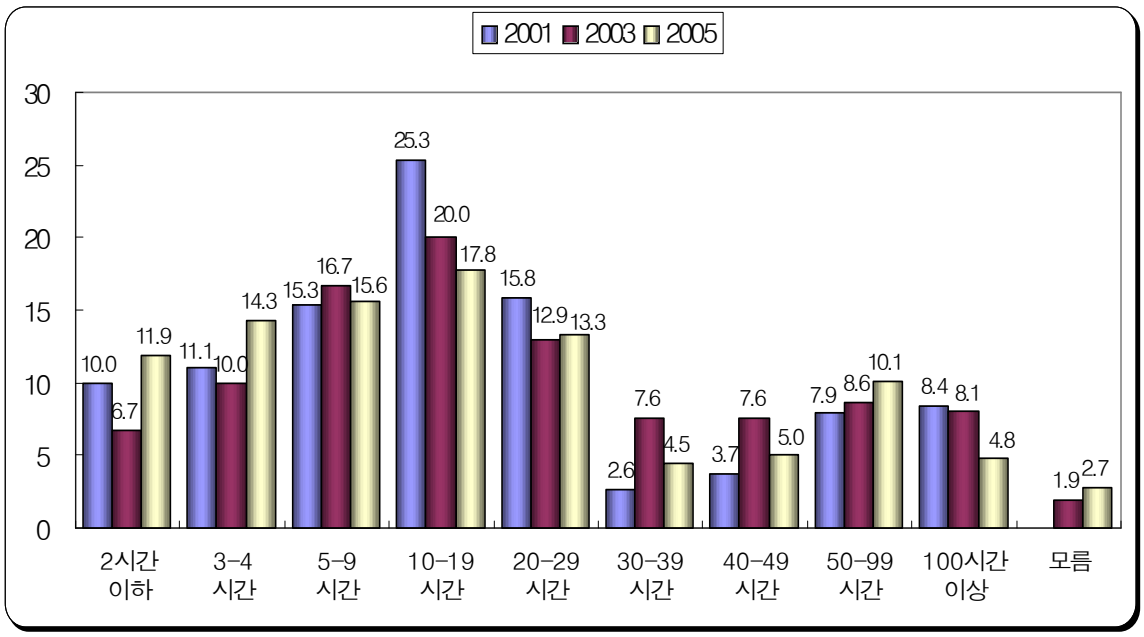



**<그림> 자원봉사활동 평균시간**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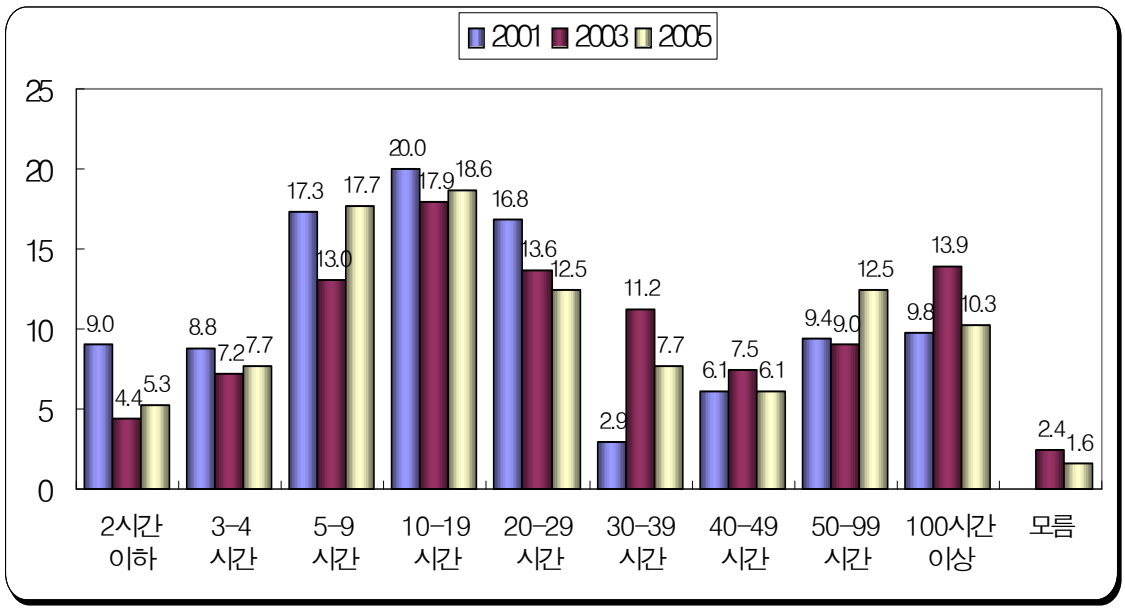
▷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인천/경기(53.0시간)지역 거주자임.

◉ 한편, 건수별로는 '10~19시간'이 17.8%로 가장 높았고, '5~9시간'이 15.6%로 두 번째로 높았음.




**<그림> 자원봉사활동 시간(건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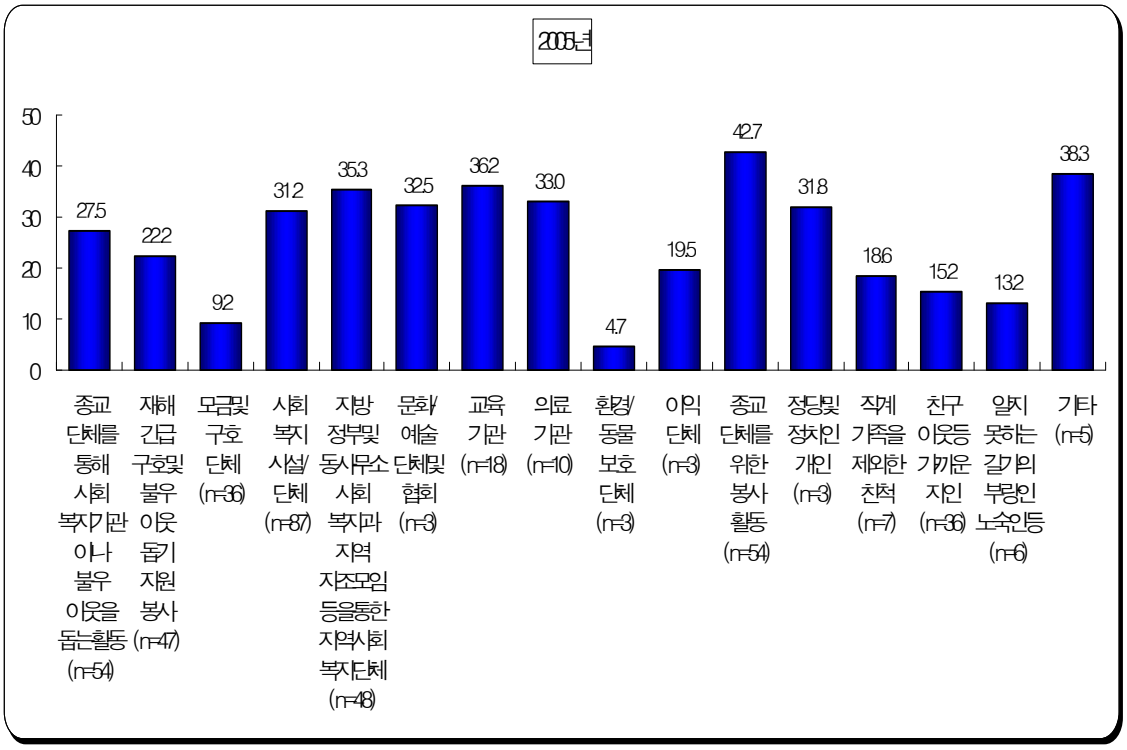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개인별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10~19시간'이 18.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5~9시간'(17.7%), '20~29시간' 및 '50에서 99시간'(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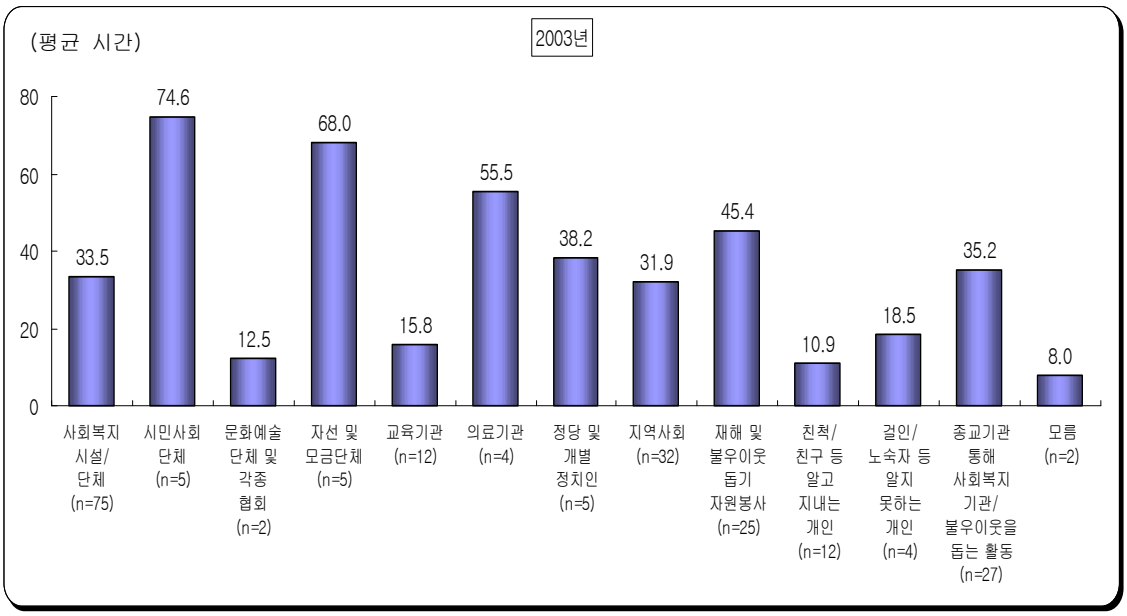

**<그림> 자원봉사활동 시간(개인별)**

◉ 자원봉사처별로 살펴보면,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n=244) 38.8시간, '교육기관' (n=18) 36.0시간, '지방정부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지역자조모임등을 통한 지역사회복지단체' (n=45) 35.4시간, '사회복지시설/단체' (n=87) 31.8시간 등으로 나타남.

– 여타 봉사처의 경우 표본수가 10미만으로 상당히 적어,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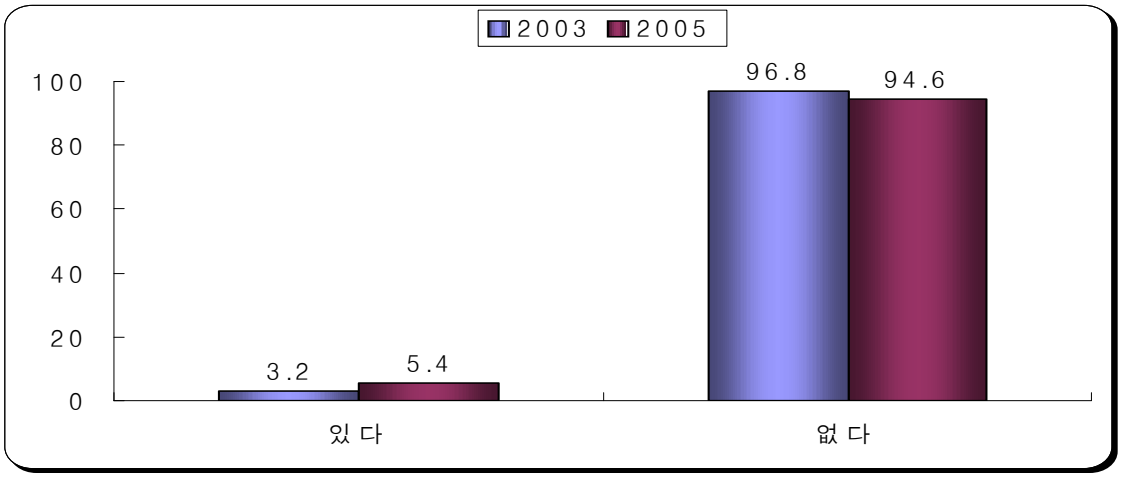

**<그림> 자원봉사처별 활동시간(평균)**



# 1-5. 2005년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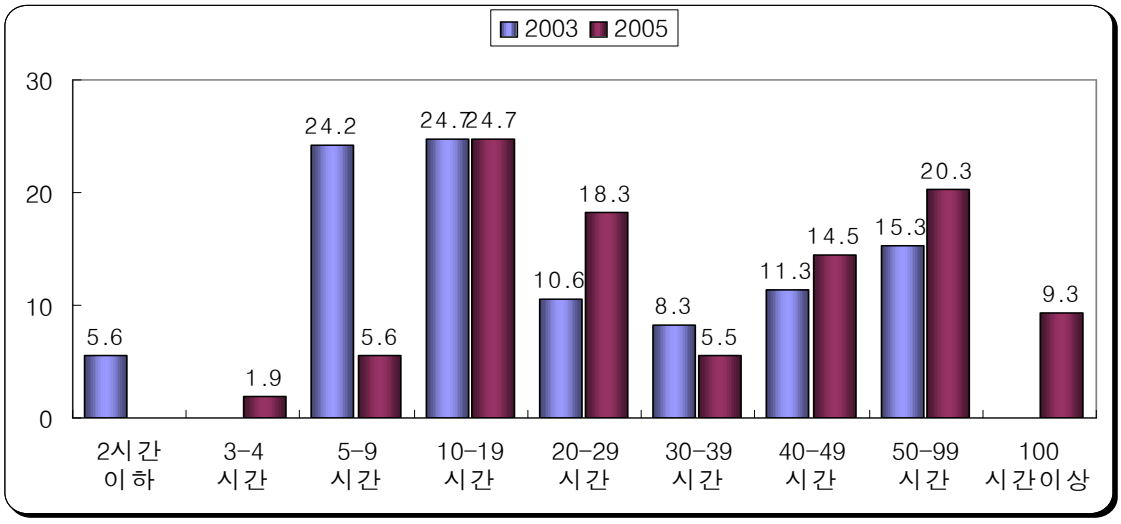
문) 작년 한 해 동안(2005년 1월~12월) 종교기관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 작년 한 해 동안(2005년 1월~12월) 그 종교기관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 2005년에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1,005명 중 5.4%로 작년보다 2.2% 포인트가 증가되었음.




〈그림〉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율

◉ 종교단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54명에 한정하여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10~19시간'(24.7%)과 '50~99시간'(20.3%)이 높게 나타남(n=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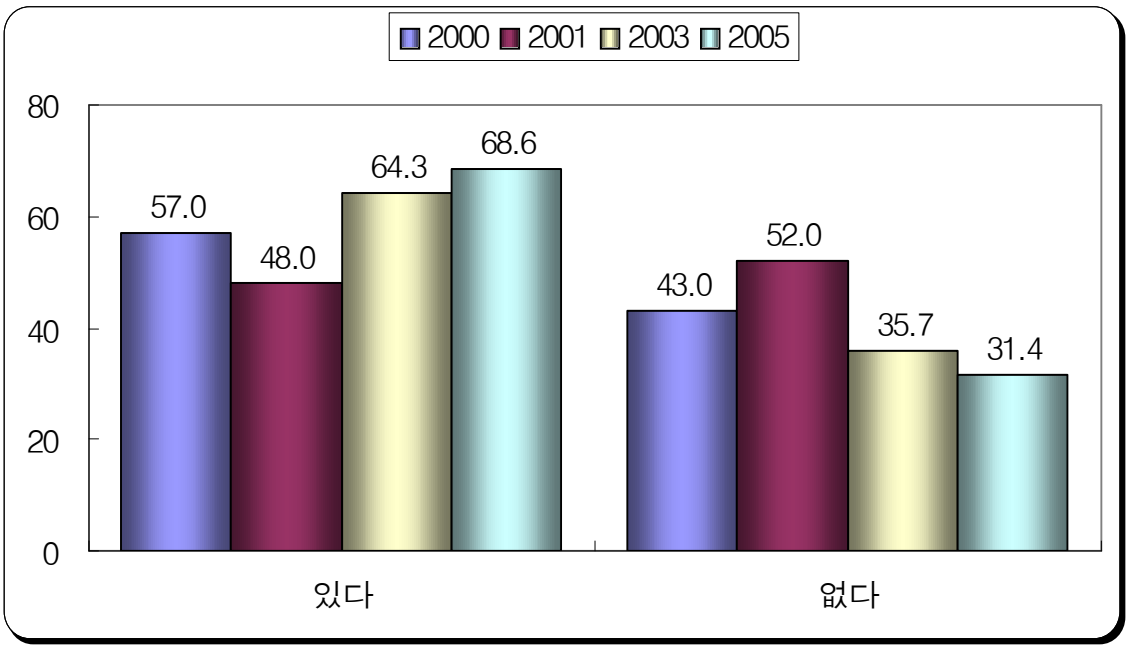



〈그림〉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시간

# 2. 2005년 기부 참여 여부

**문)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5년 1월부터 12월 사이 [보기카드 2와 같은 곳에] '기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걸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광범위하게 생각해주십시오.**

◉ 2005년 기부를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있다'는 응답이 68.6%로 나타남.
- 이는 2001년(48.0%)과 2003년(64.3%) 조사에 비해 각각 20.6%포인트 및 4.3%포인트가 증가한 것임.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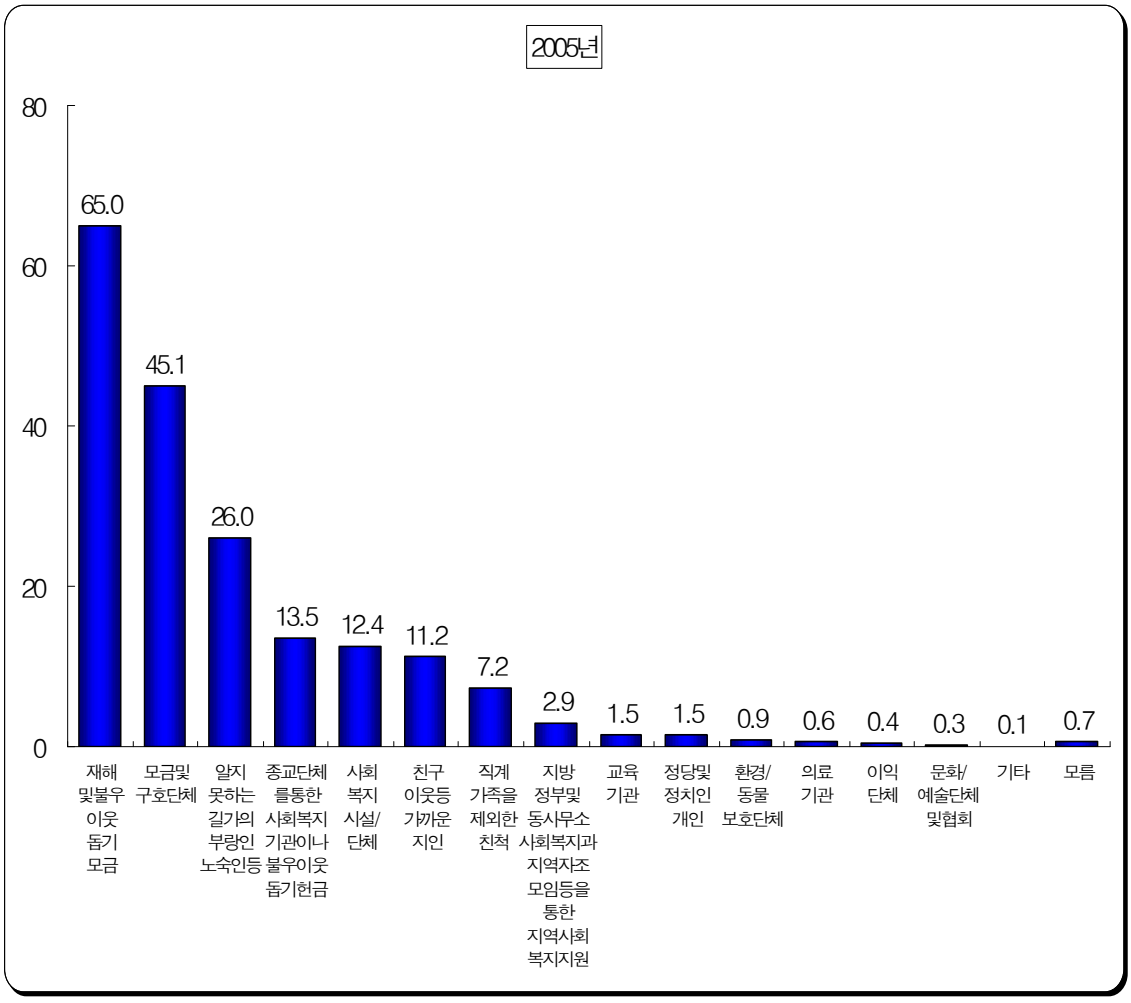
▷ '있다'는 응답은 여성(71.7%), 40대(74.6%), 자영업(76.2%) 및 화이트칼라(74.1%) 종사자, 인천/경기 거주자(77.6%), 기혼자(72.4%), 개인소득 200만원 이상(7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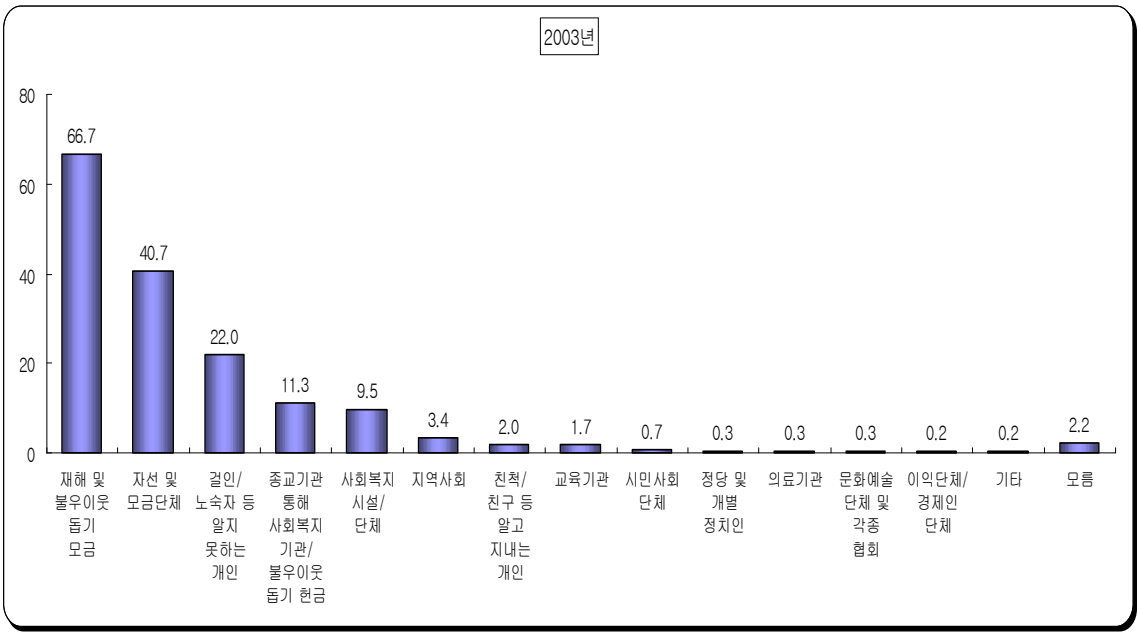
▷ '없다'는 응답은 남성(34.7%), 20대(43.2%), 학생(53.5%), 서울(37.2%) 및 대전/충청 거주자(43.0%), 미혼자(43.0%), 무신론자(36.2%), 개인소득 49만원 이하(40.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2-1. 2005년 기부처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05년 1월~12월) '기부 활동'을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기부 참여자 688명이 기부한 곳으로는 '재해 및 불우이웃 돕기 모금'이 65.0%로 가장 높았고, '모금 및 구호단체'(45.1%),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등'(26.0%)의 순으로 뒤를 이었음(n=688).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재해 및 불우이웃 돕기 모금' 은 30대(73.5%), 화이트칼라(70.7%), 부산/울산/경남(73.6%) 거주자, 미혼자(7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모금 및 구호단체' 는 대구/경북(60.3%) 및 광주/전라(69.7%)거주자, 읍/면지역(61.7%), 기혼자(51.1%), 가구소득이 100~199만원(61.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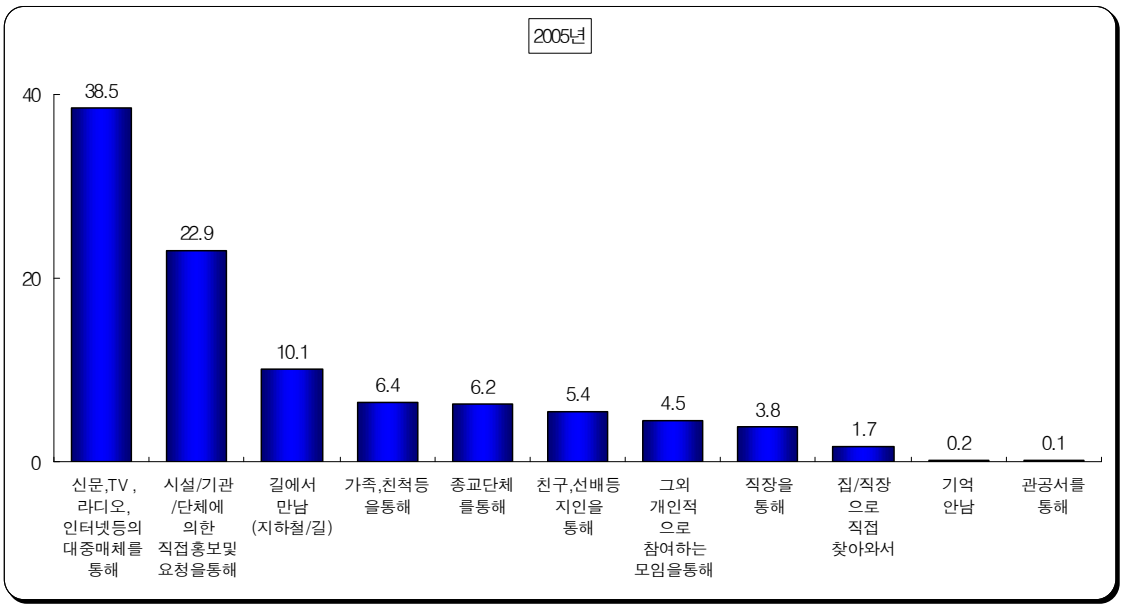
▷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 은 서울(32.8%) 및 인천/경기(40.5%) 거주자, 대도시(30.7%),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30.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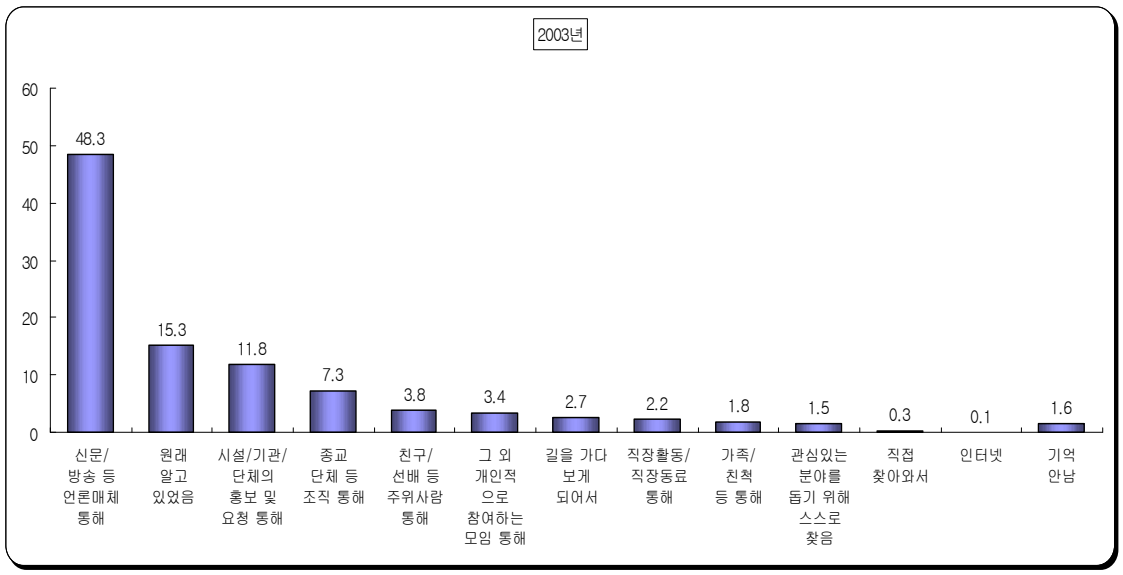
# 2-2. 2005년 기부처 인지 경로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하나씩만 말씀해주십시오.**

◉ 기부한 곳을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서 '신문,TV,라디오,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홍보 및 요청을 통해서'(22.9%), '길에서 만남(지하철/길)'(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response base; n=1,303).

- 언론매체는 2003년(48.3%) 조사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홍보 및 요청은 지난 2003년(11.8%) 조사보다 11.1%포인트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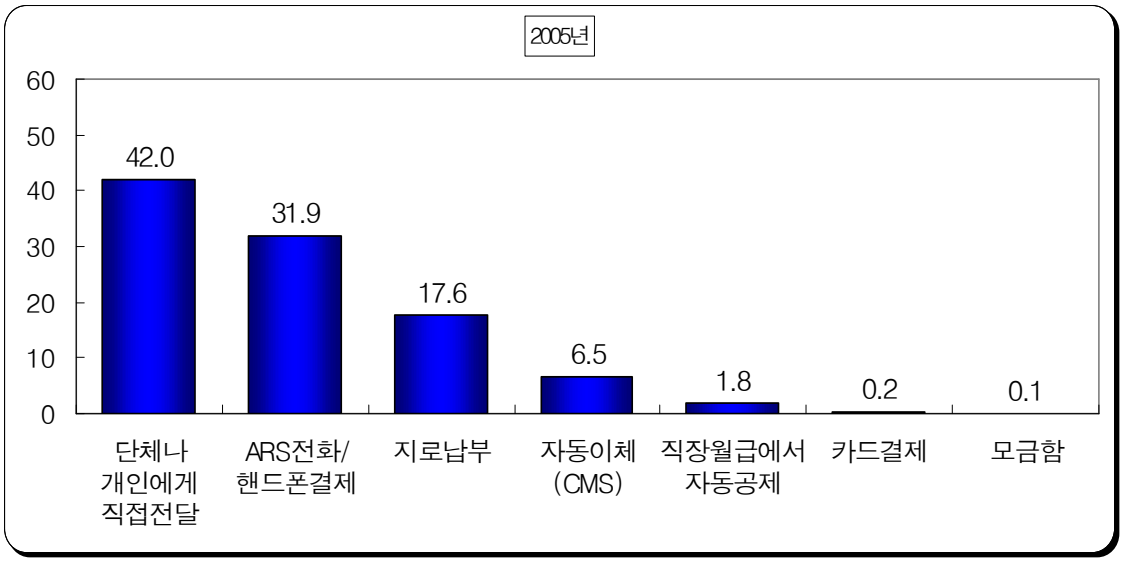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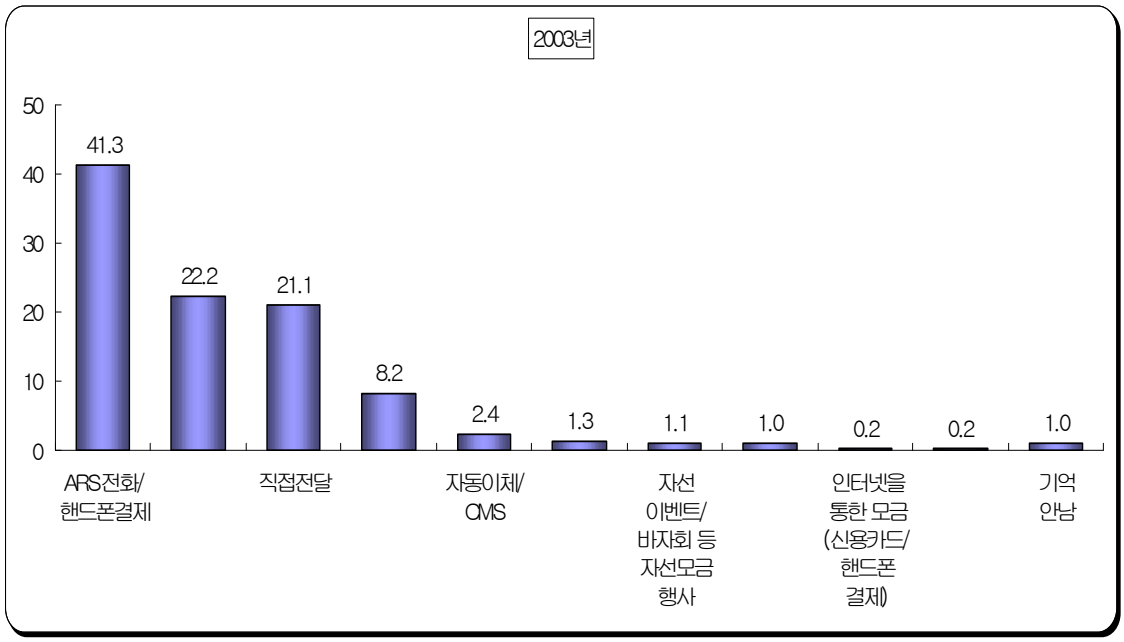
# 2-3. 2005년 기부 방법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 에게 어떤 방법으로 '기부' 를 하셨습니까?**

◉ 기부 방법에서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 '이 42.0%로 가장 높았으며' , ARS전화/핸드폰결제 '는 31.9%' , 지로납부 '가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response base; n=1,303).

– 직접전달은 2003년(21.1%) 조사에서는 그 빈도가 낮았지만, 2005년도에는 42.0%로 2배정도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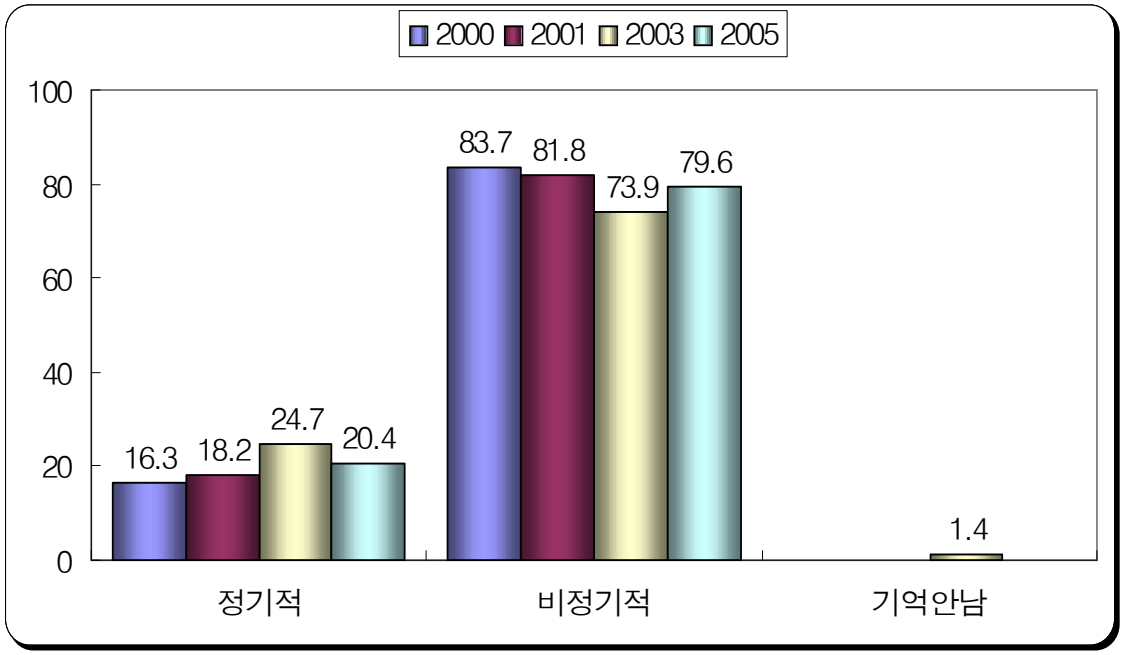


# 2-4. 2005년 기부 정기성 여부

**문)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한 '기부'는 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 기부의 정기성 여부에서는 '정기적' 기부가 20.4%로 나타남(response base; n=1,303).
- 2001년 18.2%, 2003년 24.7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정기적인 기부참여는 줄어들었으며, 비정기적 기부는 2003년에 비해, 5.7%포인트 증가하였음.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정기적'이라는 응답은 40대(24.4%), 중졸이하(28.7%), 농/임/어업 종사자(60.0%), 대구/경북(36.8%), 읍/면 거주자(32.3%), 기혼자(22.7%), 가구소득 100~199만원(2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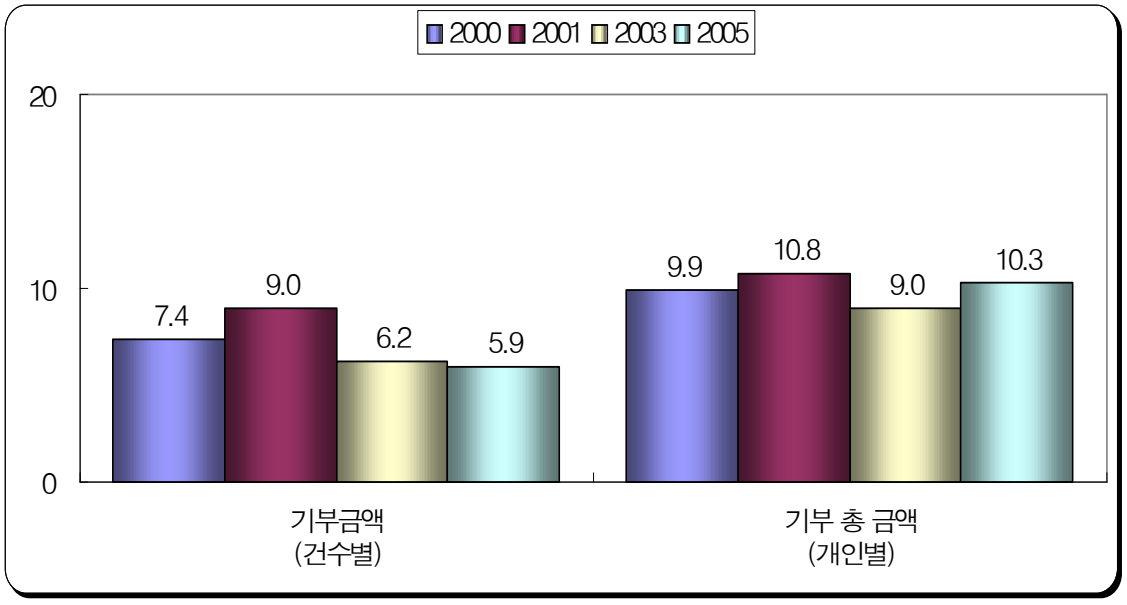
▷ '비정기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20대(86.5%), 학생(96.5%), 서울(84.0%) 및 인천/경기(84.6%) 거주자, 대도시(83.1%), 결혼상태 미혼(88.2%)임.

# 2-5. 2005년 기부 금액

**문) 작년 한 해 동안(2005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 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금(돈)과 현물(물품)을 나누어 응답해주시고, 현물(물품)은 현금 가치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 기부 경험자에 한정하여 기부 금액을 살펴보면, '건수별 기부 금액' 의 평균은 "58,490원" 으로 조사됐고, '개인별 기부 금액' 의 평균은 "102,550원" 으로 조사됨.

-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 '국민 1인당 평균 기부 금액' 은 "70,305원" 으로, 2003년 조사의 57,859원보다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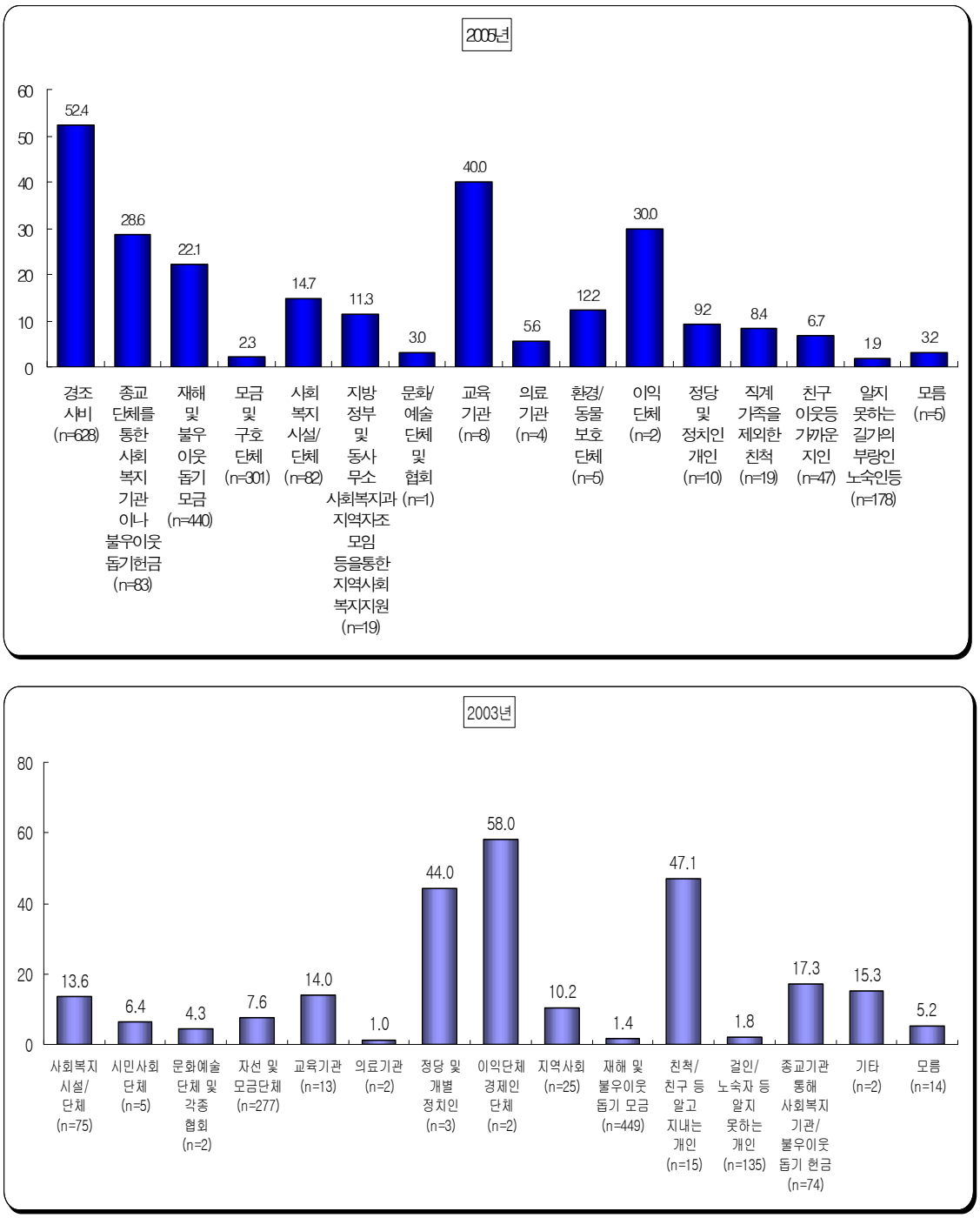

**<그림> 기부 금액**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건수별 기부금액은 여성(6만4천원), 30대(6만8천원), 50대이상(6만4천원), 대재이상(7만원), 자영업(7만8천원), 인천/경기(6만6천원), 강원(10만2천원), 대도시 거주자(7만원), 기혼자(6만4천원), 기독교(8만4천원) 및 천주교(8만5천원)신자, 개인소득 100~199만원(6만7천원) 및 200만원 이상(6만5천원),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7만1천원), 거주형태 자가(6만3천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기부처별로 살펴보면, ‘경조사비’(n=628) 52만 4천원,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헌금’(n=83) 28만6천원, ‘재해 및 불우이웃 돕기 모금’(n=440) 22만1천원, ‘사회복지시설/단체’(n=82) 14만7천원, ‘친구, 이웃 등 가까운 지인‘(n=47) 6만7천원, ’ 모금 및 구호단체 ‘(n=301) 2만3천원,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n=178) 1만9천원 등으로 나타남.

– 여타 기부처는 표본수가 10 내외로 적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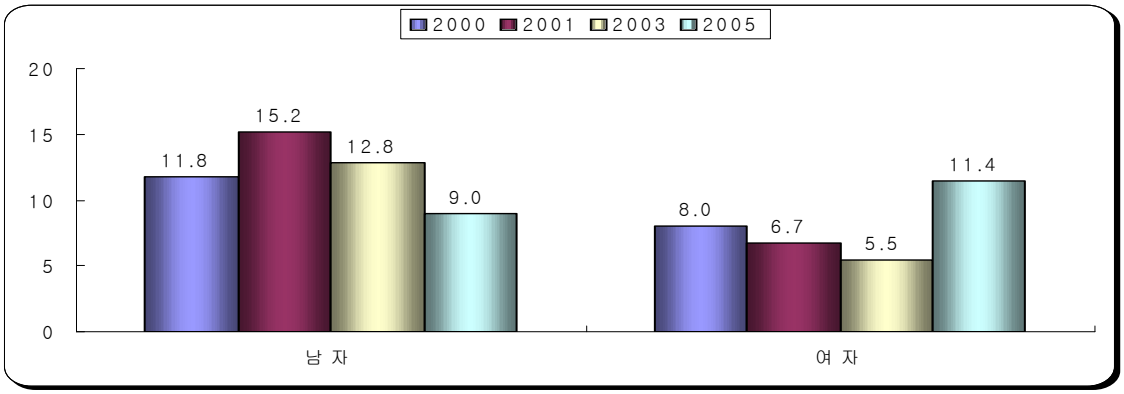




**<그림> 기부처별 기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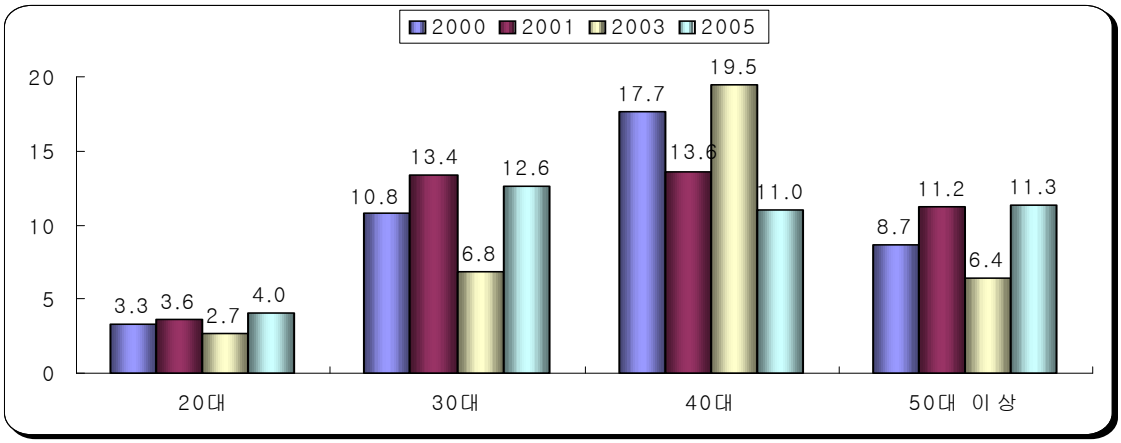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별 기부 금액 세부 비교

◉ 기부 금액을 성별로 비교하면, 지난 조사와 달리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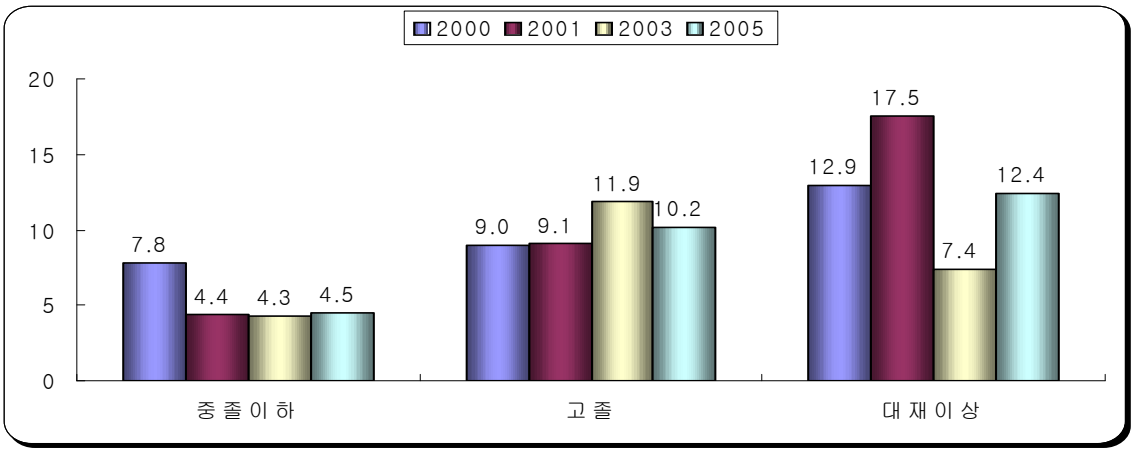

〈그림〉 성별 기부 금액

◉ 연령대별로 20대가 금액이 낮았으며, 그 이상의 연령대는 큰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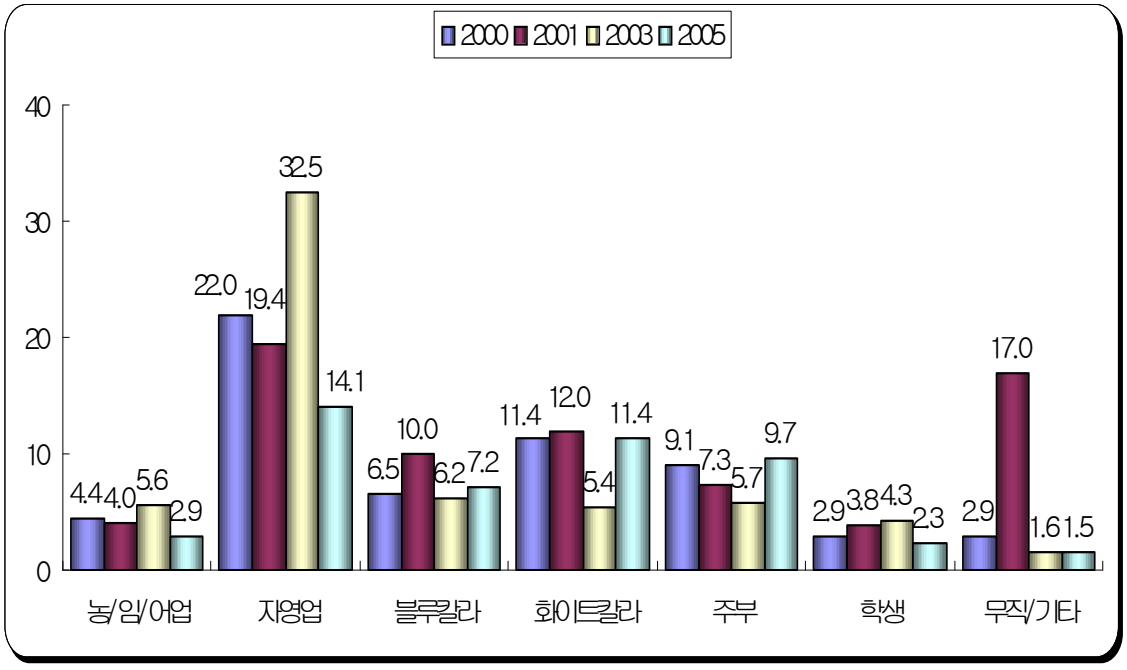

〈그림〉 연령대별 기부 금액

◉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기부금액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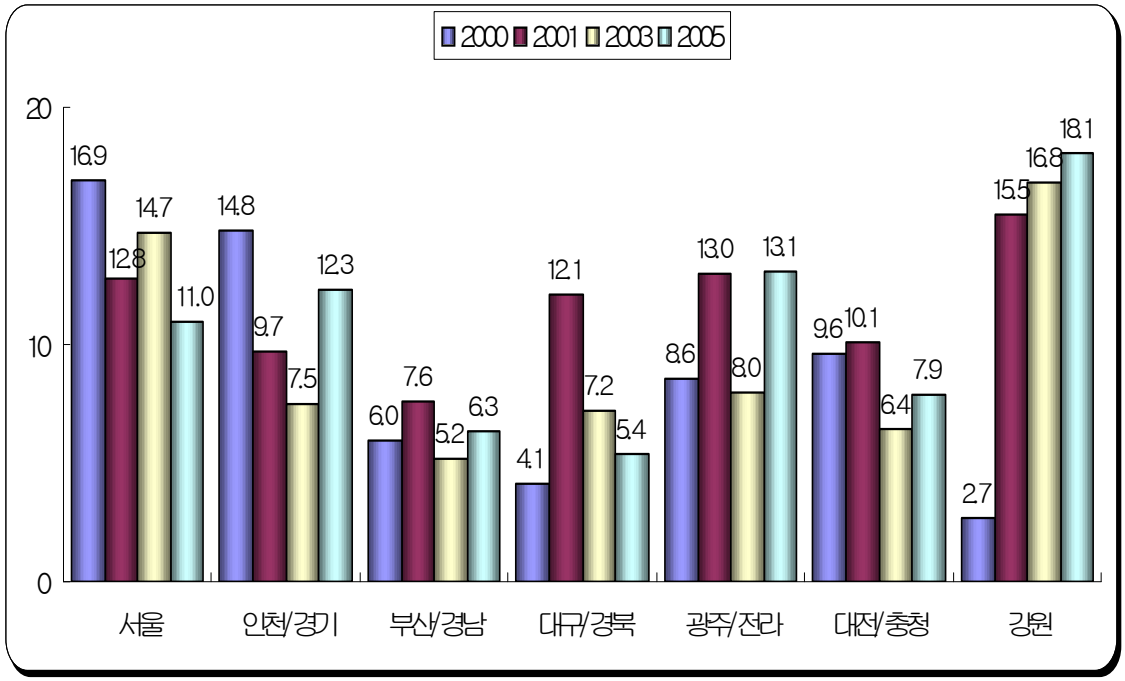

〈그림〉 학력별 기부 금액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기부 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화이트칼라에서는 2배가량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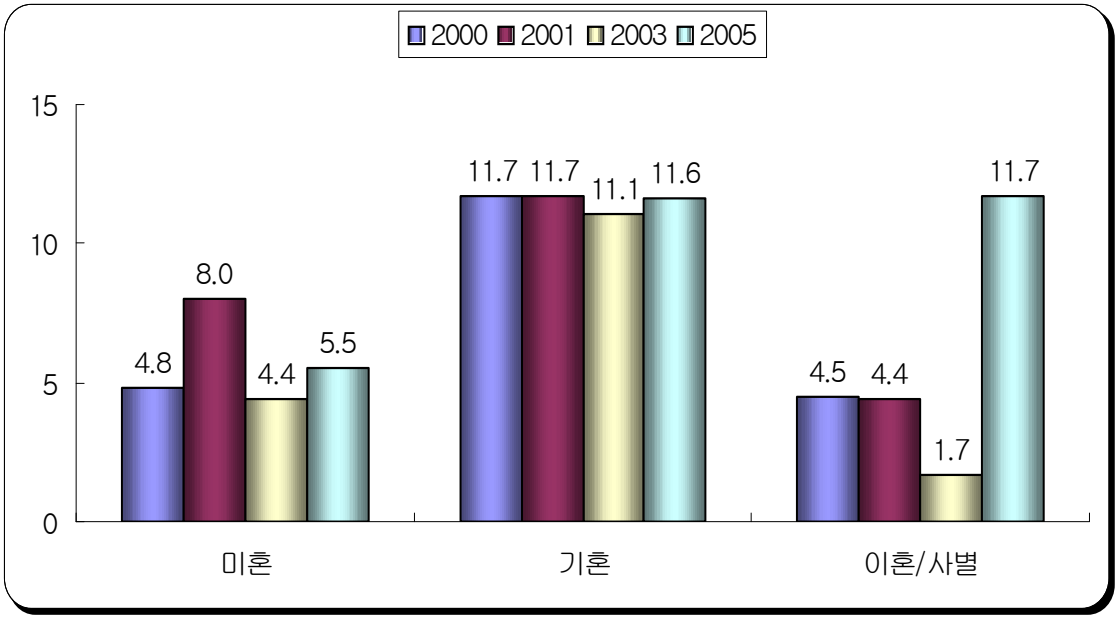

**<그림> 직업별 기부 금액**

◉ 인천/경기, 광주/전라지역이 2003년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으며, 강원의 경우 사례수가 22로 작아 의미를 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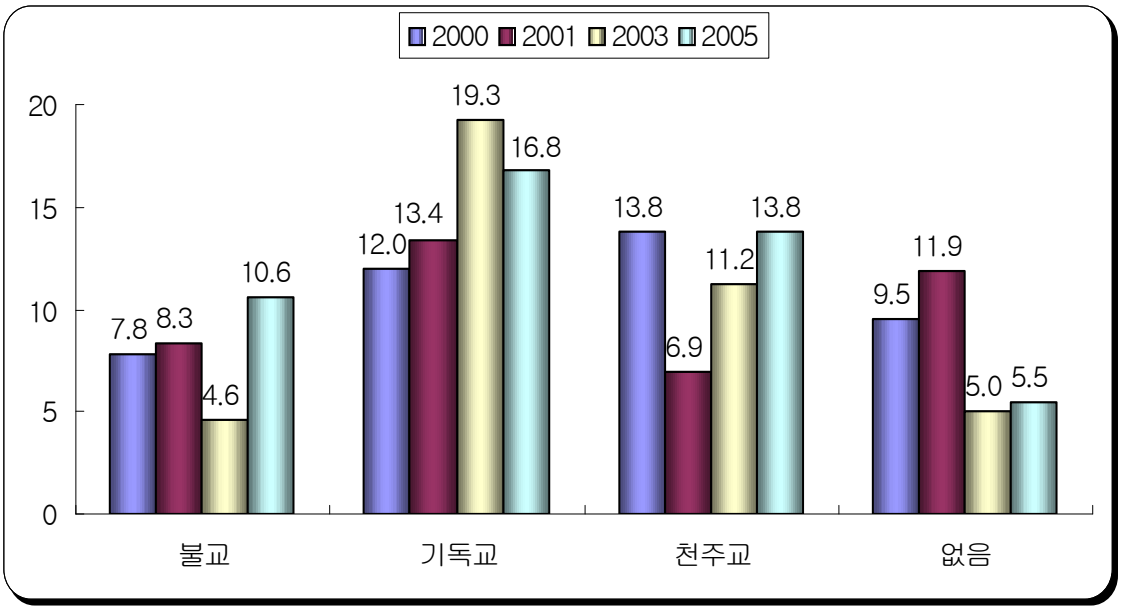

**<그림> 지역별 기부 금액**

◉ 결혼 상태별로는 미혼자의 기부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2003년에 비해 이혼/사별에서 기부금액이 크게 상승하였음.




**<그림> 결혼상태별 기부 금액 이혼사별은39**

◉ 종교별로는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무교의 순서였음.
2003년에 비해 종교별 기부금액이 불교는 크게 상승하였으며, 기독교는 조금 줄어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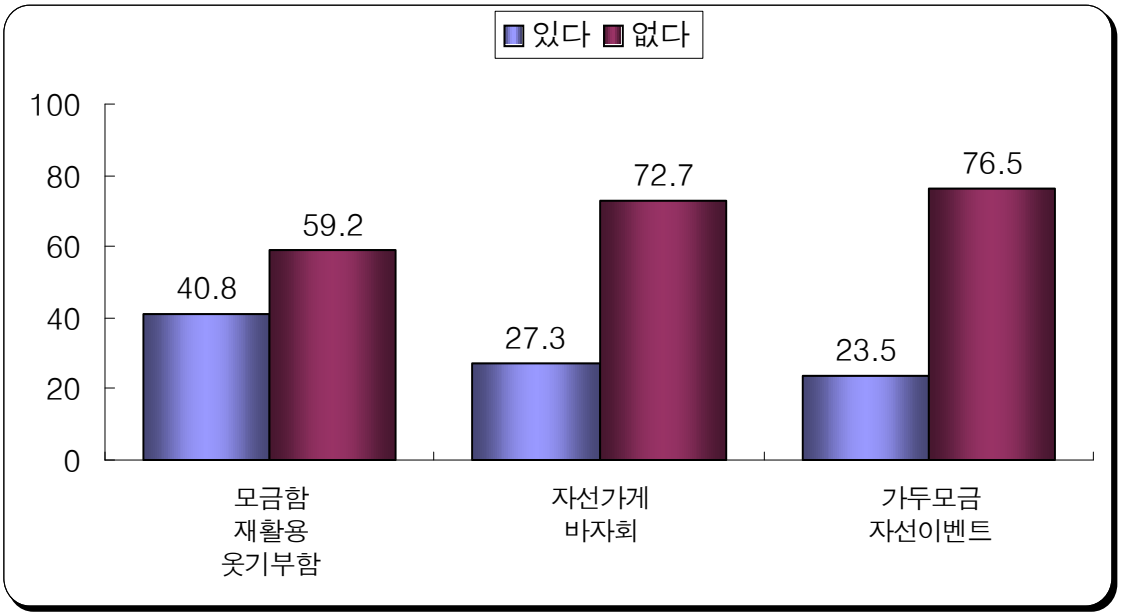



**<그림> 종교별 기부 금액**

# 2-6. 2005년 자선 및 기부 행사 참여 경험 유무

문)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사 및 기부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
| ① 지하철, 마트계산대 등에 비치된 모금함, 재활용 옷 기부함 등에 기부 |
| ② 자선가게, 바자회 등에서 물건 구입을 통해 기부 |
| ③ 가두모금 캠페인, 자선이벤트 등 자선모금 행사 |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모금함, 재활용 옷 기부함' 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46.8%), 30대(47.5%), 서울(49.8%), 인천/경기(49.0%), 대구/경북(51.3%), 광주/전라(52.4%) 거주자, 대도시(46.4%), 기독교 신자(48.7%)에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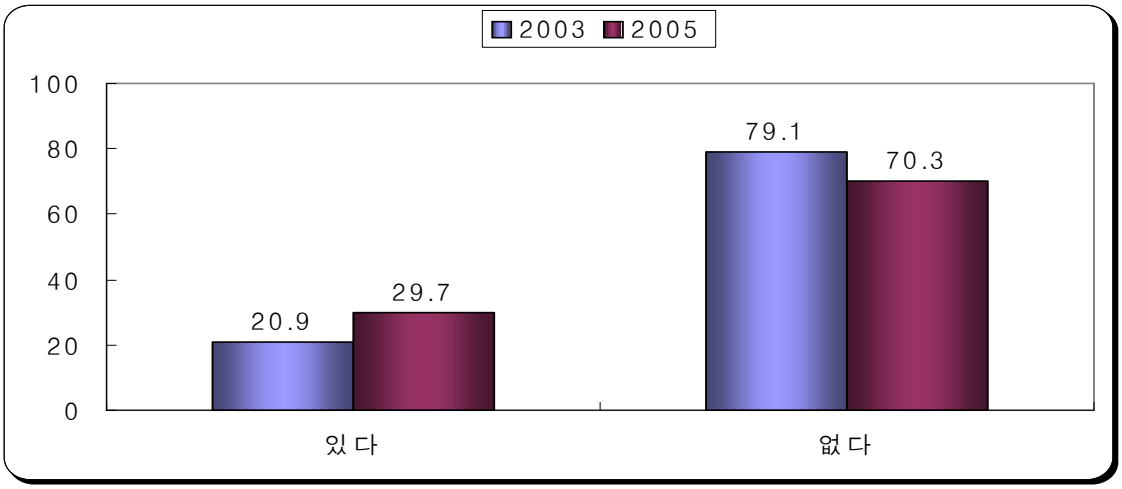
▷ '자선가게 바자회' 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36.5%), 40대 이상(34.4%), 고졸(31.8%), 주부(46.0%), 인천/경기(37.6%), 대도시 거주자(31.3%), 기혼자(31.3%), 천주교(35.8%) 신자,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31.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두모금 캠페인, 자선이벤트'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대재이상(30.3%), 서울(31.3%), 대도시 거주자(27.5%),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29.0%)에서 높게 나타남.

# 2-7. 2005년 종교기관 기부 참여율 및 기부 금액

**문) 작년 한 해 동안(2005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 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금(돈)과 현물(물품)을 나누어 응답해주시고, 현물(물품)은 현금 가치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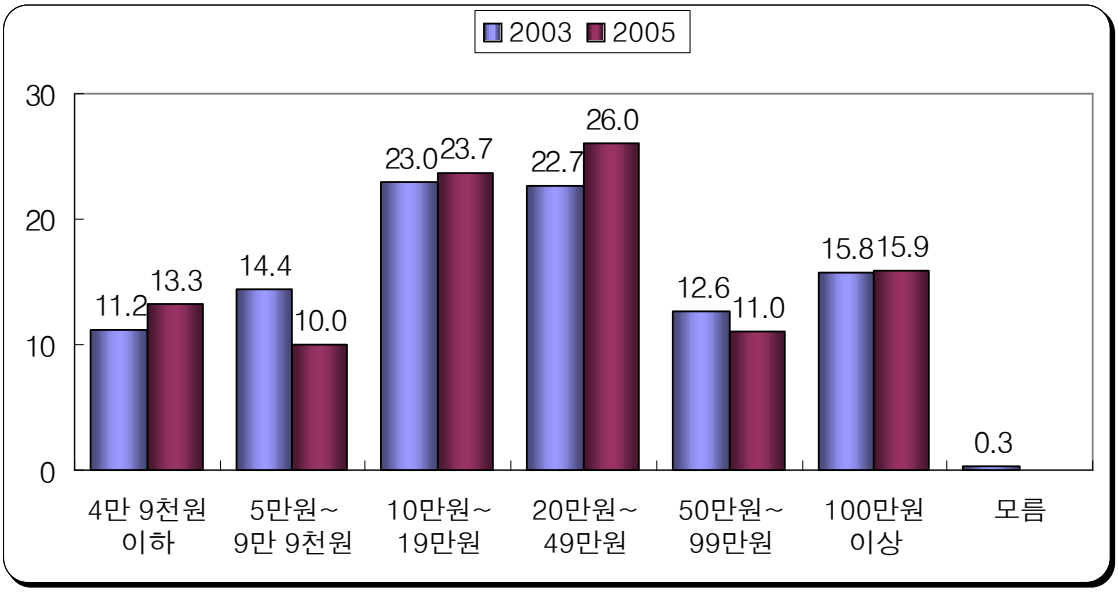
◉ 2005년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기관에 순수헌금을 한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1,005명 중 '있다' 는 응답이 29.7%로 나타남.




**<그림> 종교기관 순수헌금 참여율**

◉ 종교기관에 순수헌금을 한 적이 있다는 260명의 헌금액 비율은 '20~49만원' (26.0%), '10~19만원' (23.7%)에서 높게 나타남(n=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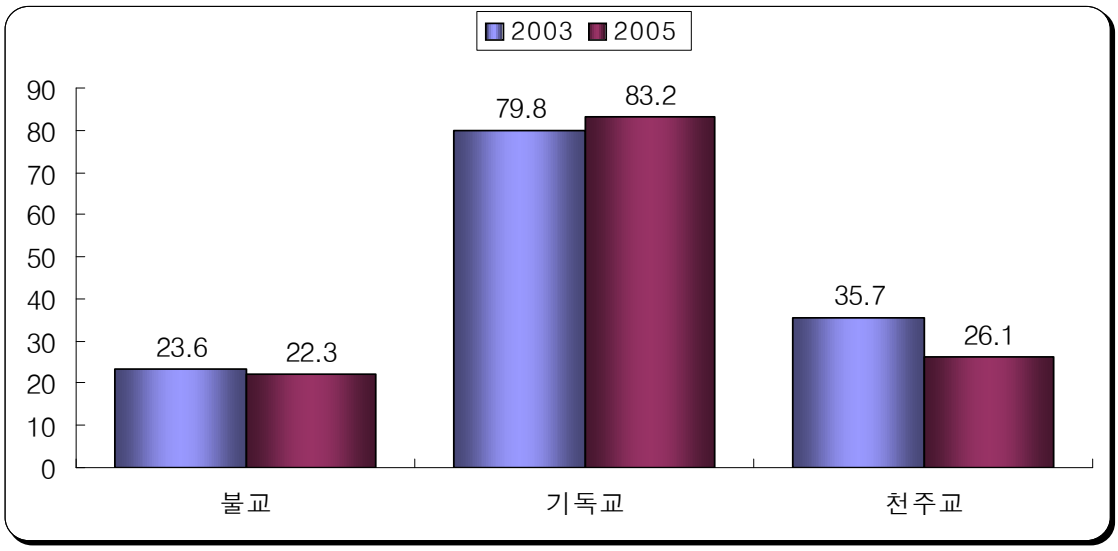
– 한편, 순수헌금의 평균 금액은 "50만7천원"이었음.




**<그림> 종교기관 순수헌금액**

◉ 종교별 순수헌금을 살펴보면 기독교 신자가 83만2천원으로 2003년 조사(79만8천원)보다 증가하였으며,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다소 감소하였음.

- 기타(n=2), 없다(n=1)은 그림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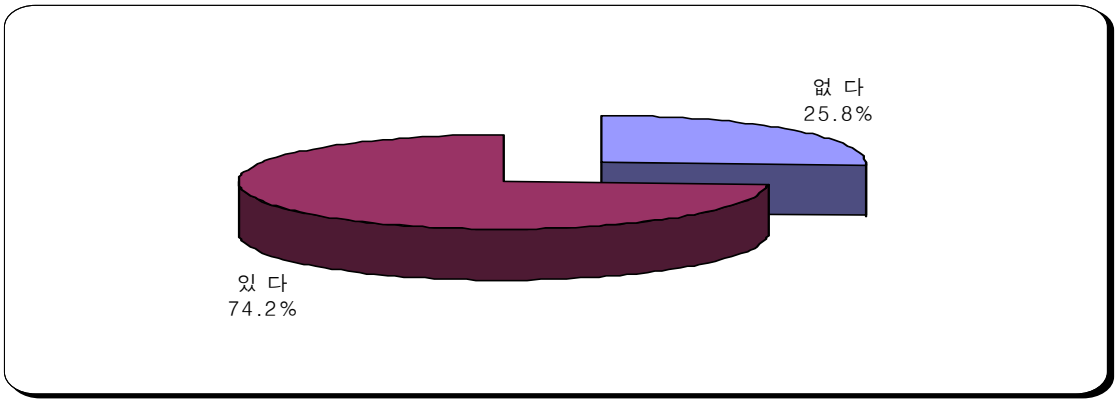



**<그림> 종교별 기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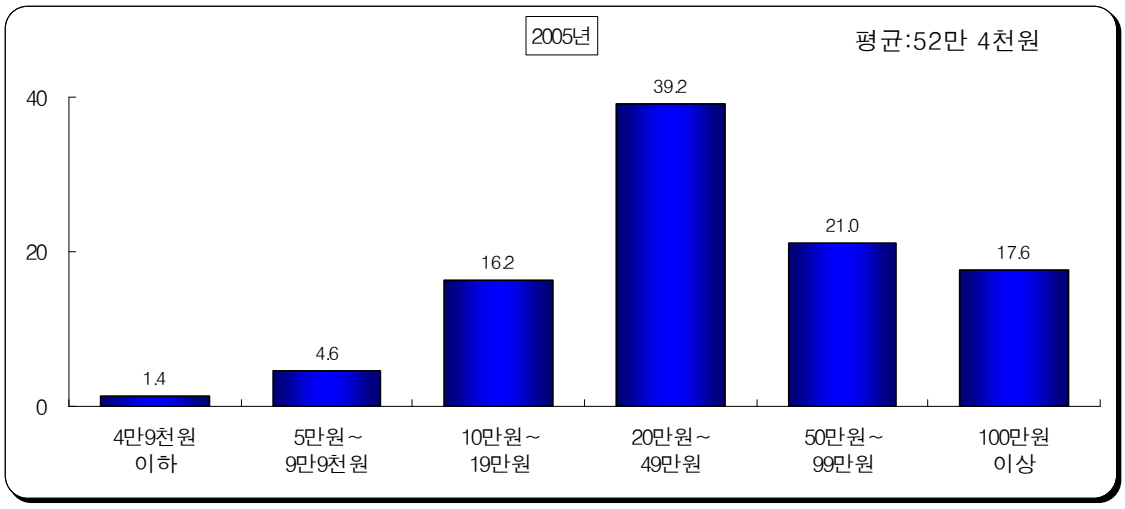
# 2-8. 2005년 경조사비 지출율 및 지출 금액

**문) 작년 한 해 동안(2005년 1월~12월) 경조사비 지출을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지출' 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금(돈)과 현물(물품)을 나누어 응답해주시고, 현물(물품)은 현금 가치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 경조사비 지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4.2% 였으며, 경조사비 비용은 20~49만원(3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림> 경조사비 지출 여부**




**<그림> 경조사비 지출 금액**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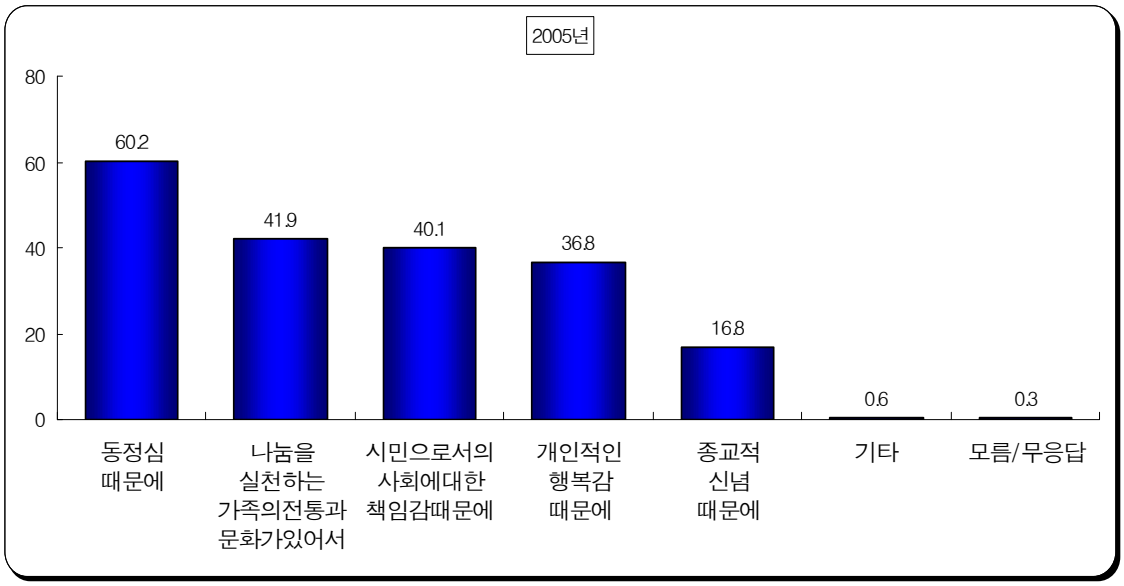
▷ '경조사비 지출경험이 있다' 는 응답은 30대(79.7%), 40대(83.6%), 50대이상(84.8%), 중졸이하(81.8%), 고졸(81.7%), 농/임/어업(95.2%), 자영업(86.0%), 화이트칼라(78.9%), 대구/경북(86.2%), 읍/면 거주자(88.2%), 기혼자(86.0%), 개인소득 200만원 이상(85.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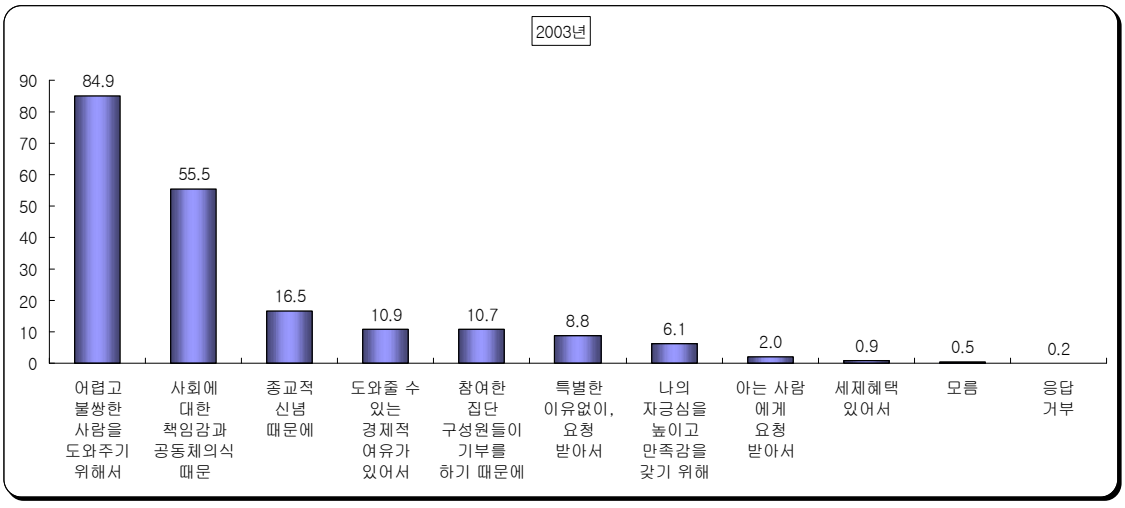
▷ 경조사비 지출이 '20~49만원' 이라는 응답은 30대 이상(47.3%), 블루칼라(47.0%)에서 상대적 높게 나타났음.

# 3. 기부의 이유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와 두 번째로 큰 이유를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

◉ 2005년 기부 참여자 689명의 기부 이유로는 '동정심 때문에'가 60.29%로 가장 높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가 있어서'가 41.9%로 두 번째로 높았음(중복응답; n=689).




**<그림> 기부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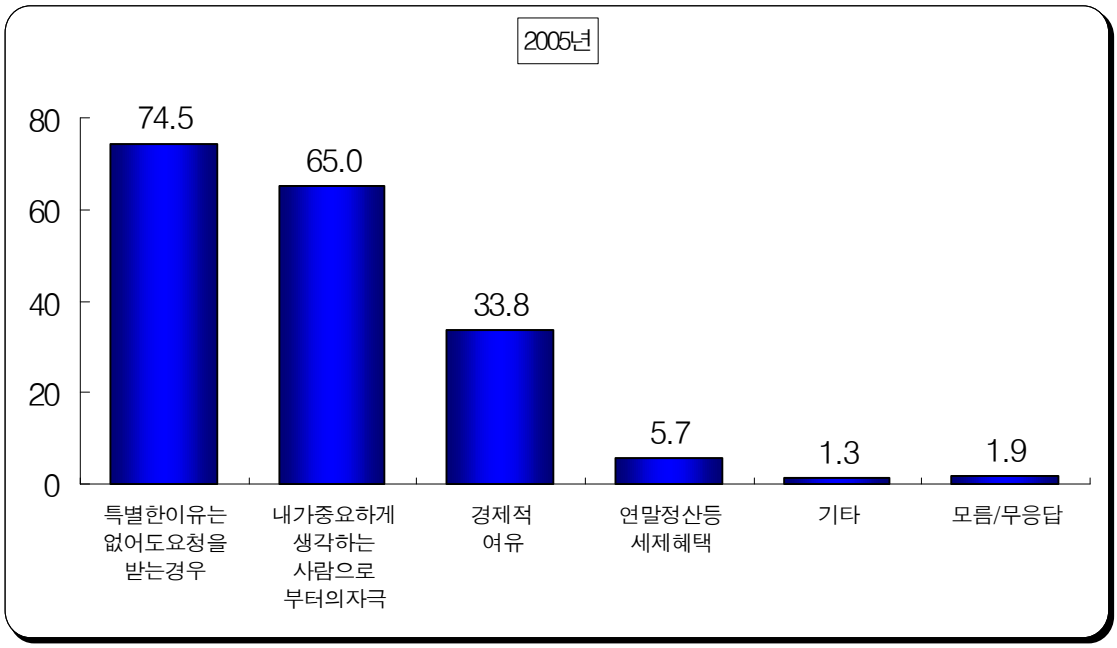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동정심 때문에'라는 응답은 인천/경기 거주자(67.2%), 미혼자(67.4%), 무신론자(6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4. 기부동기 외에 기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문) '기부하는 이유(기부동기)' 외에 다음 중 귀하의 기부에 양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요인과 두 번째로 큰 요인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

◉ 기부동기 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도, 요청을 받는 경우'가 74.5%로 가장 높았으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극'이 65.0%로 두 번째로 높았음.(중복응답; n=689).




**<그림> 기부동기외 영향을 주는 요인**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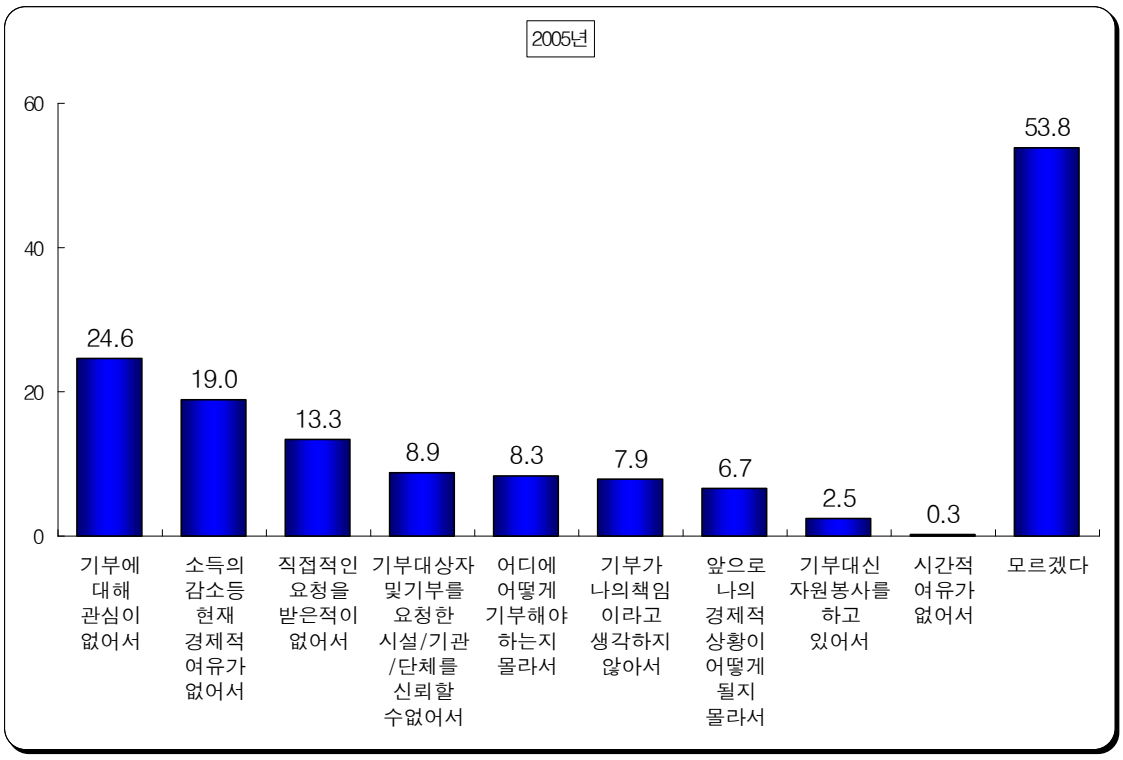
▷ '특별한 이유는 없어도 요청을 받는 경우'는 대구/경북(89.7%), 읍/면(82.5%)지역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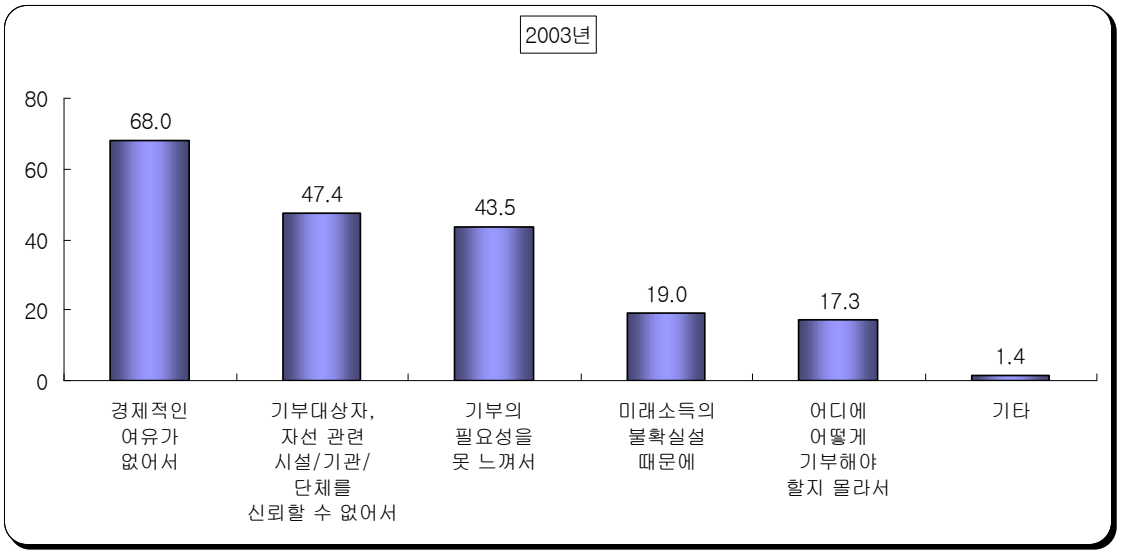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극'은 대전/충청(81.2%), 천주교 신자(77.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5. 기부하지 않은 이유(비기부자 한정)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와 두 번째로 큰 이유를 아래에서 골라 주십시오.**

◉ 2005년에 기부한 적이 없다는 316명에 한정하여 기부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이유를 밝히지 않은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53.8%였으며,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가 24.6%, '소득의 감소 등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19.0%로 나타남(중복응답; n=361).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20대(41.6%), 대재이상(35.0%), 학생(46.6%), 미혼(38.7%), 개인소득 49만원 이하(3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의 감소 등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20대(29.2%), 대재이상(27.6%), 학생(40.0%), 미혼(28.9%), 무신론자(24.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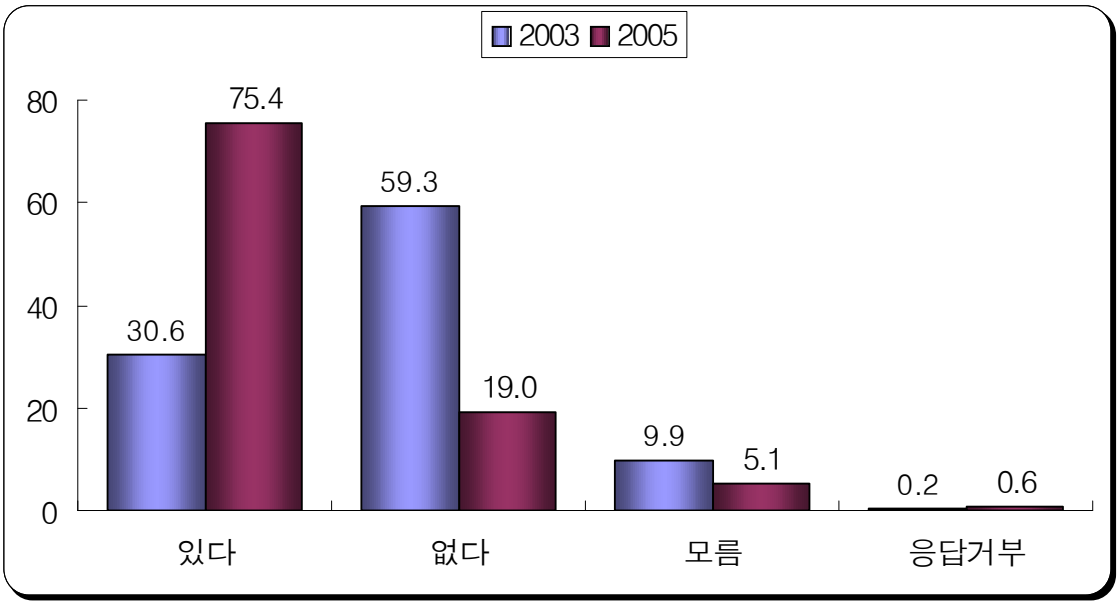
▷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20대(25.0%), 대재이상(20.9%), 학생(33.3%), 인천/경기 거주자(24.7%), 미혼(26.1%),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18.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6. 향후 1년 내 기부 의향

문) 귀하는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2005년 기부 비참여자 중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75.4%로 지난 2003년 조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단, 지난 조사는 기부참여를 하지 않은 비기부자 대상임).

☞ 본 문항부터 전체 응답자 1,005명에 대한 질문임.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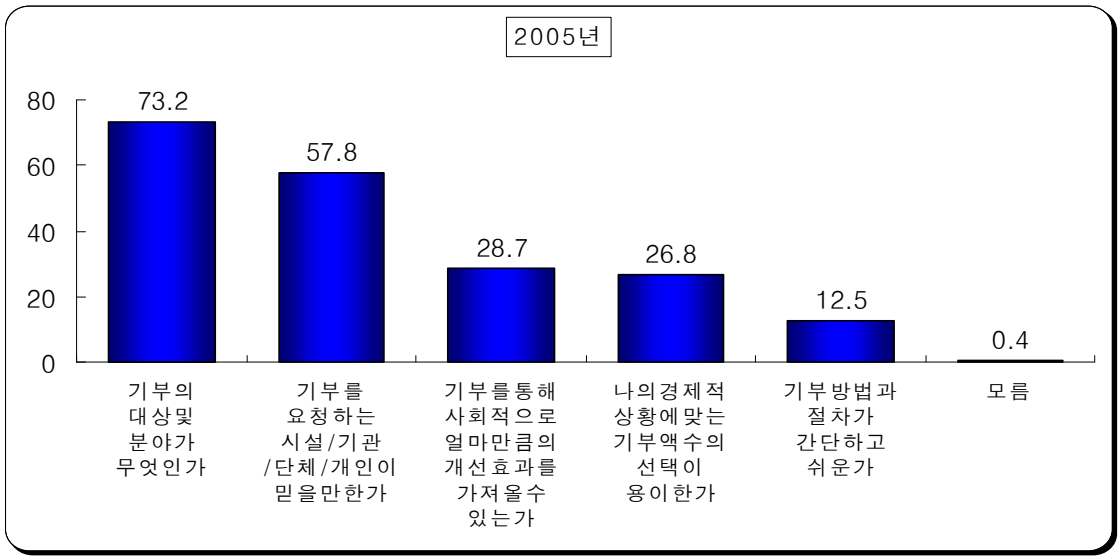
▷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여성(78.3%), 화이트칼라(79.8%), 인천/경기(79.9%) 및 대구/경북(84.4%) 거주자, 기독교 신자(82.3%), 개인소득 200만원 이상(79.7%),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78.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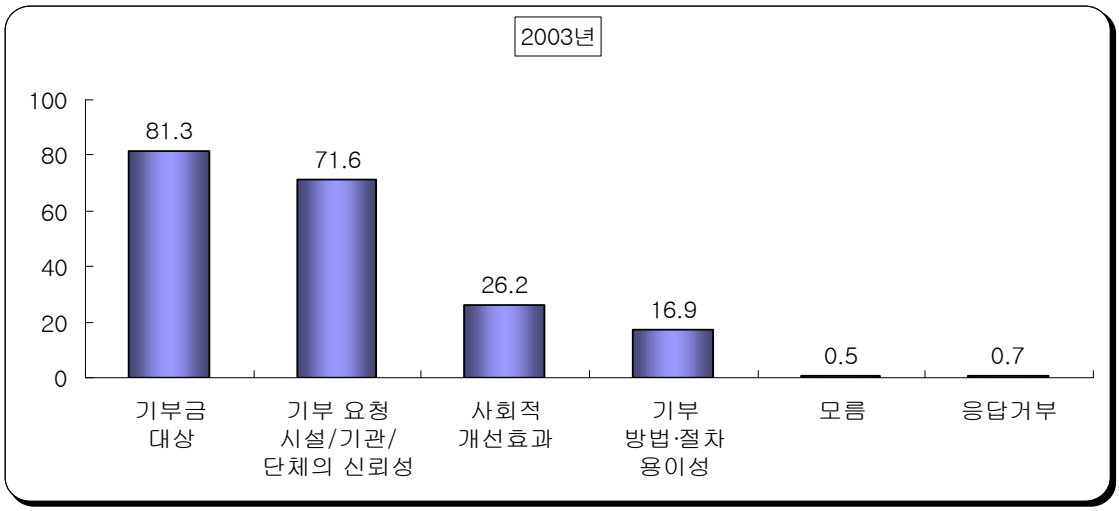
▷ '없다' 는 응답은 중졸이하(26.8%), 블루칼라(26.0%), 부산/울산/경남(25.3%) 및 대전/충청(34.3%) 거주자, 무신론자(23.8%), 가구소득 100~199만원(25.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7.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

**문) 귀하께서 향후에 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 중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하시겠습니까? 두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할 점으로는 '기부금의 대상 및 분야가 무엇인가'(73.2%)가 가장 높았고,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기관/단체/개인이 믿을 만 한가'(57.8%)가 다음으로 높았음(중복응답).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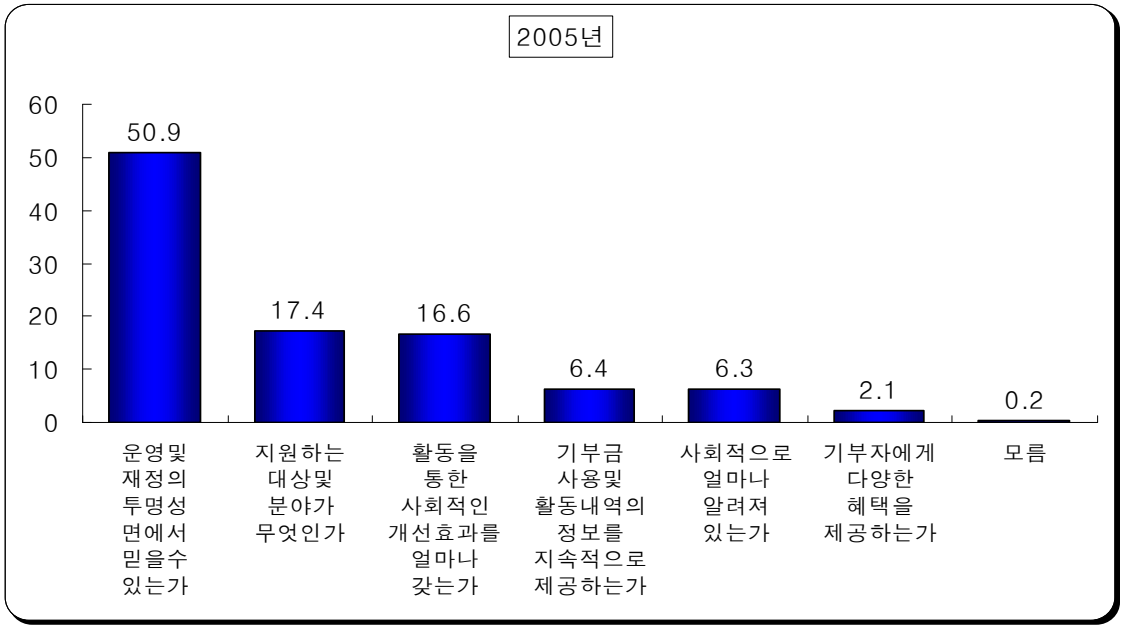
▷ '기부금의 대상 및 분야가 무엇인가' 는 대구/경북(83.5%) 및 광주/전라 거주자(85.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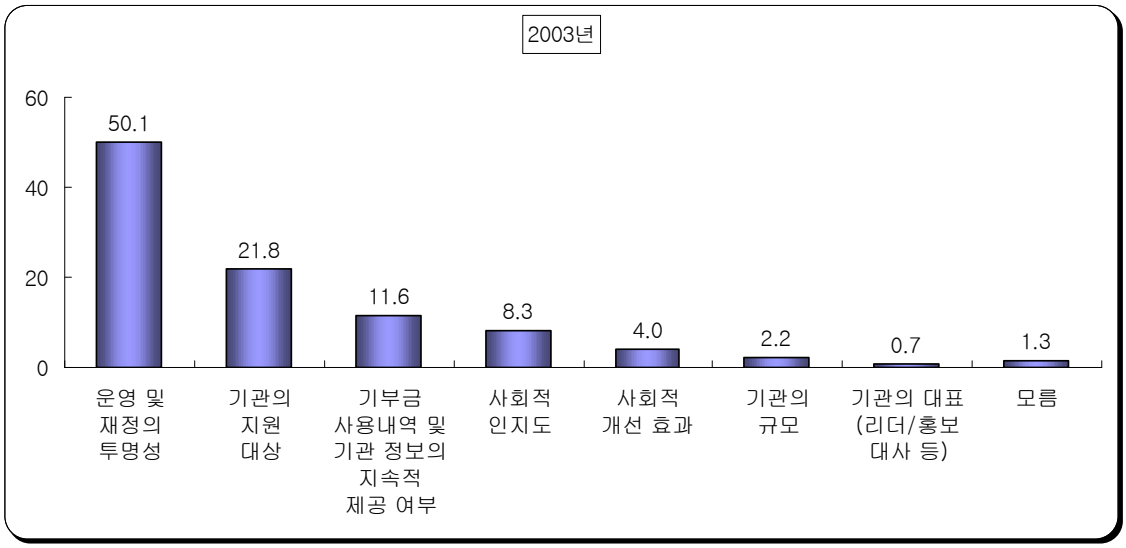
▷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기관/단체/개인이 믿을 만 한가' 는 서울(65.6%) 및 대구/경북 거주자(70.6%), 대도시 거주자(62.1%), 거주형태 전세(64.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8.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문) 귀하께서 개인에 대한 직접 기부가 아닌, 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하신다면, 다음 중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겠습니까?**

◉ 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할 경우, 가장 많이 고려할 기관의 특성으로는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면에서 믿을 수 있는가' 여부가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0.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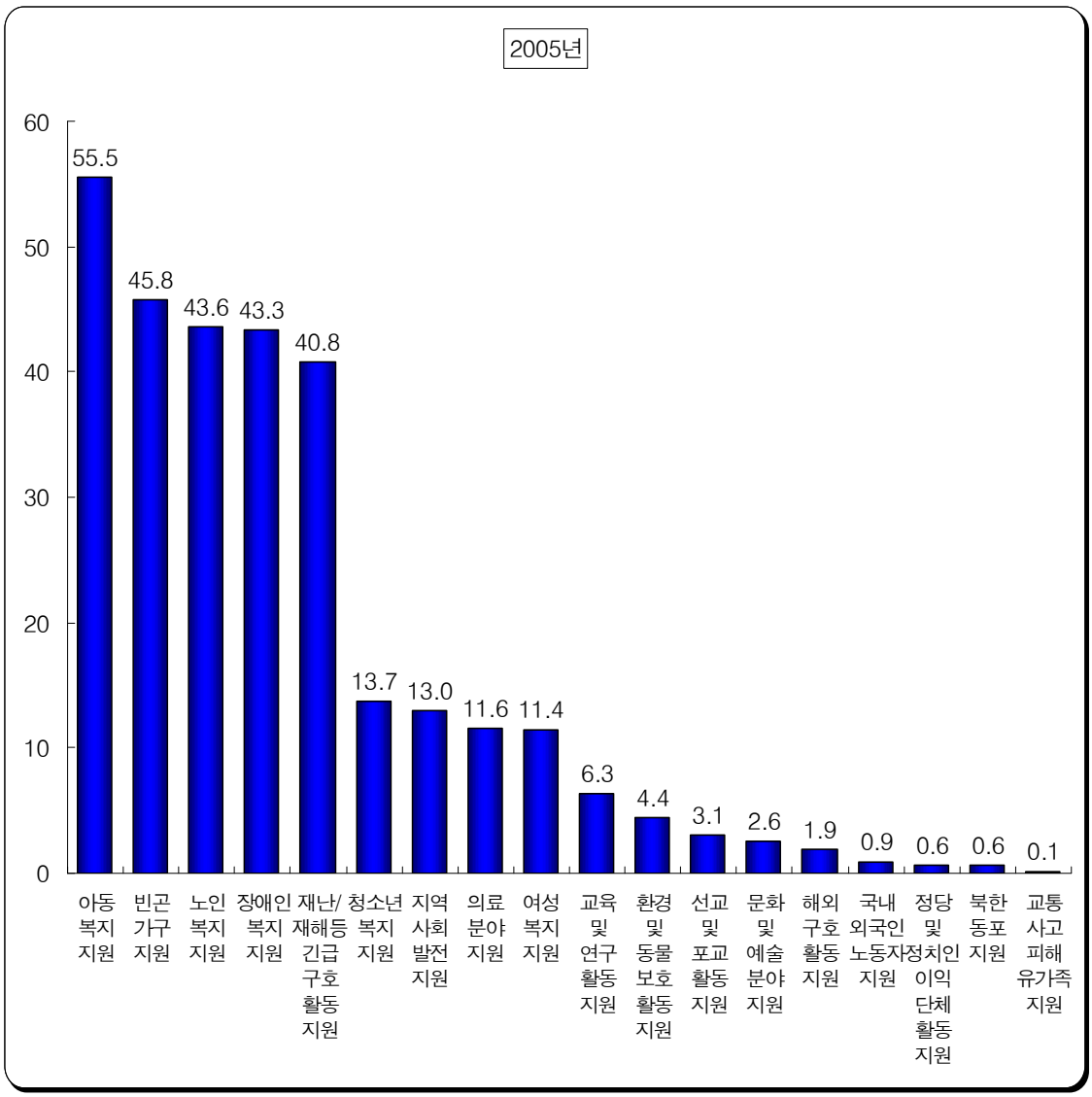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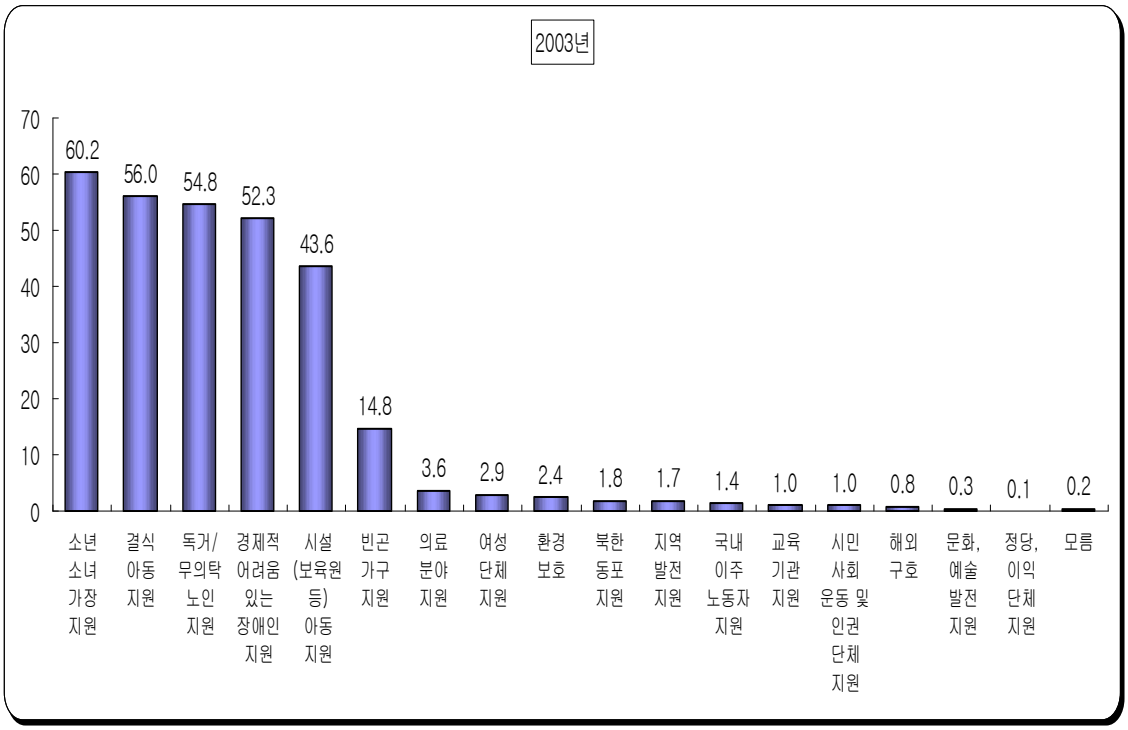
▷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면에서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응답은 대구/경북 거주자(61.5%), 무신론자(54.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9. 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그 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기부금 사용 희망분야로는 '아동 복지 지원'이 55.5%로 가장 높았고, '빈곤 가구 지원'(45.8%), '노인 복지 지원'(43.6%), '장애인 복지 지원'(43.3%), '재난/재해 등 긴급구호활동 지원'(40.8%) 등의 순으로 나타남(3가지 중복응답).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아동 복지 지원’ 은 여성(59.5%), 중졸이하(69.7%), 주부(68.8%), 대구/경북 거주자(69.7%), 개인소득 49만원 이하(61.1%), 가구소득 200~299만원(60.6%), 거주형태가 전세(6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빈곤 가구 지원’ 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인천/경기(52.0%) 및 대전/충청(62.1%) 거주자, 읍/면 거주자(52.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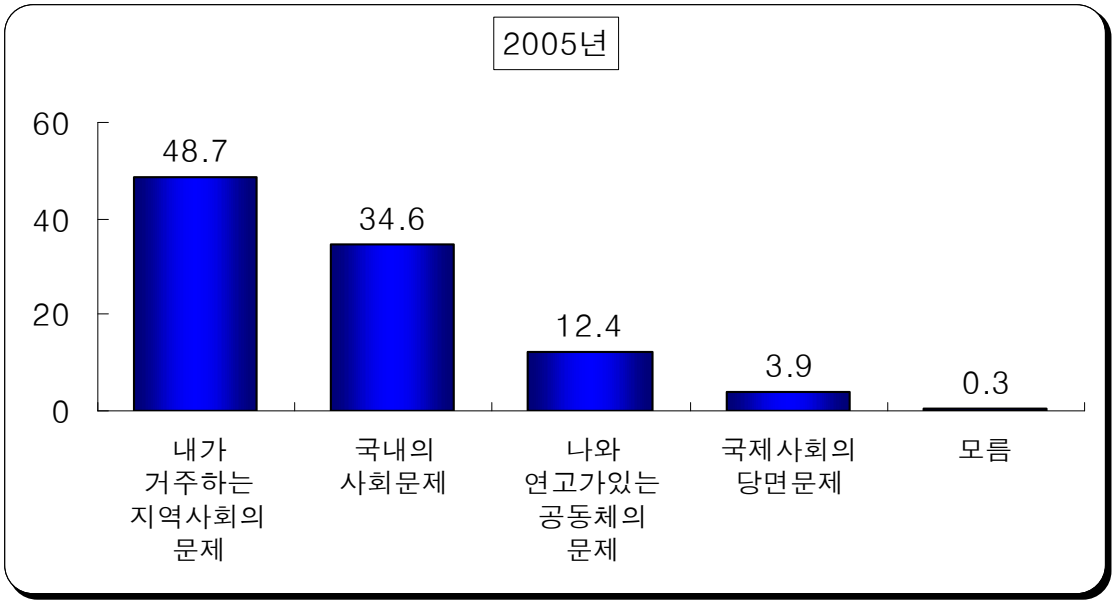
▷ ‘노인 복지 지원’ 은 50대 이상(50.1%), 자영업(50.4%), 인천/경기(50.6%) 및 대구/경북(53.2%) 거주자, 기혼자(46.8%), 거주형태가 자가(4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 복지 지원’ 은 중졸이하(51.5%), 부산/울산/경남 거주자(51.2%), 개인소득 200~299만원(49.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10. 기부시 문제 해결 희망 단위(범위)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그 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단위의 문제해결에 주로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 기부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로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가 48.7%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 사회문제'가 34.6%, '나와 연고가 있는 공동체의 문제'가 12.4% 순으로 나타남.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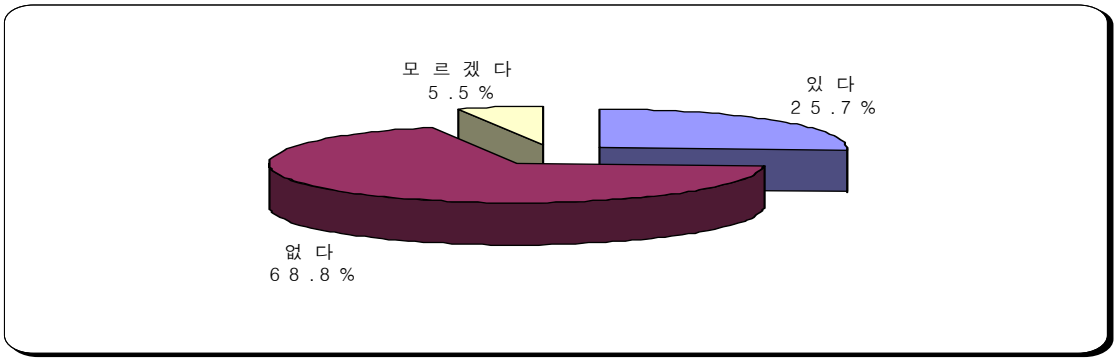
▷ '내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의 문제'는 50대 이상(54.9%), 대구/경북(67.0%) 및 강원(68.3%), 중소도시 거주자(53.3%), 가구소득 100~199만원(56.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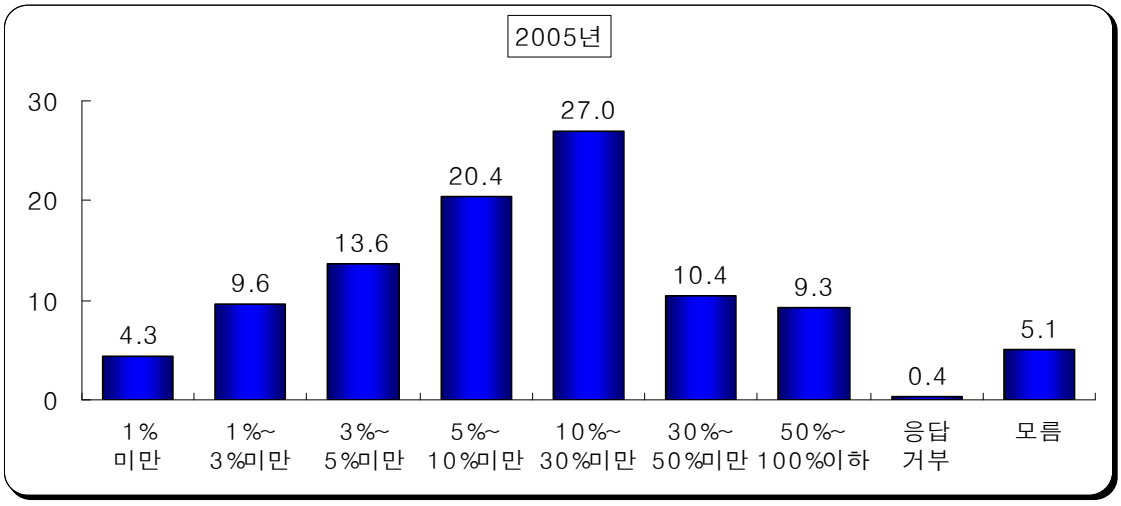
▷ '국내의 사회문제'는 20대(63.2%), 30대(40.9%), 인천/경기(40.6%), 대도시 거주자(39.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1. 유산 일부 기부 의향

**문) 귀하께서는 유산의 일부를 단체/시설/기관에 기부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 유산의 일부를 기부할 의향에 대한 응답은 '있다'가 25.7%, '없다'는 응답이 68.8%로 나타남. 전체 유산의 어느 정도를 기부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10%이상~30%미만'이라는 응답이 27.0%로 가장 높았음(n=258).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있다'는 응답은 30대(30.8%), 대재이상(31.4%), 화이트칼라(34.5%), 인천/경기(31.3%) 및 강원(51.7%) 거주자, 미혼자(32.4%), 기독교(37.6%), 개인소득 200만원 이상(31.4%),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29.0%), 거주형태 전세(32.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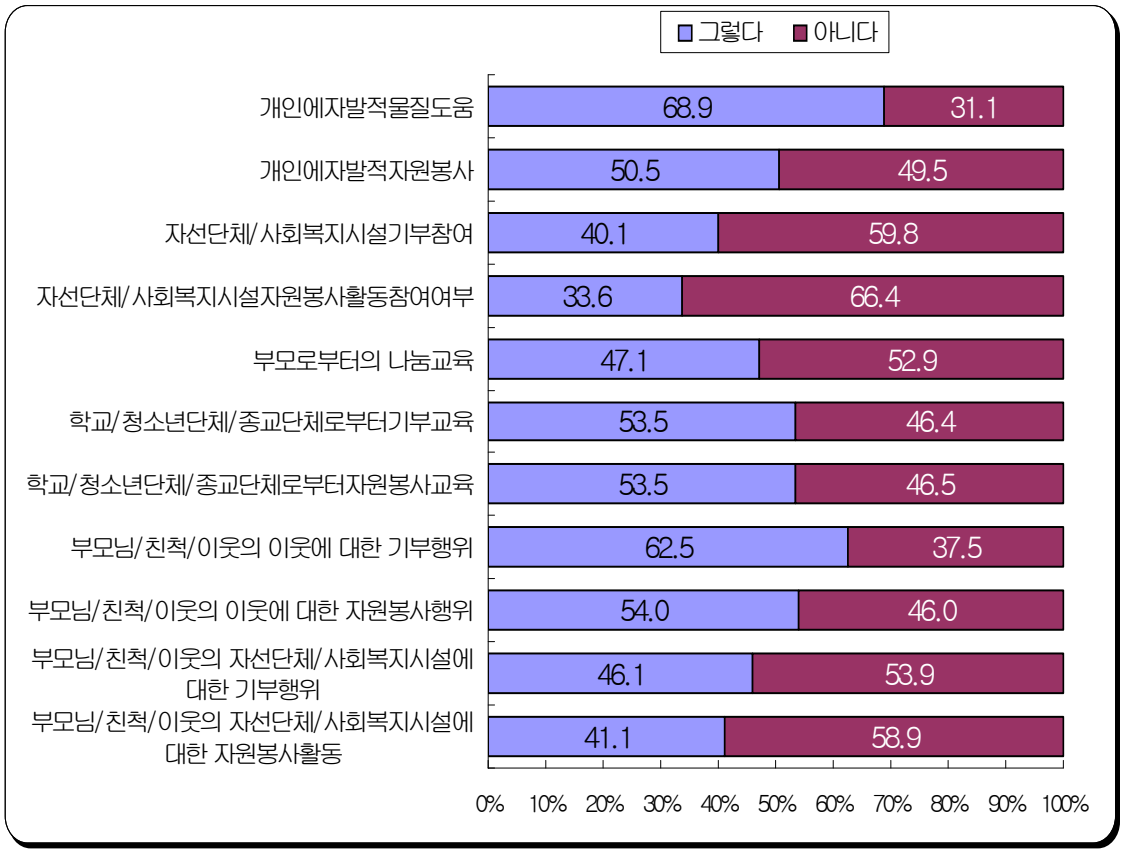
▷ '없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50대 이상(78.2%), 중졸이하(82.6%), 블루칼라(77.0%), 부산/울산/경남(82.5%) 및 광주/전라(80.6%) 거주자, 기혼자(71.1%), 무신론자(73.6%), 개인소득 49만원 이하(74.2%), 거주형태 자가(70.6%)임.

▷ 전체 유산의 '10~30%미만'을 기부할 의사가 있다는 층은 부산/울산/경남(48.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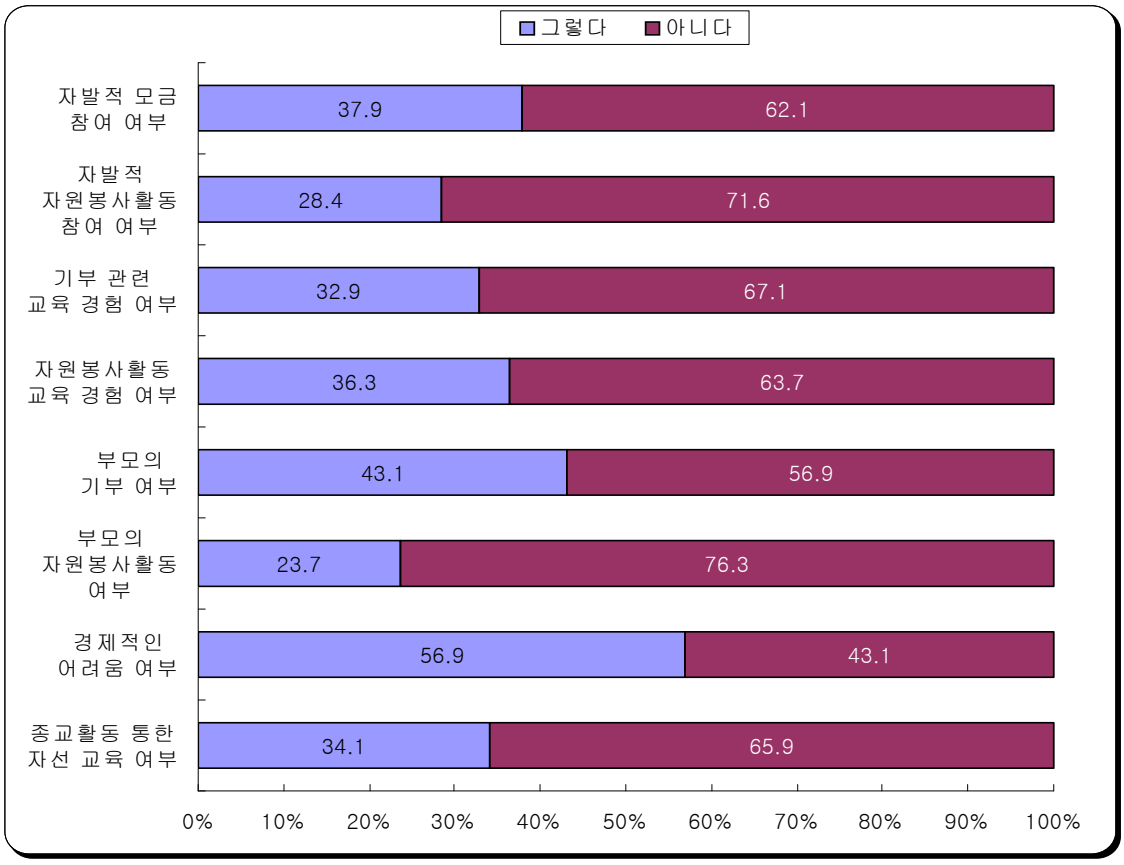
# 12. 유/초/중/고등학교 시절 경험

**문) 귀하께서는 유/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 성장기에 자원봉사 및 기부에 대한 경험/교육 여부에 대하여 '개인에 자발적 물질 도움'이 68.9%로 높았으며, '부모님/친척/이웃의 이웃에 대한 기부행위'가 62.5%, '부모님/친척/이웃의 이웃에 대한 자원봉사 행위'가 54.0% 순으로 응답자들이 경험여부가 높았음.




<2005년 성장기 경험 여부>




**<2003년 성장기 경험 여부>**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개인에 자발적 물질로 도움' 은 30대(74.7%), 대재이상(73.4%), 화이트칼라(73.6%), 인천/경기(76.5%), 대도시 거주자(74.8%), 미혼자(75.5%), 기독교(80.6%),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73.1%)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부모님/친척/이웃의 이웃에 대한 기부행위' 는 대재이상(67.3%), 지역별로 인천/경기(68.1%), 대구/경북(72.5%), 광주/전라(73.1%) 거주자, 불교(68.1%)신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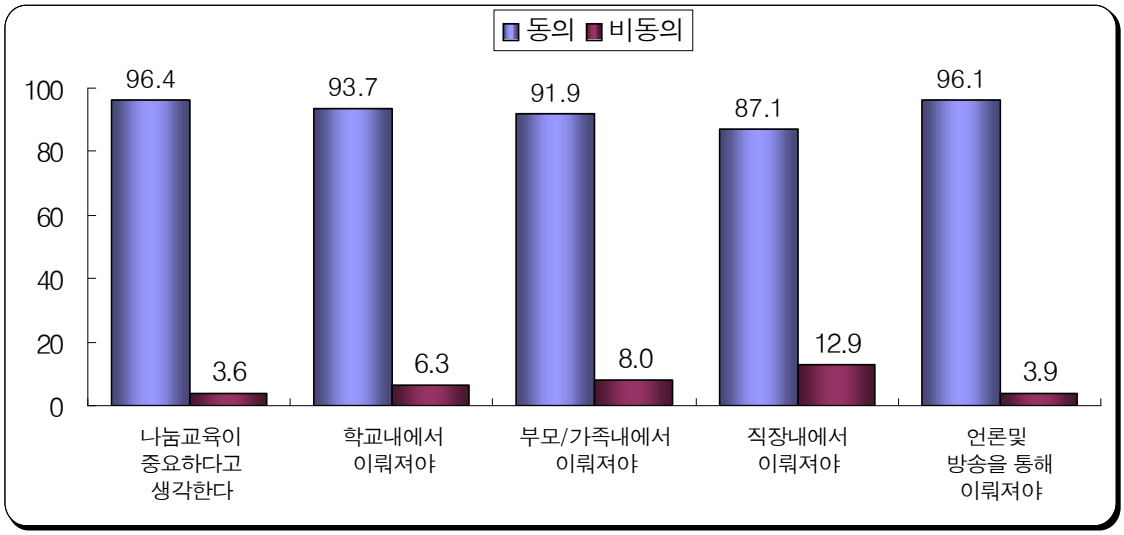
▷ '부모님/친척/이웃의 이웃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의 경험은 대구/경북(69.7%), 기혼자(5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13. 나눔교육 동의 정도

**문) 다음의 나눔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 나눔교육과 관련된 질문에서 대부분 '동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나눔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동의'가 96.4%였으며, 나눔교육이 이뤄져야 되는 방법은 '학교 내에서'가 93.7%, '부모/가족 내에서'가 91.9%, '직장 내에서'가 87.1%, '언론 및 방송을 통해서'가 96.1%로 나타남.
- 응답의 보기를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동의하지 않는다'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동의'와 '비동의'로 구분하여 도표화 하였음.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나눔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40대(98.7%), 읍/면 거주자(99.5%)에서 상대적으로 '동의'의 비율이 높았음.

▷ '학교 내에서 이뤄져야한다'는 40대(96.5%), 대재이상(95.6%) 층에서 상대적으로 '동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족 내에서 이뤄져야한다'는 40대(95.2%), 화이트칼라(95.3%), 서울(95.9%), 인천/경기(95.6%), 광주/전라(97.2%),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94.8%)에서 '동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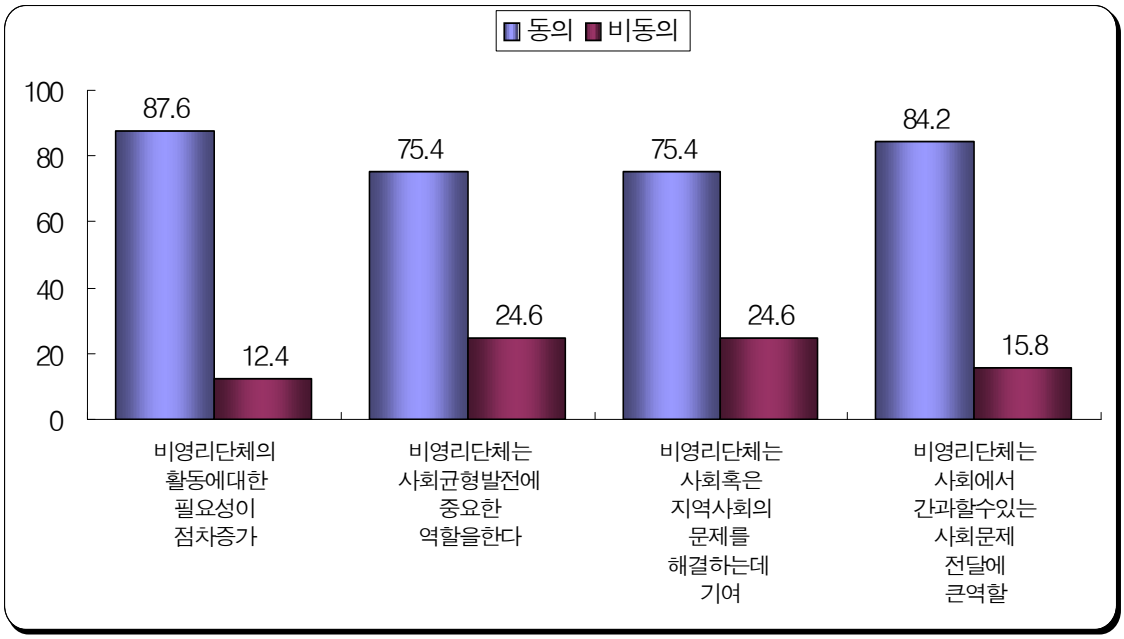
▷ '직장 내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여성(89.2%), 40대(91.2%), 자영업(92.8%), 서울(91.3%), 기혼자(88.6) 층에서 상대적으로 '동의'가 높게 나타남.

▷ '언론 및 방송에서 이뤄져야한다'는 가구형태 전세(99.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4.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기여 및 역할에 대한 인식

**문)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눔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된다' 는 87.6%, '비영리단체는 사회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는 75.4%, '사회 전체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는 75.4%, '사회에서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는 84.2%가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된다' 는 대구/경북(94.5%), 전세(92.3%)에서 상대적으로 '동의' 가 높게 나타남.

▷ '비영리단체는 사회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화이트칼라(81.3%), 인천/경기(83.5%), 대도시 거주자(79.0%), 기독교 신자(84.6%),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80.6%)에서 상대적으로 '동의' 하는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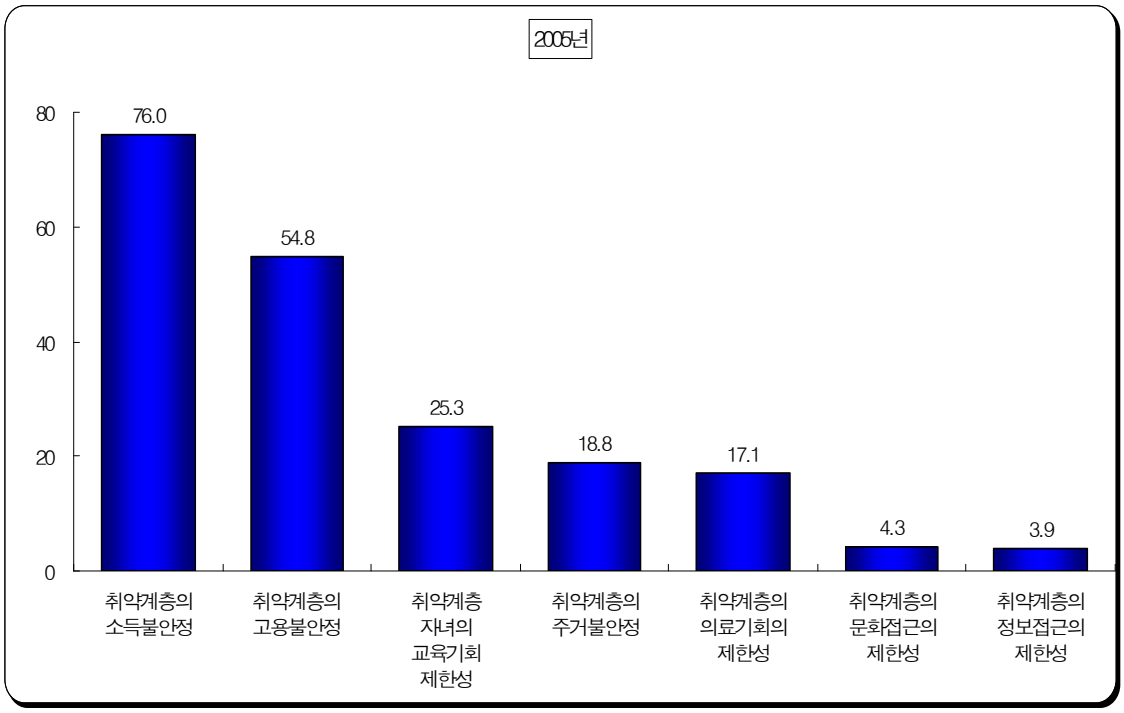
▷ '비영리단체는 사회 전체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는 여성(78.7%), 인천/경기(80.9%), 대도시 거주자(78.7%),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78.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비영리단체는 사회에서 간과되는 중요한 사회문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는 인천/경기(88.2%), 대도시 거주자(87.0%)에서 높게 나타남.

# 15.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문)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중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 현재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는 '취약계층의 소득불안정'이 76.0%로 가장 높았으며,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이 54.8%,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성'이 25.3% 순으로 나타남(중복응답).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취약계층의 소득불안정'은 남성(78.7%), 대전/충청 거주자(8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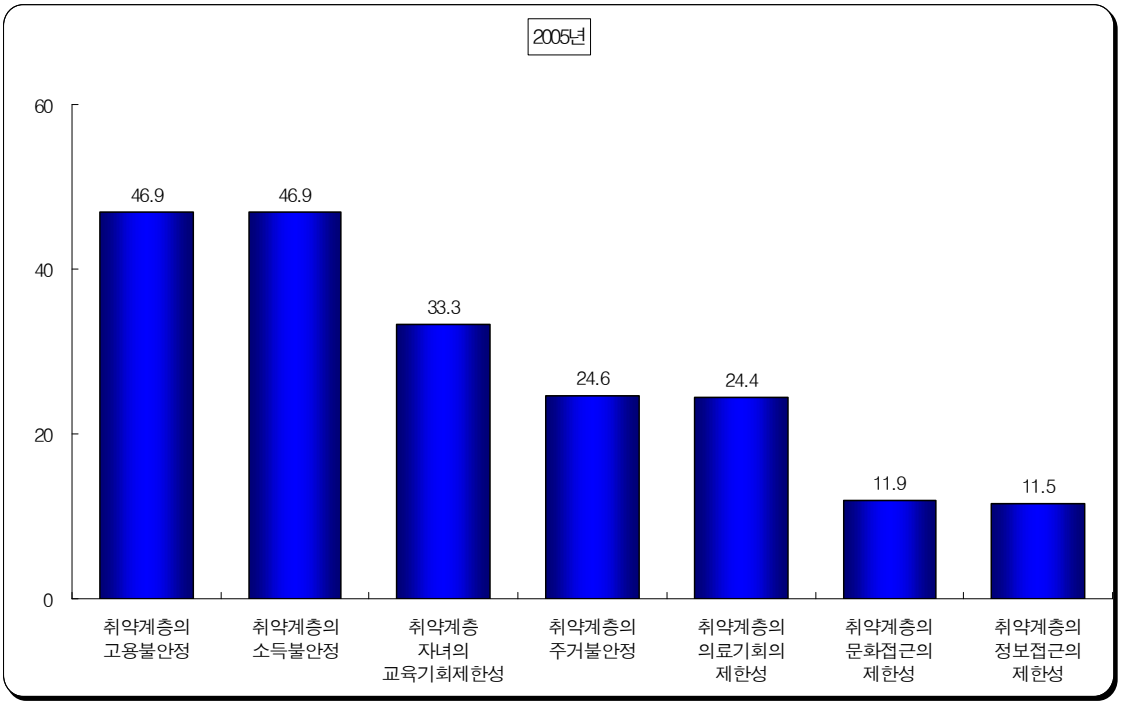
▷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은 화이트칼라(60.5%), 광주/전라 거주자(69.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성'은 서울(30.4%), 중소도시 거주자(2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6. 민간이 참여(나눔실천)하여 해결이 필요한 문제

**문) 귀하께서는 어떤 문제의 해결에 민간(시민, 기업, 종교기관)이 참여(나눔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민간(시민, 기업, 종교기관)이 참여(나눔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는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 과 '취약계층의 소득불안정' 이 각각 46.9%로 가장 높았으며,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성' 이 33.3% 순으로 나타남.




◎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

▷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 은 대구/경북(65.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취약계층의 소득불안정' 은 50대 이상(54.2%), 중졸이하(55.6%), 농/임/어업 종사자(76.2%), 주부(54.7%), 대구/경북(56.0%), 대전/충청(76.7%), 강원(70.0%), 읍/면(55.5%), 이혼/사별(65.5%), 불교신자(55.5%), 개인소득 49만원 이하(53.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8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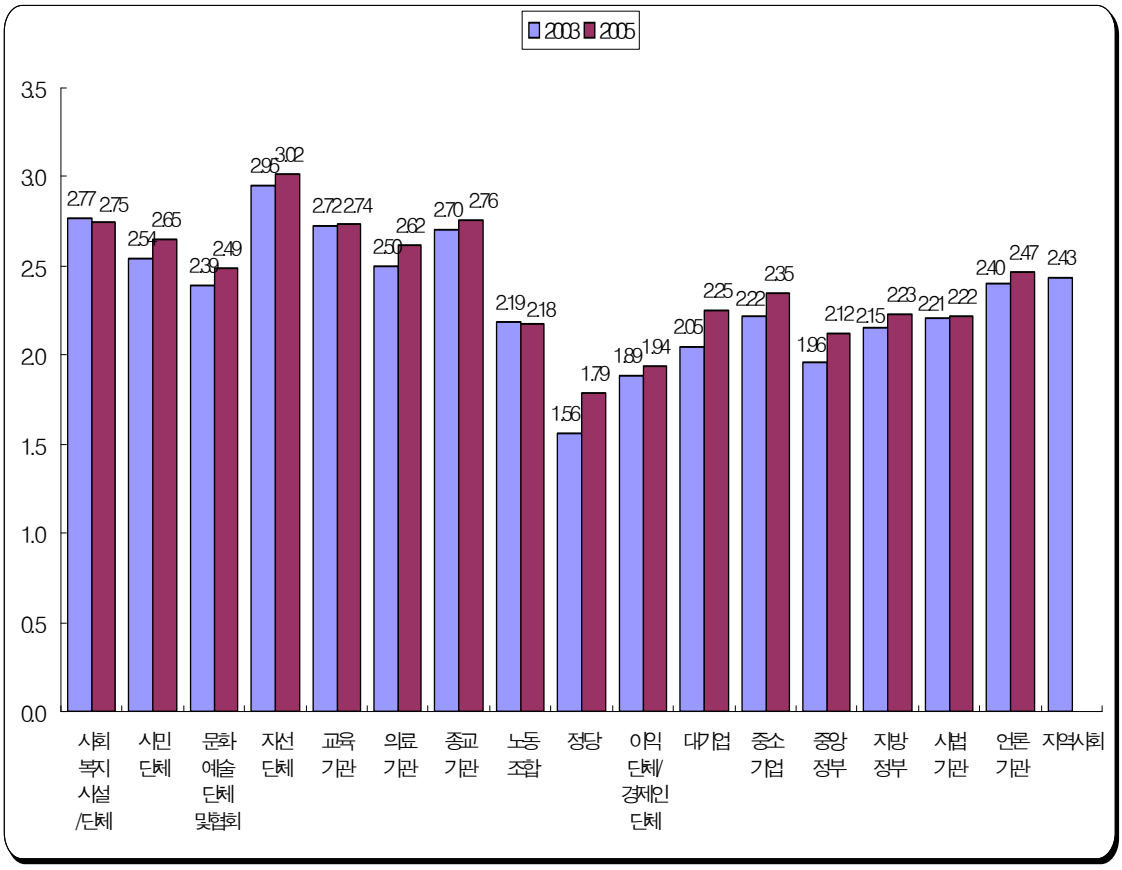
▷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성' 은 서울(40.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17. 시설/기관/단체별 신뢰도

**문)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O표를 해 주십시오.**

◉ 시설/기관/단체별 신뢰도를 물은 결과, '자선단체'가 4점 만점 중 3.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종교기관'(2.76점), '사회복지시설/단체'(2.75), '교육기관'(2.7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4점 만점 점수환산은 응답자의 응답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면 1점,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면 2점, "신뢰하는 편이다" 면 3점, "매우 신뢰한다" 면 4점으로 전환한 후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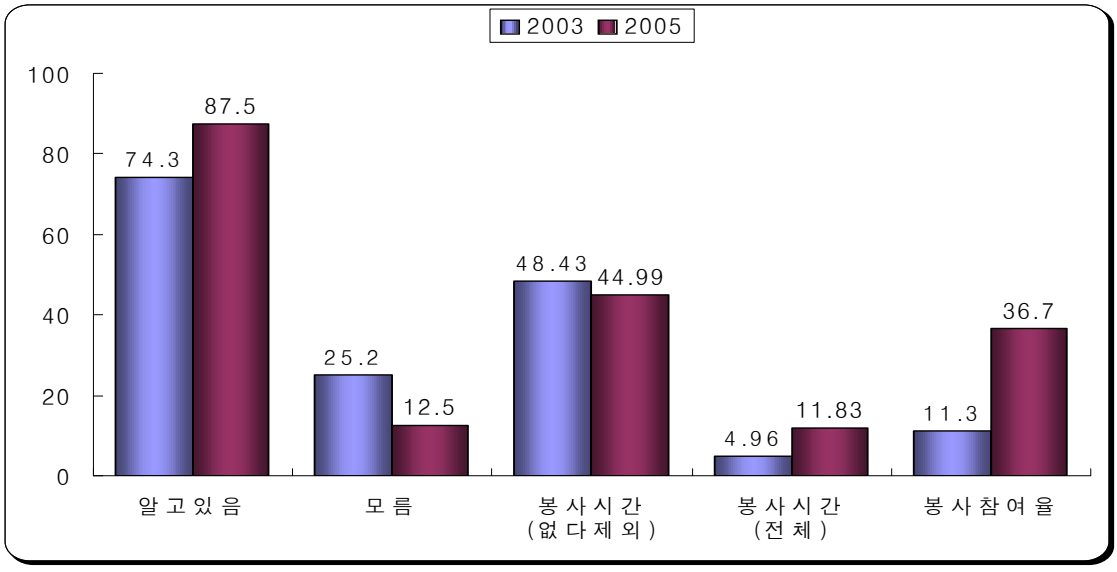
# 18. 2005년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

**문) 귀하께서는 귀하의 배우자 분(남편 또는 부인)께서 작년 한해(2005년 1월~12월) [보기카드 2의 '①번~⁂번' 과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총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교단체(교회/성당/절 등)를 위한 봉사활동' 은 자원봉사에 포함되지 않으니, 제외하고 생각해주십시오.**

**문) 귀하의 배우자 분(남편 또는 부인)께서는 작년 한해 자원봉사활동을 총 얼마나 하셨습니까? [보기카드 1]에서 '①-1번 종교단체(교회/성당/절 등)를 위한 봉사활동' 은 자원봉사에 포함되지 않으니, 제외하고 말씀해주십시오.**

◉ 기혼인 응답자 692명의 2005년 배우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인지율은 87.5%로 나타남 (n=692).

- 지난 2003년 조사와 비교할 때, 배우자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지는 87.5%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봉사시간도 11.83시간으로 증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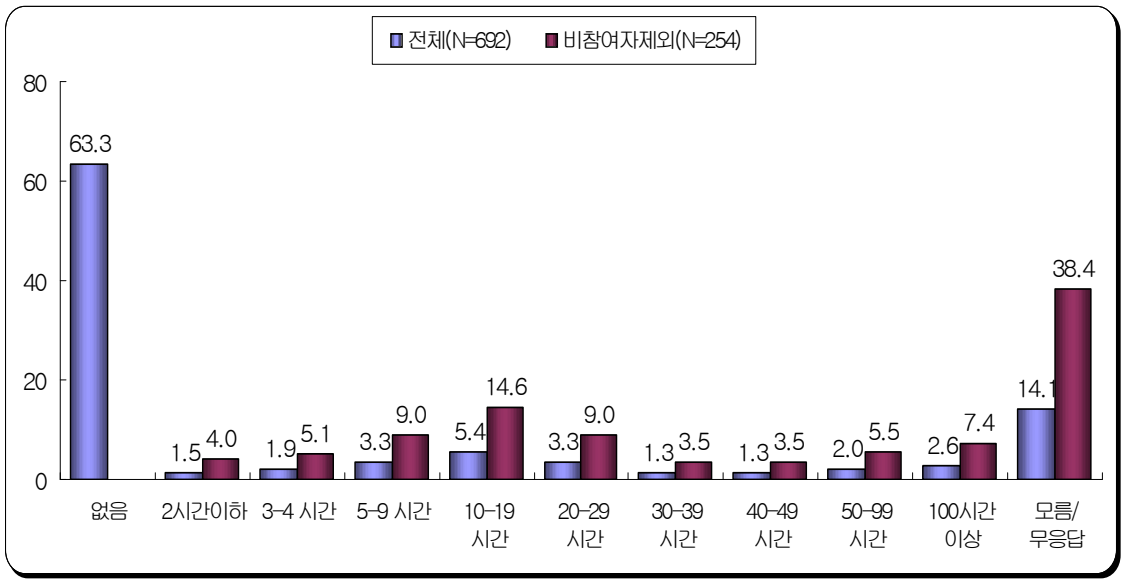



**<그림>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 692명 응답자의 배우자 중 2005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 36.7%(254명)이었음(참여 안 함 : 63.3%). 이는 2003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 11.3%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참여 안 함 : 88.7%).

◉ '모름' 을 제외하고, 참여한 경우 '10~19시간' (14.6%)이 가장 높았음.

◉ 한편, 배우자 전체의 평균(n=692)은 "11.83시간" 으로, 참여한 배우자의 평균(n=261)은 "44.99시간" 으로 나타남. 이는 2003년 배우자 전체 평균 "4.96시간" 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참여한 배우자의 평균 시간은 "48.43시간" 보다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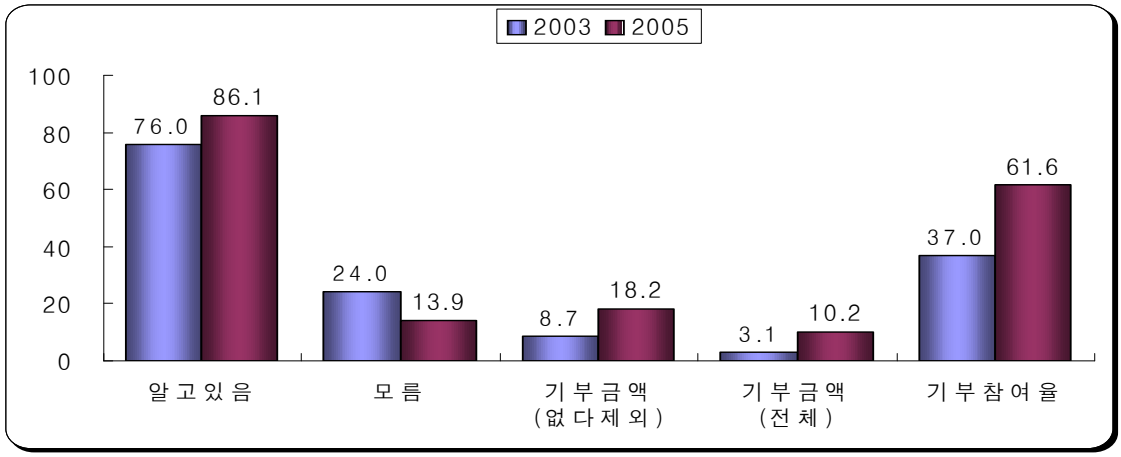

〈그림〉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

## 19. 2005년 배우자 기부 금액

**문) 귀하께서는 귀하의 배우자 분(남편 또는 부인)께서 작년 한해(2005년 1월~12월) [보기카드 2의 '①번~ ※번' 과 같은 곳에서] 기부를 총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기카드 2]에서 '②-1번 종교단체(교회/성당/절 등)에 헌금 및 보시' 는 기부에 포함되지 않으니, 제외하고 생각해주십시오.**

**문) 귀하의 배우자 분(남편 또는 부인)께서는 작년 한해 기부를 총 얼마나 하셨습니까? [보기카드 2]에서 '②-1번 종교단체(교회/성당/절 등)에 헌금 및 보시' 는 기부에 포함되지 않으니, 제외하고 말씀해주십시오.**

◉ 기혼인 응답자의 2005년 배우자의 기부 금액에 대한 인지율은 86.1%로 지난조사보다 10.1%포인트 증가하였음.(n=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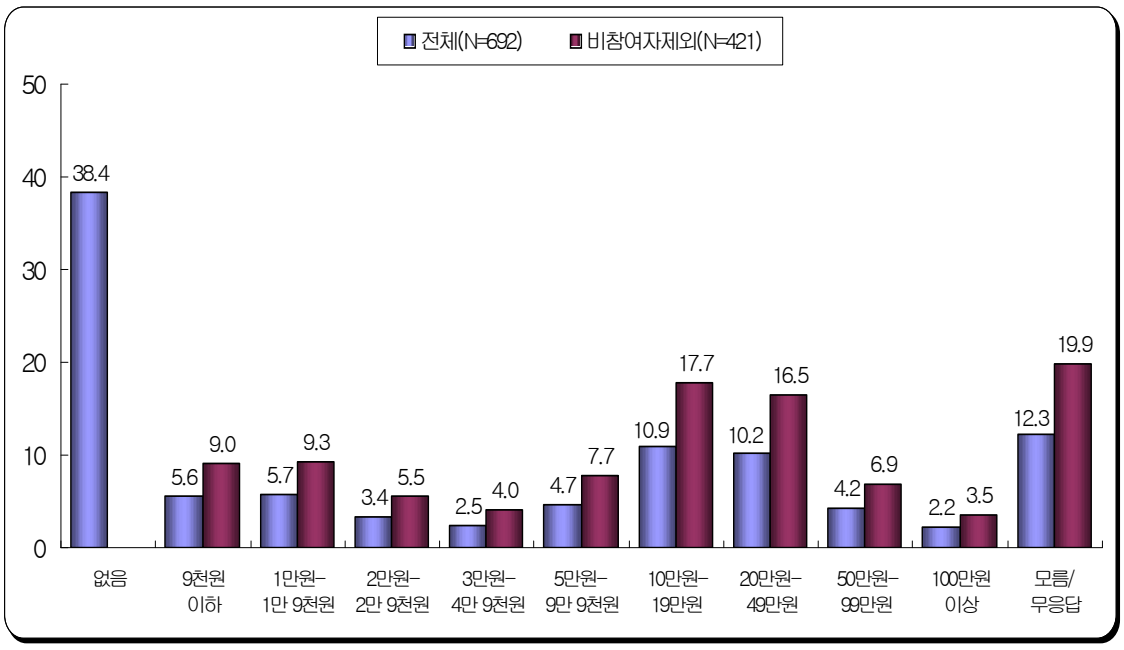



〈그림〉 배우자 기부 금액

◉ 683명 응답자의 배우자 중 2005년 기부에 참여한 비율 61.6%(421명)이었음(참여 안 함 : 38.4%).

◉ 참여한 경우 '10만원~19만원' (17.7%)이 가장 높았으며, '20만원 ~ 49만원' (16.5%)이 두 번째로 높았음.

◉ 한편, 배우자 전체의 평균(n=683)은 "10만 2천원"으로, 참여한 배우자의 평균(n=421)은 "18만2천원"으로 나타남.




**<그림> 배우자 기부 금액**

# 한국인의 나눔노력에 관한 연구

## Heckman Selection Model과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활용한 분석

I. 서론

II.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2. 변수 및 변수의 측정
3. 분석방법
4. 연구질문

III. 기술적 분석결과

1. 자원봉사관련 기술분석
2. 기부관련 기술분석
3. 기타 변수들에 관한 변수분석- 신뢰와 나눔의 사회화
4. 기부동기 외에 기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IV.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수행 및 수행정도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1. 자선적 기부활동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
3. 기타 변수들에 관한 변수분석- 신뢰와 나눔의 사회화

V. 자선적 기부노력 및 자원봉사 노력과 사회적 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1. 자선적 기부노력과 사회적 신뢰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
2.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VI. 결론 및 논의

# 한국인의 나눔노력에 관한 연구 : Heckman Selection Model과 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활용한 분석

_강 철 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E-mail : chulheekang@yonsei.ac.kr

○ **학력**

1986년 2월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 문학사
1989년 5월 Ohio State University, M.S.W.
1994년 12월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d.

○ **최근 주요 경력**

1994년 9월 - 1995년 8월 University of New Hampshire, 조교수
1995년 9월 - 200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부교수
2004년 3월 -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교수, 現 사회복지대학원 부원장

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POSCO 청암재단 이사, 중부재단 이사, KBS복지재단 이사

○ **최근 학회 활동**

한국사회복지학회 정회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이사, 한국비영리학회 이사

○ **최근 저서**

강철희 외 (2006)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최근 논문**

강철희(2005) “사회복지학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사회복지학, 57(4)
강철희, 이홍직, 홍현미라(2005),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한 분석: 인적자본관점과 인간능력관점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57(3)
이동렬, 강철희, 이지윤, 박설희(2005), “Characteristics of Exemplary Altruist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45(2)
강철희, 최소연(2005), “사회복지 수퍼비전의 방향 및 변인들에 관한 고찰: 연구와 실천방안을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1)

○ **최근 연구보고서**

강철희 외(2006), 개인 및 잠재적 고액기부 관련 조사연구, 한국공동모금회
강철희 외(2005), 동작복지재단 사업방향에 관한 연구, 동작복지재단
강철희 외(2005),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의 사회복지체계의 변화와 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철희 외(2005), 기업의 사회공헌활성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
강철희 외(2005), 이타주의: 이론과 실제, 아산복지재단
강철희 외(2005), 지역재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한국인의 나눔노력에 관한 연구

## I. 서론

나눔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현금과 현물의 나눔 그리고 둘째는 시간의 나눔이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형태의 나눔은 기부로 불리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형태의 나눔은 자원봉사로 불리는 경향이 있다. 다음의 분석에서는 한국인의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해 보고, 아울러서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과 관련성이 있는 예측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서 나눔노력과 신뢰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나눔노력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이다. 나눔활동에의 참여가 활성화될 때 사회적 연대의 구축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눔활동에의 참여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눔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참여 강도이다. 나눔을 위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동시에 나눔을 위한 참여의 강도가 보다 강화되어질 수 있을 때 사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나눔과 관련해서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은 바로 나눔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 그리고 나눔참여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의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나눔의 참여를 촉진하고 나눔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눔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흔히 사용하는 문장이 “Charity begins at home"인데, 이는 나눔은 가정에서의 교육과 실천으로부터 비롯되는 경향이 있음을 일컬으는 말이다. 나눔의 시작은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교육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만약 그 교육이 학교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서 만약 나눔 교육이 종교단체나 지역사회기관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실천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세대에서 나눔의 끈이 보다 공고하게 구축되고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사회의 미래 전망을 보면, 사회적 불안정성이 쉽게 예측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인구의 수는 줄어들고 노동할 수 있는 인구의 수 역시 절대적으로 감소되면서 노동 연령에 속하는 이들의 연금 등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점차 가중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국가 재정의 취약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력의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문제들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의 하나는 사회적 연대의식 및 연대행동의 확산과 강화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나눔의 노력이 가정, 학교, 종교기관 및 지역사회기관 등에서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통해서 확산되고 강화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일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과제와 관련해서 나눔의 사회화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 수 있는가를 나눔에의 참여 및 나눔노력과 관계 지워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지금까지 나눔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신뢰를 논의하면서 신뢰가 나눔에의 참여 등에 갖는 효과가 주요하게 다뤄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unilateral relationship)라기보다는 쌍방적인 관계(bilateral relationship)일 수 있다. 즉 신뢰가 나눔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나눔활동에의 참여 역시 신뢰의 형성과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일 수 있다. 후자의 논의는 Robert Putnam 등에 의해서 논의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실증적 연구에서는 그 관계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주제이나 이 논의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 만약 이러한 후자의 논의 역시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면, 이는 바로 신뢰의 형성 및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신뢰가 형성되어야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은 발표되고 있는데, 후자적 논의는 역으로 신뢰 형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접근의 하나가 바로 시민들을 나눔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임을 강조한다. 나눔을 확산하고 사회적 신뢰의 구축을 위한 이런 효율적인 접근 방식과 관련해서 과연 나눔노력과 신뢰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인가 혹은 쌍방

적인 관계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두 가지 구성요소, 즉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활동은 병행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인가 혹은 하나에 대한 선택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기부와 자원봉사는 보완재인가 혹은 대체재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다음에서는 이런 논의와 관련해서 위의 연구 주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의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 양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해서 그 현황을 밝히는 것 역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나눔의 전략 형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II.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06년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 의해 실행된 전 국민 기부 및 자원봉사 설문 자료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는 2006년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 국민 중 20세 이상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인구사회적 분포속성에 맞춰 다층표본추출방식(multiple stage area sampling)을 활용하여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2005년 한 해 동안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주요 초점을 두면서 개별적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된 조사이다. 2006년 조사의 표본 크기는 1,005명이다. 본 표본은 다음의 한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의 인구사회적 분포의 속성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제적으로 상위에 속하는 이들이 과소표집(under-representative)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변수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기술적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기부 참여 여부, 기부의 규칙성 여부, 연간 종교적 헌금의 규모, 연간 경조사비의 규모, 연간 자선적 기부 규모,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연간 자선적 기부의 규모, 가구소득대비 개인의 기부의 비중(종교적 헌금을 제외한 자선적 기부 노력), 자원봉사 참여 여부, 자원봉사의 규칙성 여부, 연간 자원봉사시간의 규모,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연간 자원봉사시간의 규모, 사회를 구성하는 각 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4점 척도) 등이다.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관련 변수의 개념화이다. 즉 기부와 자원봉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인데, 보통 외국의 연구에서는 기부와 자원봉사의 개념화 과정에서 종교적인 것 즉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과 종교적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에 대한 금전적 기여까지 기부에 포함시키는 접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기부 개념 설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것과 그 밖의 자선적인 것을 구분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본 자료는 기존의 국내에서의 접근에 기반해서 종교적인 기부 및 자원봉사와 그 밖의 자선적 기부 및 자원봉사를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기부의 규모에 대한 측정과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측정에 있어 정확성을 갖기 위해 보통 투입방식에 의한 측정(input measurement)과 산출방식에 의한 측정(output measurement) 등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에서 상대적인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외국의 대부분의 조사가 선택하는 방법인 투입방식의 측정 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기부와 자원봉사의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열거한 대상 각각에 대해서 기부나 자원봉사를 했는지를 회상하게 한 후, 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했는지를 물으면서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되어지는 변수로 소득수준,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학창시절의 교육경험, 부모의 기부 및 자원봉사 실천, 종교기관 및 지역사회기관 등에서의 기부 및 자원봉사 교육, 종교 및 교

육 수준 변수가 활용되었다. 가정, 학교, 종교기관, 지역사회기관 등에서의 기부 및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실천 경험을 합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음의 분석에서는 이를 나눔의 사회화 변수로 칭하고 이를 다시 기부 사회화 및 자원봉사 사회화로 구분하여 활용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 헥크만 2단계 추정 모형(Heckman's selection model) 그리고 연립방정식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에 의한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즉 나눔활동에의 참여여부 및 나눔노력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헤크만 분석 모형(Heckman selection model)을 사용하고,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쌍방적 관계에 대해서는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활용한다.

먼저 헤크만 분석 모형(Heckman selection model)의 유용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은 얼마나 기부하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기부노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쉽게 가질 수 있는 실수는 기부하는 이들만을 선택해서 추정한다는 것이다. 혹은 기부하지 않는 이들은 0으로 놓고, 기부하는 이들의 값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OLS 방식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기부하지 않는 이들의 기부노력을 제외시키고 추정하는 문제를 갖는다. 특히 기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정하기 때문에 과대 추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부는 신뢰 등의 변수에 의해서 그 잠재적인 기능에 대한 추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기부하는 이들만을 놓고 기부노력을 추정함으로 선택편의(selectivity bias)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 기부 노력이 0인 이들, 즉 기부를 하지 않는 이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선형관계를 고려함 없이 그냥 OLS를 돌리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첫 번째의 경우에 초점을 두어서 Heckman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기부 선택을 추정하는 식을 통해서 기부 노력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노력을 수행한다. 즉 기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 둘 중에서 기부에 참여하는 선택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 바로 이 정보는 기부의 정도 즉 기부 노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신뢰가 있었다면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부노력에 대한 추정식을 구성한다. Heckman selection model은 바로 두 번째의 공식, 즉 기부노력을 추정하는데 있어 기부 노력이 0 이상일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으로부터의 정보를 반영해서 두 번째 공식을 추정함으로써 앞서 문제로 제기한 선택편의(selectivity bias)를 정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잠재적인 기능의 추정 방식은 이 두 식(formula)의 오차(error term) 간의 상관관계를 두 번째 추정식에서 반영함에 의해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계적으로 정정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의 유용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많은 실증적 분석에서 일면적인 관계(unilateral relationship)에 대한 분석만을 가능케 하는 모형들이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즉 회귀분석이나 프로빗과 로짓 등의 질적 반응 모형 (qualitative response model) 그리고 영(0)이하의 값이 관찰되지 않는 문제(truncation)나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를 고려한 토빗 모형(Tobit model) 혹은 헥크만 2단계 추정 모형(Heckman's two stage least squares) 등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이러한 모형들은 추정 편의(estimation bias)나 모델 부정확성(model mis-specification)으로 인한 추정의 불일치성(inconsistenc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방식들은 일면적인 설명방식(unilateral relationship)에 의존하여 인과적 관계(causality)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을 가능성을 갖고 또한 모델 부정확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면적인 분석을 따르지 않고 양면적인(bilateral) 분석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면서 각각의 추정식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다중 추정식 모형(multiple equation model)중 연립 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분석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본 연구가 갖는 가정은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가 각기 상호 작용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가 각기 어떠한 균형관계(equilibrium relationship)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값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4. 연구 질문

본 연구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는 바, 즉 기본적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의 현황은 어떠한가? 즉 기부참여 및 기부노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 및 자원봉사노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인의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즉 기부참여 및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원봉사참여 및 자원봉사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는 쌍방적 관계를 갖는가?
넷째, 자선적 자원봉사노력과 신뢰는 쌍방적 관계를 갖는가?

## III. 기술적 분석 결과

1. 자원봉사관련 기술분석

<표 1> 조사대상자의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

(단위: 시간)

| | 평균 | 중간값 | 표준편차 |
|---|---|---|---|
| 자원봉사시간 | 9.5005 | 0.0000 | 32.75895 |

조사 대상자들의 연간 자원봉사활동의 규모를 살펴보면,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를 제외한 경우 조사 대상자들은 연간 평균 9.5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상자들만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분포는 정적인 방향으로 편포되어 있다.

<표 2> 자원봉사 경험자의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

(단위: 시간)

| | 평균 | 중앙값 | 표준편차 |
|---|---|---|---|
| 자원봉사시간 | 38.5 | 16.0000 | 56.93074 |

자원봉사 경험자들만을 고려해서 이들의 자원봉사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연간 38.5시간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은 평균 한 달에 약 3시간 정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종교기관을 위한 자원봉사 시간

(단위: 시간)

| 변수 | 평균 | 평균에 대한 표준오차 | 중간값 | 표준편차 |
|---|---|---|---|---|
| 종교 자원봉사 시간 | 2.2976 | 0.4807 | 0.0000 | 15.23734 |

한편 종교적인 목적 하에서 종교기관을 위해 실시되는 자원봉사의 시간, 즉 교회나 사찰 등을 위해 조사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시간은 평균 2.3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자원봉사시간이 9.5시간임을 감안할 때, 종교기관을 위한 자원봉사시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2. 기부관련 기술분석

<표 4> 조사대상자의 연간 기부 규모

(단위: 1,000원)

| 변수 | 평균 | 중간값 | 표준편차 |
|---|---|---|---|
| 현금기부 | 63.8438 | 10.0000 | 256.59589 |
| 현물기부 | 6.0398 | 0.0000 | 54.1508 |
| 현금기부+현물기부 | 69.8836 | 10.0000 | 262.03957 |

본 조사 대상자들의 경조사비와 종교단체를 위한 헌금 및 보시를 제외한 순수 자선적 목적만을 위한 현금 혹은 현물 기부를 의미하는 자선적 기부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들의 연간 자선적 기부액의 평균은 현금과 현물 모두를 고려했을 때 69,884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현금기부만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평균 63,844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물기부만을 고려했을 시에는 연평균 6,04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평균 현금기부 규모의 경우 표준편차의 값이 크고 중간값 역시 평균값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아, 기부의 분포가 전반적으로 정적인 방향으로 매우 많이 편포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물기부는 현금기부의 1/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에서 현물기부는 다소 미약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기부경험자의 연간 기부 규모

(단위: 1,000원)

| 변수 | 평균 | 중간값 | 표준편차 |
|---|---|---|---|
| 현금기부 | 93.1248 | 25.0000 | 305.53532 |
| 현물기부 | 8.8099 | 0.0000 | 65.22796 |
| 현금기부+현물기부 | 101.9350 | 30.0000 | 311.33702 |

조사 대상자 중 실제로 기부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간 기부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조사비와 종교단체 헌금 및 보시를 제외한 총 자선적 기부 규모는 평균 101,935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현금기부만을 고려한 경우 평균 93,125원, 현물기부만을 고려한 경우 평균 8,81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경우, 순수 자선적 목적을 위하여 매월 8,500원 정도의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부경험자들의 기

부규모의 분포는 역시 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편포된 모습을 보인다.

한편, 개인의 자선적 기부노력(philanthropic effort)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자선적 기부노력' 이란 경제적 능력에 대비한 개인의 기부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분석에서는 개인소득에 대비한 기부노력과 가구소득에 대비한 기부노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의 자선적 현금 기부노력은 평균 0.415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물과 현금을 포괄한 개인의 자선적 기부노력은 평균 0.4619%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0.4154% 정도의 수준에서 현금기부를 하고 있으며, 개인 소득의 0.4619% 수준에서 현물과 현금을 포함한 자선적 기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현금을 통한 개인의 자선적 기부노력은 평균 0.2095%이며, 현물과 현금을 포괄한 기부노력은 0.228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소득대비 기부노력의 규모

(단위: %)

| 변수 | 평균 | 중간값 | 표준편차 |
|---|---|---|---|
| 개인소득대비 현금 | 0.4154 | 0.0750 | 1.92602 |
| 개인소득대비 현금+현물 | 0.4619 | 0.0833 | 1.95008 |
| 가구소득대비 현금 | 0.2095 | 0.0400 | 0.72408 |
| 가구소득대비 현금+현물 | 0.2280 | 0.0400 | 0.73776 |

<표 7> 부부의 기부규모 및 기부노력

(단위: 1,000원, %)

| 변수 | 평균 | 중앙값 | 표준편차 |
|---|---|---|---|
| 부부 기부총액 | 175.0318 | 50.0000 | 398.48741 |
| 부부 기부노력 | 0.5514 | 0.1667 | 1.05294 |

다음으로 배우자의 기부에 관해서 인지하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부부의 기부규모 및 기부노력의 정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에서와 같이 기부에 참여하는 조사 대상자 개인과 그의 배우자의 기부총액과 가구소득 대비 부부 기부노력을 보면, 부부 기부총액의 경우 한 해에 부부가 기부한 평균 금액은 175,032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부 기부노력은 0.55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 기부노력의 경우, 앞서 제시된 기부경험자 개인의 기부노력인 0.4619%에 비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조사대상자의 종교 기부 액수

(단위: 1,000원)

| 변수 | 평균 | 중간값 | 표준편차 |
|---|---|---|---|
| 종교 현금 기부 | 130.0684 | 0.0000 | 524.4011 |
| 종교 현물 기부 | 1.0283 | 0.0000 | 12.2353 |

외국에서는 기부의 규모를 산정할 때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는 종교적 기부의 규모를 따로 산출해 보면, 현금의 경우 평균 130,068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물의 경우에는 1천원 정도가 종교기관에 헌금 및 보시의 형태로 기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선적 기부규모의 2배이상의 규모가 됨을 보여준

다.

다음으로 종교단체에 헌금 및 보시를 한 개인의 경우, 그들의 연평균 헌금 및 보시의 규모를 보면, <표 9>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간 437,742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선적 기부를 하는 이들의 평균적 기부규모의 4배 이상의 규모가 됨을 보여준다.

<표 9> 종교단체에 기부한 개인의 헌금 액수

(단위: 1,000원)

| 변수 | 평균 | 중간값 | 표준편차 |
|---|---|---|---|
| 종교 현금 기부한 개인 | 437.7416 | 140.0000 | 890.2497 |
| 종교 현물 기부한 개인 | 3.4608 | 0.0000 | 22.2836 |

<표 10> 조사대상자의 경조사 기부 액수

(단위: 1,000원)

| 변수 | 평균 | 중간값 | 표준편차 |
|---|---|---|---|
| 경조사 현금 기부 | 324.4047 | 150.0000 | 576.3664 |
| 경조사 현물 기부 | 3.4819 | 0.0000 | 31.3362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조사 기부가 보편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모를 보면, 조사대상자에게 있어 연 평균 약 324,405원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선적 기부규모의 5배 정도의 규모가 됨을 보여준다.

<표 11> 경조사에 기부한 개인의 경조사비 액수

(단위: 1,000원)

| 변수 | 평균 | 중간값 | 표준편차 |
|---|---|---|---|
| 경조사 현금 기부한 개인 | 437.3389 | 300.0000 | 631.3034 |
| 경조사 현물 기부한 개인 | 4.6941 | 0.0000 | 36.3121 |

다음으로 경조사와 관련해서 기부를 한 이들만의 경조사 기부 규모를 보면, <표 11>에서 인지되는 바와 같이 연 평균 437339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규모는 자선적 기부를 하는 이들의 기부 규모의 4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타 변수들에 대한 기술분석-신뢰와 나눔의 사회화

<표 12> 신뢰의 정도

| 변수 | 평균 | 최소값 | 중간값 | 최대값 | 표준편차 |
|---|---|---|---|---|---|
| 신뢰 | 38.5830 | 16.00 | 39.0000 | 64.00 | 7.1959 |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를 살펴보면 <표 12>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평균 점수는 38.58이고 중간값은 39점으로서 전체점수의 중간값인 40점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들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전

체 중간값보다는 다소 낮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신뢰의 정도가 신뢰함과 신뢰하지 못함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3> 나눔 사회화의 정도

| 변수 | 평균 | 최소값 | 중간값 | 최대값 | 표준편차 |
|---|---|---|---|---|---|
| 나눔사회화 전체값 | 5.5055 | 0.00 | 6.0000 | 11.00 | 3.3137 |
| 가족나눔 사회화 | 2.5075 | 0.00 | 2.0000 | 5.00 | 1.8395 |
| 자원봉사 사회화 | 2.3264 | 0.00 | 2.0000 | 5.00 | 1.6595 |
| 기부사회화 | 3.1815 | 0.00 | 3.0000 | 6.00 | 1.8836 |

최근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나눔사회화의 정도 그리고 하위 요소들이라 할 수 있는 가족나눔사회화, 자원봉사사회화, 기부사회화의 정도를 분석해 보면 <표 13>에 정리되는 바와 같다. 먼저 나눔의 사회화 정도를 보면, 전체값의 중간값인 6점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5.5점의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가족나눔의 사회화의 경우, 전체값의 중간값인 3점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2.5점의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의 사회화와 기부의 사회화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의 사회화의 경우 전체값의 중간값인 3점보다 적은 2.33점의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기부의 사회화의 경우에는 전체값의 중간값인 3.5점보다 적은 3.18점의 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나눔의 사회화와 관련해서 연구대상자들이 교육과 경험을 다소 갖고는 있으나 보편적이지는 못하고 다소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 Ⅳ.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수행 및 수행정도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 1. 자선적 기부활동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

다음에서는 기부활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측 요인 그리고 기부활동의 정도에 대한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즉 <표 14>와 <표 15>는 Heckman selection model 의 two-step 결과들이다. 이 분석에서 사용된 사례의 수는 759명이고, Wald $\chi^2$의 값은 132.07로서 이 모델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14>는 Heckman selection two-step model의 1단계 분석으로서 자선적 기부 활동 여부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변수들의 관계를 Probit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14>에서의 결과가 나타내듯이, 자선적 기부활동의 수행여부와 관련해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력 중에서는 연령, 직업 변수인 자영업, 생산직, 사무직, 주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참여, 기부사회화, 자선기관 투명성에 대한 관심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여부와 관련하여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 변수는 대체적으로(marginally)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해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선적 기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자영업과 생산직 그리고 사무직과 주부 등의 직업적 지위를 갖는 경우 자선적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자선적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서 기부에 대한 사회화가 더 되어질수록 자선적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관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부에 의한 사회적 파급효과의 고려가 더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대체적으로 높은 모습, 즉 이 둘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 자선적 기부 참여 여부에 대한 Probit Model에 의한 분석결과: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의 1단계

| | Coef. | Std. Err. | z | P>z | [95% Conf. Interval] | |
|---|---|---|---|---|---|---|
| 연령 | .0285381 | .0047905 | 5.96 | 0.000 | .019149 | .0379273 |
| 자원봉사 참여 | .4514659 | .1309434 | 3.45 | 0.001 | .1948215 | .7081104 |
| 기독교 | .0387308 | .1221062 | 0.32 | 0.751 | −.200593 | .2780547 |
| 불교 | .0401931 | .1299749 | 0.31 | 0.757 | −.2145531 | .2949393 |
| 자영업 | 1.113061 | .2018331 | 5.51 | 0.000 | .7174757 | 1.508647 |
| 생산직 | .8599953 | .2081718 | 4.13 | 0.000 | .451986 | 1.268004 |
| 사무직 | 1.18235 | .2066037 | 5.72 | 0.000 | .7774142 | 1.587286 |
| 주부 | 1.008649 | .2116665 | 4.77 | 0.000 | .5937902 | 1.423507 |
| 사회기관신뢰 | .0109232 | .0506368 | 0.22 | 0.829 | −.088323 | .1101694 |
| 가구소득 | .0004247 | .0003964 | 1.07 | 0.284 | −.0003523 | .0012017 |
| 나눔대상과의 거리 | .0566194 | .051602 | 1.10 | 0.273 | −.0445188 | .1577575 |
| 가족규모 | .083577 | .0538807 | 1.55 | 0.121 | −.0220273 | .1891813 |
| 기부사회화 | .1053827 | .0277459 | 3.80 | 0.000 | .0510016 | .1597637 |
| 기부의지 | .1692817 | .1228659 | 1.38 | 0.168 | −.0715311 | .4100945 |
| 기관투명성 | .2207276 | .1121668 | 1.97 | 0.049 | .0008848 | .4405705 |
| 사회적 파급효과 | .2926436 | .1534869 | 1.91 | 0.057 | −.0081852 | .5934724 |
| Constant | −3.077113 | .3838611 | −8.02 | 0.000 | −3.829467 | −2.324759 |

다음으로 <표 15>는 Heckman two-step model의 2단계 분석으로서 자선적 기부노력에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OLS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15>에서 정리되듯이, 자선적 기부노력과 관련해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독교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선적 기부노력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눔대상과의 거리 변수 역시 자선적 기부노력과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눔대상과의 거리를 더 크게 수용할수록, 자선적 기부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자선적 기부노력에 대한 OLS 회귀분석 결과: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의 2단계

| | Coef. | Std. Err. | z | P>z | [95% Conf. Interval] | |
|---|---|---|---|---|---|---|
| 연령 | .0037543 | .0081572 | 0.46 | 0.645 | −.0122335 | .0197422 |
| 자원봉사시간 | .0014629 | .0013395 | 1.09 | 0.275 | −.0011625 | .0040882 |
| 기독교 | .2698865 | .100601 | 2.68 | 0.007 | .0727123 | .4670608 |
| 불교 | .1509746 | .1087387 | 1.39 | 0.165 | −.0621494 | .3640985 |
| 자영업 | .1764652 | .3909916 | 0.45 | 0.652 | −.5898643 | .9427947 |
| 생산직 | .0354953 | .3600603 | 0.10 | 0.921 | −.6702099 | .7412005 |
| 사무직 | .1420416 | .4237215 | 0.34 | 0.737 | −.6884373 | .9725205 |
| 주부 | .0155379 | .3869788 | 0.04 | 0.968 | −.7429265 | .7740024 |
| 사회기관신뢰 | −.0002222 | .0415064 | −0.01 | 0.996 | −.0815733 | .0811289 |
| 가구소득 | 6.08e−06 | .0002475 | 0.02 | 0.980 | −.0004789 | .0004911 |
| 나눔대상과의 거리 | .1274087 | .0424438 | 3.00 | 0.003 | .0442204 | .2105971 |
| 배우자 기부 | −.0674642 | .1255626 | −0.54 | 0.591 | −.3135624 | .178634 |
| 가족규모 | .0158077 | .0535055 | 0.30 | 0.768 | −.0890611 | .1206765 |
| 기부사회화 | .0471918 | .0359085 | 1.31 | 0.189 | −.0231875 | .1175712 |
| 기부의지 | .0458269 | .1013018 | 0.45 | 0.651 | −.1527211 | .2443748 |
| 기관투명성 | −.0743571 | .1061953 | −0.70 | 0.484 | −.282496 | .1337819 |
| 사회적 파급효과 | .0007051 | .1408594 | 0.01 | 0.996 | −.2753742 | .2767845 |
| Constant | −.5451732 | 1.201394 | −0.45 | 0.650 | −2.899863 | 1.809516 |

<표 14>와 <표 15>의 분석결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기부활동에의 참여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로 연령, 직업더미(자영업, 생산직, 사무직, 주부), 자원봉사참여, 기부사회화, 기관투명성에 대한 관심,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 등이 파악되나, 자선적 기부노력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성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부노력과 관련해서는 기독교와 나눔대상에 대한 포괄적 수용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들 중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기부사회화의 효과와 자원봉사참여와의 관련성이다. 즉 어린시절 및 학창시절의 기부활동과 관련된 가정, 학교, 종교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의 경험과 교육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실제적 기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린시절 및 학창시절에의 기부활동에 대한 접촉을 높이게 유도하는 활동, 기부에 대해서 교육하는 활동,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은 우리사회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기부참여의 가능성과 정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 둘의 관계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의 관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동시에 기부에의 참여를 병행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둘의 관계가 상호 유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을 이용한 분석 결과

다음의 <표 16>과 <표 17>은 자원봉사참여 및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Heckman selection model의 two-step 결과들이다. 이 분석에서 사용한 사례수는 681명이고, Wald $\chi^2$값은 100.62로서 이 모형의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16>은 Heckman two-step model의 1단계 분석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수행여부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성을 갖는 변수들을 Probit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16> 자원봉사활동 수행여부에 대한 Probit Model에 의한 분석결과: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의 1단계

| 자원봉사 | Coef. | Std. Err. | z | P>z | [95% Conf. | Interval] |
|---|---|---|---|---|---|---|
| 연령 | .0078017 | .0066262 | 1.18 | 0.239 | -.0051853 | .0207888 |
| 기부참여 | .5200943 | .1408751 | 3.69 | 0.000 | .2439842 | .7962043 |
| 기독교 | .4762243 | .1370983 | 3.47 | 0.001 | .2075166 | .744932 |
| 불교 | .4150178 | .1463787 | 2.84 | 0.005 | .1281208 | .7019147 |
| 자영업 | -.3094952 | .3322992 | -0.93 | 0.352 | -.9607897 | .3417993 |
| 생산직 | -.1871379 | .3398879 | -0.55 | 0.582 | -.8533061 | .4790302 |
| 사무직 | .1090563 | .3487486 | 0.31 | 0.755 | -.5744783 | .7925909 |
| 주부 | -.2972847 | .342925 | -0.87 | 0.386 | -.9694054 | .374836 |
| 사회기관신뢰 | .0801908 | .0569798 | 1.41 | 0.159 | -.0314875 | .1918691 |
| 개인소득 | -.0012326 | .0006453 | -1.91 | 0.056 | -.0024974 | .0000322 |
| 나눔대상과의 거리 | -.1864884 | .059644 | -3.13 | 0.002 | -.3033884 | -.0695883 |
| 가족규모 | .1941807 | .0655714 | 2.96 | 0.003 | .0656631 | .3226983 |
| 배우자 자원봉사참여 | -.2263487 | .1707832 | -1.33 | 0.185 | -.5610775 | .1083801 |
| 자원봉사 사회화 | .2310386 | .0353317 | 6.54 | 0.000 | .1617897 | .3002874 |
| Constant | -2.109548 | .5831101 | -3.62 | 0.000 | -3.252423 | -.9666735 |

<표 16>에서 나타나듯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와 관련해서 기부참여, 기독교, 불교, 나눔대상에 대한 포괄적 수용정도, 가족규모, 자원봉사 사회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은 대체적으로(marginally)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bit 분석 결과를 보면, 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기독교 및 불교와 같은 종교를 갖는 경우, 그리고 나눔대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더 클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수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사는 가족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화의 정도가 더 클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관계, 즉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개인소득이 작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수행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은 자원봉사활동 수행과 부적(-)인 방향에서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17>은 Heckman two-step model의 2단계 분석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성을 갖는 변수들을 OLS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17>이 보여주듯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과 관련해서 어떠한 변수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었던 기부참여, 기독교, 불

교, 나눔대상에 대한 포괄적 수용의 정도, 가족규모, 자원봉사 사회화, 그리고 개인소득 등의 변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대한 OLS회귀분석 결과: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의 2단계

| Newtime | Coef. | Std. Err. | z | P>z | [95% Conf. | Interval] |
|---|---|---|---|---|---|---|
| 연령 | .272192 | .5496868 | 0.50 | 0.620 | -.8051744 | 1.349558 |
| 개인기부노력 | 10.25808 | 6.677314 | 1.54 | 0.124 | -2.829217 | 23.34537 |
| 기독교 | -4.905354 | 13.94654 | -0.35 | 0.725 | -32.24007 | 22.42936 |
| 불교 | -15.44287 | 13.73353 | -1.12 | 0.261 | -42.3601 | 11.47436 |
| 자영업 | 20.15884 | 24.7874 | 0.81 | 0.416 | -28.42358 | 68.74126 |
| 생산직 | 3.677226 | 24.16028 | 0.15 | 0.879 | -43.67605 | 51.0305 |
| 사무직 | -5.261091 | 24.36844 | -0.22 | 0.829 | -53.02235 | 42.50017 |
| 주부 | 22.495 | 25.03345 | 0.90 | 0.369 | -26.56966 | 71.55967 |
| 사회기관신뢰 | 1.624769 | 4.130526 | 0.39 | 0.694 | -6.470913 | 9.720451 |
| 개인소득 | .0594932 | .0538136 | 1.11 | 0.269 | -.0459796 | .1649659 |
| 나눔대상과의 거리 | -.2151545 | 5.745478 | -0.04 | 0.970 | -11.47608 | 11.04577 |
| 배우자자원봉사 참여 | 14.78956 | 11.82512 | 1.25 | 0.211 | -8.387252 | 37.96638 |
| 가족규모 | -5.585066 | 6.214028 | -0.90 | 0.369 | -17.76434 | 6.594205 |
| 자원봉사 사회화 | 4.160099 | 5.656169 | 0.74 | 0.462 | -6.92579 | 15.24599 |
| Constant | -1.480202 | 73.78252 | -0.02 | 0.984 | -146.0913 | 143.1309 |

<표 16>과 <표 17>의 분석결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원봉사활동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로 기부참여, 기독교, 불교, 나눔대상에 대한 포괄적 수용의 정도, 가족규모, 자원봉사 사회화, 그리고 개인소득 등이 파악되나,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과 관련해서는 이들 변수의 관계성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들 중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 사회화의 효과와 기부참여와의 관련성이다. 앞의 기부에 대한 분석에서도 보여주었듯이, 나눔에 대한 어린시절 및 학창시절의 사회화는 후속시간대에서의 이러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어린시절 및 학창시절의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가정, 학교, 종교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의 경험과 교육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실제적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어린시절 및 학창시절에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접촉을 높이게 유도하는 활동, 자원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활동,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은 우리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부에의 참여는 자원봉사 참여의 가능성과 정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부에 대한 위의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둘의 관계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의 관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부활동을 하는 경우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병행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둘의 관계가 상호 유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 V. 자선적 기부노력 및 자원봉사노력과 사회적 신뢰간의 관계에 대한 Simultaneous Equation Model에 의한 분석

### 1. 자선적 기부노력과 사회적 신뢰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

자선적 기부노력과 사회적 신뢰의 관계에 대해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8〉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두 내생변수인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각 방정식 내에서의 결과를 보면, 신뢰의 기부노력에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기부노력의 신뢰에의 영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에 대한 방정식에서 자선적 기부노력의 신뢰에의 영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가 양면적(bilateral)인 모습을 가질 것으로 보았으나, 이 결과에는 상호 균형(simultaneous equilibrium)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성립되지는 않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표 18〉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s)을 통한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사이의 관계 분석

| 내생변수 | 구분 | Coef. | Std. Err. | t-value | p-value |
|---|---|---|---|---|---|
| 자선적 기부노력 | 신뢰 | 1.420 | 1.250 | 1.14 | 0.257 |
| | 기부 사회화 | 0.014 | 0.030 | 0.45 | 0.653 |
| | 교육수준 | -0.073 | 0.196 | -0.37 | 0.711 |
| | 기독교 | -0.257 | 0.443 | -0.58 | 0.563 |
| | 불교 | -0.084 | 0.206 | -0.41 | 0.685 |
| | 가구수입 | -0.000 | 0.000 | -1.12 | 0.265 |
| | 자영업 | 0.256 | 0.189 | 1.35 | 0.176 |
| | 생산직 | 0.374 | 0.251 | 1.49 | 0.136 |
| | 사무직 | 0.029 | 0.232 | 0.13 | 0.900 |
| | 주부 | 0.234 | 0.199 | 1.17 | 0.242 |
| | Constant | 0.264 | 0.412 | 0.64 | 0.522 |
| 신뢰 | 자선적 기부노력 | 0.880 | 0.260 | 3.38 | 0.001 |
| | 자원봉사여부 | 0.009 | 0.099 | 0.10 | 0.924 |
| | Constant | -0.199 | 0.064 | -3.11 | 0.002 |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선적 기부노력 방정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적 기부노력에 대한 예측변수로서 신뢰와 기부사회화 변수 등이 특별히 정적인 방향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 연구 결과에서는 예측된 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신뢰모형에서는 신뢰에 대해서 자원봉사의 참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의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 결과와 관련 지워 해석하면, 이러한 결과는 자선적 기부여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여부가 상호 보완재(supplement)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신뢰와의 관계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여부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선적 기부노력이라는 노력의 측면이 신뢰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2.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관계에 대해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9〉 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두 내생변수인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에 대한 방정식에서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유사하게 신뢰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자원봉사노력의 영향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에 대한 방정식에서 자원봉사노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의 관계가 양면적(bilateral)이지 않을 수 있고 상호 균형(simultaneous equilibrium)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9〉 2단계 최소자승추정법(Two Stage Least Squares)을 통한 자원봉사노력과 신뢰사이의 관계 분석

| 내생변수 | 구분 | Coefficient | Standard Error | t-value | p-value |
|---|---|---|---|---|---|
| 자원봉사노력 (시간) | 신뢰 | 76.833 | 74.670 | 1.03 | 0.304 |
| | 자원봉사 사회화 | 3.110 | 1.647 | 1.89 | 0.059 |
| | 교육수준 | -9.868 | 11.520 | -0.86 | -.392 |
| | 기독교 | -21.934 | 26.474 | -0.83 | 0.408 |
| | 불교 | -10.262 | 11.928 | -0.86 | 0.390 |
| | 가구수입 | -0.013 | 0.022 | -0.59 | 0.555 |
| | 자영업 | -4.609 | 10.019 | -0.46 | 0.646 |
| | 생산직 | 6.263 | 13.696 | 0.46 | 0.648 |
| | 사무직 | -13.233 | 13.037 | -1.02 | 0.310 |
| | 주부 | -1.057 | 10.327 | -0.10 | 0.918 |
| | Constant | 22.950 | 23.096 | 0.99 | 0.321 |
| 신뢰 | 자원봉사노력(시간) | 0.013 | 0.005 | 2.36 | 0.019 |
| | 기부여부 | 0.036 | 0.083 | 0.43 | 0.666 |
| | Constant | -.0.143 | 0.064 | -2.20 | 0.028 |

한편, 자원봉사노력 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대체적인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는 유일하게 자원봉사의 사회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원봉사노력이라는 현상이 자원봉사활동에의 접촉과 교육을 제공해 주는 환경적 배경에, 즉 이러한 사회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속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뢰모형에서는 신뢰에 대해서 자선적 기부를 위한 참여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의 관계에서 언급하였듯이 Heckman selection model에 의한 분석 결과와 관련 지워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보면, 이는 자선적 기부여부와 자원봉사활동참여 여부 변수가 상호 보완재(supplement)의 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신뢰와의 관계에서는 기부에의 참여 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시간이라는 노력의 측면이 신뢰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에 의하여 실시된 2006년 '전국민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전국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적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의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아울러서 헤크만 모형을 통해서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았다. 또한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간의 쌍방적 관계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간의 쌍방적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자원봉사시간에 있어서 종교자원봉사를 제외했을 때 전체의 평균은 9.5시간이고, 종교기관을 위한 자원봉사의 평균은 2.3시간이며, 자원봉사를 행하는 이들의 연간 평균 시간은 38.5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원봉사시간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든 규모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부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 조사는 한국인의 평균적 자선적 기부규모는 현금과 현물을 합했을 때 69,884원 정도이고, 기부를 행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평균 101,935원 정도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부 규모를 개인의 소득 및 가구의 소득과 대비시켰을 때, 개인소득에 대비했을 때 약 0.46%정도이고 가구소득에 대비했을 때 약 0.23%정도임을 보여준다. 한편 배우자의 기부를 인지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의 기부노력을 합산할 경우, 이는 가구소득의 0.5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선적 기부의 규모와 종교적 헌금 및 보시 등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인 전체의 종교관련 헌금 및 보시의 규모에서 현금만을 보면 평균 13만원 정도로 자선적 기부의 2배 이상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인 헌금 및 보시 등을 행하는 이들만의 평균 규모는 연간 437,742원 정도로 자선적 기부를 행하는 이들의 자선기부규모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금번 조사에서 새롭게 포함시킨 경조사비의 규모를 보면, 한국인 전체의 현금 경조사비의 규모는 평균 324405원 정도이고,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만을 보면 평균 437339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의 규모가 자선적 기부의 5배 이상임을 인식할 수 있고, 후자의 규모 역시 자선적 기부를 행하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의 규모가 됨을 인식할 수 있다.

한국인의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의 현황을 정리해 보면, 현재 그 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종교적인 헌금 및 경조사비 등과의 비교 차원에서 상대적인 규모를 보면 자선적 기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1/2에서 1/4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헤크만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 참여와 관련해서는 연령, 자원봉사 참여, 직업, 기부 사회화, 기관투명성에의 관심,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 등이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노력과 관련해서는 기독교 및 나눔대상에 대한 포괄적 수용의 정도만이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았을 때, 기부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설정된 요인들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부노력에 대해서는 일부 요인만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즉 설정된 요인들의 설명력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부참여여부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기부 사회화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결과는 기부참여노력에는 사회화 변수의 영향력이 미치지는 못할 수 있으나 기부참여 여부에는 사회화 변수의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원봉사 참여 역시 기부 참여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나눔 참여와 관련해서 기부와 자원봉사는 보완재의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참여와 관련해서는 기부 참여(+), 종교(+), 개인소득(−), 나눔대상에 대한 포괄적 수용 사회화(−), 가족원의 크기(+), 자원봉사 사회화(+)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원봉사노력과 관련해서는 설정된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았을 때, 자원봉사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설정된 요인들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원봉사노력에 대해서는 설정된 요인들의 설명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원봉사참여여부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서론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화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노력에서도 역시 사회화 변수의 영향력은 미약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참여여부의 경우에서는 자원봉사 사회화와 같은 사회화 변수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부 참여 역시 자원봉사 참여와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나눔 참여와 관련해서 기부와 자원봉사는 보완재의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부 참여의 경우와는 달리 자원봉사 참여의 경우에는 종교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적인 가르침의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서 나눔의 사회화의 방편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해 본다.

마지막으로 신뢰가 사회적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사회적 참여 행동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 즉 일방적 분석 방식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노력과 신뢰 간에 쌍방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연립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선적 기부노력과 신뢰 그리고 자원봉사노력과 신뢰는 기대했던 쌍방적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기존의 논의, 즉 신뢰가 사람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한 사회적 활동에의 관여함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그 반대의 결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한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는 사회 및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 신뢰의 형성과 강화를 가능케 한다고 설명하는 Robert Putnam의 주장이 의미 있게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는 논의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시사점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로 그간 외국의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어져 온 가정을 통한 나눔과 나눔 교육 등을 통한 사회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부분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임이 검증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즉 최근에 외국의 연구에서뿐만이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자선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 “는 논제에 기반한 자선의 가족내외에서의 사회화 효과가 부분적으로는 실증적으로 확인될 수 있음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나눔의 확산을 위해서 무엇이 일차적인 과제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즉 무엇보다도 가정 내외에서 행해지고 가르쳐지는 나눔 실천이 지속적으로 나눔을 위한 참여 행동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눔 사회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화 형성을 유인하는 노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및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이러한 관대함의 실천이 갖는 의미 및 중요성을 교육하고 강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 종교기관,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질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둘째로 자선적 기부 및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신뢰가 원인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논의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그 반대 방향에서의 영향력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논의와 검증에 따르면 신뢰의 우선적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자선적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서 신뢰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비영리 영역의 자원 개발과 확대를 모색하면서 사회에 대한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 더욱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선적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있어서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자극하고 유인하며 유지하는 노력 자체가 선순환적인 관계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보다 효율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시사점과 관련해서 앞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 및 후속연구와 함께 그 방안들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English Abstract>

# Giving and Volunteering of Koreans

Analysis Using Heckman Selection Model and Simultaneous Equation Model

Kang Chul Hee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 I. Introduction

Giving can be partitioned into two principle divisions: the provision of cash and goods and the contribution of time. The former is conventionally known as donation and the latter volunteering. This paper will analyze Koreans' degrees of both participation in and effort toward giving and identify predictive factors related to participation in and effort toward giving while ident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efforts toward giving and trust.

Broad participation of citizens is a critical factor in societal inclination toward giving. Given that the formation of social solidarity is facilitated by escalating engagement in giving activities, it is advantageous to analyze participation in such activities. The next crucial element is level of participation. A society will see more s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en a wider range of people participates in giving and the degree of engagement grow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focus on the promotion of participation and foster engagement in giving. To this end,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participation and effort toward giving of Koreans is imperative.

The consequence of philanthropy education has been a recent focus in the promotion of greater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in giving. "Charity begins at home," a commonly cited phrase, currently implies that a predilection to give tends to stem from education and practice at home. Parental influence is significant in the initiation of giving habits but if philanthropy education is systematically provided at school, it will have an augmentative effect. Furthermore, if this education permeates deeply into religiou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future generations will benefit from a more substantial and enduring giving culture.

There is a concern that ongoing demographic shifts may increasingly destabilize Korean society. A shrinking population could result in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labor force and a simultaneous increase of the financial burden on working age people to fund pensions for retirees. This may entail financial vulnerability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and a deterioration of social cohesion. One of the social imperatives for our present and future may be the expansion and amplification of

the spirit and practice of social unity. This mandates both expanding and consolidating our giving culture through socialization at home, schools, religious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Considering this vital social undertaking, it is crucial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ocialization of giving on participation in and effort toward giving.

Trust is considered a deciding factor in predicting giving and the investigation of its effect on aspects of giving such as philanthropic participation is pivotal.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giving, however, can be bilateral. Trust can have an impact on giving behaviors while giving may influence the creation of trust. Although the latter hypothesis, which was argued by Robert Putnam, has not been explored in depth in empirical research, it sheds light on social evolution. If the argument were established empirically, it would suggest a new approach for trust-building. Simply put, while studies prove that participation in giving activities tends to increase as trust grows, Putnam and others indicate that involvement in social activities - such as giving and volunteering - is effective in trust-building. When seeking the efficacious promotion of giving culture and building trust in the society, it would be revelatory to investigat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is bilateral or unilateral.

Finally, it has been questioned whether the two components of giving, donation and volunteering, tend to be practiced mutually or independently. That is, it is debated whether they are complementary or alternatives to one another. In this regard, our research will additionally discuss the correlation between donation and volunteering. Empirical findings on this relationship will be useful in developing strategies for giving programs in conjunction with societal development.

## II. Research Materials and Analysis

### 1. Research Materials

This research is based on a nation-wide survey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by Koreans conducted in 2006 by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in Korea. Samples were collected across the nation between July 10 and August 11, 2006 on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over, using multiple stage area sampling and taking into account the socio-demographic distribution of Koreans. The survey used interview techniques focusing on the donation and volunteering experience of individuals during the year 2005. The sample size for the 2006 survey is 1,005 subjects. The sample is considered a proper representation of socio-demographical features of South Koreans with one exception: the economic upper class might be under-represented.

## 2. Variables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The variables used for technical analysis in this research are the following: donation experience, regularity of donation, annual contribution to religious organizations, annual congratulatory and sympathetic contributions, annual philanthropic donation, annual amount of philanthropic donation by people who regularly give money, percentage of philanthropic donation (excluding religious contribution) in household income, volunteering experience, regularity of volunteering, annual amount of time spent in volunteering, annual amount of time spent in volunteering of people who regularly give time, and degree of trust in societal institutions (this variable measured on a 4-point scale).

In this paper, the salient thing is the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donation-related variables donation and volunteering is relatively strictly defined. In general, researchers in other countries include religious contribution and volunteering. Some researchers also include financial assistance to relatives. Research conducted in Korea is inclined, on the contrary, to distinguish religious contribution from secular donation. This paper separately analyzes religious donation and volunteering and donation and volunteering without religious purpose, following the established practice of philanthropy research in Korea.

Measurement of giving and volunteering is another issue in the study of giving and volunteering. Input measurement and output measurement are commonly used techniques regarding accuracy in the measurement of amount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This research uses input measurement, which is adopted by many researchers for efficiency despite relative limitations in accuracy. The input approach measures the scale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by showing the interviewee lists of specific recipients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and asking if the interviewee has donated to or volunteered for each recipient. When a subject responds affirmatively, the subject is asked how much money or time he/she contributed to that recipient.

In this research, the following variables are taken into account: income level, exposure to donation and volunteering education in the public school system, donation and volunteering habits of the subjects' parents, learning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at religious or community organizations, religion, and level of education. In the subsequent analysis, experiences with education and practice of donation and volunteering within the home, schools, religious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will be combined as the socialization variable of giving and further segmented into socialization of donation and socialization of volunteering.

### 3. Analysis Methods

Heckman's selection model and simultaneous equation model are selected in this research, along with descriptive analysis of each variable. Heckman's selection model is used for the estimation of participation in giving and the level of effort toward giving, while simultaneous equation models are used to investigate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and between effort toward volunteering and trust.

The Heckman selection model is considered useful in this research on several grounds. A possible error might be found in estimating the donation scale or philanthropic effort of individuals thus, analysis might focus only on people who give money with using Ordinary Least Squares (OLS) estimation.

It is problematic as it excludes the effort toward giving of people who do not donate. In particular, it may result in an error of over-representativeness by ruling out potential operations that may influence the choice of giving. For example, giving can be estimated for its potential relationship with variables such as trust. Estimation only subjected to people who give money may have selectivity bias in this regard. In addition, it may not obtain accurate OLS estimation when it fails to consider possible linear relations from people who do not give. Heckman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regarding these issue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first case. Initially, a procedure can be performed to obtain information on potential operations that may influence effort toward giving by using an equation to estimate people's choice of giving. Researchers can collect data showing the degree of influence of a specific variable on the decision of individuals who choose giving over not giving. This information may lead to more accurate prediction of an individual's degree of giving or effort toward giving. For example, an estimation equation can be created for effort toward giving using data obtained about people who might have given had they had trust in the recipient. Heckman's selection model corrects the selectivity bias described in the previous paragraph by estimating a second equation reflecting data of potential operations of which effort toward giving is presumed over 0. This method of estimating potential operations takes an approach that statistically corrects selection bias by reflecting the correlations of error terms between the two equations in the second estimation equation.

Regarding the efficacy of simultaneous equation model, many empirical analyses have adopted models that simply enable analysis of unilateral relationships. For example, qualitative response models such as regression analysis, probit and logit models, the Tobit model that takes into account sample selection bias or truncation which discards values below 0, or Heckman's two stage least squares are considered attempts to resolve issues of inconsistency in estimation that rise

from estimation bias or model mis-specification. However, these estimation models depend on unilateral relationships, which may prevent them from providing proper explanations of causality. There also remains an issue of model mis-specification that needs to be addressed.

This paper adopts a multiple equation model, specifically simultaneous equation model, which enables not only identification of causalities to a certain degree through a bilateral analysis but also a lucid interpretation of each estimation equation.

When using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is research assumes that values are determined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philanthropic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and between effort toward volunteering and trust – that is, values are determined when philanthropic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and effort toward volunteering and trust have achieved a certain equilibrium.

### 4. Research Questions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nd effort of Koreans regarding giving? In other words, what is their level of participation and level of effort in giving? What is their level of participation and level of effort in terms of volunteering?

Second, what are the identifiable factors that influence Koreans' participation and effort in giving? What are they in terms of participation and effort in volunteering?

Third, do philanthropic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have a bilateral relationship?

Fourth, do effort toward volunteering and trust have a bilateral relationship?

## III. Results, Conclusion and Discussion

This research used '2006 National Survey on Giving and Volunteering of Koreans', conducted by the Beautiful Foundation in Korea, to define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nd effort toward giving of Koreans. Along with descriptiv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Heckman's selection model was employed to identify factors that may influence participation in and effort toward giving. In addition, an empirical analysis was attempted by using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o determine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philanthropic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and between effort toward volunteering and trust.

The average annual time spent volunteering was 9.5 hours (excluding volunteering for religious purposes), while volunteering for religious organizations took an average of 2.3 hours. The annual amount of time for volunteering among people who do regular volunteer works averaged 38.5 hours. Overall, the time spent for volunteering has reduced slightly compared to past years; the chang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Additionally, there seems to be little change in donation. This research revealed that the average annual philanthropic donation of Koreans of combined cash and goods amounted to about 69,884 won (US $70), with an average of 101,935 won ($102) for people who give money regularly. As a percentage of personal and household income, donation comes to 0.46% of personal income and 0.23% of household income, on average. In addition, focusing on giving efforts of a married couple who were aware of his/her partner's giving, it amounted to about 0.55% of household income.

When compared with the scale of philanthropic donation, the average religious cash contribution of 130,000 won ($130) was more than double that of philanthropic donation; the annual average of about 437,742 won ($438) of combined cash and goods given for religious purposes by people who donate regularly for religious reasons was more than four times that contributed by people who give for philanthropic reasons.

As to congratulatory and sympathetic gifts, which were included for the first time in this study because of strong continuity of the traditional custom, the amount of cash given for the purpose per year reached 324,405 won ($ 324) in average. When considering only for people who give for the traditional reasons, the average was 437,339 won ($ 439) when cash and goods are combined. This demonstrates that more than five times the average cash philanthropic donation is contributed for the causes such as mutual assistance. Such donation (437,339 won)is more than four times as large as philanthropic donation made by people who give for philanthropic reasons.

In summary, participation in and effort toward giving of Koreans have not significantly changed. As a proportion of contributions made for religious purposes and mutual assistance, philanthropic donation was one-half to one-quarter of the respective amounts.

There are several findings derived from Heckman's selection model. Regarding participation in giving, the factors of age,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occupation, socialization of giving, concern for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organizations, and social impact of the cause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positive (+) direction. In terms of effort towards giving, however, only membership in a

Christian religion and general social acceptability (distance) on the recipients demonstrat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positive direction. In sum, those factors seem to have some influence on people' s participation in giving, but they are insufficient for influencing effort towards giving.

It is noticeable; however, that socialization of giving, which w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of this paper, has a significant influence in philanthropic participation. This implies that although socialization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eople' s effort to philanthropic causes, it ma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whether or not someone participates in philanthropic giving. Meanwhile,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lso appeare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articipation in giving, which indicates that donation and volunteering can correspond to one another.

As for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participation in giving (+), religion (+), personal income (−), general social acceptability (distance) on recipients of donation (−), family size (+), and socialization of volunteer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On the other hand, none of the factors were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effort (hours)to volunteer. Those factors seem to be somewhat influential in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but have little effect, if any, on the effort to volunteer.

As mentioned above and in the introduction, socialization stimulates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lthough it appears not to be perceptibly influential in the effort to volunteer, socialization variables, such as socialization of volunteering, ma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in volunteering. Furthermore, as shown with donation, participation in donation also demonstrate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indicating that donation and volunteering can be complementary.

It is also shown that religion is likely to be an influential factor in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but not in participation in donation. The potential influence of religious teachings indicates that socialization of giving needs to be approached from diverse directions.

Lastly, this research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trust influences social participatory behaviors and vice versa by assuming a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philanthropic effort toward giving and trust and between the effort to volunteer and trust by employing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in order to overcome the restrictions that the existing unilateral approach may present. While the outcome did not confirm the expected bilateral relationship, an interesting result was evidenced. Many researchers have argued that trust can be a primary influence on the positive decision to engage in social activities through giving or volunteering. The results of our research, however, suggested the reverse might be true as well.

It underscores Robert Putnam's argument that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giving and volunteering helps create and strengthen people's trust toward the society and its members.

This research presents two significant points for review. First, it has proven that the socialization through giving at home and philanthropy education identified as important in other countries by previous studies can have a similarly positive effect in Korea. The results of our research that empirically show the encouraging effect of socialization of giving based on the expanded notion "Charity begins at home" can indicate a possible initial step in fostering a sustainable giving culture in our society. Simply put, given that the practice of giving learned inside and outside of home ca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n philanthropic participation, it is pivotal in the long run for us to make an effort to create a sustainable culture of philanthropy through the socialization of giving.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for schools, religious organizations, civic group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o provide an array of philanthropic education programs that teach the importance of practicing altruism at home, in schools, and in communities.

Second, unlike to the general assertion that trust can be a causal variable in philanthropic donation and volunteering, this research implies that the reverse can be more influential. While many papers have established that trust-building needs to come before encouraging donation or volunteering, this research has indicated that participation in giving and donation could have the additional effect of accelerating trust-building. It can be argued using this finding that promoting increased participation in philanthropic giving and volunteering will be an effective strategy in the endeavor toward trust-building in civil society and the augmentation of non-profit sector resources.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hilanthropic giving, volunteering, and trust, making an effort to accelerate, attract and maintain public participation in giving and volunteering can be an effective strategy that intensifies a virtuous circular relationship. Finally,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revisit these findings and following research efforts need to be made with applying more specified methods for their practical application.

#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부와 자선행위

## 전통과 경향에 관한 발표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부와 자선행위 – 전통과 경향

부록. 2005년도 네덜란드의 기부 현황 – 주요결과 요약

1. 2003년도 조사결과
2. 1995-2003년도 경향
3. 요약

#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부와 자선행위 - 전통과 경향


## _테오 슈이트 (Theo N. M. Schuyt)

Professor, Head of the Department of Philanthropic Studies at the Vrije Univerisiteit Amsterdam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E-mail : tnm.schuyt@fsw.vu.nl

Add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Faculty Social Sciences, Center for the Study of Philanthropy, De Boelelaan 1081 1081 HV Amsterdam


테오 슈이트(Theo N.M.Schuyt)는 1993년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rije Univerisiteit Amsterdam)에서 6명의 직원 및 연구자들과 함께 팀을 이뤄 " 네덜란드의 기부" (Giving in the Netherland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시민의 자선적 기부에 대한 첫 번째 연구 사업으로서, 매년 " 네덜란드의 기부" 라는 거시 경제보고서를 격년으로 출간하고 있다. 테오는 2000년에 대학원에 기부와 자선행위에 대한 연구수업을 개설했으며, 2001년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기부 및 자선학과(Philanthropic Studies)의 학장이 되었다. 현재 그는 네덜란드의 기부와 자선 관련 분야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다음 계획은 "Giving Europe" 보고서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현재 벨기에,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그의 연구를 전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관련분야 최근영문저서

네덜란드의 기부, Elsevier, 1997,1999, 2001,2003,2005

네덜란드의 재단 : 유럽 재단들의 펀더멘탈, European Foundations Centre,1999 (공동저)

기부 자선행위와 서유럽복지국가모델의 다양화,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가,4(1), 2001

직원의 자원 활동의 노동력에 있어서의 효과, Journal of Business Ethics, 61,2., 2005 (공동저)

소비자들을 위한 최저선으로서의 기업사회공헌 활동, Business and Society, 44,4, 2005 (공동저)

네덜란드의 사회적 기부 1995년~2003년, Journal Nonprofit Voluntary Sect. Marketing, 11, 2006 (공동저)

이방인, 구조, 사회적 중재의 역학 관계 : 이론적인 구조, Ashgate Publishers, 2007 (공동저)

# 서유럽 복지국가의 기부와 자선행위 - 전통과 경향

**요약**

서유럽 복지국가의 미래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두 가지 영역에 집중된다. 즉, 정부 재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 부문과 시장 및 수혜자 부담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이다. 궁금한 것은 이 두 가지 외에는 대안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비영리와 자원봉사 부문은 존재하지 않는가? 가족이나 자선 부문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제로 작용할 수 없는가? 이 마지막 질문과 관련하여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자선 부문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새롭고도 "오래된" 현상인 자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선 부문이 정말 다시 부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과거의 전통이 다시 부활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보다 연관성 있는 질문으로, 자선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에 적합한가? 여러 연구자들과 정치인들은 복지 국가 모델을 자선 중심의 과거 즉, 빈약한 빈곤 구제와 자선에 대한 승리로 간주하고 있다.

앞으로 자선이 다시 부활한다면 서유럽 복지 국가에서는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가? 복지 국가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 Esping Andersen의 방법에 근거하여 자선이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추정을 하였는데, 이는 각 복지 국가의 구조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먼저, 독일의 사회학자인 루만의 주장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다. 1973년에 쓴 논문 'Formen des Helfens im Wandel 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에서 루만은 도움에 대한 윤리적 또는 심리적 해석을 고려하지 않고 대신 필요시에 도움이 기대되거나 제공되는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다. 루만은 도움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원'이라고 정의한다(o.c.: 21).

루만은 사회를 개발을 통해 보다 복잡해지고 분화되는 사회적 제도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제도가 발전할수록 조율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조율해야 할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 제도가 더욱 복잡해진다. 루만은 이론적 틀을 설명한 다음 그것을 발전 단계가 각기 다른 세 가지 사회적 형태 즉, '*archasche Gesellschaft*' (고대 사회), the '*hochkultivierte Gesellschaft*'(고문화 사회) 및 '*moderne Gesellschaft*'(근대 사회)'에 적용한다.

고대 사회는 역할이 다양하지 않으며 외부 환경의 위협이 크다. 내부 체계가 복잡하지 않고,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집단이나 부족 구성원들은 매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생활한다. 루만의 정의에 따르면, 여기에는 시간 요소의 소규모 제도화가 존재한다. 가진 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분명하며 직접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성이 도움을 조율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루만은 사회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상호성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감사의 표시가 유연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문제는 상호적 사회 교환에 기반한 제도화된 이전이 자본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고대 사회 중에서 일부만이 고문화 사회로 발전한다. 고문화 사회로 변화할 때는 보통 농업, 비즈니스 및 교역에서의 생산 노동의 분화와 계급이나 지위에 따른 재화의 분배가 급격히 증가한

다. 정치권력의 분화는 이러한 두 가지 변화 유형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고, 거기에서 개인주의가 파생한다. 노동의 분화는 사회적 지위와 결합되고, 계급 분화는 조율 기제로써의 직접적인 상호성을 무용하게 만든다. 자선품이 새로운 조율 기제로 나타나면서 문제와 도움을 동시에 소외시킨다. 자선품 기부는 지위와 계급 분화에 대한 안전장치로써 기능한다. 고문화 및 근대 사회에서는 도움과 도움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사회 보장의 특수한 경제적, 사법적 형태로부터 분리된다. 모든 필요의 충족은 돈으로 결정되며, 자선품 기부 체계는 불명예로 전락한다. 부자들은 더 이상 돈을 주어야 할 도덕적 압력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볼 때, 이 기제는 무제한적이다. 돈의 사용이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쌍방간의 의지를 제거한다. 따라서 루만은 도움이 개인적 결정과 무관한 형태 즉,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루만은 근대 사회를 세 번째 단계의 사회적 형태로 구분하고 그 핵심은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도움은 인력과 프로그램, 전문화(방법)와 정책으로 구성된다. 그러한 도움의 기능은 부분적으로 사회적 위신과 급여라는 동기로 선택하는 직업이 된다. 개별적인 문제 사례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틀 안에서 발생하고, 프로그램은 문제를 결정한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루만은 프로그램화된 직업으로써의 도움이 갖는 중요한 측면 '*selektive Nichtbeachtung*(선택적 무지)'에 대해 설명한다.

비록 서구 국가들에서 조직이 도움의 주요한 형태가 되었으나 '전통적인' 형태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 국제사회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형태의 구조적 문제는 제도 개발에 의한 계획적인 지침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거기에는 정치적, 조직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 상호성이나 자선적 윤리, 또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따라서 루만은 도움이 갖는 기존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로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b.).

도움에 대한 루만의 분석은 사회에 대한 제도-이론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분화 과정에서의 특정 단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특정한 형태의 도움은 각 분화 단계와 연관지을 수 있다. 다음 표는 루만의 분석을 요약한 것이다.

| | 사회 유형 | 재분배의 조율 기제 | 도움의 형태 |
|---|---|---|---|
| 발전 단계 | | | |
| 분화가 거의 없음 | 고대 | 상호성 | 상호적 도움 |
| 분화 | 고문화 | 윤리적 Erforderung | 자선 물품 제공 |
| 분화의 정도가 큼 | 근대 | 조직 | 프로그램, 프로젝트 |
| 분화의 정도가 매우 큼 | 세계 | ---------- | 재분배 |

### philanthropy와 charity?

사회정책 연구자들 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은 자선(philanthropy)이 유럽의 사회 발전에서 후진적 단계라고 간주한다. 즉, 자선은 복지 국가 이전의 시기로 중세에 속하며 기독교적 가치와 동정적 자선(charity)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Swaan, 1988; Leeuwen: 2000). 복지 국가 및

복지 국가의 정책의 존재가 바로 자선이 대변하는 것의 정반대 즉, 불평등, 온정주의 또는 임의성 대신 시민권과 사회권을 보여준다.

사회적 연대 또는 상호지원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시사회에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가족 및 부족의 유대가 요구되었다. 보다 분화된 사회에서는 가족간의 유대에 더하여 교회와 민간 조직이 여기에 참여하고, 고도로 발달한 사회, 복지 국가에서는 정부 프로그램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Luhmann 1973). 복지 국가에서는 정치기구가 자신들의 사회 정책에 따라 그 사회의 사회적 계층을 결정한다(Mishra 1983). 그러나 복지 국가의 사회적 연대가 가족과 교회, 민간 자선 조직의 기여를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오늘날 자선은 공익을 위한 민간의 활동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Payton). 이는 개인과 재단 및 기업의 사회에 대한헌신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목표를 위한 개인과 가구의 기부, 개인의 유산 기부, 재단의 기금 배분 및 기업의 기부와 후원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목표는 종교, 복지 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 그리고 국제원조를 포함한다. 자선은 사회 전반의 안녕에 대한 관리 및 사회적 책임을 표현한 것으로, 여러 경우에 금전적 인센티브와 같이 보다 이기적인 동기가 자선적 행위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공익에 우선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자선이라고 간주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선은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것(돈, 물품 및/또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Schuyt, 2003: 25)

"세계시민사회 연구"에서는 전 세계 22개국의 비영리 수익을 확인할 수 있다(1995년도 추정액). 세계적으로 "개인, 기업 및 재단을 통합한 민간 자선 부문은 평균적으로 비영리 수익의 11%에 불과하다"(Salamon 등 1999: 24). 이 연구의 추정에 따르면, 서유럽 국가들의 비영리 부문에 대한 자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영국: 9%, 프랑스 7%, 아일랜드 7%, 오스트리아 6%, 벨기에 5%, 독일 4% 및 네덜란드 3%.

비영리 수익의 출처

| 국가 | 수혜자 부담 | 정부 지원 | 자선적 기부 |
|---|---|---|---|
| 영국 | 44% | 47% | 9% |
| 핀란드 | 58% | 36% | 6% |
| 프랑스 | 35% | 58% | 7% |
| 독일 | 32% | 64% | 4% |
| 네덜란드 | 38% | 59% | 3% |
| 스페인 | 49% | 32% | 19% |
| 벨기에 | 18% | 77% | 5% |

| | | | |
|---|---|---|---|
| 아일랜드 | 16% | 77% | 7% |
| 오스트리아 | 44% | 50% | 6% |

(Salamon 1999:25)

1990년대까지 자선 부문의 거시 경제적 기여도가 체계적으로 조사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유일했다. 미국에서는 인디애나폴리스 대학교(Center for the Study of Philanthropy)의 미국기금모금연합위원회(AAFRC)가 1955년 이후 매년 미국의 자선 동향에 대한 보고서인 "Giving USA"를 발간하였다. 네덜란드는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사한 연구를 실시한 국가로, 1993년 이후 Vrije Universiteit가 격년으로 "Giving the Netherlands"를 발간해왔다.

**자선의 부활? 자선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

서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민간자선 부문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복지국가 이전 단계로 간주되는 자선이 '부활' 하는 조짐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인구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노년층 인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가족의 규모는 점점 축소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부의 성장을 들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의 세대는 점점 부유해졌으며, 돈을 다음 세대로 전승하고 있다. 이들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녀들 뿐 아니라 사회적 목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근거하여 보스톤 사회복지 연구소(Boston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의 경제학자들은 "자선의 황금기(The golden age of philanthropy)"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Havens 및 Schervish 1999, 2003).

세 번째는 *정치적 이유*이다. 20세기 말 대부분의 서유럽 복지 국가들은 정치와 정책상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재정적 축소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의 축소도 의미하는 것이다.

**구성 요소의 변화**

서유럽 복지 국가들은 현재 과도기에 있다. 전 유럽 및 국가 수준에서의 인구학적 변화와 부의 증가, 문화적/정치적 발전은 경제, 사회, 정치 기구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서유럽은 현재 구조조정을 거치는 중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동유럽 국가들을 통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내의 인종적 다양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도기는 서유럽을 지속적으로 부유하고 민주적인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및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상태이다. 이 과도기를 통합적인 문화 구조, 새로운 복지 국가의 패러다임으로 끌어가는 것은 철학자와 학자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미래의 번영을 창출하는 핵심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 구제 장치이다. 경제적, 정치적 변화로 인해 사회 보장장치와 일반적인 공익의 구성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책임을 재평가하고 재원의 출처를 다시 할당한다. 간단히 말해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시민 사회"로 변화하는 중이다. 사회 (보장) 장치는 다음의 세 가지 재원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a. 정부 지원
b. 수혜자 부담
c. 자선 (Salamon 및 Anheier 1999).

이처럼 구성 요소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다른 구성 요소들은 여기에 보태어진 것이다.

***정부*** 는 계속해서 다양한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다. 또한, 조세 정책을 통해 공익 부문에 기여할 것이다. 교육과 가족 지원, 아동 양육, 특별 혜택 (수당) 등은 일정 한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영어로는 이를 'fiscal welfare(재정 복지)' 또는 'hidden welfare state(감추어진 복지 국가)' 라고 한다(Mishra 1981).

***시장.***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보험, 의료 보험 및 민간 사회 보장 영역의 성장이다. 정부 행정 하의 저축이 감소하자 시민들은 개인 및/또는 집단 보험과 같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찾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의료, 교육 및 소득 보장 보험이 포함된다.

직업 복지 역시 이 시장 모델의 일부로 여기에는 기업 및 산업계가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시장 부문에서는 오랫동안 직원 복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직업 복지로 간주해 왔다. 교육 시설, 근로 환경, 주택, 아동 양육 및 노년층 직원에 대한 정책이 직업 복지 범주에 포함된다.

***가족.*** 세 번째 구성 요소는 1차 네트워크로 이것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이 '자구 여력' 이 없을 때 가장 먼저 파트너,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라는 1차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정부와 재계는 이미 모성/부성 휴가 제도를 마련하였고, (스웨덴에서와 같이) 네덜란드에서는 (연로한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 휴가(care leave)를 일반 관행으로 정착시켰다.

네 번째 요소인 개인과 재단, 기업의 공익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는 *자선*으로 구분된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복지 국가 서비스의 구성 요소 :

1. 정부(사회 서비스 및 '재정 복지' )
2. 시장(민간 보험 모델 및 직업 복지)
3. 가족(1차 네트워크)
4. 자선

## 참고문헌


Becker, U. (2000) 'Welfare state development and employment in the Netherlands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0, 3: 21939.

Clasen, J.(ed.). (1999). *Comparative Social Policy;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Polity Press.

Ferrera, M. (1996a) 'The southern model of welfare in social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 1: 1737.

Ferrera, M. 1996b 'The partitocracy of health. Towards a new welfare politics in Italy', *Res Publica* 38, 2: 44759.

George, V. & P.Taylor-Gooby (ed.). (1996). *European Welfare Policy; Squaring the Welfare Circle.* London: MacMillan Press.

*Giving USA 2003*. Indianapolis: Center for the Study of Philanthropy

Goodman, R. and I. Peng (1996)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Peripatetic Learning, Adaptive Strategy, and Nation-Building', in G. Esping-Andersen (ed.)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Greve, B. (ed.) 2003 The end of the Welfare State.

Havens, J.J. and P.G. Schervish (1999) *Millionaires and the Millenium: New Estimates of the Forthcoming Wealth Transfer and the Prospects for a Golden Age of Philanthropy.*Paper. Boston: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 Boston College).

Havens, J.J. and P.G. Schervish (2003). 'Why the $ 41 trillion wealth transfer estimate is still valid: a review of challenges and questions' In: *Journal of Gift Planning*, vol. 7,1, pp. 11-15, 47-50

Hill, M. (1993). *Understanding Social Policy*. Oxford: Blackwell

Hill, M. (1996*). Social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London: Prentice Hall

Leeuwen, M.H.D. van, (2000). The Logic of Charity. London: Macmillan

Leonard, P. (1997). *Postmodern Welfare; Reconstructing an Emancipatory Project.* London: Sage.

Lessenich, S. (1994) 'Three Worlds of the Welfare Capitalism' – oder vier? Strukturwandel arbeits- und sozialpolitischer Regulierungsmuster in Spanie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Zeitschrift 35, 2: 22444.

Luhmann, N. (1973). Formen des Helfens im Wandel gesellschaftlichen Be(pp. 21-43). In: H.U. Otto & S. Schneider (Hrsg), *Gesellschaftliche Perder Sozial*. Neuwied/Darmstadt: Luchterhand.

Merton, R.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Mishra, R. (1981). *Society and Social Policy. Theoretical Perspection Wel*. LonMacMillan.

Mishra, R. (1986). Social analysis and the welfare state: Retrospect and prosIn: E. Oyen (red.), *Comparing Welfare States and their Futures* (pp. 20-32). AlGower.

Payton. R.L. 1988. *Philanthropy: Voluntary Action for the Public Good.* New York: Macmillan

Parsons, T. (1951). *The Social System*. London: Routledge.

Rex, J. (1961). *Key Problems of Sociological Theory*. London: Rout

Salamon, Lester M. et al. (1999).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o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uyt, Th.N.M en B.M. Gouwenberg (red.). (2005). *Geven in Nederland*. (Giving in the Netherlands 2005) Den Haag: Elsevier.

Swaan A. de. (1998). *In Care of the State*: Health Care, Education and Welin Europe and the USA in the Modern Era. Cambridge PoliPress, Cam

# 부록. 2005년도 네덜란드 기부 동향 - 주요결과 요약

(Geven in Nederland 2005)

**내용** :

I 2003년도 조사 결과
II 1995-2003년도 경향
III 요약

## I 2003년도 조사 결과

**2003년도 총 기부 금액**

**네덜란드에서는 약 52억 유로가 기부되었다(2003년도 추산).**

◘ 이 수치는 당해 연도의 가구 기부, 유산 기부, 재단(모금 재단 및 출연 재단 포함) 기금, 기업 기부 및 복권 기금을 추정하여 합한 것이다. 유산 기부와 출연 재단 기부금이 정확하지 않아 값이 낮게 추정되었다.

◘ 연간 추정액이 52억 유로에 달하는 네덜란드의 자선 부문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총 기부액은 GDP(2003년도에 4,450억 유로)의 1.2%에 달한다.**

◘ 이처럼 낮은 비율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들은 우선적으로 세금을 통해 공익적, 사회적, 자선적 사업에 기여를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인들은 1963-2003년도에 GDP의 2%를 기부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조세 부담이 네덜란드보다 훨씬 적다(Giving USA: 23).

**2003년도 출처별 기부 내역**

| | | |
|---|---|---|
| 가구(현금 및 물품) | 2,197백만 | 42% |
| 유산 | 189백만 | 4% |
| 재단: 모금 재단 | 85백만 | 2% |
| 출연 재단 | 111백만 | 2% |
| 기업 (기부 및 후원) | 2271백만 | 43% |
| 복권 | 369백만 | 7% |
| 총계 | 5,222백만 | 100% |

◘ 가구 및 기업 기부금은 일반화된 금액이고, 유산 및 재단(모금 및 출연 재단) 기부금은 일반화되지 않았다.

■ 유산 기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유산 기부금은 2003 CBF 연례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CBF 연례 보고서는 지역의 466개 모금 재단들이 2003년도 유산 기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작성한 것이다. 실제 유산 기부 총액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교회가 받은 유산 기부는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 전체적으로, 모금 기관들은 2003년도에 1,827백만 유로를 자선 사업에 사용하였다. 표에서 말하는 모금 재단의 기부금(85백만 유로)은 '투자에서 얻은 수익' 만을 말한다. 일반 국민들과 기업에서 받은 기부금은 다른 항목에 포함되었다(2003 CBF 연례 보고서에서 인용).

■ 출연 재단의 경우, 네덜란드에는 이러한 유형의 재단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총 기부금은 말할 것도 없고 정확히 얼마나 많은 출연 재단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2003년 수치를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의 재단에 대한 최근 연구를 참조하였다(Gouwenberg, Schuyt, 2004). 이 연구에 따르면 2002년도에 183개 출연 재단이 111백만 유로를 기부하였다.

■ 복권 수익도 자선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현재 5개의 상임 및 비상임 공인 도박/복권 라이센스 소유자가 있으며, 수익을 자선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De BankGiroloterj N.V., de Sponsor Loterij N.V., De Nationale Postcode Loterij N.V., De Lotto 및 Scientific Games Racing B.V.). 이 수치는 Jaarverslag van het College van Toezicht op de Kansspelen (2003: 78-79) (사행성 게임 감독위원회 연례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2003년도 기부금 수혜 기관**

| | 단위 : 백만 유로 | 비율 |
|---|---|---|
| 종교 | 1,178 | 23% |
| 스포츠 및 여가활동 | 930 | 18% |
| 문화 | 619 | 12% |
| 보건 | 601 | 11% |
| 공익/사회적 편익 | 568 | 11% |
| 국제원조 | 483 | 9% |
| 환경, 자연 및 동물 | 317 | 6% |
| 교육 및 연구 | 304 | 6% |
| 기타(명시되지 않음) | 222 | 4% |
| 총계 | 5,222 | 100% |

■ 2003년도에 네덜란드인들은 대부분 교회 및 교회 관련 사업에 기부하였다. 이 금액의 절반가량이 교회 자체(직원 및 건물)를 위해 사용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교회가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되었다.
■ 스포츠 및 여가활동은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대부분 지역 스포츠 기관이나 활동에 기부되었다.
■ 세 번째는 문화이다.
■ 기부를 가장 적게 받은 분야는 환경/자연 보존/동물 보호, 및 교육과 연구이다.

## 2003년도 기부 출처 및 수혜 기관

가구, 개인(유산), 모금재단 및 출연 재단, 기업 및 복권 부문이 공익 또는 사회적 목적에 기부한 총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기부 대상<br>백만 유로 | 가구<br>현금 및<br>물품 | 유산 | 재단 | | | 기업<br>기부 및<br>후원 | 복권 | 총계 | % |
|---|---|---|---|---|---|---|---|---|---|
| | | | 모금 | 출연 | 총계 | | | | |
| 종교 | 1,104 | 4 | 1 | 2 | 3 | 67 | −,− | 1,178 | 23 |
| 보건 | 295 | 73 | 30 | 10 | 40 | 169 | 24 | 601 | 11 |
| 국제원조 | 318 | 32 | 8 | 9 | 17 | 37 | 79 | 483 | 9 |
| 환경/자연/동물 | 162 | 32 | 12 | 5 | 17 | 39 | 67 | 317 | 6 |
| 교육/연구 | 47 | −,− | 0,1 | 12 | 12 | 245 | −,− | 304 | 6 |
| 문화 | 31 | 11 | 7 | 28 | 35 | 516 | 26 | 619 | 12 |
| 스포츠/여가활동 | 37 | −,− | −,− | 4 | 4 | 845 | 44 | 930 | 18 |
| 공익 및 사회적 편익 | 155 | 37 | 27 | 39 | 66 | 258 | 52 | 568 | 11 |
| 기타(명시되지 않음) | 48 | −,− | −,− | 2 | 2 | 95 | 21+56 | 222 | 4 |
| 총계* | 2,197 | 189 | 85 | 111 | 196 | 2,271 | 369 | 5,222 | 100 |

■ 개인 및 가구는 대부분 종교 기관에 기부하였다.
■ 유산은 주로 보건 부문에 기부되었다.
■ 모금 재단은 특히 보건 부문에 많이 투자하였다.
■ 출연 재단은 대부분 공익 및 사회 편익, 문화 부문에 투자하였다.
■ 기업은 스포츠 및 여가활동 부문을 가장 선호하였다.
■ 복권 기금은 대부분 '국제 원조'에 지원되었다.

## 2004년도 자원봉사

2004년도 조사에서는 전체 인구의 41%가 전년도에 최소 1회 사회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포츠 협회 및 교회의 자원봉사자 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인구에서 10명 중 1명은 이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다.
■ 자원봉사자들의 프로필을 보면, 대체로 교외지역 거주, 여성, 고학력,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 참석, 기독교인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또, 자원봉사자들은 중년 또는 55세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 또는 미망인인 경우가 독신이나 이혼한 사람들보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았다. 이는 부부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보통은 해당 기관의 기존 회원의 권유로 시작하여 회원이 되었다가 자원봉사자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 II 1995-2003년도의 경향

### 1995-2003년도 총 금액

(단위 : 백만 유로)

| 2003 | 2001 | 1999 | 1997 | 1995 |
|---|---|---|---|---|
| 5,222 | 3,580 | 3,660 | 2,471 | 2,495 |

■ 2001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3년도의 경우 사회적 및 자선적 목적에 대한 총 기부금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GDP의 비율로 본 기부

| | 2003 | 2001 | 1999 | 1997 | 1995 |
|---|---|---|---|---|---|
| | | | (단위 : 백만 유로) | | |
| GDP | 454,000 | 429,000 | 372,000 | 322,000 | 288,000 |
| 총 기부 추정액 | 5,222 | 3,580 | 3,660 | 2,471 | 2,495 |
| GDP대비 기부금 비율 | 1.2% | 0.8% | 1.0% | 0.8% | 0.9% |

■ GDP에 대한 기부금 비율은 1995년 이후 약 1% 선을 유지하고 있다.

### 1995-2003년도 기부금 출처

| | 2003 | 2001 | 1999 | 1997 | 1995 |
|---|---|---|---|---|---|
|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 가구 | 2,197 | 1,753 | 1,652 | 1,429 | 1,635 |
| 유산 | 189 | 231 | 213 | 135 | 87 |
| 재단 | 196 | 237 | 329 | 214 | 163 |
| 복권 | 369 | – | – | – | – |
| 기업 | 2,271 | 1,359 | 1,466 | 693 | 610 |
| 총계 | 5,222 | 3,580 | 3,660 | 2,471 | 2,495 |

### 가구

■ 가구의 기부금은 2003년도에 증가하였다.

■ 이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 들이 2003년도에 더 많이 기부했기 때문이다.

### 유산

■ 사회적 및 자선적 목적에 유산을 기부하는 경우는 여전히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 유산 기부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2001년도 이후 예상과 달리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산 기부의 수가 감소하기보다는 금액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지역사회에 유산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거나, 사망 이후보다는 생존시에 더 많이 기부할 가능성도 있다.

### 재단

■ 출연 재단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단 기부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 모금 재단의 경우, 1999년 이후 –특히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투자 수익이 감소하였다.

### 기업

■ (2001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3년도에는 기업의 기부와 후원이 증가하였다.

■ 기업의 기부 및 후원금은 199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부 조사에서 질문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성한 것도 한 이유라고 보인다.

### 1995-2003년도 기부금 수혜 대상

| | 2003 | 2001 | 1999 | 1997 | 1995 |
|---|---|---|---|---|---|
| 종교 | 1,178 (1) | 739 (1) | 585 (4) | 604 (1) | 596 (1) |
| 보건 | 604 (4) | 403 (4) | 642 (1) | 333 (4) | 415 (2) |
| 국제원조 | 483 (6) | 534 (3) | 587 (3) | 410 (3) | 393 (3) |
| 환경/자연/동물 | 317 (7) | 248 (7) | 321 (6) | 209 (6) | 354 (4) |
| 교육/연구 | 304 (8) | 125 (8) | 241 (7) | 113 (7) | 61 (8) |
| 문화 | 619 (3) | 335 (6) | 167 (8) | 93 (8) | 84 (7) |
| 스포츠/여가활동 | 930 (2) | 686 (2) | 615 (2) | 419 (2) | 272 (5) |
| 공익/사회적 편익 | 568 (5) | 369 (5) | 444 (5) | 256 (5) | 272 (5) |
| 기타(명시되지 않음) | 222 (–) | 141 (–) | 67 (–) | 38 (–) | 48 (–) |
| 총계 | 5,225 | 3,580 | 3,669 | 2,475 | 2,495 |

(출처: GIN 2003, GIN 2001, GIN 1999, GIN 1997)
어림 계산법에 의한 차이로 인해 총 금액이 이전 표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

■ 1995-2003년도 기간 동안 수혜 대상의 평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종교
2 스포츠 및 여가활동
3 보건
4 국제원조
5 공익 및 사회 편익
6 환경, 자연, 동물
7 문화
8 교육 및 연구

■ 일반적으로 "종교"가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으며, "교육 및 연구"가 가장 적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에 대한 기부는 지난 6년간 꾸준히 성장하였다.
■ 가구들이 선호하는 대상은 계속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하였다(즉,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종교, 국제원조, 보건 부문).
■ 반면, 기업의 기부 및 후원 대상은 해마다 변화를 보였다.

2002-2004년도 자원봉사 기부 행동과 달리 자원봉사는 2004년도에 조사되었다. 2004년 5월에 응답자들은 지난 12개월 동안의 자원봉사 경험에 대해 응답했다.

| | 2004 | 2002 |
|---|---|---|
| 자원봉사 | 41% | 46% |

■ 실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자원봉사자 비율은 과거 2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4년도 조사의 경우 전체 인구의 41%가 전년도에 최소 한 번 이상 사회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2002년도에는 이 수치가 46%였다.
■ 지난 2년간 네덜란드인들은 자원봉사에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 자원봉사율의 감소는 정치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 III 요약

### 가구/개인

■ 네덜란드 전체 가구의 84%가 총 22억 유로를 기부하였다.

■ 자신이 기부한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사례를 고려하면, 기부를 한 가구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가구의 97%가 사회적 또는 자선적 목적에 부정기적으로 기부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방문 모금에 돈을 주거나 자선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을 후원한 경우가 있었다. 총 가구의 약 2/3은 (고정 기부자가 되는 등의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였으며, 91%가 부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았다. 이것은 '보상형 기부(giving with profit)' 라고 불리는데 자선 목적의 복권에 참여하거나 자선가게(charity shop)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전체 가구의 ¾는
는 옷이나 신발 등을 자선 목적에 기부하였다.

■ 사회적 및 자선적 목적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교회에 자주 가며 (개인의 자산에 대해 말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집을 소유한 가구에서 더 자주 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이타적 성향이 있는 사람과 기부에 대한 본질적 동기를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 및 자선적 목적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고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소득, 나이 및 교육은 사람들의 기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기부 금액에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소득 수준과 나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한다. 한편, 교회에 자주 가는 사람들도

이타적인 사람들, 그리고 본질적인 기부 동기를 지닌 사람들처럼 기부금액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부금과 세금 공제 비율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및 자선적 목적에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정심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이들은 종교를 갖고 있으며,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고, 물질주의적인 성향이 적으며, 자신들의 생활에서는 근검절약하고 남들에게는 관대한 특징이 있다. 보통 나이가 많고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 정치적 또는 사회적 대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사회적이며, 사회 전반에 관심이 많고, 소유에 덜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적 성장이 삶의 주된 동기이다. 또, 종교적인 편이며, 평화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관심이 많고, 집단을 지향하며, 조직이나 자원봉사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Hessing 등, 2004 Hessing 등, 2004. Het Win-model$^{tm}$. Een Segmentatie van de Nederlandse bevolking. Amsterdam. ).

■ 세금 공제를 신청하는 가구 중 19%가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였고, 53%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6%는 이 규정을 알지 못했다. 22%는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 신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기업**

■ 기업과 기부 대상 간의 연계에서 대부분(46%)은 해당 기관에 연락한 수혜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 기업의 80%는 후원 요청이 있을 때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명시한 '후원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

■ 기업들은 기부나 후원 요청 5건 당 1건을 지원하였다.

■ 기업의 23%가 2003년도에 기부나 후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

■ 기업의 ¾은 현금으로 후원/기부하였으며, ¼은 물품이나 인력의 형태로 지원하였다.

■ 후원을 제공한 기업들 중 82%가 지역 단체를 후원하였다.

■ '상업 서비스' 기업이 가장 많은 후원을 하였으며(전체 후원금의 30%),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였다(총 기부금의 43%). 이는 해당 부문의 규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기업들은 기부 및/또는 후원의 이유를 기업의 사회적 헌신에 근거한 것으로 응답했다.

제6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기빙코리아 2006

# SESSION 2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 : 미래세대를 나눔의 세대로 키우기 위한 전략

# 나눔의 세대를 키우는 나눔교육의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I. 서론

II. 문헌고찰

III. 연구방법

1. 아동에 대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양적접근
2. 교사에 대한 개별인터뷰를 통한 질적접근

IV. 결과분석

1. 아동에 대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2. 교사에 대한 개별 인터뷰 질적 분석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부록1: 나눔교육 프로그램 세부 일정

# 나눔의 세대를 키우는 나눔교육의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_ 김 미 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kmiok@chonbuk.ac.kr

○ **학력**

1991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1994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졸업
2001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졸업, 문학박사

○ **최근 주요 경력**

1998년 9월 – 2000년 8월 한국성서대학교 겸임교수
2002년 4월 – 2004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대우전임강사
2004년 9월 – 현재 전북대학교 조교수

현재 중부재단 배분위원, 서대문장애인복지관·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자문위원,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회재활분과위원·여성분과위원,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최근 학회 활동**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편집위원, 한국사회복지학회 대외협력분과위원,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총무위원장

○ **최근 저서**

김미옥 외(2005) 사회복지개론, 시그마프레스
김미옥 외(2005) 사회복지실천론(개정판), 나남출판사
김미옥 외(2005)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사례관리 실제, EM 실천

○ **최근 논문**

김미옥(2006), “한국장애인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이론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김미옥 외(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 성인기 이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김미옥(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
김미옥(2005), “산재장애인의 사회재활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김미옥(2005), “주민자치센터의 조직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최근 연구보고서**

김미옥 외(2006) 여성장애인 복지 증진방안, 보건복지부
김미옥 외(2006) 개인 및 잠재적 고액기부 관련조사연구, 공동모금회

# 나눔의 세대를 키우는 나눔교육의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1)]

김 미 옥[2)], 이 종 은[3)], 이 경 은[4)]

## I.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물질만능주의와 목적지상주의, 상업적 대중매체와 유해환경 등의 복합적 작용, 개인과 소집단 중심의 이기주의적 사고의 확산, 가족 공동체의 파괴로 인한 청소년 문제의 발생과 노인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동들은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과 지식위주의 경쟁적 학교생활 풍토로 인하여 전인적 인성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아동들은 이웃이나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동들이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들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삶, 나누는 삶의 의미와 친사회적인 가치를 적절히 교육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004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서울지역 초등학생 1,090명과 초등학교 교사 126명을 대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생의 58.6%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하였고, 약 70% 가량은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약 54%는 '기부문화 및 자원봉사활동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학교 현장의 기부문화나 자원봉사활동 등 나눔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법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실천방안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동들에게 나눔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비영리기관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기부 및 자원봉사의 개념과 실천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시도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미국 시민사회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온 기부 문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어린 시절 나눔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성인이 되어서의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연구기관인 INDEPENDENT SECTOR(1998)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나 청소년기 나눔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의 나눔과 봉사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기의 봉사경험이 있는 사람의 66.8%가 성인이 되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어린 시절 봉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33.2%에 불과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비영리부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1)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강철희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음.

2)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3)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4)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에 따라서 비영리부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언론에서도 나눔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나눔 문화를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보다 조기에 정규적인 교과과정 안에서 나눔 교육이 이루어져서 나눔 문화가 어린 시절부터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발맞추어, 최근 사회복지단체와 교사들이 주체가 된 나눔교육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004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나눌수록 커지는 나' 라는 나눔을 실천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년 교사를 선정, 시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2005년 '아름다운재단' 에서는 '나눔교육 캠페인' 을 벌이는 동시에, 나눔교육을 하고 있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연구회를 조직하여 매년 '나눔캠프' 와 '나눔교육 교사연수' 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서 방학을 활용한 자원봉사캠프 등을 개최하여 나눔을 교육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나눔교육이 민간 비영리 기구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일부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효과성을 보여주는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눔교육의 효과를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mixed method를 통해 탐색적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장기적 방향 및 내용구성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나눔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이 인식하는 나눔교육의 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양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로 나눔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이 바라본 아동과 교사들에 대한 나눔교육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나눔교육 확산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적, 질적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나눔교육의 효과를 깊이 있게 조망함으로써 향후 나눔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나눔 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문헌고찰

많은 학자들은 친절, 연민, 존경, 책임감, 복지와 같은 나눔과 밀접한 가치들을 가정과 학교에서 가르쳐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diger(1998)와 Spaide(1995)은 타인을 돕는 행동과 자선 행동을 가르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를 갖게 하는 동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Ryan과 Bohlin(1998)은 친사회적 가치에 대해 배운 아동들은 배우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에게 나눔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아동의 친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정선희, 2006). 이러한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 및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나눔을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다른 연구에서는 나눔교육이 반사회적인 가치와 행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Campoy(1998), Crusec과 Kuczynski(1997), 그리고 Tyree(1997)는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비롯된 공유 가치 분열의 논의과정에서 아동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이슈들을 정의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붕괴(이혼, 한부모 가정, 맞벌이 부모, 대가족의 부재의 결과와 이동 등), 종교 활동에의 불참여, 개인적인 책임감의 부재와 폭력과 빈곤의 증가에서 비롯된 사회적 가치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Spaide(1995)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자선의 전통이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타인의 욕구에 대한 반응과 자선 행동에 대한 자극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나눔교육이 사회적 가치의 분열과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인들의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Cone & Roper(2000)의 연구에서는 92%의 미국인들이 아동들에게 자선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들이 좀 더 나은 시민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96% 미국인들이 부모의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가 아동들에게 타인을 돕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이하고 하였다. 또한 미국인의 94%는 자녀들을 자선활동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2/3 이상이 실제로 자녀들이 자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하여서 부모들의 아동 나눔에 대한 참여의 필요성 인식과 실천은 다른 차원임을 제시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나눔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Bentley와 Nissan(1996)은 나눔이 이타주의 행동을 이끄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나눔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나 종교지도자 또는 지역사회지도자와 같은 주요한 기부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성인을 목격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아동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자발적인 행동, 즉 친사회적 행동을 모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성인이 아동들이 자선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무엇보다 아동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크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Bremner(1996), Grusec와 Kuczynski(1997) 그리고 Morsberger(1997)와 같은 학자들 역시 아동들에게 가치, 약속, 자선에 대해 설명하는 데 부모와 성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종교적 활동, 청소년 단체(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등) 활동, 봉사활동 또한 아동들의 자선활동을 이끌고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게 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나눔교육은 아동들의 친사회적 가치와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데도 중요한 기여를 함을 알 수 있었고, 교사, 부모와 같은 중요한(significant) 성인들의 교육과 솔선수범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동들이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성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서 나눔교육의 효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인 중 하나인 교사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아동의 나눔교육으로 인한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통한 교사들의 변화, 향후 나눔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나눔교육의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성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는 양적(quantitative) 접근방법과 나눔교육을 학교에서 직접 실행하는 나눔교사들을 개별 인터뷰하는 질적(qualitative) 접근방법을 병행하는 mixed method를 활용하였다.

### 1. 아동에 대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양적(quantitative) 접근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주최한 '2006 어린이 나눔캠프' 에 참가한 초등학교 고학년(4·5·6학년) 아동 63명이다. 이 중 1명이 캠프 중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탈락하였고, 설문 응답이 충실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총 60명의 아동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들 60명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나눔교육 프로그램 참가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인원수 | 비율 | 구분 | | | 인원수 | 비율 |
|---|---|---|---|---|---|---|---|---|
| 성별 | 남자 | 36 | 60.0 | 학년 | 4학년 | | 15 | 25.0 |
| | 여자 | 24 | 40.0 | | 5학년 | | 33 | 55.0 |
| | | | | | 6학년 | | 12 | 20.0 |
| 봉사 경험 | 있음 | 34 | 56.7 | 나눔 교육 경험 여부 | 가정에서 | 있음 | 43 | 71.7 |
| | 없음 | 26 | 43.3 | | | 없음 | 17 | 28.3 |
| 기부 경험 | 있음 | 50 | 83.3 | | 학교에서 | 있음 | 37 | 61.7 |
| | 없음 | 10 | 16.7 | | | 없음 | 23 | 38.3 |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6년 8월 9일 ~ 2006년 8월 12일까지 3박 4일간 나눔캠프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실시 사전, 사후에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성 검사를 하여 프로그램으로 인한 아동의 변화유무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진행은 6 ~ 7명의 아동과 지도자 1명으로 구성된 모둠별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역시 모둠별로 사전에 교육을 받은 모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아동들이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친사회적 행동 검사와 도덕성 검사이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Eisenberg(1989)의 이타성 자기보고식 검사를 김수연(1995)이 번안한 친사회적 행동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 척도는 협력하기, 나눠주기, 공감하기, 도와주기, 양보하기, 보호하기 등의 하위 요인으로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성에 대한 검사는 조학래(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덕성 검사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도덕성을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이타성은 Wrightsman(1974)의 이타성 척도, 사회적 책임성은 Harris(1957)의 사회적 책임성 태도(Social Responsibility Attitude), Berkowitz와 Lutterman(1968)의 사회적 책임성 척도(social Responsibility Scale) 그리고 Zalusky(1988)의 사회적 관심 척도(Social Concern Scale)를 기초로 하여 20개 항목으로 조학래(1996)가 재구성 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차원, 즉 개인적 책임, 타인에 대한 관심, 사회적 헌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측정도구 모두 각 문항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경향과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은경(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친사회적 행동의 척도와 조학래(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덕성 척도,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성의 척도의 하위요인에 따른 신뢰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친사회적 행동 척도 및 도덕성 척도의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단위: 개, 번)

| 변수 | 하위요인 | 문항 수 | 문항번호 | 선행연구의 Cronbach's α |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
| 친사회적 행동 | 도움주기 | 5 | 1, 5, 8, 13, 27 | .62 | .81 |
| | 공감하기 | 6 | 3, 18, 21, 23, 25, 28 | .73 | .78 |
| | 보호하기 | 5 | 11, 12, 14, 24, 26 | .60 | .77 |
| | 나눠주기 | 4 | 4, 10, 16, 19 | .61 | .72 |
| | 친절하기 | 4 | 2, 6, 7, 9 | .69 | .76 |
| | 협력하기 | 4 | 15, 17, 20, 22 | .61 | .67 |
| 도덕성 | 개인적 책임 | 4 | 29, 31, 35*, 39 | .87 | .66 |
| | 타인에 대한 관심 | 5 | 30, 32, 33, 34*, 44 | .82 | .73 |
| | 사회적 헌신 | 4 | 36, 38*, 42*, 45 | .85 | .67 |
| |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 4 | 37*, 40*, 41, 43* | .78 | .62 |

주) * 표시는 역문항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12.0을 활용하며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및 도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사전, 사후 검사 결과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T-검증(pared t-검증)을 실시하였다.

## 2. 교사에 대한 개별인터뷰를 통한 질적(qualitative) 접근

1) 연구대상

교사에 대한 개별인터뷰는 현재 나눔교육을 실시하면서 1년 이상의 나눔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울 및 서울 근교 초등학교 교사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교사들은 '나눔교육연구회' 의 회원으로 나눔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교사를 추천받는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자 나눔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작성한 나눔 후기자료들을 수집하여 아동이 직접 서술한 변화의 내용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는 교사의 눈을 통해 파악된 나눔교육 효과뿐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인지하는 변화내용을 비교 논의하고자 함이다.

2) 자료수집

질적 접근에서 자료수집은 2006년 9월~10월 중에 수집되었으며,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표현을 생생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면담의 방법은 연구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면담에서의 질문은 공식적이고 순서적이라기보다는 면접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보다 상세하게 질문하였다. 면담장소는 주로 연구참여자의 직장(주로 학교의 학급)에서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하였고,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면담하거나 전화나 전자메일을 할 경우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인터뷰에서 다루어진 주요 연구 주제는 ① 교사가 경험한 나눔교육 경험은 무엇인가 ② 나눔교육을 경험한 아동의 변화는 어떠한가, 그리고 ③ 나눔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교사들에 대한 개별인터뷰와 아동들의 나눔교육 후기자료는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아동들의 나눔 후기자료는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학급에서 나눔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작성한 일기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형태는 교사가 직접 파일로 정리한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은 아동들이 나눔교육을 받거나 나눔활동을 실천한 후에 스스로 느낀 감정이나 경험내용, 앞으로의 계획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분석

### 1. 아동에 대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1) 나눔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의 나눔교육프로그램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주최하고 아름다운재단과 청소년놀이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2006 어린이 나눔캠프'(부록 1 참조)에서 실시하였다. 아동들이 캠프를 통해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나눔과 섬김의 의미를 몸으로 체험해 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집단 활동 중심의 분산형 캠프(decentralized camp)를 기본 틀로 한다. 둘째, 훈련된 소집단 지도자(cabin leader)들이 참여한 가운데 캠퍼(아동) 중심의 체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과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을 실시한다. 셋째, 이를 위해 구조화된 경험(structured experience)을 촉진하는 놀이와 활동으로 진행한다. 넷째, 프로그램 기법으로는 훈련 집단(T-group),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인간관계훈련(human relationship training) 등 참만남 집단의 활동들을 기초로 한 구조화된 놀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상의 환경과 활동들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나눔의 의미를 자기주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나눔교육 세부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관련변수 |
|---|---|---|
| 여는 마당<br>ice breaking game | 첫 만남의 어색함을 깨트리는 즐거운 놀이들<br>1)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2) 과일장수<br>3) 풍선놀이, 반전하기 4) 손잡고 일어나기<br>5) 등 뒤로 하고 일어나기 6) 인간의자<br>7) 뜯어내기<br>모둠별 모임 – 모둠이름, 친구들인사, 모둠노래 정하기 | 협동하기<br>타인에 대한 관심 |
| 나눔 활동1<br>나도 나눌 것이 있어요 | 우리 주변에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알아보고 돈, 시간, 재능 등 내가 가진 것 중에서도 나눌 것이 있는 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캠프 기간 동안 자신의 실천으로 모은 나눔 열매가 실제적으로 기부로 연결되는 경험을 한다.<br>1) 나눔의 사람들 이야기(ex:박경림, 김군자 할머니)<br>2) 내가 가진 많은 것들<br>3) 많은 것 중 1% 나눌 것 (시간, 유머, 노동, 섬김 등)<br>4) 캠프 기간 중 나의 나눔이 쓰일 수 있는 것 생각해보기<br>5) 모둠별 나눔 역할 정하고 계획표 만들기<br>6) 나눔 지갑 만들기(스티커를 모을 종이책)<br>(캠프 기간 중 나눔의 보상으로 나눔 열매를 모아서 기부) | 나누기, 돕기<br>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br>사회에 대한 헌신 |
| 나눔 활동2<br>다름은 나눔의 시작 | “다름은 나눔의 시작” 이란 주제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해 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나눔이 됨을 이해한다.<br>1) 감자와 친구되기<br>각기 다른 감자를 모둠별로 주고, 그 감자만의 특징을 5가지 이상쓰고 특징에 맞는 감자의 이름을 붙인다. 각 모둠별로 자신의 감자만의 특징에 대해 소개한 뒤, 전체진행자가 감자를 걷은 후 자신모둠의 감자를 찾아가 보도록한다.<br>2) 나만의 특징<br>자신만이 경험하고, 자신만이 지닌 신체적 특징들을 3가지씩 생각해 종이에 적는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특징을 이야기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특징이 있을 경우 함께 공유한다.<br>이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와 다름이 차별이 되고 불편함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시작임을 안다. | 개인적인 책임<br>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하기 |
| 나눔활동3<br>기부금전달<br>나눔상장 수여식 | 캠프기간 동안 자신이 약속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모음 나눔 열매를 돈으로 환산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금을 선택하여 기금별로 기부 하도록 한다. 기부금약정서와 함께 캠프기간동안 아이들의 특징에 맞는 하나밖에 없는 상장을 하나씩 전달한다.<br>단, 몇 명의 아이들을 뽑아서 상장을 주는 느낌의 마무리를 피하도록 하고 모든 아이들이 캠프 기간동안 각기 다른 모습으로 활동했던 면에 주안점을 두어서 전날 밤 담당지도자가 쓰도록 한다. | 개인적인 책임<br>나눠주기 |
| 우리는 하나<br>나눔의 모험 | 구조화된 위기 상황을 모둠별로 협동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의 놀이 활동. 모둠별로 하나가 되어 자신의 힘과 지혜를 나누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활동으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br>1) 지구는 만원 2) 흰쥐 따라잡기<br>3) 사랑해요 믿어주세요. 4) 부활의 기쁨<br>5) 고압선 6) 인간 사다리 등 | 협동하기<br>공감하기<br>도와주기 |
| 메아리 카페<br>open | 메아리 카페를 오픈하고 나눔 열매를 모으고자 하는 친구들이 직접 장사를 하고 원하는 간식을 사먹는 시간, 카페에서는 보드게임도 할 수 있다. | 나눠주기<br>개인적인 책임 |

2) 아동에 대한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친사회적 행동 및 도덕성에 대한 효과

나눔교육을 실시한 연구 대상 집단 내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4〉 와 같다.

〈표 4〉 친사회적 행동의 사전·사후 결과

(단위: 점, 명)

| 구분 | | 평균 | N | 표준편차 | 표준오차 | t값 |
|---|---|---|---|---|---|---|
| 도와주기 | 사전 | 3.60 | 56 | .644 | .086 | 4.22 ** |
| | 사후 | 3.89 | 56 | .707 | .095 | |
| 친절하기 | 사전 | 4.04 | 55 | .732 | .099 | 1.97 |
| | 사후 | 4.22 | 55 | .686 | .093 | |
| 공감하기 | 사전 | 3.84 | 55 | .585 | .079 | 2.83 ** |
| | 사후 | 4.08 | 55 | .613 | .083 | |
| 나눠주기 | 사전 | 3.95 | 54 | .601 | .082 | 1.07 |
| | 사후 | 4.04 | 54 | .635 | .086 | |
| 보호하기 | 사전 | 3.66 | 58 | .658 | .086 | 2.78 ** |
| | 사후 | 3.93 | 58 | .735 | .096 | |
| 협동하기 | 사전 | 3.44 | 57 | .738 | .098 | 3.31 ** |
| | 사후 | 3.85 | 57 | .744 | .099 | |
| 전체 | 사전 | 3.86 | 43 | .479 | .073 | **3.21** ** |
| | 사후 | 4.11 | 43 | .531 | .081 | |

주) ** p < .05

우선 친사회적 행동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사전검사가 평균 3.86점, 사후검사가 평균 4.11점으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0.25점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전·사후별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눔캠프에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 후의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도와주기 영역에서는 사전검사의 3.60점에서 사후검사의 3.89점으로 0.29점 상승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볼 수 있다. 공감하기, 보호하기, 협동하기 영역에서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비교했을 때 각각 0.24점, 0.27점, 0.41점 상승하였으며, 이 같은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친절하기와 나눠주기 영역에서는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각각 0.18점, 0.09점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협동하기 영역에서 0.41점 상승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본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모둠별로 이루어지고, 캠프라는 특별한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되어 함께 해결하거나 참여하는 세부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나눔교육을 실시한 연구 대상 집단 내에서의 도덕성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우선 도덕성 전체에서 평균을 살펴보면, 사전검사가 3.54점, 사후검사가 3.60점으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0.06점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대상의 도덕성에 대한 사전·사후별 분석 결과, 나눔캠프에 참여하기 전보다 참여 후의 아동들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헌신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하위영역별 차이를 보면, 타인에 대한 이해 영역에서는 사전검사의 3.51점에서 사후검사의 3.76점으로

0.25점 상승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사회적 헌신 영역에서는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의 점수가 0.05점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나머지 영역인 개인의 책임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영역에서는 각각 0.02점과 0.07점 점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3박 4일 간의 단기적인 나눔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으며, 나눔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비하여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내용은 간과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5〉 도덕성의 사전·사후 결과

(단위: 점, 명)

| 구분 | | 평균 | N | 표준편차 | 표준오차 | t값 |
|---|---|---|---|---|---|---|
| 개인의 책임 | 사전 | 3.07 | 57 | .593 | .079 | −0.19 |
| | 사후 | 3.05 | 57 | .630 | .083 | |
| 타인에 대한 이해 | 사전 | 3.51 | 57 | .649 | .086 | 2.83 ** |
| | 사후 | 3.76 | 57 | .637 | .084 | |
| 사회적 헌신 | 사전 | 3.79 | 55 | .663 | .089 | 0.41 |
| | 사후 | 3.84 | 55 | .684 | .092 | |
|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 사전 | 3.94 | 56 | .745 | .010 | −0.53 |
| | 사후 | 3.87 | 56 | .866 | .116 | |
| 전체 | 사전 | 3.54 | 49 | .464 | .066 | **0.70** |
| | 사후 | 3.60 | 49 | .522 | .075 | |

주) ** p < .05

## 2. 교사에 대한 개별인터뷰 질적 분석

### 1) 초등학교 교사의 나눔교육 경험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나눔경험을 분석한 결과 크게 ①나눔교육의 시작 동기 ② 교육을 진행한 방법 ③장애요인 그리고 ④교사의 변화로 나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나눔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교육도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기존 교과목에서는 제한적으로 가르쳤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나눔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동기 하에 우선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 스스로 교사가 지녀야할 자세를 정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함과 동시에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유도하는 교육방법을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정보, 비협조적인 주위환경, 지속적인 교육환경 부재 등의 장애요인으로 한계에 부딪히곤 하였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눔교육을 진행하며 교사들은 자신의 역량이 조금씩 살찌워지는 듯 한 느낌, 나눔이 자신의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으며 삶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초등학교 교사의 나눔교육 경험

| 개념 | 소분류 | 중분류 | 대분류 |
|---|---|---|---|
| 연수에 참여함, 인디스쿨 오프모임에 나감, @@@신문 홍보를 접함, ** 홈페이지의 공지를 접함, 나눔연구회를 만남 | 정보 및 기회를 접함 | 개인적 관심과 노력이 이끎 | 시작동기 |
| 도태되는 느낌이 듦, 새로운 것을 배우고픔 | 나를 개발시키고픔 | | |
| 평소에 관심이 많았음, NGO교육에 관심 있었음 | 주제에 대해 관심 가짐 | | |
| 내가 작은 관심을 주었더니 아이가 변함. 아동과의 관계가 달라짐. | 나눔의 효과를 직접 경험함 | 나눔 가치의 중요성 인지함 | |
| 아동들 간 배려정도의 차이가 큼, 받는 것에 익숙함. 도움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임, 나눔을 할 줄 모름, 소외되는 아이들이 생김, 개인주의적 모습이 보임, 욕심이 보임 | 아동들의 모습에서 필요성 절감함 | | |
|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임, 아이들의 삶의 길을 안내해주는 가치임, 모든 도덕규범의 본질로 접근하는 교육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주고픔 | 삶의 가치로 심어주고픔 | | |
| 생활지도 면에서 뭔가 부족한 것을 느낌. 왕따 문제 해결 위해 시작함. 아이들 관리를 위해 필요함. 지도측면에서 시작되었다가 수업에 적용하게 됨 | 학급경영 차원에서 시작됨 | 새로운 교육도구가 필요함 | |
| 도덕책 이외의 신선한 개념이 필요했음 | 신선한 개념이 필요함 | | |
| 도덕은 일주일에 한 시간 배정되어있음. 나눔주제는 이중 1년에 한주나 두주만 함 |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기존 도덕 교과목의 한계를 보완할 기제가 필요함 | |
| 너무 원론적임, 실생활에 적용하기 힘듦, 주로 칸 채우기 등 교과목 차원임, 하나의 과목으로 자리잡혀있어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됨, 뻔한 이야기임, 그냥 책에서 그침 | 개념중심의 수업임 | | |
| 내용이 너무 많음. 여러 가지 내용이 섞임 | 여러 개념이 혼재됨 | | |
| 아이들끼리 마인드맵을 그려보게 함, 마음껏 표현해보게 함, 질문만 던짐 | 나눔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내리게 함 | '내가 하는 나눔'이 되도록 유도함 | 교육방법 |
| (기부할 대상 등)토론을 통해 결정함, 회의를 통함, 함께 이야기함. 조사해서 발표해봄, 모든 결정을 아이들이 내리게 함, 모두 맡김, 생각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열어줌 | 자율권을 최대한 줌 | | |
| 내 간식을 나눠줌,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을 줌, 먼저 실천모습을 보여줌, 나눔의 본을 보여줌, 나 자신을 계속 모니터링 함 | 모범을 보이고자 함 | 나눔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자세)을 정립함 | |
| 목적의식을 강조해줌, 점조직 역할을 함, 수시로 확인함, 도움을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함, 동기를 만들어줌, 지켜봐 줌 | 길을 잡아줌 | | |
| 나눔은 즐거운 것, 쉬운 것, 나눔을 좋아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함, 마음속에서 우러나야함,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함, 전체가 참여해야 함, 함께 배워가는 것임 | 나눔교육의 방향을 설정함 | | |
|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람, 2-3명이라도 올바른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람, 곧 잊어도 언젠가 기억이 떠오르면 성공이라 여김, 마음의 작은 부분에 남길 바람, 모르고 성장하는 애들과는 다를 것이라 생각함 | 크게 욕심내지 않음 | | |
| 의도적으로 나눔의 가치를 이끌어냄, 나눔교육을 위한 수업은 추가시간을 통해 도덕시간과 연관된 수업을 시도함 | 일반교과시간을 활용함 |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함 | 교육방법 |
| 재단을 방문함,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함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함 | | |
| 물건 나누기, 나눔동화/이야기 듣기, 활동후기쓰기, 나눔다이어리, 나눔 장터, 나눔저금통, 현장학습, 나눔여행, 띠앗놀이, 짚공예, 바자회 | 나눔주제의 활동을 시도함 | | |

〈표 6〉 초등학교 교사의 나눔교육 경험(계속)

| 개념 | 소분류 | 중분류 | 대분류 |
|---|---|---|---|
| 찾아 헤맴, 필요한데 길을 모름, 교육청에서 제시해주는 것도 없음, 수업방법 패키지 등 도구가 필요함, 각개전투, 자신의 특기를 활용하여 진행함. | 커리큘럼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함 | 정보/길라잡이가 부족함 | 장애요인 |
| 지역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지 못함, 기관에서 지역정보를 알려주는데 소홀히 함. |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 |
| 체계가 없음, 중구난방임, 계속 연구해서 찾아가는 과정임, 준비가 부족함, 정답 없음, 방향성을 계속 못 잡음. | 나눔교육 체계가 확립되지 않음 | | |
| 지식전달에 집중하길 바람, 나눔활동에 동참정도가 낮음, 이해해주지 못함, 대화하려하지 않음 |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한계를 느낌 | 주위환경이 비협조적임 | |
| 정기적인 지원/후원 부족함, 초등학생이라는 선입견으로 받아주지 않음, 아이들을 교육시킬 여력이 없다고 거부. | 지역사회자원의 벽을 실감함 | | |
| 외부활동 싫어함, 종교적 문제로 오해함, 귀담아듣지 않음, 일단 싫어함, 안전문제를 걱정함, 일이 늘어나 귀찮아질 것으로 생각함 | 학교 관계자의 일방적 반대에 부딪힘 | | |
| 금방 잊음, 방학 지나고 오면 다시 개인적이 되어있음, 개인차심함, 투입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미미해 보일 수 있음 | 지속적인 교육환경 부재함 | 지속적인 교육환경 부재함 | |
| 해외봉사에 관심 많아짐, 내가 경험한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줌 | 교육내용/정보제공이 풍부해짐 | 교사역량에 양분을 더해줌 | 교사변화 |
| 아이들 간 문제가 생겼을 때 교사가 해결해줄 수 있게 됨 |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됨 | | |
| 나눔교육을 하면서 눈에 띄는 아이가 있음, 수업시간에 보면 또 다르게 보게 됨,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이 보임(이런 면이 있었네?) | 아동을 재발견함 | | |
|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 아무생각 없이 했는데 반응이 큼에 놀람 | 아이들의 모습에 자극받고 반성함 | 나눔, 가르침, 인생에 대해 숙고함 | |
| 생활의 가치관이 됨, 인생철학이 하나로 집약되는 듯함, 나의 교육철학이자 삶이 됨 | 가치관에 영향을 줌 | | |
| 계속 연구하고, 생각해 나감, (교육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 세뇌 당함, 아이들 봉사 루트를 찾기 위해 다양한 기관 찾아다님, 관심이 저절로 감. | 늘 나눔교육 생각과 함께 함 | 나눔이 생활이 됨 | |
| 정기기부자가 됨. 봉사활동 찾아다님, 자발성이 생김, 힘들어도 하게 됨, 봉사활동이 기쁨이 됨, 나눔행동이 자연스러워짐, 보람 느낌, 행복해짐, 먼저 나눔 | 나의 나눔생활에 변화가 옴 | | |
| 주변 교사들에게 나눔교육 소개함, 다이어리 같이 나눠 씀, 기부하고자 하는 학부모에게 직접 하도록 유도함, 가족들이 관심을 가짐, 아들한테도 나눔을 시킴 | 주변인에게 전파함 | | |

(1) 시작동기

연구참여자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NGO 및 나눔주제에 대한 관심과, 자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기회를 살펴보던 중, 우연히 또는 주변인을 통해 나눔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전문적인 연수를 받게 되거나 같은 주제에 대해 고민하는 대상들을 만나는 등의 구체적인 기회를 접하게 될수록 그 시작시점과 구체적 실현성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관심에서 출발한 동기 이외에도, 교사들은 학급을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차원에서 참신한 교육도구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접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저학년처럼 상대적으로 수업 내용보다 생활지도적인 면의 비중이 높은 경우, 수업 이외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기제의 하나로 나눔교육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비단 생활지도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 도덕 교과목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져, 일주일에 한 시간이 배정된 도덕수업의 시간적 한계, 여러 가지의 개념을 원론적으로 풀어내어 실생활에 적용하기 힘든 도덕 수업의 내용구성적 한계 등을 극복해보고자 활용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교직생활을 하면서 늘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의 모습에서 간혹 보이는 개인주의적인 모습들,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부족한 면, 받는 것에 익숙하고 주는데 인색한 모습 등은 교사들이 나눔을 교육하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해주었고, 이 같은 가치를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눔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교사 자신이, 또는 아동이 행한 나눔의 실천으로 인해 아동과의 관계의 전환(esp. 부정적 관계→긍정적 관계)을 직접 경험하게 된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나눔교육 적용에 대한 동기화는 더욱 커져 깊게는 교육철학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년차 때 맨 처음 했던 나눔이 내가 아이들을 말썽피우지 않고 잘 관리해야겠다. 사고 안 나고. 그래서 소위 왕따 안 생기고. 그런 쪽의 측면이 약간 강했다고 봐요. 그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눔반을 운영하기 시작했고요(교사 4)..*

*도덕이란 과목이 아이들 머릿속에 어떠한 형태의 과목으로 자리잡아버려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은 수업시간에 뻔 한 얘기하는 거. 3학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도덕이 없었으니깐. 새로운 과목이라 굉장히 흥미 있어 하는데, 6학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배워온 과정이고. 실제 활동하는 거 보다는 그냥 책에서 넘어가는. 책이에요. 그냥 이야기책(교사 2).*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학생에게) 내가 조그만 관심, 사랑을 그 아이에게 주니깐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변했다. 그런 내가 뭘 나눠줘야 되는 걸까? 그 아이에게 뭘 나누어 줘야 될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교사 4)*

(2) 교육방법

나눔과 관련된 활동을 적용하면서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고수하고 있는 원칙은 아동 자신이 하는 나눔이 되도록, 즉 '나눔의 주체는 바로 나' 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었다. 아이들끼리 토론, 회의 등을 거쳐 기부할 대상, 기부방법, 모금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율권을 최대한으로 부여함으로서 고민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나눔의 의미를 정립하고 다져나가게 된다.

이에 앞서 교사인 연구참여자들은 나눔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의 위치와 자세 등을 고민하며 개입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접근방법은 아동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솔선수범하는 실천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저절로 보고 따라올 수 있게 유도하려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차피 교사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늘 나눔의 본을 보여주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눔정신에 바탕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습득의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저학년의 경우, 모방심리가 강해서 교사가 행동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동 자체에 매우 조심하고 신경 쓰게 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자율성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사는 어느 정도 길을 잡아줄 필요는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동기를 부여해주거나, 나눔을 행하는 목적을 틈틈이 상기시켜주기, '내가 돕기 쉬고 즐거운 방법' 보다는 '도움을 받는 대상이 필요하고 기쁜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시켜주기 등 큰 틀을 잡아주며 나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았으며, 더불어 나눔교육의 방향, 즉 교사가 생각하는 나눔교육의 핵심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하여 교사들이 추구하는 나눔의 모습(예. 나눔은 즐거운 것, 쉬운 것,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등)을 아동들의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곧 잊혀지고, 눈에 보이는 변화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작게나마 마음속에 불씨로 남아 오랜 후에 나눔을 실천하는 자세에 밑거름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었다.

기타 프로그램 활동의 경우, 일반교과시간을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나눔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방법, 재단 및 지역자원봉사센터 등의 지역자원들과 연계함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의 손길을 인지하게끔 하는 방법, 물건 나누기, 나눔동화/이야기 듣기, 활동후기쓰기, 나눔다이어리, 나눔 장터, 나눔저금통, 현장학습, 나눔여행, 띠앗놀이, 짚공예, 바자회 등 실제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 *자기가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게 하는거. 그건 아이들이 자기가 그렇게 해보지 않고는 나눔이란 게 쉽고 즐거운 거. (중략) 자기가 직접 해봤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해보니까 나눔이라는 게 쉽고 나눔은 재밌고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정말. 이것도 나눔이구나. 그거는 자기가 해보지 않고서는 저는 그걸 느끼고 자기가 안다는 건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재밌고 쉽게 할 수 있도록(교사 3).*

> *모든 결정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나눔 가게를 할 것이냐. 어떤 성격의 나눔 가게를 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결과물을 어떤 걸 남길 것이냐. 그 남긴, 기부금이라면, 기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모든 게 처음에 다 협의가 다 되어야 되는 거 같아요. 저희는 다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다 맡겨요. 회의를 어떻게든 나와요. 의견이. 그게 생각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남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를 생각해 나가는 것. 그런 활동 직접 해 보는게 많이 남아요. 교사가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건 같아요. 모든 건 아이들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교사 2)*

(3) 장애요인

연구참여자들이 나눔교육을 하며 느끼는 장애요인은 크게 정보의 부족, 주위환경의 비협조적 자세, 지속적인 교육환경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우선적으로 지적한 장애요인은 바로 나눔교육 시 필요한 관련정보의 부족과 체계의 미확립 문제였다. 나눔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더라도 교사가 따르고 교육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육source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방향성을 잃고 찾아 헤매다가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되기도 하였고, 시작은 했으나 마땅한 교재, 아이디어 등이 부족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이야기하며, '각개전투' 식 접근 방법, 교육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도구라기보다는 자신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됨을 고백하고 있었다. 체계 또한 정립되지 않아 '중구난방' 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고민하였다. 특히 정보의 문제의 경우, 커리큘럼 자체 뿐 아니라, 지역자원에 관한 정보의 부족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눔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되는 방법 중

의 하나가 바로 학교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 우리 지역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도움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실제로 느껴보는 것인데, 산발적으로 있는 정보들을 모으는 작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느 자원이 아동들에게 적절할지에 대한 가늠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기관에서 지역정보를 알려주는데 소홀히 하는 경우 막막해짐을 토로하였다. 지역정보에 대한 부족의 경우, 환경의 비협조적 태도와도 연관시켜 논의할 수 있는데, 방문 또는 자원봉사를 할 기관을 어렵게 찾은 후에도, 초등학생은 너무 어리다는 선입견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교육시킬 여력이 없다고 거부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기부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외국의 환경처럼 나눔교육을 위한 정기적인 지원이나 후원이 부족한 것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한계로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요소가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이 지적되었다. 아동가정의 경우, 나눔교육의 또 다른 주요한 장(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부모의 협조와 관심이 요구되는데, 지식전달에 집중하길 바라는 지역분위기, 나눔활동에 동참정도, 이해도가 낮은 상태, 아예 대화를 꺼려하는 태도 등은 교사로 하여금 나눔교육을 함께 꾸려나갈 동반자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계자의 일방적 반대도 큰 걸림돌이 되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오해하거나 외부활동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일이 늘어나 귀찮아질 것을 우려하거나, 안전문제를 걱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장애요인들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나눔교육을 위해 시도해야할 환경들을 새로이 뚫어야 한다는 부담감, 학부모 및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야한다는 부담감 등을 느끼게 하고, 이들을 신경쓰다보면 위축되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지속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눔교육의 현실 때문에 교육의 내용과 노력이 끊기고, 아이들의 발달특성상 쉽게 잊어버리는 특성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속적이지 못한 교육환경 때문에 아이들과 헤어지게 되면(해가 바뀌거나 등) 투입한 노력에 비해 너무 빨리 잊혀질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교육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다 보니깐 그러는 것을 찾아 헤매는 선생님을 보면 또 어디선가 만나요.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00재단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틀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거 같아요. 그런 걸보면 많이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많은데 길을 모르고. 교육청에서 제시해 주는 것은 없고 그렇다고 정답은 없고 선배교사들도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때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교사 1)*

*복지과에 전화를 했어도. 그때도 ***(기관명)을 추천받았는데, 도시락 배달 같은걸 하고 싶어도 일단 우리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는 거. 중고등학생들도 힘들 거라는 거.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일단 자기네들도 자원봉사를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걸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교육시키고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교사 3)*

*부모님들이 항의가 가끔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런 거만 강요하면 지식은 언제하느냐? 제가 지식을 안 한건 아니거든요. 교사의 기본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리키는 거에요. 하지만 그것만 넘치게 해서는 아이들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깐. 그것도 하겠지만 다른 것을 중심으로 다른 활동을 하겠다 그런 것을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해요(교사 4)*

(4) 교사변화

연구참여자들은 나눔교육을 직접 실행해보며 스스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교사로서 아동들과의 관계에서 질적 성장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숙고과정을 거치고, 나눔을 가르치는 자신 또한 함께 나눔을 배우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나눔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후 나눔과 관련된 정보들이 눈에 더 들어오게 되면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나눔, 해외봉사, 자원봉사 등의 내용들을 자주 전달해주게 되었으며, 나눔해외연수 등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소개해주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게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또한 아동들 간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에는 당황했었던 상황이었더라도, 이제는 나눔의 의미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아동들의 새로운 면들을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는 것에 있는데, 평소에는 눈의 띄지 않다가 나눔교육을 하면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아.. 이 아이에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는 등 아동들을 새로이 다시 알아가는 기회를 갖게 되어 흥미롭고,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 열심히 임하는 모습, 대수롭지 않게 내준 나눔숙제를 꼼꼼히 해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극 받고 반성하며, 나눔과 아이들 – 아이들과 나(교사) – 나(교사)와 나눔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숙고의 시간을 갖게 됨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는 교사 자신의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인생철학이 하나로 집약되고, 교육철학이자 삶이 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됨을 말하였다.

어느새,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나눔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나눔교육이 이제는 스스로 찾아다니는 연구주제가 되었고, 본인의 나눔생활 자체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정기기부자가 되었고, 봉사활동도 찾아다니며,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나눔생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주변 교사들에게도 소개하고,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도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나눔 교육 하고나고부터 단적으로 달라진 것을 이야기 하자면, 정기기부자가 되었고요, 봉사활동을 찾아다니는 거 같아요. 어제도 적하봉사하고 왔거든요. (중략) 예전의 저였다면 봉사활동을 힘들어 사는 것도 힘든데. 난 아이들에게 수업 봉사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 말고 우리학교 말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베풀 수 있다면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물론 힘들죠. 더 하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고 찾아가고 하게 되는거죠. (중략) 그런데 그게 나에게 또 하나의 삶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을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한다는 것이 또 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그런 게 되는 거 같아요. 교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중략) 세뇌 당했어요. 저도.(웃음)(교사 2)*

> *교육철학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이었구요. 아이들 제가 나눔철학을 갖게 되면서 교사중심이 아닌 아이들 중심이 되어야 겠다. (중략) 나눔교육도 역시, 학급경영을 위한 조그만 나눔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넓은 쪽으로 바라봐야 한다. (중략)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마음 속에 겁이 없어졌어요. 사회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불의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 수업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교사 4)*

### 2) 교사가 인지한 아동변화 및 나눔교육 흥미요인

연구참여자들이 인지한 나눔교육을 아동의 변화와 그 변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아동 변화의 경우, '나누는 행위에 익숙' 해지고, '생활이 안정' 되는 모습을 보이며, '타인을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나눔을 통해 정서적 풍요를 경험' 하게 되는 변화를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아동들이 나눔교육을 통해 느끼는 흥미요인를 분석해본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아동들이 나눔교육을 통해 '틀을 벗어난 새로운 경험' 을 경험하고, '존재감' 을 느낀다는 점, 그리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 등을 느끼기 때문에 흥미를 갖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초등학교 교사가 인지한 아동변화 및 흥미요인

| 개념 | 소분류 | 중분류 | 대분류 |
|---|---|---|---|
| 서로 나눠먹음, 당위적으로 받아들임, 그냥 놓고 감 |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움 | 나누는 행위에 익숙해짐 | 교사가 인지한 아동변화 |
| 친구에게 줄 간식을 싸옴, 도와주러 가자고 조름, 자기돈을 보탬, 저요저요!(서로 손듦), 적극적으로 내놓음, 기부액수가 많아짐, 흔쾌히 빌려줌, 먼저 달려가 도움 | 자발적/적극적으로 도우고자 함 | | |
| 인색하지 않음, 다른 또래에 비해 여유가 있음,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생김, 경계가 낮아짐, 초조해하지 않음 | 생활의 여유가 생김 | 생활이 안정됨 | |
| 잘 안 싸움, 욕 안함, 잘 뭉침, 돈독함 | 생활태도가 안정됨 | | |
| 지하철 저금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함, 길거리에 있는 할머니를 도움, 약자를 돌보는 마음이 생김 | 도움과 나눔에 깨어있음 | 타인을 생각하는 힘이 생김 | |
| 가족을 위한 나눔에 소홀했음을 반성함, 가족들을 도움 | 주변인에 대한 나눔을 생각해봄 | | |
| 자신감이 생김, 나눔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김, 재미를 느끼게 됨, 자기 것이 아닌데도 좋아하게 됨, 애정이 생김, 좋아하게 됨, 보고 싶어하게 됨, 사랑하게 됨 | 나눔을 통한 정서적 풍요 | 나눔을 통한 정서적 풍요 | |
| 외워야하는 것 없음, 파티하는 분위기임, 재미있는 시간, 즐거움, 안 해본 것임, 새로운 것임 | 신이 남 | 틀을 벗어난 새로운 경험임 | 교사가 인지한 나눔교육 흥미요인 |
| 피부에 와 닿음, 실질적임, 바로바로 눈에 보임, 내가 몸으로 직접 함 | 직접 몸으로 느낌 | | |
| 새로운 자신을 발견, 친구들이 다시 봄,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리더가 나타남 | 인정받음 | 존재감을 느낌 | |
| 나도 나눌 수 있음, 내가 이런 것을 했다는 보상심리, '나는 베풀 수 있는 존재' 임, 뿌듯함, 보람됨 | 자부심(보람)을 느낌 | | |
|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음, 나는 행복한 환경에 살고 있음을 인지함, 감동받음 | 동정함 | | |
| 모방심리, 잘 보이고픔, 선생님 눈에 띄고 싶음, 칭찬받고 싶음, 격려 받고 싶음, | 긍정적 평가를 받고픔 | 긍정적 평가를 받고픔 | |

(1) 교사가 인지한 아동의 변화

연구참여자들이 우선적으로 느끼는 아동들의 변화는 아이들이 '나의 것'을 친구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이었다. 같이 나눠먹고, 나눔장터에서 돈을 그냥 놓고 가기도 하는 등, 이러한 행위들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실천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스스로 도와주러 가자고 조르거나, 자기 돈을 보태서 불우이웃에게 선물을 사기도 하고, 행동의 적극성 측면에서도 흔쾌히, 먼저 도움을 주고 빌려주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말하고 있다.

> 나눔 반 애들아, 니네 김군자 할머니 정말 마음씨가 고운 것 같으시지 않니??? 어떻게 50000000원이나 기부하실 수 있을실까???? 우리도 빨랑빨랑 커서 마니마니마니마니 저금하자~~~!(조*현, 4년)

일상생활적인 면에서 또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른 또래에 비해 여유가 있고 인색하지 않은 모습이 자주 관찰되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급 동료들 간의 경계가 낮아지며,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것이 생긴 것 같다고 관찰되었으며, 나아가 생활태도의 경우, 예전에 비해 덜 싸우고, 욕도 안하고, 잘 뭉치며 교우 간 돈독한 모습을 보이는 등 안정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 것 또한 관찰되는 주요 변화 중의 하나로,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도움 및 나눔에 깨어있는 모습이 아이들의 일기 등에서 확인됨이 나타났는데, 지하철에 배치되어있는 저금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기부를 하고 돌아온 이야기, 길거리에서 만난 약자를 위해 보모님보다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도와드렸다는 이야기, 꼭 기부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가난해서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는 이야기 등을 접하며 타인에 대한 나눔 필요성과 관심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타인이 아닌 주변인과의 나눔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도 사고의 폭과 깊이가 더해짐 또한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나눔활동은 결국,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타인(esp.돕는 대상)에 대한 애정을 증가시켜주고, 자주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선물해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 아무래도 작년에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어요. 생활하는데 (중략) 조급하게 막 싸운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뭘 빌려주는데 인색한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약간은 그네들 삶에 비해서 또래들보다 좀 여유가 있어요.(중략) 멀리 보면은 그런 애들도 바뀔 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고 성장을 하는 애들하고는 다를 꺼 라고 보거든요(교사 1)*

*시설 같은데 가서 아이들이 처음에 아주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자꾸 하다보면 무섭고 어려운게 아니라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요.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고. 그건 큰 변화거든요. 그건 할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중략)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었는데 아이들이 하면서 이 할머니도 똑같은 할머니고 우리의 노래나 연주나 안마를 기뻐하신다는 거. 작은 선물에도 좋아하신다는 거. 그런 걸 깨달으면서 좋아하게 되죠. (중략) 계속 가다보면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할머니들이 더욱 보고 싶어서 나눔반에 오거든요. 지원하거든요(교사 3)*

(2) 교사가 인지한 아동들의 나눔교육 흥미요인

연구참여자들은 아이들이 나눔교육을 통해 느끼는 흥미요인는 우선적으로 나눔교육이 틀에서 벗어난 신나는, 새로운, 그리고 신선한 경험이라는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공부처럼 외워야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도 없으며, 그야말로 즐거운 놀이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눔교육 시간이 되면 마치 파티하는 분위기가 되곤 하며, 무엇보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배가된다는 분석도 있었다. 아이들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흥미를 갖는다는 특성을 볼 때, 나눔교육은 아이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나눔 알뜰시장) 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정말 좋았다, 그리고 즐거웠다, 파는 것이 힘들어도 나는 좋았고 즐거웠다, 정말 정말 재밌었고 즐거웠고 기뻤다, 난 오늘이 좋았다, 또 돈을 벌어서 김군자 할머니 기금을 낼거다(안*경, 1년)**

또한 아동들은 나눔교육을 받으며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데, 특히 새로운 활동을 통해 몰랐던 내 자신의 일부분을 발견하고, 친구들도 자기를 새로이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 특히 직접 나누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나는 베풀 수 있는 존재', '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라는 자긍심이 강화되면서 자부심과 보람, 뿌듯한 느낌을 갖게 되므로 자꾸 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동정심을 느끼기도 하며, 긍정적 평가를 선생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욕구에 의해, 즉 좋은 일을 하며 눈의 띄고, 잘 보이고 싶은 욕구에 의해 계속 나눔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줄 때는 주기 싫었지만 주고 싶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참 좋았어요, 전 그 친구와는 별로 말도 안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주고 나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말**

한 것처럼 기분이 상쾌 통쾌~(옥*희, 4년)

알뜰 시장을 했다, 난 비드맨을 팔았는데 비드맨이 아주 잘 팔렸다, 처음엔 긴장됐다, 다 팔고 나니깐 뿌듯했다, 비드맨을 안 팔았으면 비드맨이 쓰레기가 될 뻔 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도움을 받는다니까 힘이 솟았다, 나는 돈을 벌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커서도 (김*범, 2년)

*안 해 본거니깐. (중략) 그리고 교과하고 다른 것이 외워야 하는 것은 없잖아요. (중략) 나눔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게 많잖아요.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게 많으니깐. (중략) 얘네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효과도 있어요(교사 1)*

*교사는 그 아이를 새롭게 보고 친구들 또한 그 친구 다르게 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아이가 저런 모습이?' 친구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기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제가 최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특히 나눔교육 활동 안에서 또 그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거에요. (교사 2)*

3) 나눔교육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나눔교육을 진행하면서 터득한 교육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살펴본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나눔교육 현장 특성에 따라 활동을 구성해야한다는 것, 가족 및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주체간 서로 깊이 신뢰해야하며, 그리고 나눔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나눔교육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 개념 | 소분류 | 중분류 | 대분류 |
|---|---|---|---|
| (저학년)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음, 선생님을 따라하는 것에 쾌감 느낌, 단편적 활동 용이함<br>(고학년) 이론적인 부분부터 시작, 고학년일수록 자기고집 있는 경향 있음, 지속적 활동도 가능함 | 학년별 프로그램 차별화 필요함 | 나눔교육 현장 특성에 따라 활동 구성함 | 나눔교육 효과 극대화 방안 |
| 나눔교육 유경험 아동들이 서포터의 역할을 함, 학급크기가 작을수록 손쉬움 | 학급구성이 영향 미침 | | |
| 재단을 활용함, 지역사회와 끈을 엮음, 사회복지단체와 연관, 밖으로 나가야함 | 지역자원을 활용함 | 가족 및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함 | |
| 가족 및 학부모 교육이 동반되어야 함, 가족 나눔이 되어야 함, 학부모님 총회 때 계획을 말하고 협조구함, 학부모도 함께 참여 유도함. 학부모도 교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조함 | 가족자원을 활용함 | | |
| 기부금을 함께 직접 전달함, 재단이 어떻게 기부금을 사용하는지 소개함, 나눔통신을 학부모에게 수시로 보냄 | 나눔활동 진행의 투명성 보여줌 | 서로 신뢰해야함 | |
| 나눔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줌, 우리 선생님은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 교사를 믿고 따라야함, 모범을 보여야함 | 교사를 존경할 수 있어야함 | | |
| 아이들끼리 신뢰를 줄 수 있는 활동 활용, 서로 믿지 못하면 나눌 수 없음 | 내 친구를 믿을 수 있어야함 | | |
|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함,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 직접 해보게 함, 몸으로 체득함, 습관화함,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과정을 모두 겪게 해줌 | 직접 느껴보고 경험하게 함 | 나눔과 함께하는 교육환경 만듦 | |
| 나눔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여줌, 동기가 보여야함, 막연한 모금은 어려움 | 동기화시킴 | | |
| 한번가고 두 번가고 틀림, 자꾸 하다 보니 애정이 생김(돌봐드리는 할머니에 대해), 벽이 낮아지는데 시간이 짧게 걸림, 꾸준히 반복밖에 없음, 계속 되뇌이면 습관이 됨 | 반복&지속적인 교육 필요함 | | |

우선적으로, 나눔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차별화 시키고, 접근 방법 또한 다르게 적용해야한다고 제안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1,2,3학년)과 고학년(4,5,6학년)의 수준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함이 강조되었다. 저학년의 경우, 직접적인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누룽지 나눠먹기, 나눔 놀이 등의 단편적인 활동이 적용하기 쉬울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저학년일수록 교육이 잘되는 경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학년의 경우, 생각하는 힘이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도 무리가 없고, 띠앗놀이, 외국나눔 사례비교 등을 비롯한 지속적인 활동도 가능하며, 리더쉽 키울 수 있는 역할을 주는 방법 등이 추천되었다. 학년이외의 학급크기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작을수록 손쉬움), 나눔교육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나눔교육 유경험 아동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학급일 경우였다. 즉, 나눔에 대해 익숙한 아동들이 함께 있으면, 이들이 교육을 할 때 서포터의 역할을 해주어 서로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족 및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실제로 지역사회와 연결 지으려는 노력을 많이 쏟고 있었으며, 나눔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이는 강조되어져야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가족자원의 경우, 나눔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및 학부모를 동반한 교육을 진행되어야 함이 재차 강조되었다. 가능하다면 학부모도 함께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육의 끈을 연결시키는 환경이 가장 이상적임을 밝혔다.

세 번째,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는 나눔교육을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강조되었다. 아동은 교사를 믿고 따라야하며, 아동들은 친구들과 서로 믿고 나눌 수 있어야한다. 또한 나눔활동 전체의 운영자체가 학부모로부터, 아동들로부터, 교사 자신이 떳떳하고 투명하고 공평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교사 자신이 나눔교육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따를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아동들에게 심어줘야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들의 경우, 자기들끼리 믿지 못하면 활동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사는 교우 간 관계에 항시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신뢰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도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학부모와의 신뢰가 형성되는 나눔활동 진행의 투명성 보여주기 효과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기부금을 함께 전달하러 가기, 기부된 노력이 어떻게 사용되게 되는지 등을 직접 확인시켜주고, 수시로 나눔통신, 쪽지 등을 통해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모든 정보에 대해 개방해 놓는 방법도 유용하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함께하는 교육환경 만들기이다.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앞서 언급된 바 있으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요소 중의 하나였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접 몸으로 체득하여 습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노력의 과정 전체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나눔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먼저 알려줌으로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진행도 중요함이 지적되었다. 나아가 반복적 학습,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나눔의 삶이 진정으로 몸에 베이고, 삶 자체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작년에는 그것이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4번 이상 걸렸어요. 이번에는 딱 2번 하니깐 2주하니깐 벽이 허물어지더라구요. 왜냐면 작년에 했던 애들이 있거든요. 3분의 1이 저랑 했던 애들이라서 벽이 빨리 풀어지더라구요(교사 1)*

*부모님들한테 막말로 저 선생님이 저돈 어따 쓰는지 모르잖아요. 믿지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데려가서 직접같이 전달하고 그런 모습 보고 재단이 어떻게 쓰는지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알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당한 위치에 설수 있는거 같아요. (교사 1)*

*아이들의 엄마들이 활동하면 그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거든요.. 그러니깐 그 엄마의 그 아이들. 따로 보면 다 똑같에요. 행동하는거나, 남을 생각하는거나. 이기적인 아이들이 없어요(교사 4)*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나눔의 세대를 키움으로써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나눔교육이 아동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나눔효과에 대해 다각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평가해보고자, ①나눔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동시에, ②학교환경에서 나눔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나눔교육으로 인한 아동과 교사 자신의 변화에 대해 개방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양적·질적 분석 모두에서 나눔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적 분석 결과의 경우, 나눔캠프를 중심으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사전-사후로 검사를 한 결과, 친사회적 행동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점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특히 도와주기, 공감하기, 보호하기, 협동하기 영역의 점수 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도덕성 검사에서는 전체적인 도덕성 점수는 어느 정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위영역 별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헌신 영역에서만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분석 결과의 경우, 나눔교육을 받은 아동들은 이전보다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자발적/적극적으로 도우고자 하는 등 나누는 행위에 익숙해진 것,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태도가 안정된 것, 도움과 나눔에 깨어있음을 통해 주변인을 비롯한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힘이 생긴 것, 나눔을 통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는 것 등의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관찰되어짐이 확인되었다. 이는 비단 아동의 변화 뿐 아니라 나눔을 교육하는 교사 자신의 나눔활동, 나눔생활에 영향을 미쳐 경험적 지식을 가르치는 측면에서, 아동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삶 속에서 나눔이라는 의미가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나눔 프로그램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도덕성 발달은 물론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기여할 교육적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나눔교육 효과 증진을 위한 몇 가지 논의사항들을 크게 두 가지 축, 아동의 나눔환경과 교사의 나눔환경을 중심으로 간략히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핵심 주체이자 나눔교육의 주요대상인 아동의 나눔환경은 크게 교사, 가정, 지역사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사의 경우, 아동에게 체계적인 나눔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교사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 전달력, 흥미요인들을 고려하여 ①아동의 긍정적 감정(뿌듯함, 보람 등)을 향상시키고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②활동성 있는 프로그램,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재차 강조된 바 있으며 소집단 활동 중심, 체험학습과 협동학습 중심, 구조화된 경험을 촉진하는 놀이와 활동으로 구성된 나눔캠프의 효과검증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 등을 봤을 때, 이는 교육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검토되어졌던 Bentley와 Nissan(1996)의 연구내용, 즉 나눔교육은 무엇보다 아동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크게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진다.

아동에게 주요한 또 하나의 훌륭한 교육기제는 바로 생활 속의 모범적인 상(像)을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자연스레 따를 수 있는 환경인데, 이는 아동의 중요한 타자인 교사와 부모(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Albert Bandura(1977) 등은 타인의 행동(modeling)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것처럼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도 친사회적 행동이 습득된다고 보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은 학습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강철희(2004) 연구에서 또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의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기부나 봉사의 교육을 받은 성인들의 기부나 봉사참여는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앞서 검토된 Bentley와 Nissan(1996)의 연구, Bremner(1996), Grusec와 Kuczynski(1997) 그리고 Morsberger(1997)의 연구들 역시, 가치, 약속, 자선에 대해 설명하는 데 부모와 성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눔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주변의

주요한 기부자, 영향력 있는 성인을 목격하는 것이 나눔행동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가정(부모) 역할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는데, 강철희・김미옥(2005)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의 기부행위를 경험하는 것이 차후 기부결정시 영향을 크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부 결정 시 가족동의 중요도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경우, 학교를 벗어난 환경에서 아동들이 접할 수 있는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또 다른 차원에서의 나눔 의미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의 하나였던 교사의 경우, 아동의 나눔환경을 조직화시켜주는 동시에 나눔교육을 하며 스스로 변하기도 하는 대상으로, 나눔환경을 크게 ①교육을 제공하는 입장으로서의 나눔환경(즉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과 ②나눔을 함께 배우는 입장으로서의 나눔환경(아동, 가정, 지역사회)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을 제공하는 입장으로서의 나눔환경에서 우선적으로 부딪히는 장애요인은 바로 학교 운영자의 비협조적 태도인데, 이는 제도적 차원(교육부 등)에서 접근되지 않는 한 비협조적 태도는 쉽게 바꾸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도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며, 나눔 자체가 소위 '의무화' 되고 '강제성' 을 띄게 된다면, 현재 미약하게나마 순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참나눔의 모습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래의 나눔정신을 해(害)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눔교육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조심스레 시도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연계의 경우,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해놓아 아동뿐만 아닌 아동을 둘러싼 모든 주체가 교사가 제공하는 나눔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영향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경우, 아동기의 나눔경험 및 나눔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당장 현재의 자원인력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미래의 적극적인 자원으로서 잠재적 활용가치를 키울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다양한 자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단편적, 일시적인 노력이 아닌, 종합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 나아가 따뜻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희망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 나눔교육의 모습을 꾸준히 진단하고, 모듈을 개발하며, 앞으로의 나눔문화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처음에는 나눔을 하면 내 것이 없어지니까 정말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눔반을 하고 나서 나눔은 돈이나 물건으로 나누는 것보다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만 진정한 나눔을 실천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오늘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기도로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눔은 내 것이 없어지긴 하지만 남에겐 그 물건이 생기고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 (옥*희, 4년)
>
> (아름다운재단, 2005 재인용)

# 참 고 문 헌

강철희(2004). 자선적 행위 조사 연구에 대한 소고: 기부(charitable donations)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3(1), 5-43.

_____·김미옥(2005). 개인 및 잠재적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연구-한국 부유층의 기부인식 및 고액기부행동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2005-0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송은경(2003). 가족의 기능과 아동의 성격특성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름다운재단(2005). 2005 나눔교육 교사연수 자료집.

정선희(2006). 나눔교육이 아동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학래(1996).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entley, R. J. and Nissan, L. G.(1996), "The Roots of Giving and Serving", IN: Indiana University Center on Philanthropy.

Bjorhovde, P. O. (Summer 2002 b) "Teaching Philanthropy to Children: Why, How, and What." New Directions For Philanthropic Fundraising, No. 36. Wiley Periodicals, Inc. (p. 7-19).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

Bremner, R. H. Giving: Charity and Philanthropy in Histor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6.

Campoy, R. W. "Creating Moral Curriculum: How to Teach Values Using Children's Literature and Metacognitive Strategies." Reading Improvement, 1998, 34(2), 54.65.

Cone/Roper. "Raising Charitable Children Survey." Boston: Cone/Roper, 2000.

Ediger, M. Caring and the Elementary Curriculum. Unpublished manuscript.

Grusec, J., and Kuczynski, L. (ed.).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Handbook of Contemporary Theory. New York: Wiley, 1997.

HyunSun, S(2004). Philanthropy Education to Children of NGOs to Promote Civil Society: Case Studies and Implications,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hesis for the Degree in Master.

INDEPENDENT SECTOR(1998). America's Teenage Volunteers: Civic Participation Begins Early in Life. Washington, D. C.: INDEPENDENT SECTOR

Morsberger, M. J. Benevolence and Children: A Study of Grade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Philanthropy and Opportunities to Encourage Charitable Giving and Altruistic Behavior for a Better World. Winona, Minn.: St. Mary's University of Minnesota, 1997.

Ryan, K. A., and Bohlin, K. E. Building Character in Schools: Practical Ways to Bring Moral Instruction to Lif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8.

Spaide, D. Teaching Your Kids to Care. Secaucus, N.J.: Citadel Press, 1995.

Tyree, C. "Teaching Values to Promote a More Caring World: A Moral Dilemma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for a Just and Caring Education, 3(2), 1997, 215.22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www.chest.or.kr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www.unicef.or.kr

# 부록

• 아름다운재단 2006 나눔캠프 일정표

<table>
<tr><th></th><th>첫째날<br>2006년 8월 9일</th><th>둘째날<br>2006년 8월 10일</th><th>셋째날<br>2006년 8월 11일</th><th>넷째날<br>2006년 8월 12일</th><th></th></tr>
<tr><td>7</td><td rowspan="6"></td><td colspan="3">기상 · 세면 · 산책</td><td>7</td></tr>
<tr><td>8</td><td colspan="3">아 침 식 사</td><td>8</td></tr>
<tr><td>9</td><td colspan="3">노래로 여는 아침 / 오늘의 띠앗 숨기기</td><td rowspan="2">9</td></tr>
<tr><td>10</td><td>나눔 활동1: 나도 나눌 것이 있어요</td><td>나눔 활동2: 다름은 나눔의 시작</td><td>나눔 활동 3 : 기부금전달/ 나눔상장</td></tr>
<tr><td>11</td><td colspan="2" rowspan="2">관계형성놀이(PGR, Assembly Games)</td><td>뒷정리, 사진촬영</td><td rowspan="2">10</td></tr>
<tr><td>12</td><td>집으로..</td></tr>
<tr><td>13</td><td>점심식사</td><td colspan="2" rowspan="2">점 심 식 사</td><td rowspan="11">12시 30분 집결지 도착</td><td>12</td></tr>
<tr><td>14</td><td rowspan="2">여는 모임: 오리엔테이션</td><td>13</td></tr>
<tr><td>15</td><td colspan="2">오후 자유 활동</td><td>14</td></tr>
<tr><td>16</td><td rowspan="3">여는 마당 (ice breaking game)</td><td>메아리 카페 Open</td><td>낮잠</td><td>15</td></tr>
<tr><td>17</td><td rowspan="2">우리는 하나!: 나눔의 모험</td><td rowspan="2">우리는 하나!: 나눔의 모험</td><td>16</td></tr>
<tr><td>18</td><td>17</td></tr>
<tr><td>19</td><td colspan="2">저 녁 식 사</td><td>야외 BBQ 파티</td><td>18</td></tr>
<tr><td>20</td><td rowspan="2">나눔을 표현해봐: 촌극의 밤</td><td rowspan="2">특별한 만남과 사귐(역할극)</td><td rowspan="3">나눔축제, 캠프 화이어</td><td>19</td></tr>
<tr><td>21</td><td>20</td></tr>
<tr><td>22</td><td colspan="2">하루를 보내며(모둠별 촛불모임)</td><td>21</td></tr>
<tr><td></td><td colspan="3">취침지도 / 지도자 모임</td><td></td></tr>
</table>

GIVING KOREA 2006

# 기부 선진국, 미국의 나눔교육

## AFP의 청소년 나눔교육(Youth in Philanthropy: YIP) 사례를 중심으로

I. 미국 기부문화에 대한 짧은 소개

II. 미국 기부문화의 현황

III. 성공하는 청소년 나눔교육 프로그램

IV. 미래 방향

# 기부 선진국, 미국의 나눔교육
# AFP의 청소년 나눔교육 (YIP)의 사례를 중심으로

_ 캐서린 폴크 (Katherine Falk)

Chair, AFP(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Youth in Philanthropy (YIP) Task Force
공인모금전문가 (CFRE) , Principal, Falk Associates, 비영리기관 모금 컨설턴트 (Nonprofit Development Consultant)

캐서린 폴크(Katherine Falk)는 비영리 모금 컨설턴트로서 1978년부터 미국과 유럽의 여러 단체가 '조직화된 모금사업', '장기 전략 계획', '거액의 기부금 획득 및 고액 모금 캠페인 기획과 관리' 프로그램 수립 프로젝트에 개입해서 일했다. 그녀의 고객은 국제기구부터 예술, 교육, 보건, 사회 서비스, 지역 발전과 뉴저지 지방 프로젝트까지 방대하다.

캐서린은 국제 모금전문가 협회(AFP)에서 “청소년 나눔교육”(Youth in Philanthropy Task)분과와 “뉴저지 지역 나눔교육 위원회”(New Jersey's innovative Youth In Philanthropy(YIP))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그녀는 NJ-YIP에서 12년 전에 첫 번째 교사 자원 가이드 및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수 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교육부문 상을 수여받고, 그 후 NJ-YIP의 프로그램이 2년 기한의 특별 프로젝트의 자격으로 뉴저지 교육위원회의 핵심 커리큘럼 기준으로 포함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맡아왔다. 그녀는 2006년 11월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 개최될 청소년 기부 자선 활동에 대한 전국회의의 기획을 맡고 있다.

캐서린은 2004년에 AFP-NJ로부터 12년간의 탁월한 리더쉽으로 청소년 나눔교육 부문에서 지도자상을 받았고, 1997년과 2000년도에는 모금전문가 부문에서 의장상을 수상하였다. 그녀는 AFP-NJ를 포함한 몇 개의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활발한 자원활동가이기도 하다.

캐서린은 인디아나 대학교 내 기부문화연구소의의 기부자선 분야 지도자 코스를 졸업하였으며, 청소년 나눔 활동과 관련하여 이 연구소에서 수여하는 첫 번째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그녀는 뉴욕에 있는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모금 관리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다녔으며, 그 이전에는 이스턴에 있는 Lafayette College에서 영문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캐서린은 2002년 12월 Jossey-Bass에서 발간된 책 "CREATING TOMORROW'S PHILANTHROPISTS - Curriculum Development for Youth"의 한 장(Chapter)을 썼으며, Fundraising Success Magazine부터 AFP's Advancing Philanthropy Magazine, 뉴스레터 등 수많은 청소년 나눔교육 관련 매체에 글을 게재하였다.

# 기부 선진국, 미국의 나눔교육
# AFP의 청소년 나눔교육 (Youth in Philanthopy) 사례를 중심으로

멋진 나라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만난 새로운 벗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아름다운재단이 박원순 총괄상임이사와 모든 동료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많은 일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빙코리아 심포지엄을 주관해서 진행한 아름다운재단의 홍주은 간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미국의 청소년 대상 나눔교육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 강연의 내용은 성공적인 나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나눔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었으며, 교사와 학교가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했으며,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실제적인 사업의 예시, 제 경험에 대한 소개까지 함께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나눔교육은 이제 하나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 "운동"은 처음에는 풀뿌리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그 여세와 인기를 몰아 주류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인들은 이제 막 사고의 전환을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진보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청소년 나눔교육 운동에 대한 우리의 고민의 배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강연의 목적을 위해, 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미국의 기부문화에 대한 짧은 소개
- 미국의 기부문화의 현황
- 성공하는 청소년 나눔교육 프로그램
- 미래의 방향

청소년 나눔운동의 시기는 박원순 변호사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6년 동안 한국의 나눔 문화 성장에 쏟은 노력의 시간과 아름다운재단이 이룬 놀라운 성과가 나타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식 전환 캠페인, 1% 나눔 캠페인, "재단 안의 재단"이라 불리는 공익 기금 조성 프로그램,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그리고 연구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이 한국에 기부문화를 만들거나, 혹은 전통적인 한국의 모델로부터 "가족의 도움에 더해 상호 도움의 바람직한 시스템"을 재구성함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의  이룩한 지난 6년의 놀라운 성과는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눔 운동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아름다운재단이 추구하는 나눔의 사회상이 우리의 미래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특히 나눔교육에 있어서 각 나라의 사고와 시각을 교환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추진한 아름다운재단의 선견지명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한 마디만 하자면, 제가 미국에서 동료들과 청소년 나눔운동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들보다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방법에 있어서 국제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언젠가 다른 대륙에서 나눔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눌

것이라고는 꿈도 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인식되는 신 개척 분야에서 함께 개척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나눔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다루는 영역이 많이 있는데, 특히 911사태와 쓰나미, 태풍 카트리나, 워렌 버핏의 기부 이후 이러한 영역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미국의 청소년 나눔운동의 역사는 20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미국 나눔문화의 역사는 1961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빈곤구제법이 발표되고 미국법의 기반이 된 자선적 사용 조항이 발표된 시점으로 거슬로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기록된 자선적 목적의 기부금을 낸 기부자는 1638년에 존 하버드라는 개인이었습니다. 그는 도서관과 그의 재산의 절반을 메사추세츠주에 있는 캠프리지에 새롭게 새운 학교에 기부했는데, 이 학교가 지금의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저는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에 지난 4세기의 역사에서 특기한 만한 사건을 삽입했는데요, 그것은 알렉시스 토크빌의 기념비적인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 부터 제인 아담스와 시카고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미국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헐 하우스(Hull House), 그리고 오늘날의 앤드류 카네기, 존 록펠러,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핏까지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박원순 변호사가 1991년에 영국의 런던정경대학에서 아름다운재단을 구상하고 있던 그 시기의 바로 직전까지 되돌아간다면, 그 때가 바로 미국에서 청소년 나눔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말에, 미국에서 독보적인 나눔문화 관련 연구조직인 인디애나 대학의 기부문화연구소가 기존의 고액 기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자손에게 나누어줌으써 세대간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우려의 신호를 보내었습니다.

당시 우리의 걱정은, 과연 새로운 상속자들이 그들의 나눔의 전통을 계승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미덕이 제대로 계승될 것인가?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만큼 관대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단지 자선적인 목적만으로 기부 행위를 선택하긴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더 깊게 들어가면, 그 결론은 과연 나눔문화 운동과 비영리 분야가 이러한 사회변화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과1990년대 초반에는 세대간 전달되는 부의 액수를 약 10조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치는 점차 45조, 55조, 그 이상, 그리고 마침내 100조 이상을 경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그 답변의 일환으로,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과거에는 전국모금가연합(NSFRE)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모금전문가협회(AFP)라고 불리는 단체가 처음으로 단체의 청소년 나눔운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모금가연합(NSFRE)는 1060년에 창설된 단체로, 이 단체를 창설한 사람들은 윤리강령과 전문적인 실행의 기준에 따라 모금을 하나의 훈련되고 헌신된 직종으로 보는 모금전문가들이었습니다. 2001년에 전국모금가연합(NSFRE)는 미국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며,

전문직업으로서의 모금전문가라는 특성을 더욱 뚜렷이 하기 위해 명칭을 모금전문가협회(AFP)로 개칭했습니다.

오늘날, 모금전문가협회는 미국 전역과 캐나다,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자카르타에 걸쳐 189개의 지부에 약 28,000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남미와 아시아, 호주와 유럽에 개인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회원들은 애드보커시, 연구, 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문화를 진보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모금전문가들의 개발과 성장을 독려하고, 모금 직종에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에 본주를 두고 있는 모금전문가협회(AFP)는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모금전문가협회(AFP)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시아의 지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2007년 연말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중앙지부에서 각 지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모금가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2주 전에 네덜란드에서 조인된 국제 도적 헌장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모금전문가협회(AFP)의 첫 번째 청소년 나눔운동 프로그램은 각 지부가 20명 정도의 청소년 그룹을 발굴해서 그들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모금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실제로 모금을 시작하면, 그 모금액에서 1:1의 비율로 모금전문가협회(AFP)에서 매칭기부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994년에, 나의동료이자 공인된 모금전문가인 마가렛 맥린은 당시에 뉴저지 지부의 지부장이었는데, 그녀는 뉴저지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테스트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나눔에 대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글이나 포스터로 표현을 하면, 그 중에서 열정이 보이는 작품은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은행으로 꼽히는 뱅크 오프 어메리카(Bank of America)가 이 사업의 초기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뉴저지 지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열렬한 호응을 받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친절과 베푸는 선행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만, 생활철학으로서의 나눔과 그 나눔이 어떻게 친절한 행동을 뛰어넘는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교육적인 자료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교사자원가이드(Teacher Resource Guide)라고 제가 즐겨 부르는 우리의 첫 번째 '커리큘럼'의 탄생을 지도, 감독해줄 것을 부탁해왔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우리는 프로그램을 4학년 교실 전체, 또는 동학년의 소그룹 단위들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는 나눔을 공부하고 또한 나눔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우리가 완성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들을 제출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 번째 해에, 우리 중 몇 명은 경쟁적 요소가 우리의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랬으며, 우리는 병원에서 봉사하는 프로젝트 제안이 양로원이나 미술 박물관을 위한 제안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우

리의 프로그램이 교육에 중심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뉴저지(New Jersey)의 YIP 프로그램은 모든 초등학년 유치원생부터 8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34,000이상의 학생과 수백 명의 교육자들 또한 우리의 프로그램을 거쳐 갔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모든 우리 멤버들이 나눔을 위해 봉사하고, 윤리강령(Code of Ethical Principles)이나 모금의 원칙(Standard of Professional Practice)과 기부자권리(Donor Bill of Rights)에 숙지하는 자원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꾸준히 우리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의 최초 법인 기부자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뉴저지주의 핵심교육과정기준(State's Core Curriculum Standards)이 개정될 때, 우리가 뉴저지 교육부(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와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2003년과 2004년에 기부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나눔을 사회 교과와 체육 교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핵심 분야에 성공적이었고, 뉴저지주의 인성 교육 지도자들과도 가깝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한 뉴저지 YIP 프로그램은 매년 교사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의 등록이 진행되면서 시작됩니다. 교사들이 하루 동안의 연수와 지속적인 YIP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뉴저지 교육부(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와 Seton Hall 대학의 비영리 부문자원기관(Nonprofit Sector Resource Institute)으로부터의 수료증을 제공해 줍니다. 훈련은 교사들에게 동료들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머리를 맞대고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알려줄 수 있는 뉴저지주 전역의 비영리조직의 대표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강연자를 각 교실에 보냅니다. 훈련된 강연자들은 학생들의 멘터 역할을 하고 학년 말에 학교로 돌아가 학생 개개인에게 성과에 대해 축하해줍니다. 강연자들은 학생 개개인에게는 수료증이 수여하고, 학교 도서관에 선물과 수여하고 그 외의 다른 보상들도 제공하는데 이는 우리의 자원봉사자인 교사그룹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보상을 살펴보면 주지사의 성명서로부터 명판까지 등 다양했습니다. 우리는 학급들과 학교의 좋은 성과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 학교가 그들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1년에 두 세가지의 나눔 프로젝트를 행하는 학교와도 함께 일하고 있고, 매일매일 나눔에 관련된 활동을 행하는 학교와도 함께 일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에 나눔을 반영하고 있는 학교와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사례는 우리의 생각을 잘 반영한 것입니다.

뉴저지주 유니언시의 워싱턴 초등학교는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의 학교입니다. 제 작년, 국제 AFP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나눔운동상(Youth in Philanthropy award)을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초등학교는 나눔을 향한 학교의 노력과 놀라울만한 결과로 어려운 경쟁 속에서 상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에는 32개의 프로젝트들을 완성시켰고, 대도시 중심부 저소득층 구역의 600명의 학생들은 미국종양협회(American Cancer Society)를 위해 2만불를 모았습니다. 지난 6년간, 그들은 미국종양협회를 위해 10

만불 이상의 기금과 다른 분야를 위해 추가적인 기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혁신적이었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종이에 특히 부모님을 위해 조그마한 그림들을 그리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선물을 위한 포장지로 만들어, 특히 부모님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워싱턴 초등학교의 또 다른 정기적 프로젝트는 사랑의 줄넘기(Jump Rope for Heart)입니다. “사랑의 줄넘기(Jump Rope for Heart)"는 학교가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국가적 기금마련 기회로 학생들은 매년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은 퇴역군인을 위해 카드를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도우며, 장난감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방에 가득찰 만큼의 장난감을 모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바틀(Bartle) 학교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단체(Metropolitan Opera Company)와 워크샵을 갖고, 그들 자신의 오페라를 쓰고, 연출하고 공연했습니다. 그들은 표를 판매했고, 그 수익으로 암과 혈액병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기관(Institute for Children with Cancer and Blood Disorder)에 전했습니다. 프렌치타운 학교(Frenchtown School)는 전문적 비영리 극장 업체와 함께 일하고 그 표 매상 수익을 그들을 코치한 연출가와 학교근처의 양로원에 보냈습니다.

바틀 학교는 또한 양로원을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매주 요양원을 방문하였는데 그들은 그곳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그들이 이야기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SeniorZine"이라는 특별한 잡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양로원을 주기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YIP는 그들의 프로젝트가 가장 효율적이도록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언급한 프로젝트에서는, 우리는 학생들이 노인들이 잘 못 듣고 잘 보지 못할 수 있으며 걷기 어렵거나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집단 감수성 훈련을 제공하는 교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는 걸을 때의 고통과 잘 보지 못할 때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의 신발에 자갈을 넣고 걸을 것과 안경에 크림을 바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예로,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의 학교인 클라라 바튼(Clara Barton)은 그들의 청소년 나눔 프로그램(Youth in Philanthropy Program)으로 뉴저지교육부의 “최고의 실천상(Best Practice)"상을 받았습니다. 7년 전에 그들은 그들의 연간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 폐 전문 병원인 소아과 건물을 입양했는데 이 병원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해에는, 두 수업의 60명의 학생들이 네 그룹으로 나뉘어 환자들을 위한 커다란 아름다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글쓰기 능력을 사용하였고,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그들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책의 마지막에는 “저자와의 만남” 코너가 있고 앞부분에는 특별한 글꼴을 이용해서 “헌정(dedication)” 코너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음해에는 읽기를 강조하

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출판사에 설득력 있는 편지를 써서 각 한 종류의 책을 두 권씩의 책들을 기부 받았습니다. 그들은 테이프 녹음기 회사에도 연락을 취해, 테이프와 녹음기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들은 테이프에 책을 읽어 녹음했고, 새로운 책, 테이프와 녹음기를 소아과 건물에 기증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교사들은 4학년 학생 중 미술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 지난번 수업을 통해 병원에 기부된 책들을 읽고 삽화를 그려 넣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각 각의 삽화는 뒷판이 덧대어지고 프레임에 넣어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 아이들은 베개를 만들고 캔버스 가방을 물감으로 장식하고 그들이 만든 선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는 클라라 바튼 학교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소아과 건물의 벽은 클라라 바튼의 4학년 학생들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미 전역, 국가, 세계적으로 나아가 학생에게까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우리 프로그램 최우선의 목표는 이러한 수업들을 유지하여 해가 지나면서 결과를 축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많이 가지지 못하고 기부의 끝자락에 서있는 아이들을 – 아무리 그들이 어리고 기부할 수 있는 기금이 없다하더라도– 그들의 지역사회와 그 이상의 영역까지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과 힘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YIP 프로그램이 특히 위기에 놓여진 청소년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의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에 의해 나눔의 문화를 접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종교적 입회, 또는 미국에서는 걸 스카우트나 보이 스카우트의 참여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도– 그들과 정반대인 특권 없는 가난한 아이들만큼이나– YIP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연대와 만족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종종 표현합니다. 또한 YIP의 경험이 있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기회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자주 말합니다. 많은 가족들은 자선단체에 재정적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자선의 실천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생각해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YIP 프로그램은 부모들까지도 교육되는 확산 효과를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확산 효과는 미국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부할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어느 누구나 자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수백만 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자선가들도 그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선가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듯 합니다.

저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몇 몇의 차트와 설명을 파워포인트에 실었습니다. 슬라이드들은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이미 이 중 몇몇과 친숙하며, 다른 몇몇과는 파트너쉽을 발전시켰고 이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부는 매년 일 년이 지나 연구결과로 검토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월에 나온 2005년의 숫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부금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26,028백만불

($260.28 Billion) 정도입니다. 이것은 개인, 기업, 재단, 그리고 사람들이 자선의 목적으로 남기는 유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총생산의 2%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제가 만나는 대부분 평균 미국인들은 기부행위 대부분이 재단이나 기업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개인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워렌 버펫(Warren Buffet)의 엄청난 금액의 기부를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미국인들도 네 개의 그룹-개인, 기업, 재단, 사후 유증-의 기부금의 비율을 알게 되면 종종 놀라곤 합니다. 저는 미국사회 기부의 원천들과 이러한 기부금의 수혜기관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원형차트를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국사회에 기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워렌버핏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에 기부한 기부금과 같이 거액의 기부금에만 관심의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의 기부금은 중요하지 않으며 기부란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또한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관점은 일사람들을 자선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나눔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부금이 매우 의미있다는 걸 깨닫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잘 진행해 온 전국적인 1% 나눔운동을 따라 시행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청소년 나눔운동의 중요한 믿음 중 하나는 어린이들은 비록 어리지만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그 이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AFP의 스티븐 바슨(Stephen Batson) 의장은 국제화(Globalization), 다양성(Diversity)과 더불어 청소년 나눔운동(Youth in Philanthropy)을 AFP의 세가지 주요 전략의 하나로 주창하였습니댜. 그는 청소년 나눔운동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는 인터넷에 자료실을 만들어 나눔교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리는 것이였습니다. 캐시 애거드(Kathy Agard,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의 설립인사)는 테스크 포스팀의 일원이었고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AFP지부들에 연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나눔운동과 관련하여 특히 국내의 지부들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외부 자원들과 홍보에도 초첨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나눔운동이 AFP 전체에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테스크 포스팀은 주로 AFP회원 대표들로 구성되어져 왔었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몇몇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 프로그램의 대표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테스크 포스팀의 멤버 중에는 제가 존경하는 동료이자 인디애나 기부문화연구소의 드와이트 벌링게임(Dwight Burlingame) 박사도 포함되었는데 그는 일본에서 나눔교육을 국가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데릭 펠드먼은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9개국과 관계하고 있으며 아름다

운재단과도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리그(League) 프로그램은 여러 학교들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나눔 활동들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학교들은 자신들이 기여하고 싶은 사회영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두고 서로 경쟁합니다.

또다른 AFP 테스크 포스팀 회원 기관들은 Learning to Give, Community Partnerships with Youth, Inc., The 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of Indiana와 이 강의안에서 발견되는 기관들입니다.

대학교 수준의 나눔운동은:

모금전문가로 들어설 사람들이나 나눔운동에 관한 일을 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위해, 2년 전에 AFP는 대학 지부를 창설하였습니다. 대학 지부는 공식적인 AFP의 지부로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학생들이 운영합니다. 각각의 대학 지부는 성인 대상의 모금전문가협회 지부(AFP)가 하나씩 맡아서 파트너쉽을 맺고 있으며, 성인 지부의 회원들이 대학 지부 회원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합니다.

모금전문가협회(AFP)의 대학생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뿐만이 아니라, 미국 인간학 프로그램(American Humanics Program)이라고 전국의 대학과 비영리 단체가 모인 전국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단체들은 그들의 사명을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단체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준비시키고 그 전문성을 인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인간학 프로그램(American Humanics Program)은 미국에 있는 약 75개의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술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인간학 프로그램(American Humanics Program)은 비영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며,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젊은 인력자원을 원하는 비영리 단체 파트너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 주소 www.humanics.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로, 서두부터 나는 박원순 변호사와 아름다운 재단이 지난 6년간 해온 일의 성과와 인디애나 대학의 기부문화연구소의 예상, 전국모금전문가협회(AFP), 그리고 NSFRE의 청소년 나눔교육운동의 시작에 대해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이제, 위 사건이 나타난 지 몇년이 흐른 시기인 1995년에, 로신 미라벨라 박사와 나오미 위시 박사가 행한 새로운 연구를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로신 미라벨라 박사와 나오미 위시 박사는 세튼홀 대학교에 있는 지역공동체 연구소(The Center for Community Research and Engagement)의 공동 국장이며 켈로그 재단에서 연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의 제목은 '비영리 경영과 자선 연구 분야에서 대학 교육 프로그램: 10년의 회고 및 미래 추세에 대한 전망' 으로, 미라벨라 박사는 곧 출판할 새로운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비영리 경영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학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현재 총 240개의 대학이 미국 전역에서 비영리 경영에 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성이 높아진 전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장 최근의 정보를 편집함으로써 이러한 성장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를 보여준다. 본 필자는 사업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이 분야의 성장을 각각

측정했다. : 대학원생(박사 포함), 학부생, 평생 교육, 그리고 비학점 코스.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필자는 미국의 비영리 경영 교육 프로그램과 나눔운동 관련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하여 전망할 것이다."

미라벨라 박사와 그녀의 동료인 나오미 위시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학부 코스나 대학원 코스에 비영리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거나 진행한 적이 있는 대학교의 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설문에 대한 결과는 구글에서 박사의 이름이나 세튼홀 대학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청소년 나눔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시간대에 도착했습니다. 4년 전에 인디애나 대학의 기부문화연구소는 연구소의 연례 심포지엄의 주제를 청소년 나눔운동으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32개 주와 5개의 국가에서 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청소년 나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신나는 일이었으며, 이 운동의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도 우리는 과연 자선적인 베풂과 봉사의 가치가 어떻게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터진 9/11 사건이야말로 아이들과 어른들 할 것 없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끌어낸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이 바뀌었으며, 또한 동시에, 유명한 나눔 센터에 관심 못지 않게, 청소년 나눔 운동의 선구자들은 이 사회가 진실로 아이들을 인간적이며 사회의 선에 관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디스 니콜스 박사는 지금 여러분의 자료물에 들어있는 그 차트, 네 세대와 각 세대의 가치, 우선 사항을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서술하기를 '나의 부모님 세대는 공공의 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민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에 태어났으며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나의 세대는 "우리"에게 집중한 것 보다 "나"에게 더욱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우리"라는 개념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회를 고칠 수 있는 지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주디스 니콜 박사에 따르면, 이제 불과 몇 년 안에 더 젊은 세대는 그들의 증조 할아버지와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범위는 인터넷 덕분에 글로벌한 규모를 가진다고 합니다.

밥 카터더는 미국에서 가장 모금 컨설팅 회사 중의 하나인 케첨의 대표이사이자 공인된 모금 전문가입니다. 그는 또한, 온라인 나눔문화 재단(E-Philanthropy Foundation)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밥 카터는 최근에 뉴욕에 있는 Harvard 클럽에서 세계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터넷의 출현이 개인 기부자의 시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기부자들을 개인적으로 그들이 봉사하는 것과 연결하는 능력은 인터넷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재단 기부자들들의 90%가 인터넷을 통해 기부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Bob은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이 20년 전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과 오늘날의 나눔문화가 온라인을 이용한 나눔문화운동과 함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2005년에, 45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이 온라인으로 기부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인 구제가 12억 5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하였고 이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자들에게 요청하고 기부금을 받는 모든 과정이 가능한 인터넷의 힘으로 30

일 안에 모든 돈이 국제 적십자사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4년 전과 대비되는 오늘날의 “운동” 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워싱턴 DC의 전국 인도적 회의(National Human Assembly)라는 단체 출신의 이브 캐츠가 기부문화연구소 심포지움에서 행한 중요한 연설 속에 이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이 사회적인 인식에 눈을 뜨기 전에 먼저 놀아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비슷한 유의 놀이를 각각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모금전문가이자 모금전문가협회(AFP)의 청소년 나눔운동 부분 TFT의 선배 동료요 의장이었던 팻은 모든 청소년 나눔교육운동 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상부단체가 있어야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모금전문가협회(AFP)가 각각의 놀이를 통합하여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 2의 모임을 기획하자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이 모임을 기획했고, 마침에 플로리다에 있는 에디스 부시 자선재단의 도움에 힘입어, 다음주, 2006년 11월 12-14일에 우리 45명은 플로리다의 롤린스 대학의 비영리 경영 연구소에서 만나서 우리의 열정과 경험을 AFP가 소집한 나눔교육정상회의에서 풀어놓을 것입니다. 드와이트 벌링게임과, 나의 동료이자 선배인 팻, 그리고 제가 백서를 쓸 예정입니다. 저는 그 백서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나누고 싶으며,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 나눔교육운동의 협력을 둘러싼 새로운 공동체 모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빙코리아 심포지엄에서 초대받아 서울에서 한 이 귀중한 경험을 통해 다음 정상회의는 국제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나의 동료에게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부록 1 . GIVING INDEX 설문지

부록 2 . Philanthropy in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Tradition and Trends _Theo Shcuyt

부록 3. Youth in Philanthropy, A Growing Movement _ Katherine Falk

부록 4. Members of the AFP YIP Task Force

부록 5. Youth In Philanthropy Program of AFP NewJersey Chapter

R&R-2006063001-0

ID | | | | |

# 기부(寄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R)**'의 면접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공익 기부(寄附)문화의 확산과 정착, 공익활동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된 '**아름다운 재단**'의 의뢰로 국민들의 '기부'에 관한 의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부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귀하의 응답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 1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우리나라의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주시어,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DBID | | | | |



| 아름다운 재단 | 리서치 앤 리서치 |
|---|---|
| 이사장 : 박상증 | 대표 : 노규형 |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3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6-3 SL빌딩 |
| 전화 : (02)766-1004 | 전화 : (02)3484-3000 |
| 담당 : 홍주은 기부문화연구소 간사 | 담당 : 배종찬 사회조사본부 선임연구원 |



**※ 면접원 주의사항 : 아래사항은 설문을 종료한 후 마지막에 작성할 것!**

| 응답자 정보 | 면접원 정보 |
|---|---|
| •성 명 : _____ | •면접일자 : 2006년 _____월 _____일 |
| •주 소 : _____ | •이 름 : _____ |
| •전화번호 : (____) _____ - _____ | •면접원 번호(ID) : _____ |
| •휴대폰 : (____) _____ - _____ | •연 락 처 : (____) _____ - _____ |

SQ1. 거주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광주 ⑤ 인천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SQ2. 거주지 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시지역의 읍면포함) ③ 군지역(읍, 면)

SQ3.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SQ4.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세 → 만19세 미만 조사 중단

먼저, '**자원봉사(自願奉仕 : Volunteering)**' 활동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타인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복지시설, 자선단체 등에서의 자원활동, 공부방 활동, 학교나 병원에서의 자원봉사활동, 모금 캠페인이나 국제 행사에서의 도우미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때 종교단체내의 활동(주일교사, 법사 등)은 포함되지 않지만, 종교단체를 통한 여타 사회단체(아동시설, 양로원 등)의 봉사활동은 포함됩니다.

**※ 면접원 지시사항 : 《보기카드 1》을 응답자에게 주고, 보게 할 것! (2, 3페이지 이용)**

1.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5년 1월부터 12월 사이 〔보기카드 1과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4페이지 문2로 이동**

☞ **면접원 지시사항** : 응답자가 자원봉사한 곳이
"①-1)번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하나인 경우** 문1에서는 **'② 없다'에 체크**
"①-1)번"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자원봉사한 경우**(예, ①-1)번, ③번 등)에는 문1 **'① 있다'에 체크**
**"보기 ①-1)번"의 경우 문1에서 '② 없다'에 체크하더라도 문1-1과 문1-4는 응답 받을 것!**

◈〔문1-1에서 문1-4까지는 3page에 있는 표에 응답해 주십시오.〕

1-1. 〔보기카드 1 제시〕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05년 1월~12월)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 3페이지 표

1-2. 〔보기카드 1-2 제시〕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하나씩만 말씀해주십시오. ☞ 3페이지 표

①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② 가족, 친척 등을 통해 ③ 친구, 선배 등 지인을 통해
④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
⑤ 직장(직장활동 혹은 고용주)을 통해 ⑥ 종교단체를 통해
⑦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⑧ 기타: _____
⑱ 기억이 안 난다 ⑲ 응답하기 싫다 ⑳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1-3. 〔보기카드 1-3 제시〕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 3페이지 표

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정기적)
② 기회가 닿을 때 일회적으로 자원봉사(비정기적)
⑦ 기억 안 난다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1-4. 〔보기카드 1 제시〕 작년 한 해 동안(2005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 3페이지 표 **※ 면접원 지시사항 : 기억 안 난다, 응답하기 싫다, 모르겠다 등으로 답할 경우, 그대로 적을 것**

| 문1-1)<br>'자원봉사' 한 곳 | 문1-2)<br>인지 경로 | 문1-3)<br>정기/비정기 | 문1-4)<br>자원봉사 시간 |
|---|---|---|---|
| ① 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 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①-1의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 제외) | | | |
| ①-1)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를 위한 봉사활동(교사봉사, 식당봉사, 주차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 | | | |
| ② 재해 긴급구호 및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수해 복구활동 등) | | | |
| ③ 모금 및 구호단체(적십자, 기아대책, 아름다운재단, 사랑의 열매, 월드비전, 구세군 등) | | | |
| ④ 사회복지 시설/단체(복지관, 고아원, 양로원, 미인가 시설 포함) | | | |
| ⑤ 지방정부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지역자조모임 등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지원 | | | |
| ⑥ 문화/예술 단체 및 협회(미술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 | | | |
| ⑦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 | | | |
| ⑧ 의료기관(병원, 연구센터 등) | | | |
| ⑨ 환경/동물보호 단체(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 | | |
| ⑩ 이익단체(노동조합, 경제인 단체 등 포함) | | | |
| ⑫ 정당 및 정치인 개인(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 | | |
| ⑬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 | | |
| ⑭ 친구, 이웃 등 가까운 지인 | | | |
| ⑮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 | | | |
| ⑯ 모르겠다 (자원봉사를 하긴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잘 모름) | | | |
| ※ 기타(적을 것: ) | | | |

다음으로 '**기부(寄附 : Donation)**' 활동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기부'라 함은 자선적·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돈(재산)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빈곤가정, 걸인, 북한 동포 등을 돕기 위해 돈을 내거나 물품을 주는 것, 대학/박물관 등과 같은 기관에 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모금기관 등을 통해 돈이나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원조 등이 해당됩니다. 단, 교회/성당/ 절 등에 종교적인 기관에 내는 순수헌금 및 보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면접원 지시사항 : 《보기카드 2》를 응답자에게 주고, 보게 할 것! (4, 5페이지 이용)**

**2.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5년 1월부터 12월 사이 〔보기카드 2와 같은 곳에〕 '기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ARS전화를 통한 기부, 적십자회비,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기관/단체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걸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광범위하게 생각해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 **6페이지 문5로 이동!**

☞ **면접원 지시사항** : 응답자가 기부한 곳이
"②-1)번 종교단체에 헌금 및 보시" **하나인 경우** 문2에서는 **'② 없다'에 체크**
"②-1)번"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기부한 경우(예, ②-1)번, ④번 등)에는 **문2 '① 있다'에 체크**
**"보기 ②-1)번"의 경우에는 문2에서 '② 없다'에 체크하더라도 문2-1과 문2-5는 응답 받을 것!**

**◈〔문2-1에서 문2-5까지는 5page에 있는 표에 응답해 주십시오.〕**

**2-1. 〔보기카드 2 제시〕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05년 1월~12월) '기부 활동'을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 5페이지 표

**2-2. 〔보기카드 2-2 제시〕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하나씩만 말씀해주십시오.** ☞ 5페이지 표

①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② 가족, 친척 등을 통해
③ 친구, 선배 등 지인을 통해 ④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
⑤ 직장(직장활동 혹은 고용주)을 통해 ⑥ 종교단체를 통해
⑦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⑧ 기타(적을 것 : _____)
⑨ 기억 안 난다 ⑩ 응답하기 싫다 ⑪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2-3. 〔보기카드 2-3 제시〕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기부'를 하셨습니까?**

①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 ② 지로 납부
③ 자동이체(CMS) ④ 카드결제
⑤ ARS 전화/핸드폰 결제 ⑥ 직장월급에서 자동공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⑨ 기억 안 난다 ⑩ 응답하기 싫다 ⑪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2-4. 〔보기카드 2-4 제시〕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한 '기부'는 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 5페이지 표

① 지속적으로 기부(정기적)
② 기회가 닿을 때 일회적으로 기부(비정기적)
⑦ 기억 안 난다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2-5. 〔보기카드 2 제시〕 작년 한 해 동안(2005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현금(돈)과 현물(물품)을 나누어 응답해주시고, 현물(물품)은 현금 가치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액단위(**천원**) 주의! 5페이지 표

2-5-1. 현금(□□□□만□천원) 2-5-2. 현물(□□□□만□천원)

**※ 면접원 지시사항 : 기억 안 난다, 응답하기 싫다, 모르겠다 등으로 답할 경우, 그대로 적을 것!**

## 2-6.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사 및 기부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기부 방법 | 경험이 있다 | 경험이 없다 |
|---|---|---|
| ①지하철, 마트계산대 등에 비치된 모금함, 재활용옷 기부함 등에 기부 | 1 | 2 |
| ②자선가게, 바자회 등에서 물건 구입을 통해 기부 | 1 | 2 |
| ③가두모금 캠페인, 자선이벤트 등 자선모금 행사 | 1 | 2 |

| 문2-1) '기부'한 곳 | 문2-2) 인지 경로 | 문2-3) 기부 방법 | 문2-4) 정기/ 비정기 | 문2-5) 기부 금액 | |
|---|---|---|---|---|---|
| | | | | 2-5-1) 현금 | 2-5-2) 현물 |
| ①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비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②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이나 불우이웃돕기 헌금(②-1)의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제외)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②-1)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에 헌금 및 보시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③ 재해 및 불우이웃돕기 모금(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의 모금행사 및 모금 방송프로그램에 ARS 전화 등으로 참여, 회사나 학교 등에서 일괄 성금모금 등)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④ 모금 및 구호단체(적십자, 기아대책, 아름다운재단, 사랑의 열매, 월드비전, 구세군 등. 모금함 포함)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⑤ 사회복지 시설/단체(복지관, 고아원, 양로원, 미인가 시설 포함)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⑥ 지방정부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지역자조모임 등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지원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⑦ 문화/예술 단체 및 협회(미술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⑧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⑨ 의료기관(병원, 연구센터)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⑩ 환경/동물보호 단체(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⑪ 이익단체(노동조합, 경제인 단체 등 포함/회비 제외)에 대한 기부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⑫ 정당 및 정치인 개인(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당비 제외)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⑬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⑭ 친구, 이웃 등 가까운 지인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⑮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⑯ 모르겠다(기부를 하기는 했는데, 어디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잘 모름) | | | | □□□□만□천원 | □□□□만□천원 |
| ⑱ 기타(적을 것: ) | | | | □□□□만□천원 | □□□□만□천원 |

3. 〔보기카드 3 제시〕 귀하께서 '기부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와 두 번째로 큰 이유를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

3-1. **가장 큰 이유** (_____)

3-2. **두 번째로 큰 이유** (_____)

① 시민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② 종교적 신념 때문에
③ 동정심 때문에 ④ 개인적인 행복감 때문에
⑤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가 있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⑦ 기억 안 난다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4. 〔보기카드 4 제시〕 위의 '기부하는 이유(기부동기)' 외에 다음 중 귀하의 기부에 양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요인과 두 번째로 큰 요인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

4-1. **가장 큰 이유** (_____)

4-2. **두 번째로 큰 이유** (_____)

① 경제적 여유 ② 연말 정산 등 세제혜택
③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극 ④ 특별한 이유는 없어도, 요청을 받는 경우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⑦ 기억 안 난다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 면접원 지시사항 : 문5는 작년에 '기부한 적이 없는' 응답자 한정 질문임**

5. 〔보기카드 5 제시〕 (문2의 ②번 '기부한 적 없다'는 응답자만) 귀하께서 '기부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와 두 번째로 큰 이유를 아래에서 골라 주십시오.

5-1. **가장 큰 이유** (_____)

5-2. **두 번째로 큰 이유** (_____)

①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② 기부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③ 기부 대상자 및 기부를 요청한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④ 소득의 감소 등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⑤ 앞으로의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⑥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⑦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⑧ 기부 대신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⑨ 기타(적을 것 : _____)
⑪ 기억 안 난다 ⑫ 응답하기 싫다 ⑬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 면접원 지시사항 : 지금부터는 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할 것!**

6. 귀하는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 면접원 지시사항(7~10번문제): 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할 것!**

**7. 〔보기카드 7 제시〕 귀하께서 향후에 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 중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하시겠습니까? 두가지를 골라주십시오**

7-1. **가장 큰 것**(_____) 7-2. **두 번째로 큰 것**(_____)

① 기부의 대상 및 분야가 무엇인가(예: 아동, 장애인, 노인, 아동, 교육, 의료, 환경 등)
②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기관/단체/개인이 믿을만한가
③ 기부를 통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④ 기부방법과 절차가 간단하고 쉬운가
⑤ 나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기부 액수의 선택이 용이한가
⑥ 기타(적을 것 : _____)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8. 〔보기카드 8 제시〕 귀하께서 개인에 대한 직접 기부가 아닌, 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하신다면, 다음 중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겠습니까?**

① 사회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②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 면에서 믿을 수 있는가
③ 활동을 통한 사회적인 개선효과를 얼마나 갖는가
④ 지원하는 대상 및 분야가 무엇인가
⑤ 기부금 사용 및 활동 내역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가
⑥ 기부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가(행사 참여, 자원활동, 인정 및 감사 등)
⑦ 기타(적을 것 : _____)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9. 〔보기카드 9 제시〕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그 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9-1. **1순위** (_____) 9-2. **2순위** (_____) 9-3. **3순위** (_____)

①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② 의료분야 지원
③ 문화 및 예술분야 지원
④ 환경 및 동물보호활동 지원
⑤ 재난·재해 등 긴급구호활동 지원(재난·재해 피해자 등)
⑥ 지역사회발전 지원(지역도서관, 지역 청소년 센터 등)
⑦ 해외구호활동 지원
⑧ 선교 및 포교활동 지원
⑨ 정당 및 정치인, 이익단체 활동 지원
⑩ 아동복지지원(일반·결식·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⑪ 청소년복지지원(진로개발, 상담, 동아리 지원, 여가활동 지원 등)
⑫ 장애인복지지원(일반·시설·빈곤 장애인 등)
⑬ 노인복지 지원(일반 노인, 무의탁 노인, 시설 노인 등)
⑭ 여성복지 지원(일반 여성, 직장 여성, 주부, 여성 가구주 세대 등)
⑮ 빈곤가구 지원(저소득, 무소득, 노숙인 등)
⑯ 북한동포 지원
⑰ 국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
⑱ 기타(적을 것 : _____)
⑲ 응답하기 싫다 ⑳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10. 〔보기카드 10 제시〕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그 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단위의 문제 해결에 주로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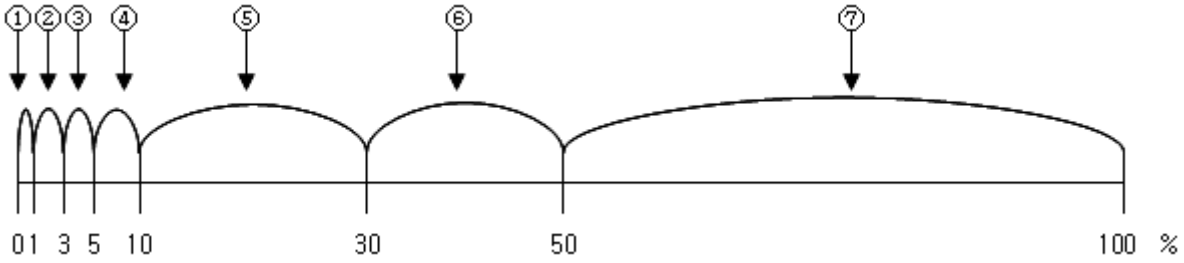
①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
② 나와 연고가 있는 공동체(예: 모교, 고향 등)의 문제
③ 국내의 사회문제
④ 국제사회의 당면문제(예: 쓰나미, 아프리카 빈곤 등)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다음은 '유산기부(遺産寄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유산기부란 사전 유언을 통한 사후의 기증으로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소장품 등의 권리를 특정 개인/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귀하께서는 유산의 일부를 〔보기카드 2〕의 단체/시설/기관에 기부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8페이지 문12로 이동** ③ 모르겠다(**불러주지 말 것!**)→ **8페이지 문12로 이동**

**11-1. 〔보기카드 11-1 제시〕 유산기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현재 귀하께서는 전체 유산의 몇 % 정도까지 사회에 기부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① 1% 미만
② 1% 이상~3% 미만
③ 3% 이상~5% 미만
④ 5% 이상~10% 미만
⑤ 10%이상~30% 미만
⑥ 30%이상~50% 미만
⑦ 50%이상~100% 이하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12. 귀하께서는 유/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 | 그렇다 | 아니다 |
|---|---|---|
| ① 개인(친구나 이웃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물질(현금, 현물)로 도운 적이 있다 | 1 | 2 |
| ② 개인(친구나 이웃 등)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모금활동 포함) | 1 | 2 |
| ③ 자선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한 적이 있다 | 1 | 2 |
| ④ 자선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모금활동 포함) | 1 | 2 |
| ⑤ 부모로부터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 1 | 2 |
| ⑥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기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1 | 2 |
| ⑦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1 | 2 |
| ⑧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1 | 2 |
| ⑨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모금활동 포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1 | 2 |
| ⑩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자선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1 | 2 |
| ⑪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자선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모금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 1 | 2 |

다음은 '나눔교육'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나눔교육이란 아동과 청소년, 성인들이 기부와 자원봉사 등 나눔의 방법과 즐거움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13. 〔보기카드 13 제시〕 다음의 나눔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어느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 어느정도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 |
|---|---|---|---|---|
| ① 나는 나눔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② 나눔교육은 학교 내(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③ 나눔교육은 부모로부터 혹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④ 나눔실천의 강조가 직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 ⑤ 언론 및 방송에서 나눔실천 관련 프로그램 및 캠페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등 사회적 격차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기반하여 다음의 질문들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기카드 14 제시〕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 어느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 어느정도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 |
|---|---|---|---|---|
| ① 나눔실천을 전개하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 1 | 2 | 3 | 4 |
| ② 나눔실천을 전개하는 비영리단체는 우리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격차 해소 등) | 1 | 2 | 3 | 4 |
| ③ 나눔실천을 전개하는 비영리단체는 사회 전체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1 | 2 | 3 | 4 |
| ④ 나눔실천을 전개하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에서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 1 | 2 | 3 | 4 |

**15. 〔보기카드 15 제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중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15-1. **가장 심각한 문제**(_____)

15-2.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_____)

① 취약계층의 소득불안정
②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
③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성
④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정
⑤ 취약계층의 의료기회의 제한성
⑥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의 제한성
⑦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의 제한성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16. 〔보기카드 15 제시〕 귀하께서는 어떤 문제의 해결에 민간(시민, 기업, 종교기관)이 참여(나눔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6-1. **개선효과 1순위**(_____)

16-2. **개선효과 2순위**(_____)

☞ 면접원 지시사항:16번의 보기는 15번의 보기 참조

17. 〔보기카드 17 제시〕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표를 해 주십시오.

| 질 문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어느정도 신뢰하는 편이다 | 매우 신뢰한다 |
|---|---|---|---|---|
| ①사회복지 시설/단체 (고아원, 양로원, 복지관 등. 미인가 시설 포함) | 1 | 2 | 3 | 4 |
| ②시민단체(참여연대, 경실련, 환경, 여성, 인권 단체 등) | 1 | 2 | 3 | 4 |
| ③문화예술 단체 (미술관, 박물관 등) 및 협회 | 1 | 2 | 3 | 4 |
| ④자선단체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적십자, 이웃사랑회, 월드비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구세군자선냄비 등) | 1 | 2 | 3 | 4 |
| ⑤교육기관 (초, 중/고, 대학교) | 1 | 2 | 3 | 4 |
| ⑥의료기관(병원 등) | 1 | 2 | 3 | 4 |
| ⑦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 1 | 2 | 3 | 4 |
| ⑧노동조합(한국노총, 민주노총, 개별노조 등) | 1 | 2 | 3 | 4 |
| ⑨정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 1 | 2 | 3 | 4 |
| ⑩이익단체, 경제인 단체(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전경련, 경총 등) | 1 | 2 | 3 | 4 |
| ⑪대기업 | 1 | 2 | 3 | 4 |
| ⑫중소기업 | 1 | 2 | 3 | 4 |
| ⑬중앙 정부 | 1 | 2 | 3 | 4 |
| ⑭지방 정부(도, 시, 군, 구) | 1 | 2 | 3 | 4 |
| ⑮사법 기관(법원등) | 1 | 2 | 3 | 4 |
| ⑯언론기관 (방송사, 신문사등) | 1 | 2 | 3 | 4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DQ1. 귀하가 믿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개신교) ② 천주교(가톨릭) ③ 불교
④ 기타(적을 것 : _____)
⑤ 믿는 종교 없다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DQ2.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무학/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 중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재학중/대학원 졸업 이상
⑦ 기타(적을 것 : _____)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가족 종사자 포함)
② 자영업(종업원이 9명 이하인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택시 기사)
③ 서비스직 종사자 및 판매, 영업직 종사자(판매원, 세일즈맨 등)
④ 기능직 및 생산직 근로자(운전사, 선반, 목공 등 숙련공 등)
⑤ 단순노무자(단순 노무, 수위 등)
⑥ 고위 공직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4급이상 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
⑦ 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연구원 등)
⑧ 기술직 및 준전문직(기술직, 초/중/고 교사, 5급 공무원 등)
⑨ 일반 사무직(일반회사 사무직, 6급 이하 공무원, 기타 사무직 등)
⑩ 주부(가사에만 전념하는 주부) ⑪ 학생 ⑫ 무직
⑬ 기타(적을 것 : _____)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DQ4. 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적을 것 : | | | | | | 만원 (→ 금액 단위 주의!)

**DQ5. 귀하 댁의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적을 것 : | | | | | | 만원 (→ 금액 단위 주의!)

**DQ6. 현재 살고 계신 집은 자가입니까? 혹은 전세나 월세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적을 것 : _____)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DQ7. 귀하 댁의 가족 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이십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DQ8.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현재 배우자가 있다) ☞ DQ9로 이동!

③ 이혼　　④ 사별

⑧ 응답하기 싫다　　⑨ 모르겠다 → **불러주지 말 것!**

☞ 면접원 지시사항 : DQ 8에서 ②번 外의 응답자는 설문을 마칠 것!

※ 〔보기카드 1〕을 응답자에게 보여줄 것!

DQ9. (DQ 8에서 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귀하의 배우자 분(남편 또는 부인)께서 작년 한해 (2005년 1월~12월) 〔보기카드 1의 '①번~⑧번'과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총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기카드 1〕에서 '①-1번 종교단체(교회/성당/절 등)를 위한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에 포함되지 않으니, 제외하고 생각해주십시오.

① 안다　　② 모른다

DQ9-1. 귀하의 배우자 분(남편 또는 부인)께서는 작년 한해 자원봉사활동을 총 얼마나 하셨습니까? 〔보기카드 1〕에서 '①-1번 종교단체(교회/성당/절 등)를 위한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에 포함되지 않으니, 제외하고 말씀해주십시오.

(적을 것 : _____시간)

☞ 〔참고〕 DQ9에서 알건 모르건 DQ9-1 모두 질문!

면접원 지시사항 ①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 보도록 부탁할 것!

② 배우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전화약속" 할 것!

**기억 안 난다, 응답하기 싫다, 모르겠다 등으로 답할 경우, 그대로 적을 것!**

※ 〔보기카드 2〕를 응답자에게 보여줄 것!

DQ10. (DQ 8에서 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귀하의 배우자 분(남편 또는 부인)께서 작년 한해 (2005년 1월~12월) 〔보기카드 2의 '①번~⑧번'과 같은 곳에서〕 기부를 총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기카드 2〕에서 '②-1번 종교단체(교회/성당/절 등)에 헌금 및 보시'는 기부에 포함되지 않으니, 제외하고 생각해주십시오.

① 안다　　② 모른다

DQ10-1. 귀하의 배우자 분(남편 또는 부인)께서는 작년 한해 기부를 총 얼마나 하셨습니까? 〔보기카드 2〕에서 '②-1번 종교단체(교회/성당/절 등)에 헌금 및 보시'는 기부에 포함되지 않으니, 제외하고 말씀해주십시오.

적을 것 : | | | | | | 천원 (→ 금액 단위 주의!)

☞ 〔참고〕 DQ10에서 알건 모르건 DQ10-1 모두 질문!

면접원 지시사항 ①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 보도록 부탁할 것!

② 배우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전화약속" 할 것!

**기억 안 난다, 응답하기 싫다, 모르겠다 등으로 답할 경우, 그대로 적을 것!**

♣ 오랜 시간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록 2. 해외강연자 원고

## Philanthropy in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Tradition and Trends

Theo Schuyt Ph.d.
Professor, Philanthropic Studies,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Faculty of Social Sciences, Center for the Study of Philanthropy

Summary

Discussions about the future of most wes Europe welfare states usually concern two alternatives: public: government funding or private: the market and fees.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aren't more possibilities? Is the non- profit and voluntary sector not existent? Are kinship and philanthropy not also social mechanisms to provide social welfare? To focus at the last, one can, in any case, confirm that in the Netherlands, as in other Western European countries, philanthropy has made a comeback.
This paper focuses on this new "old"phenomenon philanthropy. Is it true that philanthropy is back on stage? If so, what explanations can be found for the revival of this feature of the past? And, an even more relevant question: does philanthropy fit in the welfare state paradigm? Many authors and politicians consider the welfare state as the victory over the philanthropic past: over poor relief and charity.
If philanthropy is back in the future, how may it takes form in the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Welfare states fundamentally differ from one another. At the basis of Esping Andersen typology an estimation is made of the path philanthropy will follow in its rebirth. This will depend on the structural conditions in the different welfare states.

First of all the ideas of the German sociologist Luhmann will be discussed. In his 1973 article, 'Formen des Helfens im Wandel 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 Luhmann does not consider moral or psychological explanations for helping; he considers instead the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help can be expected or given, when necessary. Luhmann defines helping as 'the support to fulfill the needs of other people' (o.c.: 21).

Luhmann analyses societies as social systems, which become more complex through development, which can lead to differentiation. Problems of coordination increase with the development (evolution) of social systems; the complexity of societal systems increase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and needs that must be coordinated. After explain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Luhmann applies it to three

distinct societal forms in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the '*archasche Gesellschaft*' (archaic society), the '*hochkultivierte Gesellschaft*'(high cultural society) and the '*moderne Gesellschaft*' (modern society).

The *archasche Gesellschaft*involves few roles and faces considerable threat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internal system is not very complex. People know each other; the members of groups or tribes come into daily contact with each other. In Luhmann's terms, there is a small-scal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ime factor. Reciprocity is the mechanism that coordinates helping; that which one has and the other needs is visible and directly exchangeable. According to Luhmann, as societal systems become more complex, reciprocity becomes less appropriate; gratitude is not elastic. Another problem is that institutionalized transfer requirements based on reciprocal social exchange hinder the formation of capital.

Only a few archaic societies evolve into the high cultural type. When it does occur, such changes usually result from sharp increases in the division of productive labour in agriculture, business and trade, as well as in the distribution of goods according to class or status. A differentiation of political power results from the tension between the two types of changes, giving rise to individualism. The division of labour combines with status and class differentiation do render direct reciprocity useless as a coordinating mechanism. Alms appear as a new coordinating mechanism, thus marginalizing both the problems and helping simultaneously. Almsgiving functions as a safety valve for status and class differentiation. In the high cultural and modern societies, helping and the expectation of help are once again separated from the specific economic and juridical forms of social security. The satisfaction of all needs is negotiated with money. The system of almsgiving thus falls into discredit. The rich are no longer under anymoral pressure to give money. In principle, this mechanism is unlimited. The use of money dissolves the mutual commitment between the helper and the one who is helped. Luhmann thus proposes that helping requires a form that is independent of individual decisions: organization.

Luhmann distinguishes the modern society as the third stage and societal form, the core principle of which is organization. Helping comes to consist of personnel and programmes, professionalization (methods) and policy. Professionstake control over these helping tasks, motivated in part by prestige and salary. The individualization of problem cases now takes place within the framework of a programme, which either does or does not recognize a problem. With this observation, Luhmann touches on a key point of programmed professional helping: the aspect of '*selektive Nichtbeachtung*', selective ignorance.
Although organization has become the dominant form of helping in (western) national states, the 'older' forms continue to exist. In addition, the global society has emerged. The structural problems of a societal system of this magnitude require planned guidance from system developments, for example, for which the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scientific foundations are missing. Neither in reciprocity nor in a charitable morality, nor in programmes. Luhmann therefore argues that the old problem of helping must be re-defined at the global level as a problem of distribution (ibidem).

Luhmann's analysis of the phenomenon of helping is based on a systems-theoretical approach to societies, which can develop according to certain stages in a process of differentiation. A particular form of helping is associated with each stage of differentiation. The following diagram summarizes Luhmann's analysis.

| | Type of society | coordinating mechanism mechanism of reallocation | form of helping |
|---|---|---|---|
| Stage of development | | | |
| Little or no differentiation | Archaic | reciprocity | mutual helping |
| Differentiation | Hochkultiviert | Moral Erforderung | almsgiving |
| Strong differentiation | Modern | organization | programme, project |
| Very strong differentiation | World | ---------- | redistribution |

Philanthropy or charity?

Philanthropy is by many politicians as well as social policy researchers seen as a stage in European social development that lay behind. Philanthropy marks the pre welfare state period. It belonged to the Middle Ages and is immediately associated with Christian values and charity (Swaan, 1988; Leeuwen: 2000). The very existence of the welfare state and welfare state arrangements just show the opposite of what philanthropy stand for: civil and social rights in stead of inequality, paternalism or arbitrariness.
Solidarity, or mutual support, is present in every society. In evolutionary analysis, family and tribal bonds are called on to provide help in primitive societies. In more highly differentiated societies, churches and private organisations also come into the picture, alongside family bonds, while in highly developed societies, in welfare states, government programmes play a dominant role (Luhmann 1973). In welfare states political institutions determine the social stratification in society by their social policies (Mishra 1983). However, the solidarity of the welfare state has certainly not made the contribution of family, church and private philanthropic organisations redundant.

Today, philanthropy may be shortly defined as: private action for the public good (Payton) which express the commitment of individuals, foundations and corporations to society. It includes giving by individuals and households, bequests by individuals, grantmaking by foundations and giving and sponsoring by corporations to societal

goals. Normally these goals subsume religion, human services, education, health, arts and culture, environment, sports and leisure and, finally, international affairs. Philanthropy expresses steward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well-being of society as a whole. Of course, in many cases, more egoistic motives like fiscal incentives, evoke philanthropic behavior, but if the public good is dominantly served, those behaviors are considered philanthropic. In that way philanthropy stands for contributions *(money, goods and/or time) voluntarily given to the public good, serving primarily that public good* (Schuyt, 2003: 25)

The "Global Civil Society research" presents figures of the sources of non-profit revenues in 22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 1995 estimation). Worldwide "private philanthropy – from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foundations combined accounts for only 11 percent of non-profit income on average"(Salamon et al. 1999: 24). F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is research estimated the philanthropic contributions to non-profits UK: 9%, France 7%, Ireland 7%, Austria 6%, Belgium 5%, Germany 4% and the Netherlands 3%.

Sources of non-profit revenues

| Countries | fees | government funding | philanthropic |
|---|---|---|---|
| UK | 44% | 47% | 9% |
| Finland | 58% | 36% | 6% |
| France | 35% | 58% | 7% |
| Germany | 32% | 64% | 4% |
| Netherlands | 38% | 59% | 3% |
| Spain | 49% | 32% | 19% |
| Belgium | 18% | 77% | 5% |
| Ireland | 16% | 77% | 7% |
| Austria | 44% | 50% | 6% |

(Salamon 1999:25)

Till the 1990-tie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in which the macro-economic volume of the philanthropic sector was systematically described, was the United States. In this

country, the American Association of Fund Raising Counsel (AAFRC) at the University of Indianapolis (Center for the Study of Philanthropy) has been published "Giving USA", a report on philanthropy in de United States on a yearly basis since 1955. The Netherlands is the only Western European country in which a similar research has been conducted. Since 1993 the Vrije Universiteit has started with the two-yearly publication of "Giving the Netherlands".

## Back on stage? Structural factors boosting the growth of philanthropic contributions

The private philanthropic contributions are expected to increase steadily the years ahead. This is the case in most western European countries. What factors may explain the 'revival' of the pre-welfare state mechanism of philanthropy?
First of all there is a *demografic* explanation. In nearly all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e number of older people is growing rapidly. At the same time families are smaller. In addition to this, an *economic explanation* offers more insight in the grown wealth.
The generation after World War II has become rich and wealthy. There are transferring their money to the next generation. For fiscal reasons they are willing to benefit not only their children, but societal goals too. Economists of the Boston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 therefore, introduced the term "The golden age of philanthropy" (Havens and Schervish 1999, 2003).
A third structural explanation is a *political one.* At the end of the last century most of the welfare states in western Europe are facing changes in politics and policies. This refers not only financial cutbacks (in any) but also a withdrawal in policy involvement.

## Does philanthropy matter in welfare state analyses?

The welfare state is by no means a closed chapter in social policy theory on developments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Greve 2003). On the one hand and primarily by British authors the objectives of the welfare state 'before the dismantling of (welfare state) facilities'are being strongly championed (Leonard 1997; George and Taylor-Gooby 1996; Hill 1993). On the other side, authors point out the problems that will accompany the further integration of the EU (Hill 1996:318; Clasen 1999; George and Taylor-Gooby 1996).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are facing a process of profound changes: social responsibilities are being explicitly identified and redefined. The citizen pays the fees for services himself and he relies more on family support. Business and industry is now increasingly involved in countless social aspects of economic activity (labour market and health care, care for the elderly a.o). The voluntary and philanthropic sector is increasingly taking responsibility for collective affairs. Government, market, family and the philanthropic sector together make the welfare state to diversify. But, does philanthropy matter in the ongoing welfare state debate?

In the well known Esping-Andersen typology three types of welfare-state regimes has been distinguished: a social democratic, a liberal and a corporatist or conservative regime. These regimes differed with respect to the major institutions guaranteeing social security (the state, the market or the family); the kind of stratification systems upheld by the institutional mix of these institutions (the extent of status and class differentiation, segmentation and inequality typically implied in social security systems); and the degree of de-commodification, that is to say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s, or families, can uphold a socially acceptable standard of living independently of market participation'(Esping-Andersen 1990: 37). The social democratic regime was characterized by a political commitment to equality; it reduced statusand class differentials and modified greatly the market dependence of wage-labour. Particularism and an unwillingness to alter the status and class structure are major features of the conservative regime, which also favoured a social policy that privileged and preserved the family. In the liberal welfare-state regime the market predominated and social rights were generally modest and attached to performance on the labour market. The variations in welfare-state regimes were by and large explained by the distinct modes in which classes (particularly the working class) became politically mobilized, the diverging structuration of class alliances and class coalitions, and the different national policy legacies.

In the attempts to reconceptualize the welfare state, Esping-Andersen's work stands out as having decisively changed the direction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In effect, much of the up to date literature provides (sometimes overly) critical discussions of the theory of welfare-state regimes, but is at the same time greatly indebted to the suggestion that there are various configurations of market, state, and the family, and that variations in welfare-state development are 'not linearly distributed, but clustered by regime-types' (Esping-Andersen 1990: 26).
Studies that appeared since Esping-Andersen's 1990 book increasingly highlighted distinct welfare-state types, but also proposed improvements of the classification (see Lessenich and Ostner 1998). Many amendments of the basic three-regime typology have been suggested, such as the addition of a type addressing to the peculiarities of the mediterranean world (Lessenich 1994; Ferrera 1996a). Others suggest that an Asian type of welfarism should be constructed (Goodman and Peng 1996). The essence of both amendmends is that a fourth element has to be added to the chain Esping-Andersen uses as th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welfare states. In the Asian case the chain then would be market family state group/company, because in Japan neighbourhoods and especially companies also perform a crucial role in social security. In the mediterranean case the fourth element is the clientelist patronclient relationship as exemplified with regard to Italy by Ferrera (1996a and b). In Italy, the "partitocrazia" channels large amounts of public resources to party factions and
party controlled companies, foundations and institutions functioning as a sort of "undergovernment" (*sottogoverno*). In exchange for votes and based on specific personal relations between party officials (patrons) and the population (clients) the

institutions of the *sottogoverno*distribute welfare benefit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pensions. Taken together, these two amendments would bring about a five-type typology of welfare sytems (see Becker 2000: 221).

### Different constituencies

Welfare states in Western Europe are in transition. Demographic changes, growing wealth, cultural and political developments at national as well as European level trigger fundamental shifts i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Western Europe is moving into the ongoing process of restructuring: in the meanwhile integrating new East European countries at one hand, coping nationwide with the etnic diversity challenges at the other. As a result, the transition urges the continuous innovations of governments, businesses and civic efforts to keep Western Europe a prosperous and democratic community to live in. It is the ultimate task to philosophers, authors, the leading elite to grasp this transition into a cohesive cultural framework, a new welfare state paradigm? .

The pillars of prosperity in the future will be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political democracy and a basic level of social arrangements. Because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the constituencies of social security arrangements and the public good in general, are influenced too. Responsibilities are re-estimated; sources of financing are re-allocated. In short, most Western European countries are transforming into so-called "civil societies". For the social (security) arrangements this meant that they financially will rely on three sources of contributions:

a. government funding
b. fees and charges
c. philanthropy (Salamon and Anheier 1999).

The changing constituencies, nevertheless, still holds governments in the dominant position. It only means that other constituents are being added.

*Government* will continue to guarantee a number of fundamental (welfare) services. The government, moreover, also contributes to the common good by its tax policy. Education, family care, child care, specific (gift) benefits, and so on, within bounds, can be deducted. English language literature here refers to 'fiscal welfare', or the 'hidden welfare state' (Mishra 1981).

*The Market*. The most prominently shift is the growth of private insurance, health insurance and private social security. As saving under government administration is reduced, citizens find other means of protecting themselves against risks, by way of individual and/or collective insurance. They include insurance in the areas of income maintenance, health and education.

Also occupational welfare is part of this market model, including the facilities and services provided by business and industry. In the market sector, company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of its personnel has long been known as occupatiowelfare. Training facilities, working conditions, housing, child care and policies for older employees are included in the occupational welfare category

*The family*. A third constituent, which is also increasing rapidly, is the *primary net*. When individuals are not capable of 'self-care', as a rule they first fall back on their primary network of partner, family, relatives, friends and neighbours. Government and industry have both already created the possibility for maternal/paternal leave, and in the Netherlands, care leave (to care for ageing parents) is already standard (as is the case in Sweden)

As the fourth constituent, the voluntary efforts of individuals, foundations and corporations to the public good are distinguished as *philanthropy.* To sum up:

| Constituents of welfare state services: |
|---|
| 1. Government (social services and 'fiscal welfare') |
| 2. Market (private insurance model and occupational welfare) |
| 3. Family (primary network) |
| 4. Philanthropy |

## Towards a diversified welfare state model?

The restructuring of welfare states take place and is inevitably. The traditional regimes are no longer capable to manage the future developments alone. This is the negative side of the coin. The positive side is the growing willingness of the philanthropic sector to co-finance. The social regime typology of Esping Andersen, therefore, needs additional elaboration to incorporate private philanthropic efforts. The major institutions guaranteeing social security have not be limited to state, market and family. A new constituency may called 'philanthropy', or 'civil society'.

Next to this, the explanatory basis of Esping Andersen' typlogy is stratification in relation tothe degree of political intervention (de-commodification). These factor focus on structural patterns in society. They neglect, more or less, the role of values, ideology, and religion. These cultural side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Philanthropy is very much based on cultural incentives.

However, in what way and how philanthropy will incorporated in a diversified welfare state, strongly depends on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the different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Salamon et al. also stress the historic conditions as "explanans" in their "social origins

theory", based on the work of Barrington Moore and Esping Andersen (Salamon et al. 1999).

## Discussion

The concept of "constituent" is closely linked to functionalist theory. If one constituent no longer provides a social service, that service will be delivered b a new constituent. Functionalism studies societies as though they were biological organisms. In other words, functionalism is based on an organic analogy, 'the analogy between societies and organisms' (Rex 1961:61). In just the same way that a biological organism does, social contexts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adaptation and continued existence of the society. In terms of function shifts, functionalism has found solutions in the theory of structural alternatives and in the concept of 'substitution'. A variation of this is the possibility that different social contexts will perform complimentary tasks to fulfil the single function. Functionalism, in fact, does not in theory recognize the 'non-function' possibility, namely the possibility that no social contexts whatever will spring into action if a service is cancelled or revoked.

In his criticism of functionalism, Rex states that the function concept has 'teleological overtones' (Rex 1961:66). People presume that the activities of the individual are always at the service of the whole, the overall society. Rex and Mishra do not see the society as an organic whole (which is to say without fundamental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individuals or groups), but as an-organic whole. They accuse functionalism of glancing over the fact that societies, in contrast to organic or mechanical structures, are made and maintained by groups with conflicting values and interests. The introduction of the terms 'philanthropy' and 'citizenship' runs the risk that the teleological – the desired objective – can be confused with that which is actually taking place as government services and facilities are reduced, namely that given groups in the society are deprived of those services.

## Literature

Becker, U. (2000) 'Welfare state development and employment in the Netherlands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0, 3: 21939.

Clasen, J.(ed.). (1999). *Comparative Social Policy;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Polity Press.

Ferrera, M. (1996a) 'The southern model of welfare in social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 1: 1737.

Ferrera, M. 1996b 'The partitocracy of health. Towards a new welfare politics in Italy', *Res Publica* 38, 2: 44759.

George, V. & P.Taylor-Gooby (ed.). (1996). *European Welfare Policy; Squaring the*

*Welfare Circle.* London: MacMillan Press.

*Giving USA 2003*. Indianapolis: Center for the Study of Philanthropy

Goodman, R. and I. Peng (1996)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Peripatetic Learning, Adaptive Strategy, and Nation-Building', in G. Esping-Andersen (ed.)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Greve, B. (ed.) 2003 The end of the Welfare State.

Havens, J.J. and P.G. Schervish (1999) *Millionaires and the Millenium: New Estimates of the Forthcoming Wealth Transfer and the Prospects for a Golden Age of Philanthropy.*Paper. Boston: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 Boston College).

Havens, J.J. and P.G. Schervish (2003). 'Why the $ 41 trillion wealth transfer estimate is still valid: a review of challenges and questions' In: *Journal of Gift Planning*, vol. 7,1, pp. 11-15, 47-50

Hill, M. (1993). *Understanding Social Policy*. Oxford: Blackwell

Hill, M. (1996*). Social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 London: Prentice Hall

Leeuwen, M.H.D. van, (2000). The Logic of Charity. London: Macmillan

Leonard, P. (1997). *Postmodern Welfare; Reconstructing an Emancipatory Project.* London: Sage.

Lessenich, S. (1994) 'Three Worlds of the Welfare Capitalism' – oder vier? Strukturwandel arbeits- und sozialpolitischer Regulierungsmuster in Spanie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Zeitschrift 35, 2: 22444.

Luhmann, N. (1973). Formen des Helfens im Wandel gesellschaftlichen Be(pp. 21-43). In: H.U. Otto & S. Schneider (Hrsg), *Gesellschaftliche Perder Sozial*. Neuwied/Darmstadt: Luchterhand.

Merton, R.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Mishra, R. (1981). *Society and Social Policy. Theoretical Perspection Wel*. LonMacMillan.

Mishra, R. (1986). Social analysis and the welfare state: Retrospect and prosIn: E. Oyen (red.), *Comparing Welfare States and their Futures* (pp. 20-32). AlGower.

Payton. R.L. 1988. *Philanthropy: Voluntary Action for the Public Good.* New York: Macmillan

Parsons, T. (1951). *The Social System*. London: Routledge.

Rex, J. (1961). *Key Problems of Sociological Theory*. London: Rout

Salamon, Lester M. et al. (1999).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o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uyt, Th.N.M en B.M. Gouwenberg (red.). (2005). *Geven in Nederland*. (Giving in the Netherlands 2005) Den Haag: Elsevier.

Swaan A. de. (1998). *In Care of the State*: Health Care, Education and Welin Europe and the USA in the Modern Era. Cambridge PoliPress, Cam

# 부록 3. 해외강연자 원고

## Youth in Philanthropy, A Growing Movement

Katherine Falk, CFRE
Chair, AFP's Youth in Philanthropy Task Force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wonderful country. It is a highlight of my life to be here. I appreciate the graciousness of my new friends from the Beautiful Foundation. I am impressed with the work of Mr. Park Won Soon and all the colleagues that have made the Beautiful Foundation as successful as it has been over the last six years. A special thanks to Ms. Joo Eun Hong.

I have been asked to speak with you about K-12 Youth in Philanthropy (YIP) in America; successful programs and how they evolved, how teachers and schools are involved, the impact, practical examples of projects and my experiences.

Youth Philanthropy has become a Movement, with a capital "M" in America, something that started at a grassroots level, gained momentum and interest and is now increasingly being embraced by our mainstream culture. It seems we may have turned a corner in our thinking, in America. I would like to think so. I will seek to trace the evolution and provide a context for our consideration of youth philanthropy today.

To do so, the presentation will cover:

- A brief overview of American philanthropy;
- The current state of American philanthropy;
- Youth Philanthropy Programs that are achieving success;
- Future Direction.

The timing of the YIP Movement coincides with Mr. Park Won Soon's efforts and the remarkable results achieved by the Beautiful Foundation. The Awareness-Raising Campaign, 1% Sharing Program, the Public Fund Raising Program "Foundation in Foundation", the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s Program and the Research Program are inspiring models. As you build a culture of giving in Korea, or rebuild from traditional Korea's model the "good system of mutual support in addition to family support", your results demonstrate how it is possible to make a difference for a society as a whole and assure a future for your goals by stimulating active youth participation in philanthropy.

I want to thank you especially for your foresight in fostering the conversation of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hilanthropy education. In this regard, when we started, we thought about having a global impact in the ways our children could help those less fortunate around the world. We did not dream, however, that one day, we would be sharing ideas about teaching philanthropy on another continent. It is exciting to be pioneers together for the emerging and now acknowledged field.

There is much territory to cover related to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so much is happening with youth philanthropy especially since September 11, 2001, the Tsunami, Hurricane Katrina and Warren Buffet's example. Our American Youth in Philanthropy Movement in its present form is less than 20 years old yet we have a rich tradition of philanthropy in the U.S. that dates back to 1601 and the Elizabethan Poor Law as the basis of public poor relief, and the Statute of Charitable Uses that is the cornerstone of Anglo-American law.

The first recorded philanthropic gift in America was made by John Harvard in 1638. He bequeathed a library and half of his estate to the newly-founded school at Cambridge, Massachusetts that was destined to become Harvard University; the university where Mr. Won Soon Park studied Law 354 years later.

I have included slides in the power point handout that offer highlights of the last four centuries from Alexis de Tocqueville's book, Democracy in America through Jane Addams and Hull House in Chicago, our first American Settlement House for people - especially women - who did not have enough, to Andrew Carnegie to John D. Rockefeller to Bill and Melinda Gates and Warren Buffet.

But if we step back to just before when Mr. Won Soon Park was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where the idea for the Beautiful Foundation was born in 1991, our YIP Movement was just beginning. At the end of the 1980s,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the preeminent Center on Philanthropy in our Country, sounded an alarm about a tremendous transfer of intergenerational wealth that was starting to occur as older philanthropists leave their estates to their heirs.

One main concern was whether these heirs would carry on the philanthropic tradition in America. Had the values been passed down? Would the next generation be as generous—or even choose to donate to philanthropic causes at all? The ramification of these questions was whether our Philanthropic sector/Third Sector/ non-governmental sector would, in fact, survive.

The first projections at the end of the 1980s and the beginning of the 1990s put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wealth at about $10 trillion. Then the

projections went up to $45 Trillion to $55 Trillion and even beyond that, by some, to over $100 Trillion.

In 1990-1991, perhaps in response, the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AFP), then called the National Society of Fund Raising Executives (NSFRE) launched its first Youth in Philanthropy (YIP) Program.

The National Society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NSFRE) was created in 1960 by professionals engaged in the art of raising money to establish fund raising as a profession practiced by trained and dedicated men and women who agree to abide by a Code of Ethical Principle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Practice. In 2001, NSFRE changed its name to the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AFP) to reflect the inclusion of members beyond the United States and the professional nature of the work.

Today, the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AFP) represents close to 28,000 members in 189 chapter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Canada, Mexico, and Hong Kong, Singapore and Jakarta and individuals in South America, Asia, Australia and Europe.

Members work to advance philanthropy through advocacy, research,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he Association fosters development and growth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and promotes high ethical standards in the fundraising profession. Headquartered in Alexandria, Virginia, AFP is the largest organization of its kind in the world.

AFP is working to support the chapters in Asia more effectively and proposes to provide chapter administrative support from a central base in Singapore by the end of 2007.
The Korean Fundraising Association has participated in and is a signatory to the International Ethical Statement that was agreed in Holland two weeks ago.

AFP's first Youth in Philanthropy Program encouraged AFP chapters to identify a group of about 20 youth, to encourage them to choose a project and cause for which to raise money that the Association would match dollar for dollar.

In 1994, my colleague, Margaret J. McLean, CFRE, who was then president of the New Jersey chapter, decided to hold a contest for individual fourth grade students from all over the state of New Jersey to enter their ideas about philanthropy in an essay or poster. Fourth graders were chosen because they are old enough to read and write but young enough to have zest and enthusiasm. Bank of America, a large bank in the United States, provided the initial funding.

The New Jersey Chapter received a great response but when we looked at the entries, we saw that all the children understood kindness and giving but hardly any knew about philanthropy and how it extends beyond acts of kindness. We recognized that we needed to add an educational component to provide teachers with information. I was asked to oversee the creation of our first "curriculum"that I preferred to call a Teacher Resource Guide.

The second year, we extended the program to whole fourth grade classes or small groups within the grade to study philanthropy, choose a project and submit a proposal about the project they wanted to complete.

The third year, several of us felt that the contest component went against our purpose. We wanted everyone to win and could not, in good conscience, say whether a proposal for a hospital was more worthy than one for a senior home or art museum so we became a purely education based program.

Today, New Jersey's YIP program is for all elementary grades K-8 and over 34,000 students, as well as hundreds of educators, have gone through our program. Our special niche is that all our members are volunteers who work for philanthropic causes and who subscribe to a Code of Ethical Principle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Practice and the Donor Bill of Rights.

Bank of America, our original corporate donor that still provides support today, gave us grants in 2003 and 2004 to work directly with the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when the State's Core Curriculum Standards were being revised. The goal was to see philanthropy infused into the curriculum in Social Studies and Comprehensive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We were successful with both core subjects and worked closely with the State's Character Education leaders.

To give you a little bit of an idea of how the program works, the New Jersey YIP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teachers, begins each year with registration for Teacher Orientation Sessions. We offer educators credit from the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eton Hall University's Nonprofit Sector Resource Institute for our day-long trainings and for their ongoing participation in the YIP program. The trainings provide educators with information, encouragement and the chance to brainstorm with their colleagues and to meet representatives from statewide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at offer ideas for projects and how elementary school children can help their cause(s).

Next, we send speakers to each classroom. The trained speakers serve as mentors for the class(es) and go back to the school at the end of the academic year to celebrate the students' accomplishments, and their teachers who are our

volunteer leaders, with individual certificates for each student, a gift for the school library and other recognition. In the past the recognition has varied from proclamations from the Governor to plaques. We provide publicity and wider recognition for the class or school's good work(s) as well.

We seek to help the schools participate at whatever level will work for them. We have schools that do a couple of philanthropic projects a year on one end of the spectrum to schools that do something philanthropic every single day of the school year, and where it is tied into the academic curriculum. Three case studies may make these ideas clearer.

Washington Elementary in Union, New Jersey is a K-4 school. The year before last, international AFP created a Youth in Philanthropy award for students in the K-12 category. Washington Elementary won for the K-12 category against stiff competition because of the school's focus on Philanthropy and their incredible results. Last year, they completed 32 projects and raised close to $20,000 for the American Cancer Society with an inner city population of 600 students. Over the last six years, they have raised well over $100,000 for the Cancer Society and additional money for other causes.

Their projects are innovative and span a wide range. The Principal, for example, has all the children draw small pictures on a large piece of paper. Then he has it made into wrapping paper for gifts and offers it for sale, especially to the parents. Another regular project at Washington Elementary is Jump Rope for Heart. "Jump Rope for Heart"is a national fundraising opportunity for schools to help people with heart disease and the students participate each year. They make cards for veterans. They help families in need and they collect rooms full of toys for children who are without. As a second example, Bartle School did a workshop with the Metropolitan Opera Company and then wrote, produced and staged their own opera. They sold tickets and gave the proceeds to the Institute for Children with Cancer and Blood Disorders. Frenchtown School worked with a professional non-profit theatre company and gave the proceeds from their ticket sales to the theatre whose director coached them and to a senior home near the school.

Bartle also adopted a senior home. The students and their teacher went every week to the nursing home. They interviewed the residents and wrote up their stories. This helped the seniors feel heard. Then they created a special magazine called "SeniorZine"as in Magazine and then the class raised money for a magazine rack to give to the senior center. At each step, YIP attempts to support the teachers in ways that are most relevant to their projects. For example, in the project I just mentioned, we coached the teachers at our Teacher Orientation, to provide sensitivity training for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at the seniors might not hear or see as well or that it might be difficult or painful for them to walk. We suggested the students put pebbles in their shoes to experience what it might be

like to have pain in their feet or cream on glasses to show how hard it may be for some to see.

As a last example, Clara Barton, a K-6th School, won a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Best Practices"award for their Youth In Philanthropy Program. Seven years ago they adopted the pediatric wing of a world renowned Heart and Lung Hospital for their annual projects. The hospital serves everyone for free.

The first year, 60 students, in two classes, broke up into groups of four and made beautiful oversized books for the patients. They used their writing skills and the students had a chance to be creative and illustrate their books. There was a "Meet the Author" section at the end and a dedication in the front using different alphabets.

The teachers saw that the students' writing improved but wanted to emphasize their reading the next year. They wrote a persuasive letter, as a class, and received a donation of books from a scholastic publishing company; two copies of each book. They contacted a tape recorder company and got tape recorders and tapes donated. They read the books on tape and gave the new books, the tapes and recorders to the pediatric wing.

The next year, there were so many talented artists in the fourth grade, the teachers decided to ask the students to read and illustrate each of the books that the previous class had given to the hospital. Each illustration was matted and framed. The next year, the children made pillows and the next they decorated canvas bags with fabric paint and filled each bag with presents they made. Every Friday afternoon, at Clara Barton School, is Philanthropy time. Because of all of these efforts, the pediatirc wing has been dedicated to the Fourth Graders at Clara Barton.

While we would like to reach all of the students across the State, Country and Globe, one primary goal of our program is retention of classes so they can build on results year after year. Another is to introduce children who don't have enough, and who are often on the receiving end of donations, to their own potential and power to make a difference in their own communities and beyond - even as young as they are and even without funds to give away. We feel that the YIP program is especially important for at-risk youth. Some children may be exposed to philanthropy by their parents, a religious affiliation or, in America, by participation with programs like the Girl Scouts or Boy Scouts. We want to reach those who don't know that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be civically engaged and productive.

On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we have found that children who come from wealthy families often need a program like YIP as much as their underprivileged counterparts. They need the connection and the great feeling that comes from directly helping others. Children have expressed how good it feels to help others and they often report that they had not felt that they really had the chance to help others before the YIP experience. Many families give financial donations to charity, but don't necessarily engage their children in the process or think about the acts of generosity, so YIP is a program with a trickle up effect that helps educate the parents too.

The Trickle Up effect is meaningful in America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do not understand that anyone can be a philanthropist with or without large sums of money to give away. There are many Americans who think philanthropy is just for those who have millions of dollars to give away and they often don't know that they are philanthropists in their own rights.

I have provided several charts and explanations in the power point for your information. The slides provide some high level information about programs in our country. The Beautiful foundation is already familiar with some and has developed partnerships along with others that have emerged as well.

Philanthropy in the U.S. is tracked each year with a one year lag, so we are looking at the 2005 numbers that came out this past June. Philanthropy in our country is up to $260.28 Billion from four primary sources: Individuals, corporations, foundations and bequests—when people leave money to philanthropic causes in their wills. It is 2% of our gross national product.

My experience is that most average Americans I meet think that the lion's share of philanthropic support comes from foundations and corporations when it fact it comes from individuals (I am referring to guesses made before Warren Buffet's munificent contribution to our society and world).

It is often surprising to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o learn the percentages of contributions from each of the four groups mentioned. I have included copies of the pie charts for you to see the sources of support and the recipient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people know that philanthropy exists but often the focus is on the mega-gifts like Warren Buffet's gift to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The perception, therefore, is that small gifts don't count and that philanthropy is just for The Rich; a "them" and "us" perspective that regular working people aren't philanthropists. Philanthropy educators want to help people realize that their own gifts contribute to the whole and are important. We would do well to follow your good lead and institute a national 1% Sharing Program.

One of the main tenets of our Youth In Philanthropy Movement is that children as young as they are, have the potential and the power to make a difference in their own communities and beyond and ideally to help change the world and create a more peaceful world where we can all work together.

In 2000, the Chairman of AFP, Stephen Batson, Ph.D., CFRE, declared Youth in Philanthropy to be one of three strategic initiatives of the association along with globalization and diversity. He formed our Youth in Philanthropy Task Force. Part ofour work, as we defined it, was to create a Resource on the web that would provide guidance about philanthropy education and what should be taught in youth philanthropy programs. Kathy Agard, Ph.D., a founding board member of the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 and the leader of Learning to Give, at the time, sat on the Task Force and oversaw the creation of the content.

Simultaneously, we began to spread the word to AFP chapters since we have a large global network. We created a survey to discover what was happening in chapters especially around our country for youth philanthropy. We focused on outreach possibilities and Public Relations. We were eager to see YIP be embraced fully by AFP. Our Task Force has been comprised primarily of AFP member representatives but since 2002, we have had representatives from several high level K-12 programs in our country.

Members of the Task Force include my esteemed colleague, Dwight Burlingame, Ph.D, from Indiana University's Center on Philanthropy who is helping Japan institute philanthropy education countrywide. Derrick Feldman represents the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 which is in nine countries including India and Indonesia and will begin its formal partnership with the Beautiful Foundation in March 2007. The League engages whole schools in philanthropic activities for which they can earn points. Schools compete against schools for the opportunity to win money they can contribute to a cause. The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 with whom the Beautiful Foundation will have an official partnership beginning in March.

Other AFP Task Force member organizations are Learning to Give, Community Partnerships with Youth, Inc., The 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of Indiana and others which can be found in your handout.

At the College/ University Level:

Two years ago, to provide training for those who may be poised to come into the fundraising profession or work for philanthropic causes, AFP created Collegiate Chapters. Collegiate Chapters are official AFP chapters run by and f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Each Collegiate Chapter is affiliated with regular AFP chapters with adult AFP members as mentors.

In addition to AFP'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ollege aged students, the American Humanics Program is a national alliance of colleges, universities and non-profits whose mission is to educate, prepare and certify professionals to strengthen and lead nonprofit organizations. American Humanics has academic programs in place at nearly 75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Humanics works with nonprofit partners to fill the workforce with well educated/ trained young people who are actively choosing to work at nonprofit organizations. They can be found at www.humanics.org.

As one last example, I mentioned parallel tracks at the beginning for Mr. Park Won Soon's work and the Beautiful Foundation, with Indiana University's Center on Philanthropy's predictions and the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then NSFRE's launch of its YIP programs. Another parallel course, just a few years later, in 1995 was some new research conducted by Roseanne Mirabella, Ph.D. and Naomi Wish, Ph.D., Co-Directors of the Center for Community Research and Engagement at Seton Hall University and funded by the W. K. Kellogg Foundation.

The Study is titled, University-Based Educational Programs in Nonprofit Management and Philanthropic Studies: A Ten Year Review and Projections of Future Trends. In a new paper Dr. Mirabella is about to publish, she writes,

"From the mid 1990s to the present, there has been a tremend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involved in the education of nonprofit managers. Currently, 240 universities and colleges provide courses in nonprofit management education across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ports on this growth through a compilation of the most recent data available from an electronic database accessible from the World Wide Web. The author maps the growth of the field over the past ten years by type of program: graduate (including Ph.D.), undergraduate, continuing education, and noncredit. Based on an analysis of developments and changes over the past ten years, the author will look towards the future of nonprofit management education and philanthropy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Dr. Mirabella and her colleage, Naomi Wish, Ph.D., conducted a ten year review of the number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with non-profit education programs at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s with delineation of the types of programs. A google search with her name or through the Seton Hall University site will show the results of the survey. We are at an especially exciting time in the evolution of the Youth Philanthropy Movement. Four years ago, Indiana

University's Center on Philanthropy devoted its annual Symposium to Youth and Philanthropy. People from 32 U.S. states and five countries attended. It was exciting for us all to meet so many other people interested in youth philanthropy and determined to see it succeed. At that point, we still had some concern about whether the values of giving and serving were being transmitted. But 9/11 had occurred with its tremendous outpouring from children and adults. Our national psyche changed and at the same time, pioneers of the Youth Philanthropy Movement, in coming together thanks to the interest of the eminent Center on Philanthropy, saw that we really had a ground swell of interest and enthusiasm for how to teach our children to be humane and to be civically engaged for the good of society.

Judith Nichols, Ph.D created a chart in your handout that shows four generations, their values and priorities. My parents generation, she suggests, was interested in the good ofthe whole. They were civically minded. My generation, called Baby-Boomers born after the second World War, Dr. Nichols says is more "me" focused than "we"focused. The next generation is interested in "us" she says and how we can fix our society. Justin the last few years, Judith Nichols newest projection is that the younger generation has the same values as their great grandparents but on a global scale thanks to the internet.

Bob Carter, CFRE, President of Ketchum, one of our country's largest fundraising consulting firms, is Chairman of the E-Philanthropy Foundation Board. Bob spoke recently in NY at the Harvard Club about globalization and that "the advent of the internet has had an incredible impact on the sights of the individual donor…..

The ability to connect donors, personally, with those they are serving is due in great part to the internet". I read that around 90% of the Beautiful Foundation's donors give via the internet. Bop connected the fact that communication is different than it was 20 years ago and so is philanthropy with e-philanthropy growing at a rapid pace.

In 2005, an estimated $4.5 billion was given online. Humanitarian relief in the Middle East topped $125 million and is climbing. All this money was raised in 30 days by the Internatinal Red Cross through the power of the internet to solicit and receive donations.

Where is the Movement today as opposed to four years ago: An important observation, however, was made by Irv Katz from the National Human Assembly in Washington, DC when he gave a keynote address at the Center on Philanthropy's Symposium. He noted that we were all in parallel play; as young children play before they become socially aware. My colleague, Pat Bjorhovde, CFRE, my

predecessor as chair of the AFP YIP Task Force, proposed there should be one umbrella organization under which all the Youth Philanthropy organizations could come together. Subsequently, t was determined that AFP would organize a second gathering so that we could move together from parallel play to collaboration.

We started planning the gathering about three years ago and finally, after all the planning, and thanks to the generosity of the Edyth Bush Charitable Foundation in Florida, next week-end, November 12 -14, 2006, 45 of us will meet in Winter Park, Florida at Rollins College' s ' s Center for Nonprofit Management, to take our enthusiasm and experience to a new level with an AFP convened Youth in Philanthropy Summit. Dwight Burlingame, Pat Bjorhovde and I will write a WhitePaper that we will be eager to share with all of you and ideally we will have ideas for a new community model for youth philanthropy collaboration and we will be eager to hear your ideas on this subject as well.

In the meantime, the experience of being invited to Seoul, to your Symposium has inspired me to suggest to my colleagues that our next Summit be international and with you as honored guests.

Thank you.

# 부록 4.

## Members of the AFP YIP Task Force

Members of the AFP YIP Task Force, from high level youth philanthropy organizations outside AFP include my esteemed colleague, Dwight Burlingame, Ph.D, from Indiana University's Center on Philanthropy who is helping Japan institute philanthropy education countrywide. Derrick Feldman represents the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 which is in nine countries including India and Indonesia and will begin its formal partnership with the Beautiful Foundation in March 2007. The League engages whole schools, whole districts, in philanthropic activities and lessons, for which they can earn points. Schools compete against schools for the opportunity to win money they can contribute to a cause. The League powered by Learning to Give will have an official partnership with the Beautiful Foundation beginning in March.

**Learning to Give:** An educational initiative that seeks to enhance and maintain a civil society, Learning to Give offers lesson plans, activities, and resources to educate youth about the power of philanthropy (sharing time, talent and treasure). Teachers, parents, youth workers, religious instructors, communities and students will find hundreds of valuable ideas.

**Community Partnerships with Youth, Inc.**:
Philanthropy, the thoughtful, ongoing, intentional giving of one's time, talent and treasure for the common good. Isn't this something that every youth can do! The Youth as Philanthropy set of materials help guide youth from age 6 to 18 on how to develop those important "habits of giving and serving."The material helps young people understand the meaning of consider their own values and gifts; and move into their communities operating from their hearts. Go to www.cpyinc.org to learn more about these dynamic materials and training opportunities or call 317-875-5756.

Community Partnerships with Youth, Inc. is also known as Leadership and Renewal Outfitters. They train leaders, help students explore youth work as a career, provide materials, "guide people to learn who we are and what we want to do", and write publications to help their participants stay connected.

The Youth Philanthropy Initiative of Indiana - YPII knows and admires the work of the Beautiful Foundation. It is a national network of over 40 organizations with the common goal of **engaging youth** in giving and serving. They say, "We like to say we help **grow lifelong philanthropists** who give their time, talent and treasure for the common good. In doing so, we encourage young Hoosiers to be aware, become educated and **actively involved** in philanthropy within their local communities.

We do this by:

- Promoting youth philanthropy through **partnerships and collaboration;**
- Supporting giving and serving among young people through **training, education and resources** and
- Sustaining youth philanthropic efforts in ways that **meet local community needs.**

www.ypin.org "

We have just this year learned about **Common Cents**—another organization that came about in 1991– **and the Penny Harvest**, in New York City, is a K–8 educational, not–for–profit organization that specializes in creating and managing service learning programs for young people. The most popular and best–known program is the Penny Harvest, the largest child philanthropy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The Ford Foundation, one of our country' s largest foundations has given Common Cents a major grant of over a million dollars to expand the program nationally. Common Cents programs include the Student Community Action Fund, their high school leadership council and Near Peer, their mentoring program. Their website is www.commoncents.org .

# 부록 5.

## Youth In Philanthropy Program

*of the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New Jersey Chapter*

*"The spirit of giving has its source in the heart."*

*Anonymous*

Program Goals

- To develop awareness of the human condition locally,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 To teach students about philanthropy and what it means in today's world;
- To inspire a sense of personal responsibility for activities that will further the common good and nurture a new generation of philanthropists.

Program Objectives

-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philanthropy that will enhance the K-8 Core Curriculum;
- To offer students an opportunity to apply what they learn in the classroom in a tangible community service and/or fund raising project they will select, plan and implement; to make a difference in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 Definition of Philanthropy
# Used by AFP-NJ YIP Program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defines philanthropy as **"the desire to help mankind," "benevolence toward the whole human family."** Its two roots, from the Greek philein "to love" and anthropos "man,"have been translated as **"love of humankind."**

For the purpose of AFP-NJ's Program, philanthropy is being defined as:

> *"Voluntary Action for the Common Good that can be expressed as voluntary giving, voluntary service and/or voluntary association to help others live a better life."*

| | |
|---|---|
| **Voluntary Giving** | Sharing money and/or material resources with others |
| **Voluntary Service** | Sharing time and talents (or work and wisdom) to help others |
| ***Voluntary*** **Association** | Gathering together in a group to address the problems of society, to fulfill the needs of society or to enhance the lives of others |

The definition was originally from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Indiana University

# History of AFP-NJ's YIP Program

In 1994, as its contribution to the annual celebration of National Philanthropy Day in November, the New Jersey Chapter of AFP, then NSFRE, with support from Bank of America, decided to encourag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to contemplate philanthropy. The Chapter initiated a contest for individual fourth grade students to present their ideas of philanthropy in an essay, a drawing or a song. The response was incredible. Teachers appreciated the importance of philanthropy in our culture, embraced the project and communicated excitement to their students.

In 1995, the YIP Committee recognized the need to provide teachers with resources for understanding and teaching about philanthropy and how it extends beyond general acts of kindness. Thanks to the continuing generosity of Bank of America, the program and the contest expanded to whole classes, or small groups within classes, rather than individual students, to make it even more meaningful to teachers and students, as well as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The motto, "Together We Can Make A Difference" was adopted. A special reception was held for all participating students, their teachers and families.

The Youth In Philanthropy (YIP) Committee developed a Teacher Resource Guide to help teachers introduce philanthropy in the classroom as its own subject or to integrate it into the existingcurricula. A key objective was to offer students the opportunity to design and implement a philanthropic project for a nonprofit organization, or organizations, in their own community, or the global community, and to have their choice of project(s) be based upon what they talked about and learned in the classroom. For the contest, they were asked to submit proposals for the projects they wanted to accomplish and then to complete them.

The 1996-1997 Program became purely education based. Fourth grades across New Jersey had the academic year to learn about philanthropy and to design and implement their projects. In May and June, 1997, Youth In Philanthropy Committee members with others from NJ-AFP, and Bank of America Managers, celebrated the accomplishmentsof classes that completed projects with special ceremonies at each school. The Chapter provided personalized certificates for each student that participated, a proclamation from then New Jersey Governor Whitman for the teachers and students and a gift for each school library.

With the 1997-1998 Program came innovations such as in-person, day long Teacher Orientation sessions and a page on New Jersey Public Television's website. By this point YIP had grown to include elementary grades from K-6. **In the Spring of 1998, the New Jersey Chapter's Youth In Philanthropy Program won the National Society of Fund Raising Executives' prestigious Founder's Award for**

**Public Service.** The award, which is presented to one chapter each year, is based on the:

- Abilit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eir employees and philanthropy
- Innovation and creative approaches to solving a problem and meeting needs in the community
- Imaginative use of available resources
- Strong evaluation component
- Potential as a model for replication by other organizations or groups

The Program's fifth anniversary was in 1998-1999. Schools with grades 6-8 asked to attend and were welcomed into the Program making it truly a program for all elementary school children, K-8, in New Jersey. The YIP Program created its own website that year, for the first time, and provided a toll-free number. In addition, YIP developed a relationship with Seton Hall University to provide teachers with Continuing Education Units (CEU's) for participation in the Teacher Orientation Sessions.

During the sixth year, 1999-2000, YIP sought to begin to tie the suggested methods and activities provided to teachers to New Jersey's Core Curriculum Standards and to involve at least 2,000-3,000 children and their educators in the Program each year. A partnership was forged with the Nonprofit Sector Resource Institute, a project of the Center for Public Service at Seton Hall University in New Jersey whereby teachers could earn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CEUs) for participation in AFP-NJ's YIP Program.

As part of the YIP Committee's continuing effort to fine tune and develop the Program, innovations in 2000-2001 included guest speakers from statewide non-profits at Teacher Orientation sessions, provision of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Professional Improvement Program (PIP) hours for teachers that participate in Teacher Orientation sessions with YIP as a registered service provider. In the Fall, YIP was invited to present at Fairleigh Dickenson University's first State-wide Character Education Conference and to participate in a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Conference. Also, YIP was invited to join a national Youth In Philanthropy Task Force. In 2001, Clara Barton School in Bordentown, NJ won a NJ Department of Education "Best Practices" Award for their Youth In Philanthropy projects.

Up until 2001, for six years, Bank of America, as a sole sponsor, made it possible for the Program to thrive and develop. In 2001, ETHICON joined Bank of

America as a major sponsor and offered invaluable ideas and introductions that helped YIP advance to a whole new level. The Program began to receive more publicity than ever especially for individual school projects across the State. Rotary International asked to collaborate for their elementary ReAct clubs. YIP was invited to present to the Boy Scouts, Mothers & More International and Virtua Health System's youth group, and to be evaluated as part of a Master's Thesis on Youth In Philanthropy curricula nationwide.

In 2002, YIP's Chair was invited to contribute a chapter about the New Jersey YIP program for a book on Youth In Philanthropy curricula, CREATING TOMORROW'S PHILANTHROPISTS – Curriculum Development for Youth, edited by Patricia O. Bjorhovde, CFRE and to participate in Indiana University's Center on Philanthropy's symposium on Youth and Philanthropy with representatives from 32 states and five countries including the USA. The New Jersey Chapter program issued over 3,200 certificates of recognition in 2002 to New Jersey students bringing the count to over 20,000 students that have gone through the program. Johnson & Johnson contributed financial and in-kind support for the program. YIP's Chair was offered the chairmanship of international AFP's Youth in Philanthropy Task Force. Youth In Philanthropy had truly begun to be an international movement.

In 2002-2003 and 2003-2004, Bank of America gave a grant for YIP to work with the New Jersey Department of Education to have philanthropy infused into revisions to the State's Core Curriculum Cumulative Progress Indicators. Also, YIP formalized its efforts to reach out to schools in New Jersey's poorest districts to help youth, often on the receiving end of the social structure, to understand their own potential and power to give back to their communities and make a difference for the common good.

The Tenth Anniversary of YIP was celebrated in 2003- 2004 with a special Fair on April 27, 2004 at the New Jersey Convention and Exposition Center. Over 500 students and over 200 adults participated in the day long event that included booths for each class to display the results of their philanthropy, the opportunity to view the booths of all the other schools, interactive games, discussion groups about philanthropy, lunch and two sing-alongs with noted singer/songwriter John Farrell
who wrote a special song for the occasion. It was a wonderful day that gave the children a sense of being part of something much larger than their ownclass, school or community; a Movement in our country of children working to make a difference for the common good.

**In Autumn 2004, New Jersey's YIP won AFP's Founder's Award for Public Service for a second time for its regular program and in recognition of 10th Anniversary Philanthropy Fair**

That same year, Washington Elementary, a NJ YIP school, nominated by the New Jersey Chapter, won international AFP's first Youth in Philanthropy Award in the K-12 category. It was especially exciting since the winning school is K-4 and does something philanthropic every day. Five children, their parents, school principal and teachers traveled to Baltimore, Maryland to receive the awar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ndraising.

Members of the Youth In Philanthropy Committee continue to train teachers, visit classes to speak about philanthropy under the program's Speakers-in-the-Schools program, and celebrate student accomplishments at the end of the school year. Committee members are volunteers that subscribe to the AFP Code of Ethics and who believe in the Donor Bill of Rights.

## Sample List of Past Student Sample List of Past Student AFP-NJ Youth In Philanthropy Projects Youth In Philanthropy Projects

- Whole school and individual class responses to September 11 ranging from fund raisers to purchase equipment and protective gear for fire fighters to collections of gloves, socks and long underwear, to water and food. Some schools collected teddy bears and other offerings of love for the children and families of victims. Several raised thousands of dollars for the American Red Cross and other relief funds.

- There was the same outpouring of support for victims of the Tsunami and Hurricane Katrina

- Service-learning with a local nursing home including: Sensitivity training sessions, gift-making activities, fund raising for the Nursing Home, visits with the seniors, interviews with residents that students wrote up, gifts of treats prepared by parents, and entertainment for the seniors by the students

- Help for babies with AIDS: One class learned how to crochet and made blankets for babies with AIDS; another collected baby food and disposable diapers for a hospital in New Jersey that has a special unit for babies with AIDS; then they designed and made quilts for babies with AIDS with the help of the PTA

- American Heart Association - Jump Rope for Heart. Students solicit sponsors who will provide contributions based on how long they jump rope. They jump as long as they are able.

- Three classes of fourth grade students wrote and illustrated beautiful oversized books for the Pediatric Unit of Deborah Hospital. Four to five students worked on each and included dedications in ten languages, with the alphabet of the languages, and a "meet the Author"section. The next year they secured donations of books, tapes and three tape players, read the books into the tapes and donated all to the Pediatric Unit at Deborah. In year three, they illustrated the books they had read and donated the framed illustrations to the same unit. The School won a DOE "Best Practices" award for their efforts

- Another school raised money to buy books from Borders for the Bristol-Myers Squibb Children's Hospital at Robert Wood Johnson University Hospital

- Raised money for the Institute for Children with Cancer and Blood Disorders in New Brunswick from ticket sales to a performance of an original opera they wrote, produced and performed after they did a workshop with the New York Metropolitan Opera.

- Raised money to restore the Swan Boat of an old lake that is being revitalized as a tourist attraction. They wrote persuasive letters to have Beanie Babies donated. They sold the Beanie Babies and donated the proceeds

- Collected car and truck loads of acorns for the New Jersey Forestry Service and planted saplings donated by the Forestry Service

- A penny drive for the Eagle Fund to adopt a pair of breeding eagles for a year

- A penny drive for a local animal shelter combined with other fund raising efforts

- Collections of towels, blankets, bleach and food for local animal shelters

- Several schools mobilized children, parents and faculty to work together to create Thanksgiving, Christmas and Easter baskets, with all the trimmings and gift certificates too, for less fortunate families. Table decorations were created for the local Community Senior Citizen Center.

- Toy collections for the Marine Corps Toys for Tots distribution, and for other distributing programs for children in foster care programs

-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crafted beautiful quilts for senior citizens from Buttonwood Hospital

- Senior friendship baskets for local seniors at a nearby home

- Valentines for Vets for the local Veterans' Hospital and other gifts for Veterans

- Students selected published literature, created poems, made puppets, wrote plays, and provided "hands-on"reading and writing materials to encourage love of reading for students at another school that did not have a school library, or the resources to buy books but wanted to create a library

- Weekly food collection for a local New Jersey soup kitchen that gives food to homeless people

- Year long collection of books for children in need for their "Sharing Books and Caring Program" along with personal outreach to less fortunate children at other schools and at Tomorrow's Children's Hospital

- Made Christmas tree ornaments and decorated Christmas trees at local senior homes; made valentine decorations and cards for residents; created personalized birthday cards for the residents and hospitality cards for new residents; made Easter baskets and filled them with treats for seniors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The Center on Philanthropy at the Beautiful Foundation)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연구와 조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부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 **기부문화의 토대 구축**

재단과 기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기부문화의 확산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 **기부관련 연구 활성화**

기부문화에 대한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활성화합니다.

- **비영리단체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비영리단체 실무자와 모금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비영단체의 사업 내실화**

아름다운재단을 포함, 비영리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합니다.

- **기부문화연구**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해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활동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시합니다.

- **기업사회공헌연구**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업문화에 적합한 한국형 지표를 개발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합니다.

- **기부관련 제도 및 세제 연구**

재단 및 기부와 관련한 법규, 기부확산에 장애가 되는 세제 및 제도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제도적 측면에서 기부문화 활성화에 접근합니다.

- **워크숍**

연구자, 모금전문가의 연구결과 및 경험을 공유합니다.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의 생활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기부와 관련된 주제들을 이슈화하며 대안을 찾습니다.

- **기부 및 비영리단체 관련 총괄**

비영리조직 운영과 모금에 관련한 책과 자료집을 출판합니다. 이러한 출판물을 통해 효율적인 비영리조직 운영이 되도록 돕고 모금의 전문성, 과학성을 높입니다.

- **교육 프로그램**

비영리 마케팅, 한국상황에 맞는 외국의 모금 기법, 모금업무 종사자의 체험 강의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비영리조직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아름다운재단 제6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 기빙코리아 2006

발행처 | 아름다운북
등록일 | 2006년 10월 25일 제300-2006-150호
발행일 | 2006년 11월 7일
발행인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외
기획 및 편집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주 소 | 110-260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3
전 화 | 02) 766-1004
전 송 | 02) 730-1243
웹사이트 | www.beautifulfulfund.org
표지디자인 | 오윤경
인 쇄 | 에이피커뮤니케이션 02) 2277-7813

ISBN 89-958799-1-2 94300
89-958799-0-4(세트)

값 10,000원